2020

기본연구 2020-01

#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연구진 이수인 · 전희진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think 전북연구원

기본연구 2020-01

#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Institute

**연 구 진**

| | | |
|---|---|---|
| 연 구 책 임 | 이 수 인 |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
| 공 동 연 구 | 전 희 진 |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 | 최 지 훈 |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관리 코드 : 19GI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연구요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2017년)에 비해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각 지역의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이 높다. 특히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시 지역보다 열악한 편에 속한다. 이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1인가구가 경제적 빈곤, 안전, 건강 등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촌 1인가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기초자료 구축 및 정책대응을 위한 자료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지역의 농촌 1인가구의 실태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농촌 1인가구 정책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농촌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염두에 두고 1인가구의 실태(가족관계, 이웃 및 사회적 관계, 경제적 문제, 신체적·정신적 건강, 안전 등)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 2. 주요 연구방법

❍ 연구는 크게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경우, 농촌의 전형적 특성을 가진 지역을 조사하고자 전라북도의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읍·면 단위의 1인가구를 조사대상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모집단을 대상으로 난수표를 부여하여 최종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마다 45부씩 450부를 배정하여, 2019년 9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영역은 크게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과 1인가구 형성원인과 장·단점,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여가활동, 생활 및 주거환경 등으로 구성되었다.

❍ 농촌 1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와 설문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요인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크게 1인가구 형성 사유,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농촌 1인가구로서 가지는 어려움, 노후의 희망 거주방식,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3. 설문조사에 따른 실태분석 결과

❍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촌 1인가구의 형성 이유는 이혼 및 사별이 가장 많았고 직장과 학교문제, 가족과 사는 게 불편함, 편의 및 자유를 위해서의 순서로 나타났고, 1인가구로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1인가구생활의 생활의 장점은 성별, 연령별 구분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여가시간 활용이었고, 단점은 외로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불안이 나타났다. 1인가구에 대해 경제적 차원 외에 정신적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외로움을, 여성은 경제불안을 더 많이 선택했다.

❍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는 차이가 분명했다. 60대의 자살생각이 높아 20~40대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검사에서도 성별간 유의한 차이는 없고 50대와 60대의 우울감이 커서 다른 연령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남성들이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아, 이 연령대 남성에 대한 정신적 케어에 관련 정책마련이 요청된다.

❍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이웃을 중요시했고, 20대가 이웃을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20·30대는 이웃과의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밀한 이웃관계 형

성을 원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농촌 노인 돌봄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매우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 여가생활 영역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친구'와 여가생활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가운데,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 이웃을 상대적으로 더 선택했고,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동료, 혼자, 동호회를 더 많이 선택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 가족주의 가치와 개인주의 가치를 살펴보면,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주의 점수는 개인주의 점수보다 낮았고, 특히 20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가족주의 성향이 점차 축소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적 영역에서 여성의 열세는 소득분야에서 뚜렷해지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높았다. 30대부터는 연령이 높을수록 저소득 분포가 확장되고, 특히 60대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직업적 불안정이나 실업 등도 있을 수 있지만,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보다는 용돈 등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60대에 빈곤층이 치우쳐 있고, 여성 비율이 높은 데다 임금의 성별 분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촌의 빈곤 문제에서 여성노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현재 거주하는 집은 '자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월세, 전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자가 및 무상 형태가 많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전세, 월세, 사글세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농촌 여성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점유가 높았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 및 사글세의 점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 현재 거주하는 집의 유형은 '단독주택'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호 주택유형의 성별 차이는 주거선택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여성들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주택 비중이 높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연립과 오피스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노인층의 주택 노후화에 따른 관리지원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교통접근성과 안전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고, 안전체감도는 폭력·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여성이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안전체감도는 폭력·범죄, 주택보안에 대해 60대가 더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이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미래 희망가구 형태에 대한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72.5%라는 다수의 1인가구원들이 현재와 같이 혼자 살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살거나 주거공동체를 희망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1인가구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를 지닌다. 분석결과, 남녀 모두 "오피스텔 형태로 1층의 친교·운동 위한 공동사용"을 가장 선호했고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이 방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과 청장년층이 함께하는 거주방식에 대해서도 40~60대에서 25% 내외의 선호가 있어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삶의 만족도의 주요 세부영역인 건강, 가계수입, 사회적 관계 등에서 20~30대, 40~50대, 60대의 순서로 만족도가 낮아졌다. 50대와 60대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과 연결해보면 농촌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및 정신건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객관적 소득수준이나 질병에 비해 혼인상태의 안정성, 마음을 터놓을 상대와 위급 시 도와 줄 사람이 있다는 인간관계의 안전성,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지와 주거환경의 안전성 등 주관적 인식이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4. 심층면접 분석결과

❍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에 설문지 조사결과로 알기 어려운 1인가구의 어려움과 욕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7명의 연구참여자들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주요 주제들은 1인가구 형성사유와 가족관계, 경제적 문제, 심리적 어려움, 이웃 및 사회적 관계, 문화·규범 차이와 기타 어려움, 노후의 삶과 주거형태, 현재 삶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등이다.

❍ 1인가구 형성사유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① 낭만적 결혼의 지연, 그리고 놓쳐버린 결혼 ② 경제적 안정 먼저, 결혼은 그 후 ③ 이혼으로 인한 홀로서기 ④ 사별로 인한 독거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에 따라 특징적인 가족관계와 이상적인 가족상이 나타났다.

① 낭만적 결혼의 유형에는 귀촌한 30대 1인가구들이 해당된다. 이 유형의 여성은 가족관계에서 자아중심적이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뚜렷하지만 가족에 대한 깊은 정서적 유대를 표명했다. 반면에 남성은 자

아중심적이고 자유주의성향이 뚜렷하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적 거리와 자기공간을 확보를 중요시한다. 낭만적 결혼의 지연이 길어지면서 결혼을 놓쳐버린 유형에서 남성은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살다 어머니가 떠난 후 외로움에 힘들어 하고 있다. 가족지향성이 강한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혼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화로 떠밀려 온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가족만들기의 전망은 상이한데 남성은 배우자를 만나고자 노력 중이고 여성은 결혼을 단념하고 친구들과 사회적 가족을 희망한다.

② 경제적 안정 먼저, 결혼은 그 후를 생각하는 유형은 사업의 성공이 우선적인 삶의 목표라서 스스로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결혼 할 생각이다.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사업을 성공해 보고자 온 힘을 다해 사업에 몰두한다는 점에서 강제된 생존지향형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 자신의 독자성에 대한 긍지 등은 자아중심성과 개성화가 뚜렷이 드러난다. 반면에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리기 싫어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가족중심적 생존지향형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이혼으로 인한 홀로서기에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해당되었다. 통계조사에서 비혼상태의 1인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가 이혼 및 별거였는데 그만큼 농촌사회에도 이혼이 흔하고 널리 퍼져 있다. 이 사례들은 대부분 가족지향의 생존지향적 개인화에 해당된다. 이 사례의 30~40대들은 자녀들이 삶의 이유이기는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자녀들과 떨어져 1인가구 생활을 한다. 자녀는 부모님이 돌본다. 이들에게 바람직한 미래는 돈을 많이 벌어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50대 여성은 이혼으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왔고 아이들이 삶의 이유이지만 노후에 요양원에 가는 것

이 아이들과 자신을 위해 좋은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이 사례에 속하는 60대 남성 또한 자식이 삶의 이유이지만 함께 살지 못해 노년에 자식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 대신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④ 사별로 인한 독거에는 70~80대 노년층이 해당된다. 이들은 사별로 인해 홀로 되고 자신의 경제활동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또한, 자녀들의 형편상 독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자녀들의 지원은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또한 가족중심적인 생존지향형 개인화 모습에 가깝다.

❍ 이혼여성들은 1인가구로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 구체적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거나 일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도 남성들은 일자리 구하기나 일자리에서의 차별적 경험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어려움의 결이 조금 다른 것이다. 귀촌인들 또한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1인가구이기에 우선 어려움을 버틸 수 있고, 자신들의 이상을 찾아 농촌으로 이주했으므로 씀씀이를 줄이고 상부상조를 통해 필요를 메꾸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있었다.

❍ 농촌 1인가구인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어려움은 외로움이었는데,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외로움의 문제를 호소했다. 여성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외로움을 달래는 데 비해 남성들은 일에 더 몰두하거나 알코올에 의지하였다. 1인가구, 특히 남성 1인가구들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이 요청된다.

❍ 이웃관계에서 귀촌한 30대나 40대 남성은 친하지도 서먹하지도 않은 관계를 추구한 반면 의식적 노력으로 이웃과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간 귀촌 여성도 있다. 사업을 위해 귀촌한 경우는 사업의 필요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자의식적으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선주민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생활의 자원을 넘어 삶의 끈이 되는 중요한 기반이고, 70대와 80대 노인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노년의 삶을 보호받고 있다.

❍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존재함을 확인했고, 전통적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 1인가구로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 위협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주택관리나 일상생활에서 돕는 손이 없어 겪는 불편함과 교통, 가로등, 도시가스, 병원 등 생활기반 시설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과 농촌지역에 살기에 적당한 주택 구하기의 어려움, 등이 이야기되었다. 특히 여성들은 가로등 부족으로 밤길의 무서움과 남성 점검원이나, 택배원이 남성일 경우 느끼게 되는 안전위협을 토로했다.

❍ 연구참여자들이 바라는 노후의 삶, 노후의 거주방식은 다양했다. 귀촌한 30대~40대들은 대부분은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 사회적 가족을 꾸리고 싶어했다. 반면에 이혼으로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30대와 40대의 여성들은 돈을 벌어 아이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편하게 안락한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했다. 이들에게 노후의 삶은 막연하고 먼 미래이다. 50대와 70대의 여성은 요양원을, 60대의 남성은 배우자를 꿈꾸나 여건상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여러 가지 보험을 노후의 대책으로 내놓았다.

○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드리고 생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혼자라는 외로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조건도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여부와 현재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 미래 전망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5.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정책 방향

○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행정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설계를 위해 1인가구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부서 배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1인가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다른 지역의 1인가구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요청된다.

○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에 대한 정책수립은 각각의 정책대상에 따라 분절적인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인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되 생애주기와 성별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세대간 연결가능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는 세대별, 성별 이질성이 큰 상황으로서, 1인가구의 여성들은 안전문제, 노인들은 돌봄문제, 50~60대 남성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1인가구의 안전문제나 생활의 불편은 1인가구이므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나타날 뿐 지역민들이 겪는 불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농촌지역의 노년층과 중장년층 경우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공동주택이 커뮤니티 케어의 전략지점이 될 수 있도록, 농촌형 공동주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촌의 삶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삶을 가치적 관점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 증대를 위한 주민 교육,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목 차 | Contents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4
   가. 1인가구 및 농촌지역 1인가구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 4
   나.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분석 ····· 5
   다. 1인가구 현황 분석 ····· 5
   라.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 6
3. 연구방법 ····· 6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6
   나. 설문 및 면접조사 ····· 7
4. 연구추진체계 ····· 8

Ⅱ. 이론적 배경 ····· 9

1. 1인가구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용어 정의 ····· 11
   가. 1인가구 정의 ····· 11
   나. 삶의 만족도 ····· 12
2. 1인가구 및 농촌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14
   가. 1인가구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 14
   나.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동향(연구보고서) ····· 26
3.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 38
   가.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 38
   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1인가구 정책 ····· 43

Ⅲ. 1인가구 현황 ····· 49

1. 전국 1인가구 현황 ····· 51
2.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 56
3. 향후 1인가구 추계 현황 ····· 63

Ⅳ.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 65

1. 농촌 1인가구 설문조사 ····· 67
   가. 조사개요 ····· 67
   나. 조사내용 ····· 69
   다. 분석결과 ····· 70
   라. 요약 및 시사점 ····· 129
2. 농촌 1인가구 심층면접 ····· 135
   가. 조사개요 ····· 135
   나. 조사내용 ····· 135
   다. 조사대상 ····· 136
   라. 농촌 1인가구의 삶에 대한 분석 ····· 139
   마. 요약 및 시사점 ····· 193

Ⅴ. 논의 및 정책방향 ····· 199

1. 연구내용 요약 및 논의 ····· 201
2. 농촌 1인가구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 207

참고문헌 ····· 209

부표_범주형응답 교차분석표 ····· 219

부록_설문지 ····· 233

#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26
〈표 2-2〉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 39
〈표 2-3〉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안전 지원 정책 ····· 40
〈표 2-4〉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건강/돌봄 지원 정책 ····· 41
〈표 2-5〉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44

〈표 3-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7) ····· 51
〈표 3-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17) ····· 52
〈표 3-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7년) ····· 54
〈표 3-4〉 시도별 가구 변화 추이(2000~2017) ····· 55
〈표 3-5〉 전북 일반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7) ····· 56
〈표 3-6〉 전북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17) ····· 57
〈표 3-7〉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7년) ····· 59
〈표 3-8〉 전국 및 전북의 1인가구 혼인상태 비교(2017년) ····· 60
〈표 3-9〉 전북 시·군별 가구 변화 추이(2000~2017) ····· 62
〈표 3-10〉 전국과 전북의 가구원 수 규모 추세(2000~2025) ····· 63

〈표 4-1〉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촌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 70
〈표 4-2〉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촌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 71
〈표 4-3〉 1인가구 형성이유 ····· 72
〈표 4-4〉 1인가구 생활 만족도 ····· 73
〈표 4-5〉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1-2순위) ····· 74
〈표 4-6〉 1인가구 생활의 장점(1-2순위) ····· 76
〈표 4-7〉 1인가구 생활의 장점(1위~3위) ····· 76
〈표 4-8〉 1인가구 생활의 단점(1-2순위) ····· 77
〈표 4-9〉 1인가구 생활의 단점(1위~3위) ····· 78
〈표 4-10〉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 78

〈표 4-11〉 지난 6개월간 자살생각·경험 ····· 80
〈표 4-12〉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 ····· 81
〈표 4-13〉 병원방문 빈도 ····· 82
〈표 4-14〉 도구적 지지 현황 ····· 83
〈표 4-15〉 구급약품 접근성 ····· 85
〈표 4-16〉 가족주의 및 개인가치에 대한 견해 ····· 87
〈표 4-17〉 고민상담 대상 ····· 88
〈표 4-18〉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 ····· 89
〈표 4-19〉 가족돌봄(양육/간병/가사 등) 수행 ····· 91
〈표 4-20〉 이웃의 중요도 ····· 92
〈표 4-21〉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 93
〈표 4-22〉 주민참여활동 빈도 ····· 94
〈표 4-23〉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중복응답) ····· 95
〈표 4-24〉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 96
〈표 4-25〉 사회단체 활동 참여(중복응답) ····· 97
〈표 4-26〉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 ····· 98
〈표 4-27〉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1-2순위) ····· 99
〈표 4-28〉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1위~3위) ····· 99
〈표 4-29〉 직업별 경제활동 현황(중복응답) ····· 100
〈표 4-30〉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 ····· 101
〈표 4-31〉 비경제활동 사유 ····· 102
〈표 4-32〉 월평균 소득분포 ····· 103
〈표 4-33〉 월평균 지출액 ····· 105
〈표 4-34〉 생활비 지출항목(1-2순위) ····· 106
〈표 4-35〉 생활비 지출항목(1위~3위) ····· 106
〈표 4-36〉 생활비 마련 방법 ····· 107
〈표 4-37〉 주관적 계층의식 ····· 108
〈표 4-38〉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 109
〈표 4-39〉 여가시간 충족도 및 미충족 사유 ····· 111
〈표 4-40〉 향후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1-2순위) ····· 112

〈표 4-41〉 향후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1위~3위) ····· 112
〈표 4-42〉 주택의 점유형태 ····· 113
〈표 4-43〉 주택의 유형 ····· 114
〈표 4-44〉 거주지 선택이유(1-2순위) ····· 115
〈표 4-45〉 거주지 선택이유(1위~3위) ····· 116
〈표 4-46〉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 116
〈표 4-47〉 거주지역 만족도 ····· 118
〈표 4-48〉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 119
〈표 4-49〉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 ····· 120
〈표 4-50〉 범죄에 대한 취약성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 121
〈표 4-51〉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 ····· 123
〈표 4-52〉 농촌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27
〈표 4-53〉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1인가구 특성 ····· 136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3-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7) ····· 52
〈그림 3-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구성비 추이(2000~2017) ····· 53
〈그림 3-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7년) ····· 53
〈그림 3-4〉 전북 일반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7) ····· 57
〈그림 3-5〉 전북 1인가구 성별 변화 추이(2000~2017) ····· 58
〈그림 3-6〉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7년) ····· 59
〈그림 3-7〉 전국 및 전북의 1인가구 혼인상태 비교(2017년) ····· 60
〈그림 3-8〉 전북 시군별 1인가구 비중(2017년) ····· 61
〈그림 3-9〉 전국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형(2000~2030) ····· 63
〈그림 3-10〉 전북 1인가구 변화 추이(2000~2025) ····· 64
〈그림 3-11〉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2015 vs 2045) ····· 64

〈그림 4-1〉 1인가구 형성이유 ····· 72
〈그림 4-2〉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 73
〈그림 4-3〉 주요 관심사 종합(1위~3위) ····· 75
〈그림 4-4〉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 79
〈그림 4-5〉 지난 6개월간 자살생각·경험 ····· 80
〈그림 4-6〉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 ····· 81
〈그림 4-7〉 병원방문 빈도 ····· 82
〈그림 4-8〉 도구적 지지 현황 ····· 84
〈그림 4-9〉 구급약품 접근성 ····· 85
〈그림 4-10〉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견해 ····· 87
〈그림 4-11〉 고민상담 대상 ····· 88
〈그림 4-12〉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 ····· 90
〈그림 4-13〉 가족돌봄 수행 ····· 91
〈그림 4-14〉 이웃의 중요도 ····· 92
〈그림 4-15〉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 93

〈그림 4-16〉 주민참여활동 빈도 ····· 94
〈그림 4-17〉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중복응답) ····· 95
〈그림 4-18〉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 96
〈그림 4-19〉 사회단체 활동 참여(중복응답) ····· 97
〈그림 4-20〉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 ····· 98
〈그림 4-21〉 직업별 경제활동 현황(중복응답) ····· 100
〈그림 4-22〉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 ····· 101
〈그림 4-23〉 비경제활동 사유 ····· 102
〈그림 4-24〉 월평균 소득분포 ····· 104
〈그림 4-25〉 월평균 지출액 ····· 105
〈그림 4-26〉 주관적 계층의식 ····· 108
〈그림 4-27〉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 110
〈그림 4-28〉 여가시간 충족도 및 미충족 사유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 111
〈그림 4-29〉 주택의 점유형태 ····· 113
〈그림 4-30〉 주택의 유형 ····· 114
〈그림 4-31〉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 117
〈그림 4-32〉 거주지역 만족도 ····· 118
〈그림 4-33〉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 119
〈그림 4-34〉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 ····· 120
〈그림 4-35〉 범죄에 대한 취약성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 121
〈그림 4-36〉 전반적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 ····· 124
〈그림 4-37〉 농촌 1인가구 정책영역 ····· 136

# 1 장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2017년)에 비해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31.2%), 각 지역의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이 높다 (33.8%). 특히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8.9%로서 시 지역보다 열악한 편에 속한다. 1인가구는 경제적 빈곤, 안전, 건강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하므로 전북의 도시지역보다 농촌 1인가구가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농촌 1인가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기초자료 구축 및 정책대응을 위한 자료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17년 전국 1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 대비 급증하여, 28.6%에 이르고, 가구형태중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변화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2000년 1인가구 비중이 17.4%였으나, 2017년 31.2%에 이르며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 1인가구의 급증은 비혼 선택의 증가, 청년 실업 증가에 따른 소득부족으로 인한 결혼 지연, 이혼율 증가, 고령화로 인한 독거 노인가구 증가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1인가구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각하다. 각 지자체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의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는지, 나아가 1인가구 유형의 상이성에 따른 특징을 파악,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특히, 농촌의 경우 독거노인의 문제와 청년 세대의 새로운 공동체 형성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 1인가구 구성의 원인별, 성별, 지역별, 세대별 격차에 따른 삶의 만족도 및 정책 요구가 다르므로, 이를 분석하여 1인가구 정책의 실질적 기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 2017년 전북 1인가구는 227,6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2%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시 지역 1인가구는 181,360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79.7%를, 군지역은 46,240가구로 20.3%를 차지한다.

- 전북지역은 고령화율이 전국 3위이고, 고령화는 도시보다 농촌지역, 시 지역보다 군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농촌지역 1인가구는 외견상 독거노인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농촌 1인가구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할 수 없다. 전북 농촌은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만 2017년 기준 귀농인구가 경북, 전남에 이어 3위에 이르러 농촌지역 1인가구 청장년층(20~50대)의 비율은 30%(순창군)에서 59.2%(완주군)까지 큰 차이를 보이며, 노년층과는 다른 세대 집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나아가 노인층의 경우에도 성별 차이분포 차이가 커서 그에 따른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순창군의 경우, 여성 1인가구의 83.7%가 노년층인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1인가구의 22.9%가 노년층이고, 고창군 역시 여성 1인가구의 82%가 노년층인데 비해 남성 1인가구의 22.7%가 노년층으로 성별 구성비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농촌 1인 가구의 세대별, 성별 특성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의 성별, 세대별 특성이 반영된 실태와 1인가구로서의 어려움, 삶의 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욕구를 이해하여, 실질적인 정책제안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 가. 1인가구 및 농촌지역 1인가구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분석

○ 1인가구의 특성과 취약성, 농촌 지역 및 농촌 1인가구 관련 연구 분석

- 1인가구의 등장 배경과 다양한 1인가구의 특성과 취약성을 살펴보기 위해, 1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리적 분포, 경제적 조건, 사회적 관계, 주택문제, 그 밖의 1인가구의 취약성 문제 등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1인가구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분석한다.
- 농촌 1인가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농촌 1인가구를 포함하는 농촌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다.
- 국내 1인가구 및 농촌지역 1인가구 문제를 포함하는 연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조사한다.

## 나.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분석

❍ 국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분석

-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건강과 돌봄, 고용 및 경제활동 지원 정책 등을 분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타시도 1인가구 지원정책 사례, 전라북도 1인가구 및 농촌지역 지원정책을 검토한다.

## 다. 1인가구 현황분석

❍ 전국 1인가구 현황

- 1인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28.6%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 2000년과 2017년의 1인가구의 성별 · 연령대별 구성을 비교해본 결과, 남성은 20~30대 청년층, 여성은 60대 이상의 노년층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기준, 1인가구 변화추이를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전체 가구의 32.2%가 1인가구로 나타났고, 이어서 경북 31.9%, 전남 31.6%, 대전 31.5% 순이다.

❍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 전라북도의 2000년과 2017년 1인가구 성별・연령대별 구성을 비교해본 결과 남성은 20~30대 청년층의 구성비가, 여성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과 전라북도 1인가구의 혼인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전국은 미혼이 가장 많은 반면, 전라북도는 사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인가구의 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청・장년층이 많은 것에 비해 전북의 1인가구 구성에서는 노년층의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은 모든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향후 1인가구 추계 현황

-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 · 도 편: 2015~2045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된 가구 유형이 1인가구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라.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 농촌 1인가구 설문조사 통한 실태 및 삶의 만족도 분석

- 전북 농촌지역 1인가구 형성사유와 지속에 대한 입장, 인구학적 특성,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치관 변화, 소득 및 일자리, 여가생활, 생활 및 주거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 분석을 진행한다.
-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실태조사에 나타난 중요한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 분석은 세대 간, 성별 간 차이에 주목하여 진행된다.

❍ 농촌 1인가구 심층면접 통한 실태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분석

- 농촌 1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와 설문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맥락 파악을 위해 면접을 시행한다.
- 성별 격차, 세대 간 차이, 귀촌 여부 등에 주목하여, 1인가구 형성사유, 개인의 삶과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1인가구로서의 어려움, 노후의 주거방식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참여자들의 현재 삶에 대한 평가 및 미래 삶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고, 가치와 규범 변화, 정책 욕구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 1인가구 및 농촌 1인가구에 대한 학술논문과 정책보고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정책 등 관련된 국외 및 국내의 선행연구들과 자료들을 검토한다.

- 1인가구 및 농촌 1인가구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한 후, 전라북도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1인가구 실태 및 삶의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설문조사의 결과를 심도 있게 보완하고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맥락을 파악하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 나. 설문 및 면접조사

### 1) 설문조사

○ (조사대상)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를 조사하기 위해 농촌의 전형적 특성을 가진 지역을 조사하고자, 전라북도의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읍·면 단위의 1인가구를 조사대상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설정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난수표를 부여하여 최종 10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마다 45부씩 배정하여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 지역별 1인가구 특성의 영향으로 성별과 연령 변수의 1인가구가 과소 또는 편중 표집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당 20대~60대 최소표본을 각 9명씩 하여 성별비율을 고려하도록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조사는 2019년 9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 (조사방식)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응답이 원활한 20~50대 응답자는 직접 기록하게 하여 바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60대 응답자는 조사원이 1:1로 직접 문항을 읽어준 후 기록하여 조사하였다.

### 2) 면접조사

○ 농촌 1인가구 대상 심층면접 실시

- 전북 군부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1인 농촌가구를 대상으로,각 연령대(20대~80대)별로 가능한 한 2인씩을 선정하고자 노력하면서, 모두 17명을 심층면접하였다.

- 성별과 세대, 귀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1인가구 형성 사유, 가족과의 관계, 이웃 및 사회적 관계, 일자리나 경제적 문제 등 1인가구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미래의 희망 주거형태,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특히 가족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와 1인가구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미래 돌봄 관련 이상적인 주거형태와 미래 삶에 대한 기대 등을 질문하였다.

❍ 심층면접 조사기간 : 2019년 10월 21일 ~ 2020년 1월 15일

## 4. 연구추진체계

| 단계 | 연구방법 | 연구내용 |
|---|---|---|
| 1 단계 | - 선행연구 검토<br>- 관련 연구보고서 검토 | - 1인가구, 삶의 만족도 개념 검토, 연구방향과 범위 및 연구내용 기획 |
| 2 단계 | - 타 시도 1인가구 지원정책 검토<br>- 조례 및 관련 법규, 관련 중앙부처 싸이트 검토<br>- 통계자료( 통계청) 재분석<br>- 1인가구 및 농촌지역 관련 실태조사 및 삶의 만족도 설문지 검토 | - 1인가구 지원정책 검토<br>- 전북 1인가구 및 농촌1인가구 현황분석<br>- 전북 농촌1인가구 표집대상 확정<br>- 전북 농촌1인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br>- 전북 농촌1인가구 심층면접 내용 확정 |
| 3 단계 | - 농촌지역의 1인가구 대상 설문지 조사<br>- 농촌지역의 1인가구 대상 면접조사 | - 설문조사결과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br>- 농촌 1인가구의 실태 파악 및 정책욕구 분석<br>- 심층면접 통해 농촌 1인가구를 통해 가족관계 변화, 대안적인 거주형태, 삶의 만족도 등 파악<br>- 농촌 1인가구 지원 방향 |
| 4 단계 | - 전문가 자문회의 | - 농촌 1인가구 실태 및 삶의 만족도 분석 내용 정리 및 최종보고서 작성<br>- 논의 및 결론, 정책방향 제시 |

# 2 장

# 이론적 배경



1. 1인가구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용어 정의
2. 1인가구 및 농촌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 Ⅱ. 이론적 배경

## 1. 1인가구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용어 정의

### 가. 1인가구 정의

○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1인가구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배우자가 없는 비혼상태의 독신가구 혹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이민홍 외, 2015; 노경혜, 2018).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1인가구를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로 정의하면서 연구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노경혜, 2018).

○ 통계청이 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1인가구 역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나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된다(통계청 홈페이지).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장이나 자녀의 유학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1인가구는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지칭한다(홍승아, 2017).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조례에서도 특정집단(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노경혜, 2018). 즉, 주거가 독립되고, 동거인이 없으며 혼자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1인가구로 보는 것(이준우·장민선, 2014)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1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구”로 1인가구를 규정한다.

## 나.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라는 용어는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엄밀한 개념적 정의나 이론적 기반을 갖고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에서 상이한 기준에 따라 개념화되어 왔다(한준, 2015). 예컨대 개념차원에서 삶의 만족도가 개인적 욕구의 충족상태를 지칭하는지, 개인적 능력과 선택 기회의 충족 여부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다면, 측정차원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감인지 객관적인 조건에 따른 평가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삶의 만족도는 초기에는 복지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표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문승태·김소라, 2012; Meeberg, 1993). 객관적 지표를 중요시하는 입장은 사회지표는 사회정책을 안내해야 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문제의 실태와 그 문제해결 노력의 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한준, 2015; Veenhoven, 2002).

○ 반면에 주관적 지표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삶의 만족도는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되는 것이므로 보통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준, 2015). 일정한 경제적 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행복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Kahneman & Deaton, 2010), 물리적 조건이 어느 정도 만족되고 나면 주관적 조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비중이 더 커진다(권혜선, 2018; 이현송, 1997). 경제개발이 일정 정도 수준을 넘어선 국가들(우리나라 포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의 연구들은 객관적 조건들에 행복감이나 만족감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들을 추가하여 설명력을 증대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 역시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체계 및 그들의 목적, 기대, 표준, 관심사 등과 관련하여 삶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위치이며,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독립의 수준, 사회적 관계, 그리고 환경 특유의 양상에 대한 그들의 관계 등에 의해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 받는다”고 규정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 이는 삶의 중요 측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을 중요시하는 주관적 평가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경향 역시 삶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개인의 주관적 인지나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삶의 주관적 차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이수인·유지영, 2018).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삶의 객관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 주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심리적 안녕,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Efklides et al., 2003; 정미영·심미영, 2009).

❍ 이러한 평가방식은 삶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주관적 평가이지만 중요한 삶의 사회적, 객관적 조건들을 평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만족도를 논의할 때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기초적인 생활조건(식량, 건강, 안전, 주거 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 인지가 종종 불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동시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를 “사회·환경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김보현·안영선, 2008).

## 2. 1인가구 및 농촌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가. 1인가구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 1) 1인가구의 등장 배경

○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1인가구가 27.2%로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2017년에는 28.6%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4인 가족이 중심을 이루던 가구형태에서 1인가구가 전형적인 가구로 변화한 것은 거시적인 사회변화,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를 반영한다. 우선 1인가구의 증가를 가져온 거시 사회적 변화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과학기술의 진전에 따른 정보화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진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시장주의가 팽배하게 하였고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상품관계로 대체시키고 시장이 가족영역과 기능을 압도하게 만들었다(이명진 외, 2014).

○ 이에 따라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규범의 해체가 야기되면서 혼인연령의 상승과 비혼율 증가, 출산율 감소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기관리와 사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화가 진행되었다(Boltanski & Chiapello, 2005, 김정훈 2015 재인용). 여기서 '개인화'란 선택의 자유를 충족하는 독자적인 개인이 아니라 지구화 등의 환경 속에서 제도에 귀속되지 못하고 사회변화와 경제불안의 위기를 개인의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 개인의 상태를 지칭한다(김혜경·이순미, 2012에서 재인용).

○ 1인가구는 이처럼 신자유주의화, 개인화의 진전이라는 커다란 사회구조적, 문화적 변동의 흐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 1인가구는 산업화시대의 전형적인 가족형태인 핵가족을 대체하며 지배적인 가구형태가 되었다. 서구 북유럽 4개국은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40%를 넘어서고, 일본은 33.3%, OECD 34개국 국가평균은 30.7%에

이르고 있다(데일리팝, 2017.4.27, 김수정 2019에서 재인용). 한국사회의 1인가구 증가현상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해 왔다. 2017년 현재 28.7%를 차지하는 1인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가구의 양태로 자리잡았는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그러나 외견상의 유사성과 달리 한국사회는 서구와 달리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개인화'의 특성에서도 차이를 가진다고 주장되고 있다. '개인'을 기본단위로 진행된 서구의 근대성과 달리, '가족'을 기본단위로 전개된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는 개인화 과정에서 개인주의의 정신적·문화적 가치의 형성과 무관하게 여전히 가족의 가치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를 낳았다(장경섭, 2014, 2017; 김수정 2019에서 재인용).

○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가르켜 일부 학자들은 가족지향적 개인화, 가족주의적 개인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김혜경, 2013). 구조 변동 속에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변화에 주목하는 개인화 논의에서 가족과 개인의 관계방식에 주목하는 연구들(김혜경, 2013; 심영희, 2011,2013; 이순미, 2014)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는 1인가구의 증가 현상은 신자유주의의 진행과 개인화라는 거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변화와 가치 및 규범의 양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서구와는 결이 다른 한국 사회의 변동양상을 내포하므로 그것의 구체적 양상과 특성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요청하고 있다.

○ 본 연구는 1인가구 등장의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1인가구가 지닌 다양성, 이질성에 주목하며 전북지역 농촌 1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1인가구 및 농촌 1인가구에 대한 국외연구 동향

❍ 서구에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등장함. 초기의 연구는 1인가구의 대두와 증가를 목격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들을 규명하고 시계열적으로 변화 양상을 알아보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Koesoebjono, 1984; Writte & Lahmann, 1988; Kaufman, 1994). 2000년대 들어서는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하거나 1인가구의 원인과 결과, 1인 가구 내에서의 다양성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Ogden & Hall, 2000; Wulff, 2001; Halll & Ogden, 2003; 이명진 외, 2014 재인용).

❍ Benntt & Dixon(2006)은 영국의 1인가구를 연구하며 1인가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와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1인가구가 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1인 가구가 빈곤과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1인가구의 생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노동 연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실직해 있거나 휴직 상태이기 쉽다. 다인가구 사람들은 적어도 한 사람은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고나 실업에 대해 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Benntt & Dixon, 2006). 1인가구, 특히, 남성 가구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우며 건강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Benntt & Dixon, 2006).

❍ Chandler, Williiams, Maconachie, Collett & Dodgeon(2004)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1971년, 1981년, 1991년 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생애기간에서 1인가구로 살게 되는 기간 및 젠더 간의 독거의 가능성과 지속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단 혼자 살기 시작하면 계속 독거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독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데, 독거는 남성집단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Chandler et al, 2004).

○ Ogden & Hall(2000)은 영국, 웨일즈, 프랑스에서 1인가구의 증가는 유럽전체의 가구변화라는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인가구가 연령에 따라 지리적 분포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대도시 지역에서 근로 연령대의 청년 1인가구가 더 많이 나타난다면, 노년층 1인가구 분포는 더 다양하여 시골지역과 전통적인 은퇴자 지역들에서 특정한 집중성이 존재한다. 이들에 따르면 1인가구 수의 증가는 이혼과 비혼의 증가 및 고령자 증가로 인한 인구의 구성적 변화, 특히 청년층의 독거경향이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청년여성보다 청년남성들이 혼자 사는 경향이 있지만 청년여성들이 이들을 따라잡고 있으며, 이 여성들은 청년 남성 1인가구들에 비해 상층의 사회계층들에 더 많이 소속되어 있다(Ogden & Hall, 2000).

○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1인가구가 세계화나 개인화, 가족구조의 변화와 같은 거시사회적 변동의 맥락에 위치하는 것으로 다루는 특징을 보이며 1인가구가 국가, 지리적 특성, 형성원인, 나이, 성별, 사회계층 등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면서 1인가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구유형으로서 인구사회적 특성, 주거문제, 가구 형성의 미래, 소비와 사회적 관계, 소속감과 공동체 관계, 삶의 구성양식의 변화, 빈곤, 건강, 사회정책 등을 주제로 연구주제와 영역이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다(Bennett, & Dixon, 2006; Gram-Hassen et al, 2009; Jamieson & Simpson, 2013; Yeung & Cheung, 2015).

○ 한편, 농촌 1인가구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해외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1인가구에 대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농촌 1인가구의 모습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해외연구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연구는 “홀로 살기:

아시아의 1인가구(Living alone: One-person households in Asia)" 이다(Yeung & Cheung, 2015). 이 연구는 아시아에서 결혼지연, 비혼증가, 이혼증가, 지리적 이동성 증가 등으로 인해 홀로 사는 젊은 도시의 성인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1인가구가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농촌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농촌지역 1인 노인가구의 증가 또한 사별한 여성노인이 많다는 점과 함께 아시아적 특성으로 언급된다. 이와 함께 아시아의 또 다른 독특한 특성으로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상당 부분이 가까운 곳에 자녀나 친척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있는 일본 농촌 노인 연구-"농촌읍에 독거하는 노인들의 일상활동, 무기력,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Relationship amo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Apath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a Rural Town)"(Yamashita, Iijima, & Kobayashi, 1999)는 96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건강, 수입, 나이, 직업유지,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밝히고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인지적 손상정도나 일상생활 활동의 정도에 의해 영향받기보다 주관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 Routasalo, Savikko, Tilvis, Strandberg, & Pitkälä(2006)의 "고령층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접촉과 관계성-인구기반 연구(Social contacts and Their Relationship to Loneliness among Aged People - A Population-Based Study)"는 핀란드의 도시 및 농촌 노인들 6,7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39.4%가 외로움을 경험하는데 도시보다는 소도시나 농촌지역 노인들이 더 외로움을 느꼈고, 주로 홀로 사는 사람들, 여성이나 과부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Fengler & Jensen(1981)의 "도시 및 비도시 노인의 생활만족도 예측요인으로서의 인식 및 목표조건(Perceived and Objective Conditions As Predictor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Urban and Non Urban Elderly)" 연구 역시 유사한 결과를 언급한다. 이 연구는 노스웨스턴 버몬트 주의 4개 카운티에서 도시 노인과 비도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양자들 간에 객관적인 차이는 거의 없으나 비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객관적 조건보다는 지위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삶의 만족도를 더 잘 예측하는 변수로 드러났다.

❍ Glasgow & Beale(1985)의 미국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연구(Rural Elderly in Demographic Perspective)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비도시 지역의 노령 인구는 남쪽과 북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대도시 지역보다 농촌과 소도시에서 노인 비율이 높고 노인 비율이 높은 시골 소도시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빈곤은 도시 노인들 사이에서보다 농촌노인들에서 훨씬 더 만연해 있고, 부적절한 주택의 문제와 통신 문제가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농촌노인들은 도시 노인들보다 만성적인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진단과 진료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 이처럼 농촌지역과 소도시에서 특정 서비스를 보다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의 노인들은 농촌지역과 소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표현했다. 또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하는 노인들은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비이주 노인 인구보다 더 부유하고, 비도시권에서 다른 비도시권으로 이동하는 노인들보다 더 부유한 경향이 있다.

❍ 선행연구들은 농촌지역에 노인, 특히 사별한 여성노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들은 외로움을 느끼며 도시노인들과 비교해 주택이나 편의시설 등 객관적인 삶의 조건은 열악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농촌노인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나 지역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객관적 조건보다 스스로의 지위나 환경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 3) 1인가구 및 농촌 1인가구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

○ 한국사회에서는 2000년대 들어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배우자 없이 비혼상태로 생활하는 독신가구 및 독거노인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주로 이들의 경제상태와 그것의 표출적 측면인 소비양태 등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성지미·이윤정, 2001; 심영, 2002; 여윤경, 2003; 윤소영, 2002; 이윤정·김순미, 2004). 특히,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문제와 주택수요,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이지순 외, 2002; 권주안 외, 2007; 조주현·김주원, 2010). 일부 연구는 여성 1인가구, 사별 독거노인, 남성 1인가구 등 1인가구 가운데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었다(송유진, 2007; 정혜정·김태현·이동숙, 2000; 차경욱, 2006).

○ 비혼집단과 기혼집단의 시간사용과 여가활동에 대한 비교연구는 독신가구의 경우 일에 몰두하거나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적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윤소영, 2002). 독신가구 생활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30대 남성 독신가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40대 여성독신가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심영, 2002; 박은미 2008에서 재인용). 남성 1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평균소비성향이 높았으며,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경제적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함을 드러냈다(차경욱, 2006).

○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들은 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건강, 경제적 빈곤, 자살생각 등과 같은 정신적·정서적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김기태·박봉길, 2000; 김행신·이영호, 1998; 남기민·정은경, 2011; 석재은, 2007; 이지숙, 2009). 반면에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가구에 속한 노인들에 비해 1인가

구의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건강상태나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음을 보여주며 노인 단독가구가 반드시 열악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송유진, 2007).

○ 비교적 최근에는 서울이나 전국 단위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유형별 공간적 분포를 다루거나 유형별 특성을 다루는 경향이 등장하였다(변미리 2011; 신상영, 2010; 이희연 외, 2010; 이명진 외 2014에서 인용). 변미리(2011)는 서울시 1인가구를 분석하면서 1인가구의 주거분포상의 특성을 지적하고 1인가구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공간분포적 특성에 따라 골드세대, 불안한 독신자, 산업예비군, 실버 세대 등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골드세대가 전문직, 화이트 칼라 중심의 30~40대로 이들은 개인주의 삶과 사회적 성취, 선택으로서의 결혼관을 지닌 집단으로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는 도시문화의 형성자들이라면, 불안한 독신자 집단은 30대 후반, 40~50대의 혼자 사는 독신자들이다. 이들은 이혼율 상승, 기러기 가족, 중년실업 문제가 중첩된 1인가구들이다(변미리, 2011). 산업예비군 집단은 대학가나 고시촌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이고, 실버세대의 경우 독거노인으로 지칭되는 집단의 경우 낮은 수입, 주거불안정 등으로 사회정책적 보호 대상이고 경제력이 있는 고령 1인가구는 실버산업의 주 대상이 되는 집단이다(변미리, 2011).

○ 이명진 외(2014)는 1인가구의 등장을 개인화의 큰 흐름 속에서 파악하면서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1인가구를 분석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연대와 고립, 1인가구의 정신건강, 생활양식 등 1인가구의 유형별 특성과 함께 전반적인 1인가구의 양태를 규명하였다(이명진 외, 2014). 1인가구의 형성원인으로서 20대는 취업과 교육, 30대는 취업, 40대와 50대는 이혼, 60대의 경우는 사별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는 사회적 연대와 고립 현상이 두드러진 집단으

로서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 슬픔을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고 식생활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인해 소극적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이명진 외, 2014).

○ 이밖에 1인가구의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관심에 따른 특정한 특징에 집중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청년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사례, 주거여건 개선 정책, 비혼과 1인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박미선, 2017; 조에스더·안세윤, 2018; 호정화, 2014)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나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나 범죄예방, 법제적 대응방안, 여성노인 1인가구의 실태 및 정책개선(송영신, 2015; 왕로·홍창기, 2018; 장민선, 2015), 중년층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임유진·박미현, 2018)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 이처럼 1인가구에 대한 연구범주와 연구주제가 다양화되면서 농촌지역 1인가구에 대한 연구 또한 등장하였다. 하지만 농촌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아직 특수한 주제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주제나 대상에서 종합적 특성과 다양성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단독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으면서 주택의 질적 수준이 열악함을 규명했고(최명규, 2001), 농촌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클수록 고독감이 낮아졌으며(오영은·이정화, 2012),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체적 건강의 불리함이 상당 부분 극복되었다(김민성 외, 2018). 가족이나 친구, 사회망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남성 독거노인들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던 반면에 여성 독거노인들은 만성적 의학질환이 우울증상에 대해 남성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채철호 외, 2018). 농촌 여성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을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시기로 바라보는 성공적 노화로 간주하게 되는 과정과 방식을 살펴보는 연구(하민정·이혁구, 2019)가 있기도 하다.

❍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 역시 해당지역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을 뿐 농촌지역의 1인가구를 직접적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 가운데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부분을 참조하거나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 가운데 1인가구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기로 한다. 전라북도의 농촌노인에 대한 연구(이중섭, 2016)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정읍, 김제, 남원 등 총 10개 시군에 이르며 군부지역의 평균연령은 50세를 상회한다. 또 농촌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의 대부분은 가족원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은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시설 접근성이며, 도시노인들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중섭, 2016). 강원도 농촌지역 독거노인 연구는 농촌의 독거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매우 높아 이들의 생활이 매우 취약하고 연령측면에서 장기요양보호와 생활보호 등 공적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후기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승희, 2010).

❍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농촌의 독거노인들은 가족부양의 공백으로 외로움과 일상생활 어려움 등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의 주거공간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형태를 의제한 사회적 돌봄을 시행하는 일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박중신·박헌춘·김승근, 2014; 이진숙, 2010).

❍ 충북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채성주, 2015)는 여성1인가구 비율이 높으며 특히 보은, 옥천, 괴산, 영동 등 저발전 된 농촌지역에서 여성비율이 높고, 70대 이상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청년층 비율이 50.7%인 청주나 34.1%인 도시지역과 대조를 이루는 것

으로 보고한다(채성주, 2015). 또한, 20대 1인가구는 문화생활공간 확충, 저렴한 주택공급,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등의 정책지원을 원하는 반면, 60~70대는 경제적 지원, 지역복지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원해 연령층에 따라 상이한 정책욕구를 드러낸다(채성주, 2015). 경기도 1인가구 삶의 만족도 연구(노경혜·이나련·황경란, 2018)도 도시지역에는 중장년의 미혼 1인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농촌지역은 사별 1인가구가 비중이 가장 높고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구조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자가주택 비율이 도시지역 자가주택 비율의 2배를 상회하고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도시지역보다 1.5배~2배 정도 높다. 거주지 불만족의 이유는 농촌지역은 교통불편과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시설 열악과 주차시설부족이 주요 이유에 해당한다(노경혜·이나련·황경란, 2018).

❍ 농촌지역 연구에서 염두에 둘 점은 2000년대 이후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업형 귀농이나 생태형 귀농귀촌, 은퇴이후 장노년층의 귀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지역농업연구원, 2008)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에 약 40만 명 수준에서 2016년에는 49만 6,048명에 달한다. 2015년 조사에서는 농촌지역 총인구가 최저점을 찍었던 2010년보다 수준을 76만 4,292명 더 많은 939만 1,680명이 되었다(김정섭·김종인, 2017). 이들 귀농인 가운데는 은퇴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귀촌인 중에서는 40대 이하 젊은층이 차지하는(2016년 귀촌 가구주의 63.9%가 40대 이하) 비율이 높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귀촌인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40대 이상에서는 동반가구원이 0.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김정섭·이정해, 2017). 이러한 사실은 40대 이상 귀농·귀촌인 가운데 1인가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므로 농촌 1인가구 연구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정리해보면, 아직까지는 농촌 1인가구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농촌지역 연구나 1인가구 연구 가운데 나타난 농촌 1인가구의 모습은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독거노인 특히 사별한 여성노인이 많다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사별 여성 독거노인이 많다는 것은 농촌 1인가구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임을 말해준다. 아울러 귀농·귀촌인 가운데 1인가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농촌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 1인가구 현황 전반을 포괄하면서도 그 안의 내부적 이질성을 포착하고 특정 주제에 편중하기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나.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 동향(연구보고서)

○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보고서들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경제,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여가 및 문화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1인가구 중 특정 집단 혹은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시리즈 형태로 수행되었다.

〈표 2-1〉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유형 | 연도 | 연구명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주요변인 | 주요결과 |
|---|---|---|---|---|---|---|
| 연구 보고서 | 2018 | 노경혜 외, 「경기도 1인가구 삶의 만족도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양적/ 질적 연구 | 1인 가구. (청년기 /중장 년기/ 노년기) | 소득, 주거, 사회적 관계망, 여가, 일상생활 및 건강 | - 청년기의 경우는 고용형태와 결혼의향이, 중장년기의 경우는 혼인상태와 연령, 결혼의향이, 노년기의 경우는 주택점유형태와 고용형태가 주요 예측요인임<br>- 1인가구는 전반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인 여건 및 생활수준, 사회관계망 등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고, 여성 및 노년기 1인가구 취약성이 두드러짐<br>- 1인가구의 분포 및 지역별 구성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역별로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 | 2018 | 김민지, 「대구지역 여성 1인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 양적/ 질적 연구 | 여성 1인 가구 | 경제, 주거/안전, 건강 및 돌봄 | - 경제적 취약성 높음. 경제지원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br>- 주거안전 불안 높고, 주거안정성 낮음<br>-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활동이 어려움 |
| | 2016 | 장진희,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적/ 질적 연구 | 청년 여성 (20~ 39세) | 경제, 주거, 안전 | - 낮은 자가 비중,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부모 지원에 의존<br>-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안감은 높으나, 주거지의 안전보다 접근성 및 주거지 비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br>- 공동체주택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은 긍정적이나 사생활 보장 등의 문제점 |

| 유형 | 연도 | 연구명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주요변인 | 주요결과 |
|---|---|---|---|---|---|---|
| | 2016 | 박건,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노후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적/ 질적 연구 | 40~ 50세 여성 1인 가구 | 경제, 노후준비, 네트워크, 여가/사회 활동, 주거/건강 | -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제생활을 살펴보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당연히 이혼/사별 집단의 경우가 높음<br>- 노후의 불안감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 불안감과 다른 분포도를 보임<br>- 여성 1인가구의 삶은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자 장기지속적인 삶의 형태로 존중되는 속에서의 정책 필요함 |
| | 2016 | 김영정,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시간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적/ 질적 연구 | 60~ 80세 여성 1인 가구 | 경제, 건강, 사회관계망, 차별, 여가, 학습 | - 노후를 위한 일자리, 교육, 지역참여 프로그램 강화 필요<br>- 노후 거주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마련<br>-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응급상황 시 병원동행<br>- 지역 고령여성 돌봄공동체 활성화 마련 필요 |
| | 2013 | 김영란 외, 「지역연대에 기초한 노인1인가구 돌봄지원방안: 노인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질적 연구 | 노인 1인 가구 | 전반적 생활실태, 노인돌봄사례발굴 | - 공식노인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중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계에 놓여있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재함<br>- 기능제한이 없는 다수의 노인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일상적 돌봄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음 |
| | 2013 | 황정임 외,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질적 연구 | 비혼 1인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 | - 여성가구주가구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주거안정 지원의 확대 필요<br>- 주거지원의 안정성 제고 및 주거지원 이후의 주거자립 지원 강화<br>-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한 제도화 추진 필요 |
| | 2014 | 하정화 외, 「부산지역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양적/ 질적 연구 | 1인 가구 (단, 여성 1인 가구 2/3) | 형성배경 및 만족도, 주거/생활, 건강, 사회적관계망, 노후준비 | - 성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1인가구는 거주환경에 대해 안전하지못하다고 여기며 방범활동 및 보안장치 강화,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에 대한 정책지원을 더 필요로 하였음<br>- 연령대별에서는 40~50대가 20~30대에 비해 신체적, 정신 |

| 유형 | 연도 | 연구명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주요변인 | 주요결과 |
|---|---|---|---|---|---|---|
| | | | | | | 적 건강과 관련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br>- 형성배경별에서 전체적으로 미혼 1인가구가 분거, 이혼에 비해 다양한 일자리 제공, 구직활동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제공 등을 더 필요로 함 |
| | 2014 | 김종숙 외,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적/질적 연구 | 1인 가구 | 경제활동 | - 장년기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br>- 중년여성 1인가구는 저소득층 비중이 높음<br>- 청년기에는 1인가구와 비1인가구 간 격차와 성별 격차가 크지 않았음<br>-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 2017 | 홍승아 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적/질적 연구 | 25~44세 비혼/미혼 1인 가구 | 생활실태, 성 및 가족가치관, 정책수요 | - 결혼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나, 성별로 차이가 나타남<br>- 여성보다 남성이, 35~44세보다 25~34세가 장시간 근로<br>- 대부분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여성보다 남성의 부채금액이 높게 나타남 |
| | 2013 | 문은영 외, 「서울시 고령1인가구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적/질적 연구 | 고령 1인 가구 | 주거, 경제, 건강, 여가 및 사회참여, 사회관계, 공공서비스 이용 | - 여성독거 노인의 경우 남성독거노인에 비해 평균 1개 이상 질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br>- 가족과 접촉 및 연락 빈도의 경우 여성독거 노인 평균 빈도는 남성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과 연락 및 접촉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br>- 고령1인가구여성은 '건강관련 분야'와'일상생활 관련 분야'에서의 욕구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 2014 | 반정호, 「1인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양적 연구 | 1인 가구 | 빈곤실태, 소득불평등, 소비실태, 사회경제적 지위 | - 1인가구는 2인이상 가구와 달리 여성, 중고령층 이상의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과 함께 1인가구에서 20대 청년층 가구수가 줄고, 3-40 |

| 유형 | 연도 | 연구명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주요변인 | 주요결과 |
|---|---|---|---|---|---|---|
| | | | | | | 대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이 증가<br>- 1인가구의 주거환경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다수의 가구가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적자가구로 분석됨<br>- 전반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1인 여성가구의 빈곤율은 타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
| | 2015 | 변미리,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 | 양적/ 질적 연구 | 1인 가구 (20세~ 60세 미만) | 주거, 사회적 안전망, 공유사회 | - 1인가구 수용이 가능한 양질의 주택품질 확보 필요<br>- 1인가구 중 여성과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1인 가구 밀집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주택지역에 해당되므로 범죄예방 등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br>-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사회참여 등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 | 2015 | 이민홍 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동의대학교 | 양적/ 질적 연구 | 1인 가구 (청년/ 중년/ 노년) | 생활실태, 사회적 위험요인 | -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비중 높음<br>- 건강상태: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건강수준 낮음<br>- 주거형태: 자가소유율 낮으며, 보증부 월세 비중 높음. 주거광열수도비 지출비중 높음<br>- 거주환경: 지하·옥탑 거주비중 높음, 주택성능 및 환경 부적절<br>- 높은 근로 빈곤율 |
| | 2015 | 주혜진 외, 「대전지역 여성 1인 가구 안전 지원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질적 연구 | 여성 1인 가구 | 안전 | - 현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된 이유는 '직장이나 취업' 때문임<br>- 거주지 선택 고려사항으로 여성 1인 가구주들은 '교통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 1인 가구주나 2인 이상 가구의 여성 가구원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임<br>- 골목, 건물 CCTV 설치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필요함 |

| 유형 | 연도 | 연구명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주요변인 | 주요결과 |
|---|---|---|---|---|---|---|
| | 2017 | 장창수, 「대전시 노인 1인가구 특성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양적/ 질적 연구 | 노인 1인 가구 (65세 이상) | 가족/친구 관계, 주거, 경제, 교육, 문화, 노후준비, 건강, 과학기술, 안전, 복지, 공동체 | - 노인 1인가구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 생활용품 구입의 어려움<br>- 노인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전국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보다 낮고, 생활비 마련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월등히 높았으며, 식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어려움이 높았음<br>- 이웃과의 소통이나 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남<br>- 일반노인에 비해 노인1인가구는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 | 2017 | 주혜진,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현안」, 대전세종연구원 | 양적/ 질적 연구 | 여성 1인 가구 | (군집분석) 사무직 미혼여성, 노령의 주부여성, 돌아온 중년여성, 대학생 미혼여성 | - 사무직 미혼여성: 대졸이며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여가생활도 적극적인 편.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고, 이웃과의 소통엔 소극적인 편<br>- 노령의 주부여성: 학력이 낮고, 소득도 적은 편이며 여가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임. 자기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염려되나 이웃과의 소통은 가장 활발함<br>- 돌아온 중년여성: 고졸의 판매업 종사자이며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바탕으로 여가생활도 하는 편. 자기 소유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br>- 대학생 미혼여성: 직업이 없고, 월 소득이 적으나 활발하게 여가생활을 즐김.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이웃과의 소통에는 가장 소극적임 |
| | 2017 | 문정희 외,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양적/ 질적 연구 | 1인 가구 | 경제, 주거, 생활 | - 1인가구 생활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남. '청년〉중장년〉노년' 순으로 나타남<br>- 청년과 중장년, 노년 모두 경제적 불안을 가장 많이 느낌 |

| 유형 | 연도 | 연구명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주요변인 | 주요결과 |
|---|---|---|---|---|---|---|
| | | | | | | - 중장년의 경우 가족들과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음<br>-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모든 세대에서 경제적인 지원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주거정책, 생활지원 순 |
| | 2018 | 유은경, 「강원도 청년 1인가구의 성별 특성 및 정책과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양적/질적 연구 | 청년 1인 가구 (20~39세) | 소득, 주거/안전, 여가 | - 30대를 정점으로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의 취업률은 낮아짐. 전체적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20대의 경우는 여성 1인가구의 취업률이 더 높음<br>- 60대 이상 부터는 여성1인가구의 경우 남성보다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존재<br>- 대부분 안전문제와 불편한 교통여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주거환경에 있음<br>- 여가시간에는 주로 운동과 SNS를 중심으로 개인활동을 하며, 주말은 친구나 원가족과의 여행도 자주 가는 편으로 나타남<br>-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중심의 창업지원제도의 필요성도 대두됨 |
| | 2018 | 양수진, 「인천시 1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양적/질적 연구 | 1인 가구 | 경제, 주거, 건강, 관계, 문화 | - 1인가구 내에서도 성별, 연령에 따라 경제적 특성이 상이함<br>- 여성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경향을 보이고, 노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짐<br>- 자가 소유비율이 낮고, 여성은 주거 영역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남<br>- 중장년과 노년층의 우울수준이 높고, 정신건강에 취약성 보임<br>- 20~40대 1인 가구의 경우 주변과 적절히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년층의 사회적 교류가 적어지고 관계의 단절을 더욱 경험함 |

| 유형 | 연도 | 연구명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주요변인 | 주요결과 |
|---|---|---|---|---|---|---|
| | 2018 | 박은미,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 및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양적/질적 연구 | 1인 가구 (20세 이상) | 건강, 네트워크, 주거/안전, 경제 | - 남성, 20~40대, 도시지역, 대졸이상, 비혼 등의 집단에서 1인가구를 자발적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남<br>-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으로는 경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은 경제력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남성은 요리 및 가사활동에서 높음<br>-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분야는 생활 및 건강지원 정책이 가장 높고, 이어서 주거 및 안전지원 정책, 경제지원 정책 등임 |
| | 2018 | 박노동 외, 「대전광역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세대별 차이분석」, 대전세종연구원 | 양적/질적 연구 | 1인 가구 (20세 이상) | 일, 경제, 주거/교통, 사회적관계망, 복지, 정서, 삶의 만족도 | - 혼자 사는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남<br>- 노년층 1인가구는 무직비율이 높고, 가장 큰 문제 역시 경제문제가 가장 높았음<br>- 청년층과 중년층 1인가구는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노년층 1인가구는 사회적 소통과 교육수준이 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나타냄 |
| | 2018 | 최성은 외, 「세종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질적 연구 | 1인 가구 (20~30대) | 보건/복지, 문화/여가, 경제활동, 사회/안전 | - 1인 가구의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하고,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br>- 1인 가구의 경우 '자기개발'이 가능한 문화·여가 생활을 원함<br>- 중년층 1인 가구주의 생활편의를 위한 정책마련을 요구함<br>-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 1인 가구주의 불안감 높았음 |

### 1) 전체 1인가구 대상 연구

○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노경혜, 2018)」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주된 영역으로는 가구형성, 주거/교통, 일자리/소득, 사회관계망, 여가/건강, 삶의 주관적 만족 등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 및 정책과제(박은미, 2018)」에서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살펴본다. 주된 영역으로는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주거 및 안전, 경제(일자리)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부산지역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하정화 외, 2014)」에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성 및 만족도, 주거/생활, 건강, 사회적 관계망, 노후준비 등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전광역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세대별 차이분석(박노동 외, 2018)」에서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일, 경제, 주거/교통, 사회적 관계망, 복지, 정서, 삶의 만족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세대별(청년층/중년층/노년층)로 차이를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2) 1인가구 중 특정집단 대상 연구

○ 「세종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형성 및 지원 방안(최성은 외, 2018)」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문화/여가, 경제활동, 사회/안전 등 7개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현안(주혜진, 2017)」에서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사무직 미혼 여성, 노령의 주부 여성, 돌아온 중년 여성, 대학생 미혼 여성 등 4개의 군집유형으로 분류하여 주요특징에 따른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대구지역 여성 1인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김민지, 2018)」에서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주거/안전, 건강/돌봄 등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3) 1인가구의 특정한 성격분석 연구

○ 「1인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반정호, 2014)」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실태, 소득불평등, 소비실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1인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김종숙 외, 2014)」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영역에 관해 세대별, 성별로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홍승아 외, 2017)」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성 및 가족가치관 관련 정책 영역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4) 특정 1인가구의 특정한 성격분석 연구

○ 「강원도 청년 1인가구의 성별 특성 및 정책과제(유은경, 2018)」에서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20~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주거/안전, 여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성별 특성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 안전 지원방안(주혜진 외, 2015)」에서는 대전지역 '여성친화 행복마을'의 사업대상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1인가구로서의 장점과 단점, 안전,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황정임 외, 2013)」에서는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5) 노인 1인가구 대상 연구

○ 「대전시 노인 1인가구 특성분석과 지원방안 연구(장창수, 2017)」에서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인가구(65세 이상)를 대상으로 가족/친구 관계, 주거, 경제, 교육, 문화, 노후준비, 건강, 과학기술, 안전, 복지, 공동체 등의 11개 영역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시 고령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문은영 외, 2017)」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경제, 건강, 여가 및 사회참여, 사회관계, 공공서비스 이용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역연대에 기초한 노인 1인가구 돌봄지원방안: 노인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김영란 외, 2013)」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노인 돌봄 사례발굴에 초점을 두어 돌봄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김영정, 2016)」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건강, 사회관계망, 차별, 여가, 학습 등의 시간 활용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 6) 농촌 1인가구가 포함된 연구

○ 「강원도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복지증진 방안 연구: 노인돌봄 기존사업을 중심으로(김승희, 2010)」에서는 도내 농촌지역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수요와 공급적 측면의 실태를 분석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노경혜, 2018)」에서는 1인가구 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별과 생애주기별(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지역별(도시지역, 농촌지역)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주거만족도가 높고, 교통불편과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소득에서는 도시지역보다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노경혜, 2018).

○ 「경북지역 고령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방안(정회훈, 2014)」에서는 경북지역 고령화 현황 및 전망, 농촌마을 정비 관련 정책 및 사업, 농촌마을 고령자 정주 실태 등을 분석하여 정비 목표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대상별 정비(공공·복지시설, 주택, 보행환경, 에너지·난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 연구: 수도작 평야지역 1개 마을을 중심으로(조은정·문정환, 2011)」에서는 충남 농촌 주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과 생활을 영위하는지에 대해 조사·분석(서비스 수혜 실태: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응급·문화·여가·정보통신, 생활상)하여 이에 따라 농촌 주민과 마을을 위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역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실태 및 거주자 특성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조영재·조은정, 2011)」에서는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 인문·사회적 환경, 경제활동 환경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농촌주거단지 조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영되어야할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 「충남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장경호 외, 2011)」에서는 노인일자리 특징과 실태,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의 특수성, 농촌 공동체 등의 실태를 분석하여 농촌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향 및 추진방식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공동 생활을 통해 서로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거를 통한 지역기반 돌봄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노경혜 외, 2018). 경기도의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부산의 고독사예방 네트워크 안전망 사업, 경기도의 홀봄노인 돌봄사업, 전북도(김제시)의 노인그룹홈 '한울타리 행복의 집'(양수진 외, 2018) 등이 그 사례들이다. 전라북도 노인그룹홈에 대한 연구(이중섭 외, 2013)의 경우, 김제시(도농복합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그룹홈 수요조사, 그룹홈 운영자를 대상으로 그룹홈 운영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룹홈 운영예산 확대, 노인돌봄수요를 대응한 그룹홈 확대 운영, 돌봄안전망 수립 등의 김제시 공동생활가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3.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 가.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현재 국내 1인가구와 관련된 지원정책의 주된 법적 기반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음.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추세를 반영하여 2018.1.16. 기준으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3조(정의)에 2의 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고,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0항으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신설되었다. 또한, 제20조(가족실태조사)에도 제2항으로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노경혜, 2018).

#### ① 주거

- ❍ 현재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명시적인 주거지원정책 혹은 규정이 없어 1인가구의 주거불안정 문제는 1인가구의 공통적 문제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저소득 청년 1인가구가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 ❍ 한국토지공사 및 SH공사는 1인가구 유형 및 계층에 따라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 주택, 대학생 전세 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1인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 ❍ 또한, 60세 이상 노년 1인가구가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노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주택개조 비용 등을 지원한다.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 안정 월세 자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손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주거 안정 주택 구매자금, 오피스텔 구매자금 등 구매자금은 대출이 가능하다.

〈표 2-2〉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 정책 | 주요내용 |
|---|---|
| 주택청약 |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지역을 갖춘 자에게 신청을 받아 당첨자 선정<br>-1인가구는 청약에 우선순위가 없으며, 가점 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 (청약가점에 부양가족 수 포함) |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br>-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가점에 있어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자녀 수 등이 포함되어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함 |
| (청년)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최장 20년) |
|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br>-공급물량의 80%는 젊은층에, 20%는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 |
|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br>-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등 |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주거비 지원. 단, 1인가구는 월 71만원 이하 소득이 해당 |
|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br>-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 맞춤형 급여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맞춤형으로 급여 지원<br>-생계 중위소득 30%(기본 생활비 지원), 의료 중위소득 40%(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중위소득 43%(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 리모델링 임대사업 |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 가능<br>-월세는 시세의 50% 수준이고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대학생과 노인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br>-1순위는 무주택 대학생과 독거노인, 2순위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

자료: 노경혜 외(2018)에서 재구성.

### ② 안전

❍ (비상벨 설치) 범인이 침입할 경우 감지기가 작동되거나 비상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웃집에 경보음이 울리는 이웃 간 비상벨을 2~3개 가정에 서로 연결하여 설치해줌으로써 1인가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한다.

❍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택배기사 등으로 신분을 속여 침입하는 등 범죄 수법이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택배 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안전귀가 서비스)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귀가하는 여성 및 학생과 동행하여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표 2-3〉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안전 지원 정책

| 정책 | 주요내용 |
|---|---|
|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 -해당 읍, 면, 동을 검색해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 시, 신체정보 등)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를 제공 |
| SOS 국민안심 서비스 |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 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 |
| 독거노안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365일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활동 지원 |

자료: 노경혜 외(2018)에서 재구성.

### ③ 건강 및 돌봄

❍ (일반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지원법」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 (노인 건강검진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 눈 정밀 건강검진과 개안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 (치매검진비용 지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치매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치료에 드는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노인 돌봄 서비스) 65세 이상 노년 1인가구의 생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 돌봄서비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4〉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건강/돌봄 지원 정책

| 정책 | 주요내용 |
|---|---|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제공 |
| 독거노인 보호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지원,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등), 독거노인사랑 잇기 서비스(민간자원봉사자 연계 통해 안부확인 등), 무연고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 되어 최소한의 의례지원) 등 제공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를 제공 |

자료: 양수진 외(2018)에서 재구성.

### ④ 고용·경제*

❍ 주거, 안전, 돌봄 관련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만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으며, 주로 저소득층 또는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일정한 자격기준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한 형태이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저소득층 중 근로를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을 비롯하여 장례비, 혼례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장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산형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루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의 지원서비스로 자산형성을 돕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 (고용 지원)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역시 1인가구로 한정되어있는 지원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관련 지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일자리 매칭,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함께 제공한다. 청년 취업아카데미의 경우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협약되어 있는 기업에 취업을 연계해 주는 제도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다.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은 만 45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 1인당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 6개월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 본 내용은 김윤영(2017). 「인천시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를 참고하였음

## 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1인가구 정책

### ① 1인가구 지원 조례

❍ 조례의 제·개정은 지원에 대한 개념과 범위, 당위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것에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1인가구와 관련된 조례는 크게 1인가구 전반과 관련한 조례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그리고 청년 관련한 조례로 되어 있다.

❍ 현재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를 반영하듯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조례들이 2018~2019년 사이에 제·개정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모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광역 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은 1인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 전라북도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1인가구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장수군에서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7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조례는 장수군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가 사회·정서적으로 고립되거나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으로서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고독사 노인 및 독거생활자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표 2-5〉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단체 | | 제/개정일 | 조례명 | 소관부서/관리책임부서 |
|---|---|---|---|---|
| 서울 | 광진구 | 2019.3.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 금천구 | 2017.5.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 기획예산과 |
| | 노원구 | 2019.3.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육보지국 복지정책과 |
| | 서대문구 | 2018.7.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 성동구 | 2019.7.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아동청년과 |
| | 양천구 | 2017.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 용산구 | 2017.4.7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민복지국 어르신청소년과 |
| | 중구 | 2019.8.9 |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지원과 |
| | 강남구 | 2018.12.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 | 강동구 | 2017.8.9 |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 서초구 | 2018.12.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밝은미래국 가족정책과 |
| | 영등포구 | 2019.6.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정책과 |
| 부산 | 부산 | 2016.11.2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
| | 남구 | 2019.3.13 |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민생활국 주민지원과 |
| | 부산진구 | 2017.1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 북구 | 2019.5.29 | 부산광역시 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과 |
| | 해운대구 | 2017.1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 동래구 | 2019.2.11 | 부산광역시 동래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광주 | 남구 | 2019.1.8 |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노인장애인과 |
| 인천 | 남동구 | 2019.6.28 |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주민생활국 노인장애인과 |
| | 동구 | 2018.12.26 |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 부평구 | 2019.4.22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 대구 | 대구 | 2018.10.1 |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관 |
| | 서구 | 2019.8.12 |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 대전 | 대전 | 2019.8.9 |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공동체지원국 가족돌봄과 |

| 자치단체 | | 제/개정일 | 조례명 | 소관부서/<br>관리책임부서 |
|---|---|---|---|---|
| 세종 | 세종 | 2017.9.29 |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국<br>여성가족과 |
| 울산 | 울산 | 2019.3.7 |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복지여성건강국<br>복지인구정책과 |
| | 울주군 | 2019.3.21 |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복지교육국<br>사회복지과 |
| 경기도 | 광명시 | 2019.6.25 |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사회복지국<br>복지정책과 |
| | 성남시 | 2017.11.20 |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복지국<br>노인복지과 |
| | 성남시 | 2018.12.24 |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 복지국<br>사회복지과 |
| | 하남시 | 2019.5.13 |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문화국<br>복지정책과 |
| 충남도 | 충남 | 2019.5.30 |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성가족정책관 |
| 강원도 | 태백시 | 2018.4.6 |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국<br>사회복지과 |
| 전남도 | 광양시 | 2018.9.27 |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제복지국<br>사회복지과 |
| 경남도 | 김해시 | 2019.2.12 |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시민복지국<br>시민복지과 |
| | 창원시 | 2018.11.15 |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복지여성국<br>사회복지과 |
| | 산청군 | 2019.3.29 | 산청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민원국<br>주민복지과 |
| 경북도 | 상주시 | 2019.7.16 |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행정복지국<br>사회복지과 |
| 전북도 | 장수군 | 2017.12.5 |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주민복지실 |
| 제주도 | 제주도 | 2017.12.29 |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보건복지여성국<br>복지정책과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일 2019.9.1.

### ② 타 시도 1인가구 지원정책 사례

❍ (주거) 「인천광역시」는 1인가구의 주택지원을 위해 '2009-2018 인천광역시 주택종합계획' 중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한 수용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주택정책 목표로 삼고 주택보급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인가구를 위해 도심 내 주거지 혹은 역세권 등 교통요충지에 복합건물형태로 원룸형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부대시설 등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또한,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에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1인가구 주택을 도입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1인가구 주택을 10% 정도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상업 및 준주거 용도지의 지역에는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양수진 외, 2018). 「서울특별시」의 경우 여성안심주택,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과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윤영, 2017). 이 외에 다양한 쉐어하우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독거어르신 대학생 주거공유, 홀몸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도심 내 방치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노경혜 외, 2018). 서울시는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세대(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에게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김윤영, 2017).

❍ (안전 및 돌봄)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안전'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안전 지원사업 중 하나로 무인택배보관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주혜진, 2017). 「서울특별시」는 안심택배서비스 이외에 홈방법서비스, 안심귀가스카우트(심야시간대의 귀갓길 동행),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등을 제공하고 있다(노경혜 외, 2018). 「대구광역시」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하여 택시를 탄 시각과 차량번호 등을 보호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안심귀가 택시앱(App)을 개발하였고, 2015년 대구지역에 무인택배기를 설치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여성 1인가구가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통해 24시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민지, 2018).

'돌봄 영역의 경우 고령 1인가구가 사업의 중점이라 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고독사 예방사업지원, 이웃살피미 운영,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공영장례시스템, 어르신돌봄지원서비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랑의 안심폰 등이 진행되고 있다(양수진 외, 2018). 이 밖에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상호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형태의 지역기반 돌봄 형태로 경기도의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부산의 고독사예방 네트워크 안전망 사업, 경기도의 홀몸노인 돌봄사업, 전북도(김제시)의 노인그룹홈 '한울타리 행복의 집' 등(양수진 외, 2018)을 들 수 있다.

○ (고용 및 생활) 고용과 관련하여 1인가구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자리 사업으로 중년층 1인가구를 중심으로 '일자리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싱글여성을 대상으로 전산회계, 방과후교사 등의 분야에 6개월까지 '여성1인가구 인턴쉽' 지원, 동일하게 싱글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창업플라자와 창업보육센터 창업공간을 지원하며, 서울여성플라자 등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여성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주혜진, 2017). 한편,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경우 1인가구 사회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금천구의 '1인 가구 세대별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회성 향상' '솔로들의 아우성' 성북구의 '다디익선 이음터 조성', 은평구의 '청년 1인 가구 따로 또 같이', 강북구의 '불타는 청중장년 연결고리'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계하여 1인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인가구 탐구생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나도 혼자 산다',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함께 차차차',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춘은 바로 지금',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불타는 청년' 등이 있다(양수진 외, 2018).

### ③ 전라북도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 전라북도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으로 구분되기 보다

는 농촌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1인가구가 노인가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 농촌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노인복지정책으로 갈음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이외에 도비예산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노인복지단체 지원사업'은 노인의 날 행사지원사업,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활성화사업, 실버문화축제지원 등이며,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추진본부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교육센터 운영지원 등이 있다. '노인사회참여사업'으로는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노인사회참여예산사업 지원, 노노케어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 '취약계층 노인지원사업'으로는 노인건강진단, 무료경로식당 등이 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종사자 처우개선사업과 노인돌봄케어, 경로당 여가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이중섭 외, 2013).

○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1인가구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장수군에서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7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조례는 장수군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가 사회·정서적으로 고립되거나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으로서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고독사 노인 및 독거생활자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3 장

# 1인가구 현황



1. 전국 1인가구 현황
2.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3. 향후 1인가구 추계 현황

# Ⅲ. 1인가구 현황

## 1. 전국 1인가구 현황

○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4인 이상의 다인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1인가구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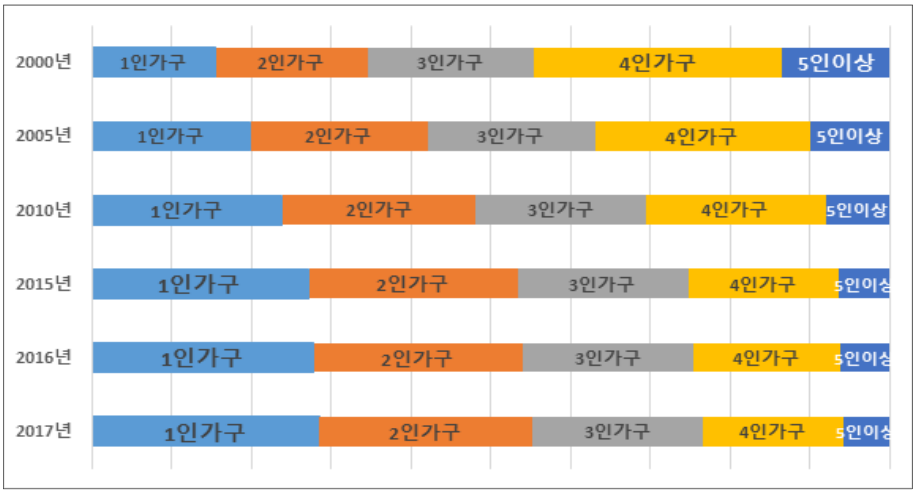
- 1인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28.6%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인가구는 2000년 19.1%에서 2017년 26.7%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3인가구는 2000년 20.9%에서 2017년 21.2%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4인가구는 2000년 31.1%에서 2017년 17.7%로, 5인 이상 가구도 2000년 13.4%에서 2017년 5.8%로 감소해 가구원수별 가구 중 가장 작은 규모로 나타났다.
- 2000년과 2005년 일반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가구형태는 4인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며, 2015년 이후로는 1인가구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구규모가 점차 소규모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7)

(단위 : 가구, %)

| 구분 |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일반가구 | | 14,311,807 (100.0) | 15,887,128 (100.0) | 17,339,422 (100.0) | 19,111,030 (100.0) | 19,367,696 (100.0) | 19,673,875 (100.0) |
| 가구원수 | 1인 | 2,224,433 (15.5) | 3,170,675 (20.0) | 4,142,165 (23.9) | 5,203,440 (27.2) | 5,397,615 (27.9) | 5,618,677 (28.6) |
| | 2인 | 2,730,548 (19.1) | 3,520,545 (22.2) | 4,205,052 (24.3) | 4,993,818 (26.1) | 5,067,166 (26.2) | 5,260,332 (26.7) |
| | 3인 | 2,987,405 (20.9) | 3,325,162 (20.9) | 3,695,765 (21.3) | 4,100,979 (21.5) | 4,151,701 (21.4) | 4,178,641 (21.2) |
| | 4인 | 4,447,170 (31.1) | 4,289,035 (27.0) | 3,898,039 (22.5) | 3,588,931 (18.8) | 3,551,410 (18.3) | 3,473,897 (17.7) |
| | 5인 이상 | 1,922,251 (13.4) | 1,581,711 (10.0) | 1,398,401 (8.1) | 1,223,862 (6.4) | 1,199,804 (6.2) | 1,142,328 (5.8)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7)

○ 1인가구의 성별 구성원 변화를 보면 여성의 구성비가 높지만 2000년에 비해 2017년의 성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남성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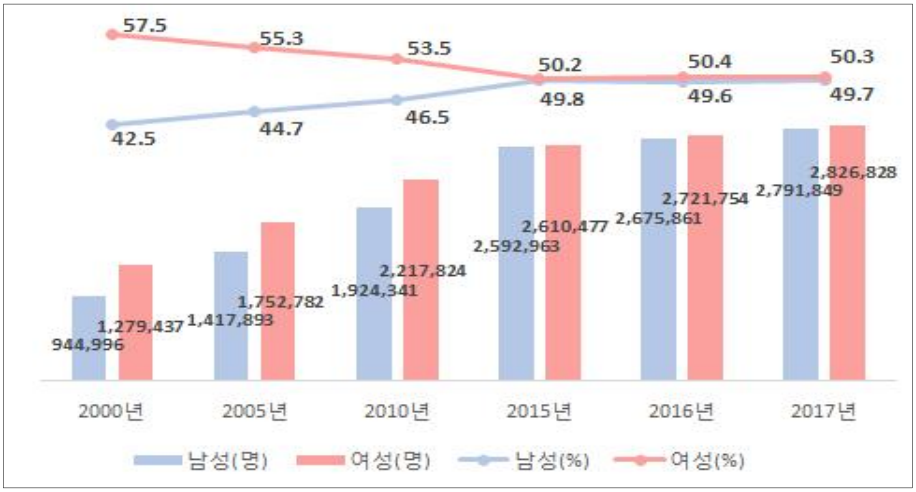
- 2000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여성이 전체의 57.5%, 남성이 전체의 42.5%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여성 1인가구의 인구가 약 33만 명 이상 많았으나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어 2017년에는 남성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의 49.7%, 여성 1인가구가 50.3%로 나타나 성별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000년 1,279,437가구에서 2017년 2,826,828가구로 120.9%가 증가하였고, 남성은 2000년 944,996가구에서 2017년 2,791,849가구로 195.4%가 증가했다.

〈표 3-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17)

(단위 : 명, %)

| 구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전체 1인가구 | 2,224,433 (100.0) | 3,170,675 (100.0) | 4,142,165 (100.0) | 5,203,440 (100.0) | 5,397,615 (100.0) | 5,618,677 (100.0) |
| 남자 | 944,996 (42.5) | 1,417,893 (44.7) | 1,924,341 (46.5) | 2,592,963 (49.8) | 2,675,861 (49.6) | 2,791,849 (49.7) |
| 여자 | 1,279,437 (57.5) | 1,752,782 (55.3) | 2,217,824 (53.5) | 2,610,477 (50.2) | 2,721,754 (50.4) | 2,826,828 (5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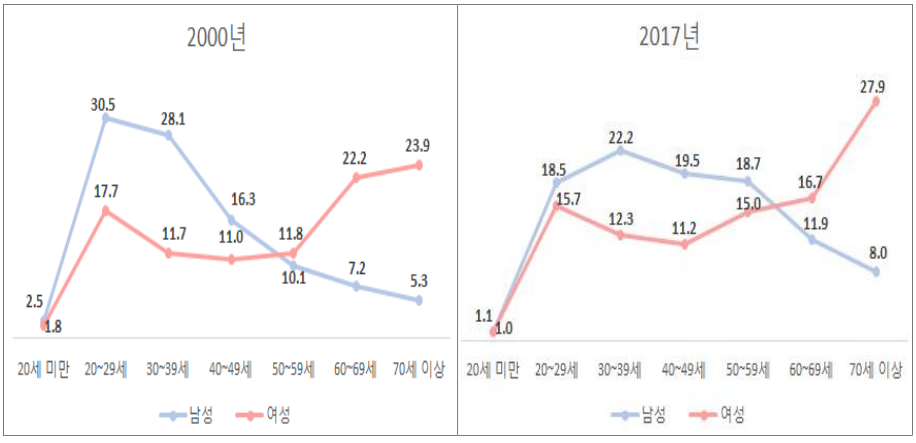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구성비 추이(2000~2017)

❍ 2000년과 2017년의 1인가구 성별·연령대별 구성의 비교 결과, 남성은 20~30대 청년층, 여성은 60대이상 노년층의 구성비가 높았다.

- 남성의 경우 2000년에 20대 1인가구 구성비가 30.5%, 30대 1인가구 구성비가 28.1%로 20~30대 청년층의 구성비가 과반이 넘는 58.6%로 나타났고, 2017년에는 청년층 구성비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반면, 여성은 60대이상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00년에는 60대 22.2%, 70대이상 23.9%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구성비가 더욱 높아져 70대이상의 1인가구가 전체의 2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7년)

〈표 3-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7년)

(단위 : 가구, %)

| 구 분 | 2000년 | | | 2017년 | | |
|---|---|---|---|---|---|---|
| | 계 | 남성 | 여성 | 계 | 남성 | 여성 |
| 전체 1인가구 | 2,224,433 (100.0) | 944,996 (100.0) | 1,279,437 (100.0) | 5,618,677 (100.0) | 2,791,849 (100.0) | 2,826,828 (100.0) |
| 20세 미만 | 46,576 (2.1) | 23,857 (2.5) | 22,719 (1.8) | 61,058 (1.1) | 29,108 (1.0) | 31,950 (1.1) |
| 20~29세 | 514,200 (23.1) | 287,980 (30.5) | 226,220 (17.7) | 961,791 (17.1) | 517,464 (18.5) | 444,327 (15.7) |
| 30~39세 | 415,264 (18.7) | 265,986 (28.1) | 149,278 (11.7) | 968,461 (17.2) | 621,086 (22.2) | 347,375 (12.3) |
| 40~49세 | 295,010 (13.3) | 154,305 (16.3) | 140,705 (11.0) | 862,810 (15.4) | 545,148 (19.5) | 317,662 (11.2) |
| 50~59세 | 246,105 (11.1) | 95,243 (10.1) | 150,862 (11.8) | 947,726 (16.9) | 523,194 (18.7) | 424,532 (15.0) |
| 60~69세 | 351,574 (15.8) | 67,846 (7.2) | 283,728 (22.2) | 805,432 (14.3) | 332,096 (11.9) | 473,336 (16.7) |
| 70세 이상 | 355,704 (16.0) | 49,779 (5.3) | 305,925 (23.9) | 1,011,399 (18.0) | 223,753 (8.0) | 787,646 (27.9)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1인가구 변화추이를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기준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전체 가구의 32.2%가 1인가구였고, 경북 31.9%, 전남 31.6%, 대전 31.5% 순이었다.
- 17개 시·도 모두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대비 2017년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으로 16.3%p, 그 뒤를 이어 광주 15.1%p, 부산 14.9%p 가 증가했다. 반면,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11.2%p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은 강원과 전남, 경북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강원, 경북, 전남, 대전, 전북, 충남, 충북, 서울, 세종 등(총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3-4〉 시도별 가구 변화 추이(2000~2017)

(단위 : 천가구,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0년 |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
|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 전국 | 14,312 (100.0) | 2,224 (15.5) | 15,887 (100.0) | 3,171 (20.0) | 17,339 (100.0) | 4,142 (23.9) | 19,111 (100.0) | 5,203 (27.2) | 19,368 (100.0) | 5,398 (27.9) | 19,674 (100.0) | 5,619 (28.6) |
| 서울 | 3,086 (100.0) | 502 (16.3) | 3,310 (100.0) | 676 (20.4) | 3,504 (100.0) | 855 (24.4) | 3,784 (100.0) | 1,116 (29.5) | 3,785 (100.0) | 1,139 (30.1) | 3,813 (100.0) | 1,181 (31.0) |
| 부산 | 1,120 (100.0) | 154 (13.8) | 1,186 (100.0) | 223 (18.8) | 1,244 (100.0) | 291 (23.4) | 1,336 (100.0) | 362 (27.1) | 1,344 (100.0) | 372 (27.7) | 1,354 (100.0) | 389 (28.7) |
| 대구 | 759 (100.0) | 108 (14.2) | 815 (100.0) | 148 (18.2) | 868 (100.0) | 192 (22.1) | 929 (100.0) | 240 (25.8) | 936 (100.0) | 247 (26.4) | 948 (100.0) | 260 (27.4) |
| 인천 | 747 (100.0) | 97 (13.0) | 823 (100.0) | 142 (17.3) | 919 (100.0) | 191 (20.8) | 1,045 (100.0) | 244 (23.3) | 1,063 (100.0) | 254 (23.9) | 1,080 (100.0) | 266 (24.7) |
| 광주 | 409 (100.0) | 60 (14.7) | 460 (100.0) | 87 (18.9) | 516 (100.0) | 123 (23.8) | 567 (100.0) | 164 (28.9) | 569 (100.0) | 165 (29.0) | 576 (100.0) | 171 (29.8) |
| 대전 | 414 (100.0) | 63 (15.2) | 479 (100.0) | 99 (20.7) | 533 (100.0) | 135 (25.3) | 583 (100.0) | 169 (29.0) | 591 (100.0) | 180 (30.4) | 598 (100.0) | 188 (31.5) |
| 울산 | 307 (100.0) | 43 (14.0) | 339 (100.0) | 58 (17.1) | 374 (100.0) | 77 (20.6) | 423 (100.0) | 104 (24.6) | 426 (100.0) | 105 (24.6) | 429 (100.0) | 107 (25.1) |
| 세종 | – – | – – | – – | – – | – – | – – | 75 (100.0) | 22 (29.3) | 90 (100.0) | 28 (30.6) | 104 (100.0) | 31 (30.2) |
| 경기 | 2,669 (100.0) | 338 (12.7) | 3,329 (100.0) | 563 (16.9) | 3,831 (100.0) | 777 (20.3) | 4,385 (100.0) | 1,026 (23.4) | 4,484 (100.0) | 1,068 (23.8) | 4,603 (100.0) | 1,125 (24.4) |
| 강원 | 487 (100.0) | 92 (18.9) | 521 (100.0) | 122 (23.4) | 558 (100.0) | 155 (27.8) | 606 (100.0) | 189 (31.2) | 616 (100.0) | 198 (32.1) | 621 (100.0) | 200 (32.2) |
| 충북 | 461 (100.0) | 79 (17.1) | 505 (100.0) | 115 (22.8) | 559 (100.0) | 150 (26.8) | 602 (100.0) | 174 (28.9) | 618 (100.0) | 187 (30.3) | 629 (100.0) | 195 (31.0) |
| 충남 | 589 (100.0) | 101 (17.1) | 660 (100.0) | 149 (22.6) | 749 (100.0) | 202 (27.0) | 796 (100.0) | 235 (29.5) | 814 (100.0) | 247 (30.4) | 835 (100.0) | 260 (31.1) |
| 전북 | 602 (100.0) | 105 (17.4) | 620 (100.0) | 137 (22.1) | 660 (100.0) | 175 (26.5) | 717 (100.0) | 214 (29.8) | 725 (100.0) | 222 (30.7) | 729 (100.0) | 228 (31.2) |
| 전남 | 664 (100.0) | 131 (19.7) | 666 (100.0) | 164 (24.6) | 681 (100.0) | 197 (28.9) | 721 (100.0) | 219 (30.4) | 727 (100.0) | 227 (31.2) | 734 (100.0) | 232 (31.6) |
| 경북 | 888 (100.0) | 164 (18.5) | 939 (100.0) | 225 (24.0) | 1,005 (100.0) | 290 (28.9) | 1,063 (100.0) | 323 (30.4) | 1,077 (100.0) | 337 (31.3) | 1,088 (100.0) | 347 (31.9) |
| 경남 | 951 (100.0) | 163 (17.1) | 1,056 (100.0) | 226 (21.4) | 1,151 (100.0) | 286 (24.8) | 1,258 (100.0) | 347 (27.6) | 1,274 (100.0) | 358 (28.1) | 1,293 (100.0) | 370 (28.6)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2.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 전라북도의 가구원수별 가구규모 변화 추이를 보면 전국과 비슷하게 다인 가구는 감소하고, 2인이하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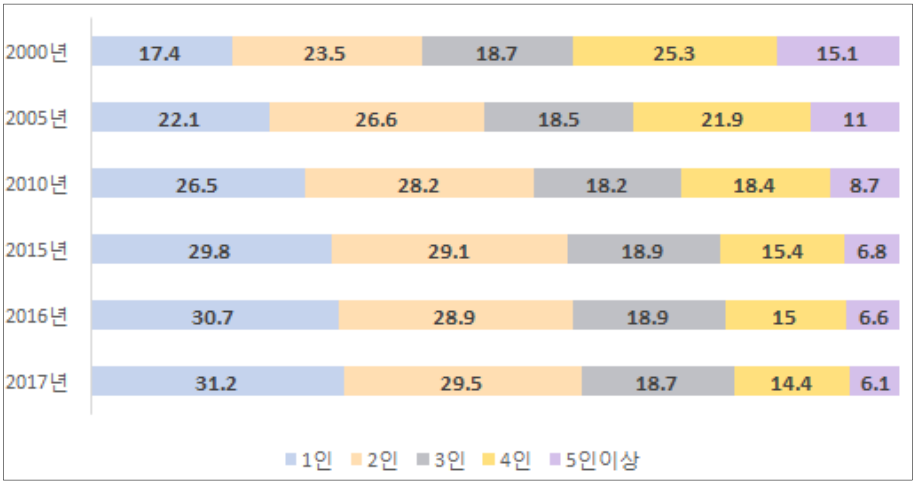
- 2000년 17.4%였던 1인가구는 13.8%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 가구의 31.2%를 차지했고, 2인가구 역시 2000년 23.5%에서 2017년 29.5%로 증가하였다.
- 전북의 1인가구와 2인가구 구성비율은 전국의 수준보다 높아 전라북도의 1~2인 가구는 전국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3인가구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4인 가구 이상은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4인가구는 2000년 25.3%에서 2017년 14.4%로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5인이상 가구도 2000년 15.1%에서 2017년 6.1%로 감소하여 가구원수별 가구 중 가장 작은 규모로 나타났다.
- 전북에서 2000년에 일반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주가구형태는 4인가구였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2인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며, 2015년 이후로는 1인가구의 구성비가 가장 높아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다.

〈표 3-5〉 전북 일반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7)

(단위 : 가구, %)

| 구분 |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전체가구 | | 601,965<br>(100.0) | 619,958<br>100.0 | 659,946<br>100.0 | 717,311<br>100.0 | 724,678<br>100.0 | 728,871<br>100.0 |
| 가구원수 | 1인 | 104,780<br>17.4 | 136,754<br>22.1 | 175,026<br>26.5 | 213,750<br>29.8 | 222,201<br>30.7 | 227,600<br>31.2 |
| | 2인 | 141,284<br>23.5 | 164,954<br>26.6 | 186,191<br>28.2 | 209,008<br>29.1 | 209,595<br>28.9 | 214,939<br>29.5 |
| | 3인 | 112,786<br>18.7 | 114,667<br>18.5 | 120,168<br>18.2 | 135,856<br>18.9 | 137,015<br>18.9 | 136,325<br>18.7 |
| | 4인 | 152,441<br>25.3 | 135,529<br>21.9 | 121,345<br>18.4 | 110,132<br>15.4 | 108,374<br>15.0 | 105,267<br>14.4 |
| | 5인 이상 | 90,674<br>15.1 | 68,054<br>11.0 | 57,216<br>8.7 | 48,565<br>6.8 | 47,493<br>6.6 | 44,740<br>6.1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4〉 전북 일반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7)

○ 전라북도 1인가구의 성별 구성원 변화를 보면, 전라북도의 1인가구를 구성하는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 2000년에 비해 2017년의 성별 차이가 많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5% 이상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보다 1인가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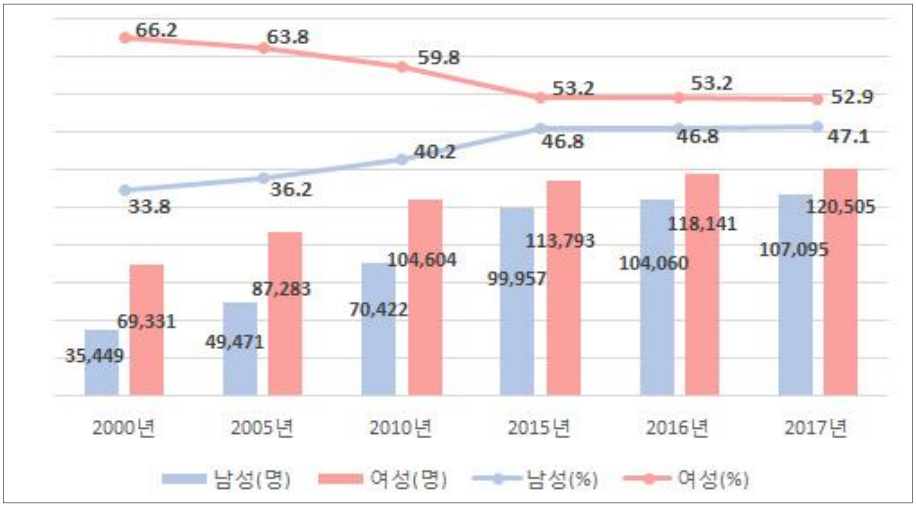
- 2000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여성이 전체의 66.2%, 남성이 전체의 33.8%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여성 1인가구의 인구가 30% 이상 많았으나,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7년에는 남성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의 47.1%, 여성 1인가구가 52.9%로 나타나 5%p 수준으로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000년 69,331가구에서 2017년 120,505가구로 73.8% 증가했고, 남성은 2000년 35,449가구에서 2017년 107,095가구로 202.1% 증가했다. 전국 증가율과 비교해봤을 때 여성은 적게(전국 120.9%), 남성은 많이(전국 195.4%) 증가한 것이다.

〈표 3-6〉 전북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17)

(단위 : 명, %)

| 구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전체 1인가구 | 104,780 (100.0) | 136,754 (100.0) | 175,026 (100.0) | 213,750 (100.0) | 222,201 (100.0) | 227,600 (100.0) |
| 남자 | 35,449 (33.8) | 49,471 (36.2) | 70,422 (40.2) | 99,957 (46.8) | 104,060 (46.8) | 107,095 (47.1) |
| 여자 | 69,331 (66.2) | 87,283 (63.8) | 104,604 (59.8) | 113,793 (53.2) | 118,141 (53.2) | 120,505 (52.9)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5〉 전북 1인가구 성별 변화 추이(2000~2017)

❍ 전라북도의 2000년과 2017년 1인가구 성별·연령대별 구성을 비교해 본 결과 남성은 20~30대 청년층의 구성비가, 여성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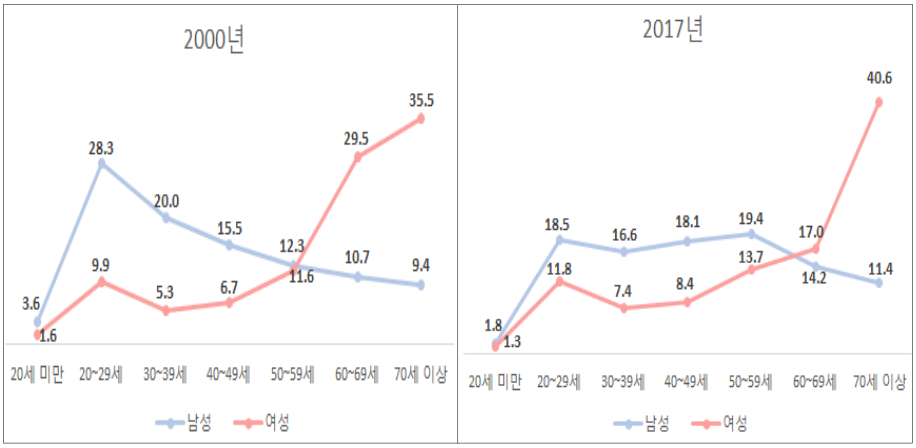
- 남성의 경우 2000년에는 20대 1인가구 구성비가 28.3%, 30대 1인가구 구성비가 20.0%로 전국의 수준보다는 적지만 20~30대 청년층의 구성비가 절반에 가까운 48.3%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청년층보다 장년층에 더 많은 1인가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업과 일자리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20~30대 미혼 청년층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 반면, 여성은 60대 이상의 노년층 구성비가 가장 높았는데, 2000년에는 60대 29.5%, 70대 이상 35.5%로 노년층의 비율이 6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70대 이상 1인가구의 구성비가 더욱 높아져 전체의 40.6%를 차지하게 되었다.

〈표 3-7〉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7년)

(단위 : 가구, %)

| 구분 | 2000년 | | | 2017년 | | |
|---|---|---|---|---|---|---|
| | 계 | 남성 | 여성 | 계 | 남성 | 여성 |
| 전체 1인가구 | 104,780 (100.0) | 35,449 (100.0) | 69,331 (100.0) | 227,600 (100.0) | 107,095 (100.0) | 120,505 (100.0) |
| 20세 미만 | 2,395 (2.3) | 1,292 (3.6) | 1,103 (1.6) | 3,482 (1.5) | 1,959 (1.8) | 1,523 (1.3) |
| 20~29세 | 16,873 (16.1) | 10,028 (28.3) | 6,845 (9.9) | 33,949 (14.9) | 19,772 (18.5) | 14,177 (11.8) |
| 30~39세 | 10,735 (10.2) | 7,076 (20.0) | 3,659 (5.3) | 26,631 (11.7) | 17,748 (16.6) | 8,883 (7.4) |
| 40~49세 | 10,123 (9.7) | 5,485 (15.5) | 4,638 (6.7) | 29,450 (12.9) | 19,354 (18.1) | 10,096 (8.4) |
| 50~59세 | 12,367 (11.8) | 4,357 (12.3) | 8,010 (11.6) | 37,307 (16.4) | 20,826 (19.4) | 16,481 (13.7) |
| 60~69세 | 24,230 (23.1) | 3,801 (10.7) | 20,429 (29.5) | 35,639 (15.7) | 15,187 (14.2) | 20,452 (17.0) |
| 70세 이상 | 28,057 (26.8) | 3,410 (9.6) | 24,647 (35.5) | 61,142 (26.9) | 12,249 (11.4) | 48,893 (40.6)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6〉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7년)

○ 전국과 전라북도 1인가구의 혼인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전국은 미혼이 가장 많은 반면, 전라북도는 사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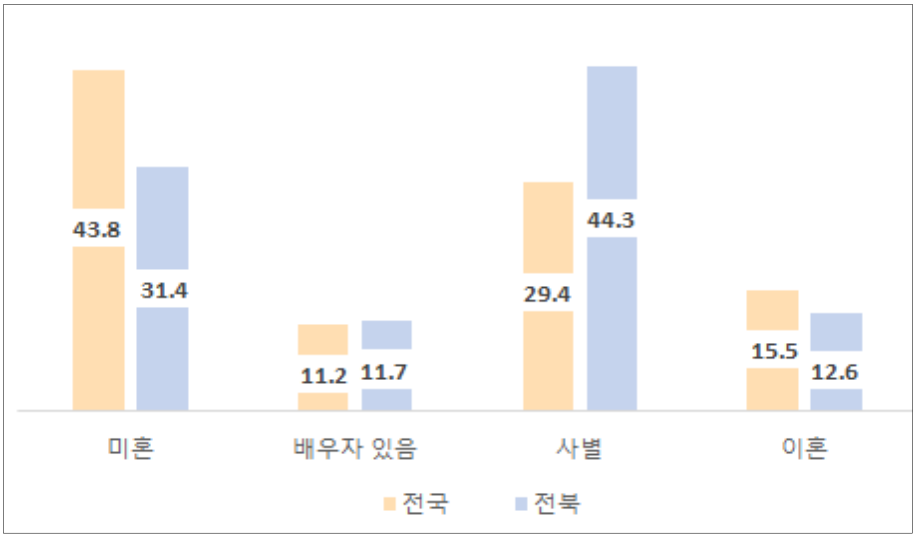
- 전국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인 상태가 4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사별이 29.4%, 이혼 15.5%, 배우자가 있는 상태가 11.2%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전북은 사별인 상태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 31.4%, 이혼 12.6%, 배우자가 있는 상태가 11.7%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전국과 전라북도의 차이는 전국적으로는 1인가구의 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청·장년층이 많은 반면, 전북의 1인가구의 구성에서는 노년층의 독거노인이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8〉 전국 및 전북의 1인가구 혼인상태 비교(2017년)

(단위 : 가구, %)

| 구분 | 계 | 미혼 | 배우자 있음 | 사별 | 이혼 |
|---|---|---|---|---|---|
| 전국 | 5,211,133<br>(100.0) | 2,284,364<br>(43.8) | 585,207<br>(11.2) | 1,531,885<br>(29.4) | 809,677<br>(15.5) |
| 전북 | 215,497<br>(100.0) | 67,6747<br>(31.4) | 25,205<br>(11.7) | 95,374<br>(44.3) | 27,244<br>(1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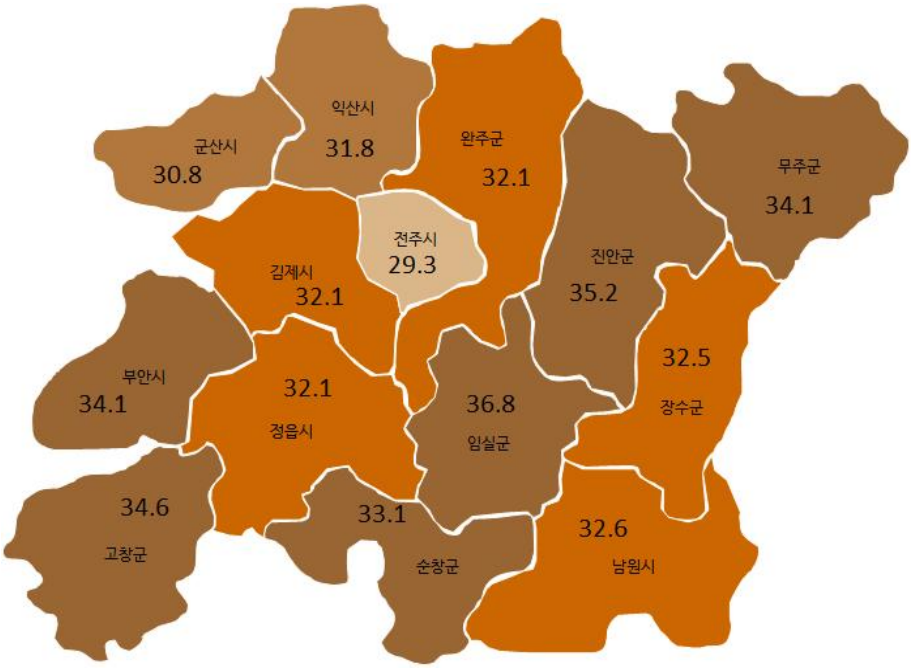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7〉 전국 및 전북의 1인가구 혼인상태 비교(2017년)

❍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은 모든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17년 기준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로 전체 가구의 36.8%가 1인 가구였다. 이어 진안 35.2%, 고창 34.6% 순이었다. 해당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곳으로 1인가구의 상당 부분을 독거 노인인 노년층이 차지할 것으로 추론된다.
- 14개 시·군 모두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대비 2017년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군산으로 16.7%p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전주 16.1%p, 익산 14.6%p 증가했다.
- 주목할만한 점은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군단위 중에서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임실, 진안, 고창의 순인데 반해, 2000년 대비 2017년의 1인가구 비율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시단위 지역이며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인 군산, 전주, 익산이라는 점이다. 전북은 2005년부터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모두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전북 시·군별 1인가구 비중(2017년)

〈표 3-9〉 전북 시군별 가구 변화 추이(200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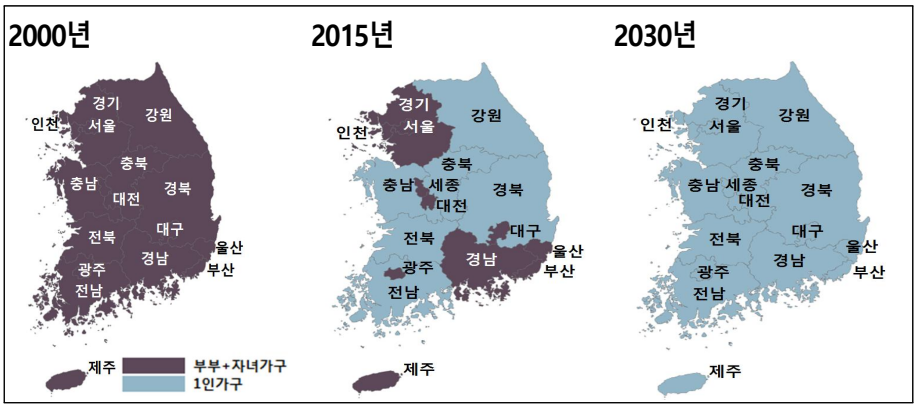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 구분 | 2000년 | | 2005년 | | 2010년 | | 2015년 | | 2017년 | |
|---|---|---|---|---|---|---|---|---|---|---|
|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일반 가구 | 1인 가구 |
| 전라북도 | 601,965 | 104,780 | 619,958 | 136,754 | 659,946 | 175,026 | 717,311 | 213,750 | 728,871 | 227,600 |
| | (100.0) | (17.4) | (100.0) | (22.1) | (100.0) | (26.5) | (100.0) | (29.8) | (100.0) | (31.2) |
| 전주 | 182,420 | 24,059 | 199,905 | 35,623 | 224,883 | 51,166 | 247,223 | 68,972 | 251,668 | 73,738 |
| | (100.0) | (13.2) | (100.0) | (17.8) | (100.0) | (22.8) | (100.0) | (27.9) | (100.0) | (29.3) |
| 군산 | 82,092 | 11,603 | 84,736 | 17,021 | 94,944 | 23,591 | 106,127 | 31,080 | 108,211 | 33,341 |
| | (100.0) | (14.1) | (100.0) | (20.1) | (100.0) | (24.8) | (100.0) | (29.3) | (100.0) | (30.8) |
| 익산 | 100,901 | 17,351 | 104,695 | 23,283 | 109,391 | 30,138 | 117,517 | 35,959 | 118,594 | 37,674 |
| | (100.0) | (17.2) | (100.0) | (22.2) | (100.0) | (27.6) | (100.0) | (30.6) | (100.0) | (31.8) |
| 정읍 | 44,174 | 9,198 | 43,430 | 10,820 | 43,716 | 12,551 | 45,119 | 13,962 | 45,458 | 14,614 |
| | (100.0) | (20.8) | (100.0) | (24.9) | (100.0) | (28.7) | (100.0) | (30.9) | (100.0) | (32.1) |
| 남원 | 32,627 | 7,098 | 32,668 | 8,674 | 31,329 | 9,156 | 33,145 | 10,378 | 33,315 | 10,855 |
| | (100.0) | (21.8) | (100.0) | (26.6) | (100.0) | (29.2) | (100.0) | (31.3) | (100.0) | (32.6) |
| 김제 | 34,867 | 7,101 | 34,045 | 8,732 | 33,295 | 10,059 | 34,671 | 10,795 | 34,726 | 11,138 |
| | (100.0) | (20.4) | (100.0) | (25.6) | (100.0) | (30.2) | (100.0) | (31.1) | (100.0) | (32.1) |
| 완주 | 25,354 | 5,395 | 26,692 | 6,141 | 29,493 | 8,012 | 35,902 | 10,671 | 38,051 | 12,230 |
| | (100.0) | (21.3) | (100.0) | (23.0) | (100.0) | (27.2) | (100.0) | (29.7) | (100.0) | (32.1) |
| 진안 | 10,225 | 2,127 | 9,176 | 2,373 | 9,153 | 3,119 | 9,932 | 3,175 | 10,211 | 3,594 |
| | (100.0) | (20.8) | (100.0) | (25.9) | (100.0) | (34.1) | (100.0) | (32.0) | (100.0) | (35.2) |
| 무주 | 9,686 | 2,099 | 9,259 | 2,486 | 9,476 | 3,132 | 9,948 | 3,197 | 10,140 | 3,460 |
| | (100.0) | (21.7) | (100.0) | (26.8) | (100.0) | (33.1) | (100.0) | (32.1) | (100.0) | (34.1) |
| 장수 | 8,582 | 1,941 | 8,226 | 2,231 | 8,300 | 2,601 | 8,975 | 2,866 | 9,094 | 2,953 |
| | (100.0) | (22.6) | (100.0) | (27.1) | (100.0) | (31.3) | (100.0) | (31.9) | (100.0) | (32.5) |
| 임실 | 11,951 | 2,971 | 11,053 | 3,325 | 10,693 | 3,609 | 11,347 | 3,708 | 11,852 | 4,364 |
| | (100.0) | (24.9) | (100.0) | (30.1) | (100.0) | (33.8) | (100.0) | (32.7) | (100.0) | (36.8) |
| 순창 | 11,758 | 2,985 | 11,026 | 3,349 | 10,891 | 3,687 | 11,440 | 3,826 | 11,518 | 3,811 |
| | (100.0) | (25.4) | (100.0) | (30.4) | (100.0) | (33.9) | (100.0) | (33.4) | (100.0) | (33.1) |
| 고창 | 24,120 | 5,702 | 22,893 | 6,596 | 22,782 | 7,458 | 23,468 | 7,773 | 23,614 | 8,181 |
| | (100.0) | (23.6) | (100.0) | (28.8) | (100.0) | (32.7) | (100.0) | (33.1) | (100.0) | (34.6) |
| 부안 | 23,208 | 5,150 | 22,154 | 6,100 | 21,600 | 6,747 | 22,497 | 7,388 | 22,419 | 7,647 |
| | (100.0) | (22.2) | (100.0) | (27.5) | (100.0) | (31.2) | (100.0) | (32.8) | (100.0) | (34.1)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3. 향후 1인가구 추계 현황

○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된 가구 유형이 1인가구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3-9〉 전국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형(2000~2030)

○ 전국과 전라북도 가구원 수 규모 추세(2000~2025)를 보면 전북은 1인가구 비율이 2000년 17.3%, 2010년 26.3%, 2020년 32.9%, 2025년 3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4인가구는 2000년 25.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에는 10.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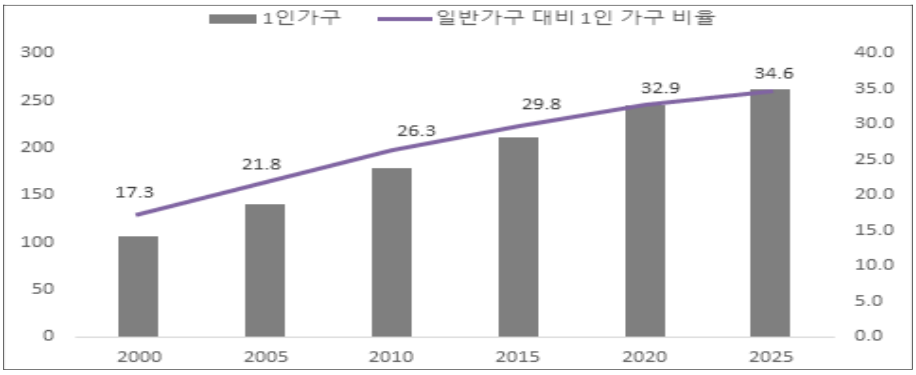
〈표 3-10〉 전국과 전북의 가구원 수 규모 추세(2000~2025)

(단위 : 천 가구, %)

| 구분 | 2000 | | 2005 | | 2010 | | 2015 | | 2020 | | 2025 | |
|---|---|---|---|---|---|---|---|---|---|---|---|---|
| | 전국 | 전북 | 전국 | 전북 | 전국 | 전북 | 전국 | 전북 | 전국 | 전북 | 전국 | 전북 |
| 1인 | 2,255<br>15.5 | 106<br>17.3 | 3,185<br>19.9 | 141<br>21.8 | 4,174<br>23.9 | 179<br>26.3 | 5,179<br>27.2 | 212<br>29.8 | 6,067<br>30.1 | 245<br>32.9 | 6,700<br>31.9 | 262<br>34.6 |
| 2인 | 2,763<br>19.1 | 143<br>23.4 | 3,523<br>22.0 | 169<br>26.2 | 4,183<br>23.9 | 188<br>27.6 | 4,953<br>26.1 | 207<br>29.1 | 5,712<br>28.3 | 230<br>30.8 | 6,406<br>30.5 | 246<br>32.5 |
| 3인 | 3,033<br>20.9 | 115<br>18.8 | 3,365<br>21.0 | 120<br>18.6 | 3,739<br>21.4 | 125<br>18.4 | 4,079<br>21.5 | 135<br>19.0 | 4,282<br>21.2 | 140<br>18.7 | 4,414<br>21.0 | 141<br>18.7 |
| 4인 | 4,509<br>31.1 | 155<br>25.4 | 4,363<br>27.2 | 144<br>22.3 | 3,980<br>22.8 | 128<br>18.9 | 3,579<br>18.8 | 109<br>15.4 | 3,141<br>15.6 | 94<br>12.6 | 2,730<br>13.0 | 79<br>10.5 |
| 5인 이상 | 1,944<br>13.4 | 92<br>15.1 | 1,600<br>10.0 | 71<br>11.1 | 1,417<br>8.1 | 59<br>8.8 | 1,220<br>6.4 | 48<br>6.8 | 969<br>4.8 | 36<br>4.9 | 761<br>3.6 | 27<br>3.6 |

출처: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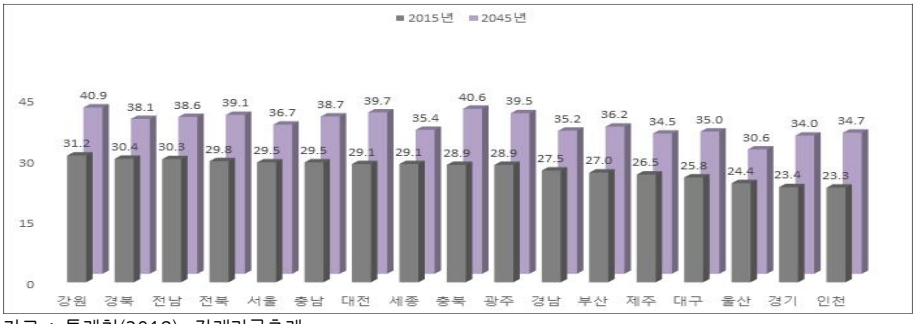
○ 일반가구가 2000년 614 천가구에서 2015년 713 천가구로 16.1% 증가한 반면, 1인가구는 2000년 106 천가구에서 2015년 212 천가구로 100.0% 증가해 2025년까지는 262 천가구로 14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함.

〈그림 3-10〉 전북 1인가구 변화 추이(2000~2025)

○ 한편,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강원이 31.2%로 가장 높고, 인천이 23.3%로 가장 낮았다. 2045년에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40.9%),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30.6%)으로 예측된다. 전라북도 또한 2015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3%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고, 향후 2045년에는 39.1%를 차지하여 강원(40.9%), 충북(40.6%) 다음의 순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 : 통계청(2018). 장래가구추계.

〈그림 3-11〉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2015 vs 2045)

4 장

#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Jeonbuk Institute

1. 농촌 1인가구 설문조사
2. 농촌 1인가구 심층면접

# Ⅳ.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 본 연구는 전북지역 농촌 1인가구의 실태와 삶의 만족도 분석을 통해 농촌 1인가구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농촌 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실태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삶의 만족도 관련 문항을  설문조사에 포함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객관적인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세대 간, 성별 간 1인가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 실시한다. 넷째, 농촌 1인가구 속에 나타난 가족관계와 가치관의 변화, 이웃관계와 사회적 관계, 1인가구의 어려움, 사회적 가족 구성의 가능성 등 실태분석을 토대로 하는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에 기초하여 농촌 1인가구 정책방향을 찾아본다.

## 1. 농촌 1인가구 설문조사

### 가. 조사개요

○ (조사대상)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를 조사하기 위해 농촌의 전형적 특성을 가진 지역을 조사하고자 전라북도의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읍·면 단위의 1인가구를 조사대상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설정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난수표를 부여하여 최종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마다 45부씩 450부를 배정하였다. 또한, 지역별 1인가구 특성의 영향으로 성별과 연령 변수의 1인가구가 과소 또는 편중 표집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당 20대~60대 최소표본이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각 9명으로서 비율이 고려되도록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조사는 2019년 9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 (조사방식) 조사대상자의 연령 특성을 고려해 설문응답이 용이한 20~40대 응답자는 직접 기록 후 바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50~60대 응답자는 조사원이 1:1로 직접 문항을 읽어준 후 기록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모집단〉

| | 읍·면 |
|---|---|
| 군산시 |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
| 익산시 |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
| 정읍시 |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태인면, 감곡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
| 남원시 | 운봉읍,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아영면, 산내면, 인월면 |
| 김제시 |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용지면, 백구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광활면 |
| 완주군 |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
| 진안군 | 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
| 무주군 |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
| 장수군 |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
| 임실군 | 임실읍, 청웅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오수면, 신덕면, 삼계면, 관촌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
| 순창군 |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쌍치면, 복흥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
| 고창군 |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
| 부안군 |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백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

〈최종선정 조사구〉

| | 지역 | 조사착수(리) | 인근(리) |
|---|---|---|---|
| 1 | 완주군 봉동읍 | 신성리 | 장기리, 낙평리, 성덕리, 고천리, 구만리 |
| 2 | 완주군 이서면 | 갈산리 | 금평리, 이성리, 상개리, 반교리 |
| 3 | 군산시 옥구읍 | 어은리 | 옥정리, 상평리, 이곡리, 수산리, 오곡리, 선제리 |
| 4 | 김제시 만경읍 | 대동리 | 만경리, 장산리, 송상리, 소토리, 화포리, 몽산리 |
| 5 | 고창군 아산면 | 구암리 | 용계리, 계산리, 반암리, 학전리, 삼인리 |
| 6 | 임실군 임실읍 | 현곡리 | 성가리, 이도리, 오정리, 두곡리, 신안리 |
| 7 | 남원시 금지면 | 귀석리 | 택내리, 상신리, 신월리, 상귀리, 하도리 |
| 8 | 정읍시 신태인읍 | 양괴리 | 백산리, 신태인리, 연정리, 우령리, 신덕리 |
| 9 | 고창군 고창읍 | 성두리 | 읍내리, 교촌리, 월곡리, 율계리, 석교리 |
| 10 | 무주군 무주읍 | 읍내리 | 내도리, 대차리, 당산리, 장백리, 오산리 |

## 나. 조사내용

○ 설문의 내용은 1인가구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들(노경혜 외, 2018; 박은미, 2018; 이중섭, 2012; 홍승아 외 2017)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영역과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 1) 실태조사 영역 및 주요 내용

| 항목 | 주요 내용 |
|---|---|
| 일반적 특성과 1인가구 형성원인 | 지역, 성별, 연령, 자녀수, 1인가구 형성원인, 결혼유무, 1인가구 유지기간, 1인가구의 장점과 단점, 등 |
|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 | 병원방문 횟수, 병원 접근성, 우울, 자살생각 |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부모·자녀 만남 빈도, 도움 청할 수 있는 사람 여부와 수, 고민 시 상담자 유무, 상담대상, 가족 및 친구와 소통빈도, 가족주의 및 개인주의 가치, 이웃의 중요도, 참여하는 마을 활동 여부, 주요 참여단체,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경제문제, 외로움, 식사, 위급 시 돕는 이 여부) 등 |
| 경제활동 | 소득, 소득원, 1달 생활비 및 지출항목, 직업 및 고용형태, 생활비 마련 방법, 주관적 계층의식 |
| 여가활동 | 누구와 여가 즐기나, 여가 시간 충분도, 여가활동 부족 이유, 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종류 |
| 생활 및 주거환경 | 주거 유형, 거주하는 주택의 불편함, 교통서비스 접근성, 안전서비스, 주택관련 불편 요인, 주택 및 주변 환경 안전성 정도, 노후의 원하는 거주 형태 등 |

### 2) 삶의 만족도 세부 내용 및 영향 요인

○ 본 연구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중요시하는 시각에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Efklides, Kalaitzidou, & Chankin, 2003)를 설문에 포함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기초적인 생활 조건을 포함하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Havighurst, 1968),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한다(Siahpush, Spittal, & Singh, 2008). 여기에서는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2014년) 지표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도를 척도로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건강, 가족의 소

득, 거주지,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여가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와 함께 전반적인 생활 만족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5점 리커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 정도와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 영역들을 살펴본 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 다. 농촌 1인가구 실태 분석결과

### 1) 농촌 1인가구의 형성원인과 장·단점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촌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45.6%(205명), 여성 54.4%(245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60대가 23.3%(105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1.8%), 50대(21.6%), 30대(18.9%), 20대(14.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모두 비교적 고르게 조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응답자의 학력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39.1%(170명)로 가장 많았고, 혼인상태를 보면, 미혼 상태가 36.7%(161명)로 가장 많았다.

〈표 4-1〉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촌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 명 | % | 구분 | | 명 | % |
|---|---|---|---|---|---|---|---|
| 성별 | 남성 | 205 | 45.6 | 학력 | 중졸이하 | 116 | 26.7 |
| | 여성 | 245 | 54.4 | | 고졸 | 170 | 39.1 |
| | 계 | 450 | 100.0 | | 대졸이상 | 149 | 34.3 |
| 연령 | 20대 | 65 | 14.4 | | 계 | 435 | 100.0 |
| | 30대 | 85 | 18.9 | 혼인상태 | 기혼 | 56 | 12.8 |
| | 40대 | 98 | 21.8 | | 미혼 | 161 | 36.7 |
| | 50대 | 97 | 21.6 | | 이혼/별거 | 131 | 29.8 |
| | 60대 | 105 | 23.3 | | 사별 | 91 | 20.7 |
| | 계 | 450 | 100.0 | | 계 | 439 | 100.0 |

| | 남성 | 여성 | 전체 |
|---|---|---|---|
| 20대 | 28<br>43.1 | 37<br>56.9 | 65<br>100.0 |
| 30대 | 38<br>44.7 | 47<br>55.3 | 85<br>100.0 |
| 40대 | 46<br>46.9 | 52<br>53.1 | 98<br>100.0 |
| 50대 | 47<br>48.5 | 50<br>51.5 | 97<br>100.0 |
| 60대 | 46<br>43.8 | 59<br>56.2 | 105<br>100.0 |

### (2) 1인가구의 형성사유

❍ [1인가구 생활기간] 1인가구로 생활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면, 평균 6.0년(중위값: 4.0년, 최빈값 3년)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6.3년)이 여성(5.8년)보다 1인가구 생활기 간이 더 길고, 연령별로는 60대가 9.8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1인가구 생활기간 역시 점차 짧게 나타났다.

〈표 4-2〉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촌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 N | 평균 | 중위값 | 최빈값 |
|---|---|---|---|---|---|
| 전체 | | 443 | 6.0년 | 4.0년 | 3년 |
| 성별 | 남성 | 202 | 6.3년 | 4.5년 | 2년 |
| | 여성 | 241 | 5.8년 | 3.0년 | 3년 |
| 연령별 | 20대 | 63 | 3.0년 | 3.0년 | 1년 |
| | 30대 | 85 | 6.1년 | 5.0년 | 3년 |
| | 40대 | 97 | 6.5년 | 5.0년 | 3년 |
| | 50대 | 96 | 6.5년 | 3.5년 | 2년 |
| | 60대 | 102 | 6.8년 | 5.0년 | 5년 |

❍ [1인가구 형성이유] 혼자 생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혼/사별 4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학교(18.9%), 가족과 사는게 불편함(11.4%), 편의/자유(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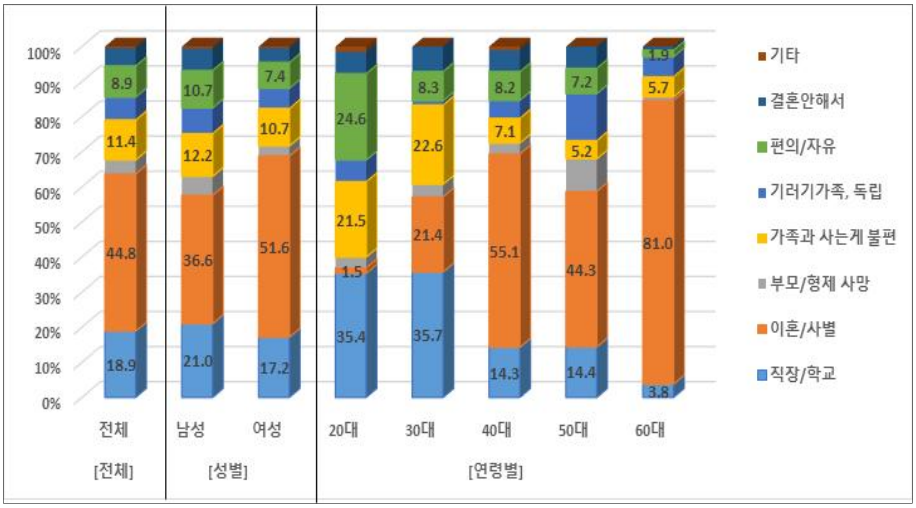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성은 이혼/사별(36.6%), 직장/학교(21.0%), 가족과 사는 게 불편해서(12.2%), 편의/자유(10.7%) 등의 순으로 높았고,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이혼/사별(51.6%), 직장/학교(17.2%), 가족과 사는게 불편(10.7%), 편의/자유(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순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하였으나,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이혼/사별 사유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는 직장/학교(35.4%), 가족과 사는 게 불편(21.5%), 편의/자유(24.6%) 사유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직장/학교(35.7%), 가족과 사는 게 불편(22.6%), 이혼/사별(21.4%) 등의 사유가 높았다. 40·50·60대에서 이혼/사별 사유가 가장 높은 가운데, 60대의 81.0%가 특히 눈에 띄는데 이는 60대에 사별이 몰려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 성인이 되어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1인가구를 고수하는 이유가 가족과 사는 게 불편함이 20대는 21.5%, 30대는 22.6%이고 자신의 편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20대 24.6%, 30대 8.3%이다. 반면에 50대와 60대에서는 가족과 사는 게 불편함이 5.2%, 5.7%이고, 편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각각 7.2%, 1.9%에 머물러 20대~30대의 응답과 50대~60대의 응답이 크게 대비되며 가족관계의 변화를 시사한다. 20~30대에서는 직장과 학교로 인한 1인가구 사유가 35.4%, 35.7%인데 50대는 14.4%, 60대는 급격히 낮아진 3.8%에 머물러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표 4-3〉 1인가구 형성이유

(단위: %)

| | | N | 직장/학교 | 이혼/사별 | 부모/형제 사망 | 가족과 사는게 불편 | 기러기 가족, 독립 | 편의/자유를 위해서 | 결혼 안해서 | 기타 |
|---|---|---|---|---|---|---|---|---|---|---|
| 전체 | | 449 | 18.9 | 44.8 | 4.0 | 11.4 | 6.5 | 8.9 | 5.1 | 0.4 |
| 성별 | 남성 | 205 | 21.0 | 36.6 | 5.4 | 12.2 | 7.3 | 10.7 | 6.3 | 0.5 |
| | 여성 | 244 | 17.2 | 51.6 | 2.9 | 10.7 | 5.7 | 7.4 | 4.1 | 0.4 |
| 연령별 | 20대 | 65 | 35.4 | 1.5 | 3.1 | 21.5 | 6.2 | 24.6 | 6.2 | 1.5 |
| | 30대 | 84 | 35.7 | 21.4 | 3.6 | 22.6 | 1.2 | 8.3 | 7.1 | 0.0 |
| | 40대 | 98 | 14.3 | 55.1 | 3.1 | 7.1 | 5.1 | 8.2 | 6.1 | 1.0 |
| | 50대 | 97 | 14.4 | 44.3 | 9.3 | 5.2 | 13.4 | 7.2 | 6.2 | 0.0 |
| | 60대 | 105 | 3.8 | 81.0 | 1.0 | 5.7 | 5.7 | 1.9 | 1.0 | 0.0 |




〈그림 4-1〉 1인가구 형성이유

### (3) 1인가구 장·단점과 원하는 거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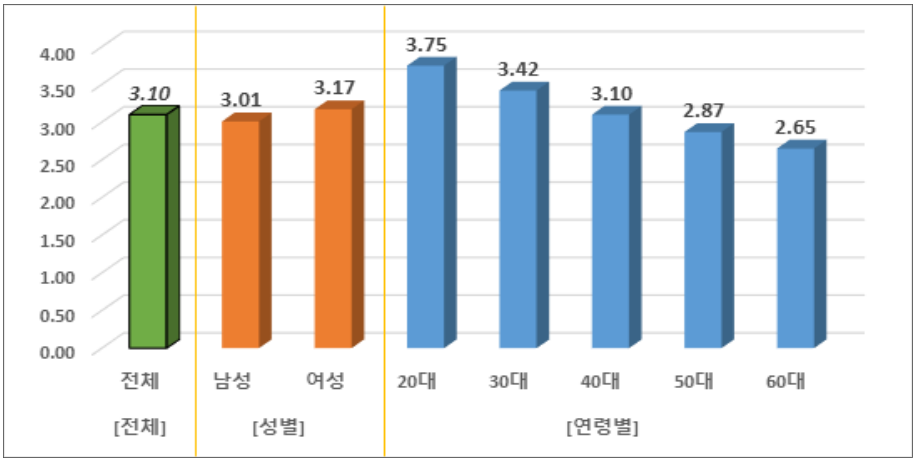
❍ [1인가구 생활 만족도]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39.1%로 만족하지 않는다(32.0%)는 응답 보다 약 7%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5점척도에서 3.10점으로 '보통'수준이라 할 수 있다.

- 성별로는 여성의 만족도가 3.17점으로 남성(3.01점)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75점으로 가장 높고, 60대가 2.65점으로 가장 낮았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4-4〉 1인가구 생활 만족도

(단위: %, 점)

| | | N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만족하지 않음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평균 (5점기준)* |
|---|---|---|---|---|---|---|---|---|
| 전체 | | 450 | 5.3 | 26.7 | 28.9 | 30.9 | 8.2 | *3.10* |
| 성별 | 남성 | 205 | 5.9 | 28.8 | 30.2 | 28.3 | 6.8 | *3.01* |
| | 여성 | 245 | 4.9 | 24.9 | 27.8 | 33.1 | 9.4 | *3.17* |
| 연령별 | 20대 | 65 | 0.0 | 10.8 | 26.2 | 40.0 | 23.1 | *3.75* |
| | 30대 | 85 | 7.1 | 8.2 | 29.4 | 45.9 | 9.4 | *3.42* |
| | 40대 | 98 | 2.0 | 32.7 | 25.5 | 32.7 | 7.1 | *3.10* |
| | 50대 | 97 | 6.2 | 30.9 | 35.1 | 25.8 | 2.1 | *2.87* |
| | 60대 | 105 | 9.5 | 41.9 | 27.6 | 16.2 | 4.8 | *2.65* |




〈그림 4-2〉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주요 관심사]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건강'이 129.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취·창업(122.5점)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은 건강(56.5점)과 취·창업(49.0점), 여성은 취·창업(73.5점)과 건강(73.0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취·창업 점수의 성별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가 높은 데 비해 이를 실현할 여건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로는 2030대는 취·창업, 직장생활, 결혼을 가장 많이 선택해 유사했고, 4050대는 정년퇴직을 염두에 두어 재테크가 우선순위에 나타났으며, 50대부터는 건강이 가장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해 60대에서는 '건강'이 73.5점으로 압도적인 관심사가 되는 등 생애주기 특성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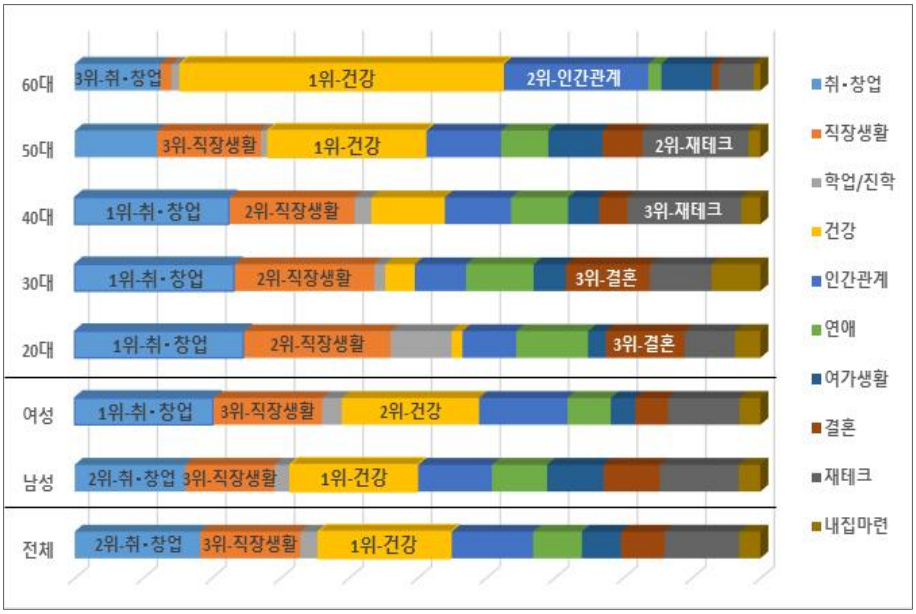
〈표 4-5〉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1-2순위)

(단위: 명, 점)

| | | | 취창업 | 직장 생활 | 학업/ 진학 | 건강 | 인간 관계 | 연애 | 여가 생활 | 결혼 | 재테크 | 내집 마련 |
|---|---|---|---|---|---|---|---|---|---|---|---|---|
| 전체 | | 1순위 | 103 | 77 | 10 | 93 | 40 | 31 | 19 | 26 | 42 | 7 |
| | | 2순위 | 39 | 41 | 15 | 73 | 80 | 33 | 38 | 33 | 62 | 27 |
| | | *종합* | *122.5* | *97.5* | *17.5* | *129.5* | *80.0* | *47.5* | *38.0* | *42.5* | *73.0* | *20.5* |
| 성별 | 남성 | 1순위 | 40 | 30 | 5 | 40 | 18 | 15 | 14 | 17 | 20 | 4 |
| | | 2순위 | 18 | 19 | 4 | 33 | 30 | 19 | 22 | 16 | 30 | 11 |
| | | *종합* | *49.0* | *39.5* | *7.0* | *56.5* | *33.0* | *24.5* | *25.0* | *25.0* | *35.0* | *9.5* |
| | 여성 | 1순위 | 63 | 47 | 5 | 53 | 22 | 16 | 5 | 9 | 22 | 3 |
| | | 2순위 | 21 | 22 | 11 | 40 | 50 | 14 | 16 | 17 | 32 | 16 |
| | | 종합 | 73.5 | 58.0 | 10.5 | 73.0 | 47.0 | 23.0 | 13.0 | 17.5 | 38.0 | 11.0 |
| 연령별 | 20대 | 1순위 | 20 | 17 | 4 | 0 | 4 | 6 | 1 | 6 | 5 | 1 |
| | | 2순위 | 7 | 7 | 9 | 3 | 7 | 8 | 3 | 10 | 4 | 5 |
| | | *종합* | *23.5* | *20.5* | *8.5* | *1.5* | *7.5* | *10.0* | *2.5* | *11.0* | *7.0* | *3.5* |
| | 30대 | 1순위 | 26 | 17 | 1 | 3 | 7 | 8 | 4 | 9 | 5 | 5 |
| | | 2순위 | 7 | 18 | 2 | 5 | 5 | 9 | 4 | 13 | 13 | 8 |
| | | *종합* | *29.5* | *26.0* | *2.0* | *5.5* | *9.5* | *12.5* | *6.0* | *15.5* | *11.5* | *9.0* |
| | 40대 | 1순위 | 29 | 22 | 3 | 10 | 5 | 7 | 5 | 3 | 12 | 1 |
| | | 2순위 | 7 | 9 | 1 | 11 | 18 | 10 | 3 | 6 | 24 | 6 |
| | | *종합* | *32.5* | *26.5* | *3.5* | *15.5* | *14.0* | *12.0* | *6.5* | *6.0* | *24.0* | *4.0* |

| | | | 취창업 | 직장생활 | 학업/진학 | 건강 | 인간관계 | 연애 | 여가생활 | 결혼 | 재테크 | 내집마련 |
|---|---|---|---|---|---|---|---|---|---|---|---|---|
| | 50대 | 1순위 | 14 | 19 | 1 | 20 | 9 | 8 | 5 | 7 | 14 | 0 |
| | | 2순위 | 7 | 6 | 1 | 27 | 14 | 4 | 13 | 3 | 17 | 5 |
| | | *종합* | *17.5* | *22.0* | *1.5* | *33.5* | *16.0* | *10.0* | *11.5* | *8.5* | *22.5* | *2.5* |
| | 60대 | 1순위 | 14 | 2 | 1 | 60 | 15 | 2 | 4 | 1 | 6 | 0 |
| | | 2순위 | 11 | 1 | 2 | 27 | 36 | 2 | 15 | 1 | 4 | 3 |
| | | *종합* | *19.5* | *2.5* | *2.0* | *73.5* | *33.0* | *3.0* | *11.5* | *1.5* | *8.0* | *1.5* |

주. 종합=[(1순위)*2+(2순위)]/2




〈그림 4-3〉 주요 관심사 종합(1위~3위)

○ [1인가구 생활의 장점] 현재 1인가구로 생활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29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가시간의 활용(149.0점)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유로운 의사결정 〉 여가시간 활용 〉 직장몰입」 등의 순으로 장점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역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여가시간 활용이 1위와 2위로 동일하였다. 따라서 1인가구 생활의 장점은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여가시간 활용이 주요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

〈표 4-6〉 1인가구 생활의 장점(1-2순위)

(단위: 명, 점)

| | | | 자유로운 의사결정 | 여가시간 활용 | 일(직장)에 몰입 | 자유로운 연애 | 부양부담 완화 | 기타 |
|---|---|---|---|---|---|---|---|---|
| 전체 | | 1순위 | 266 | 89 | 54 | 15 | 24 | 1 |
| | | 2순위 | 60 | 120 | 101 | 87 | 45 | 3 |
| | | *종합* | *296.0* | *149.0* | *104.5* | *58.5* | *46.5* | *2.5* |
| 성별 | 남성 | 1순위 | 120 | 40 | 27 | 8 | 10 | 0 |
| | | 2순위 | 28 | 52 | 55 | 40 | 19 | 2 |
| | | *종합* | *134.0* | *66.0* | *54.5* | *28.0* | *19.5* | *1.0* |
| | 여성 | 1순위 | 146 | 49 | 27 | 7 | 14 | 1 |
| | | 2순위 | 32 | 68 | 46 | 47 | 26 | 1 |
| | | 종합 | 162.0 | 83.0 | 50.0 | 30.5 | 27.0 | 1.5 |
| 연령별 | 20대 | 1순위 | 34 | 19 | 6 | 5 | 1 | 0 |
| | | 2순위 | 9 | 15 | 16 | 20 | 2 | 0 |
| | | *종합* | *38.5* | *26.5* | *14.0* | *15.0* | *2.0* | *0.0* |
| | 30대 | 1순위 | 49 | 19 | 10 | 2 | 5 | 0 |
| | | 2순위 | 5 | 20 | 17 | 32 | 7 | 0 |
| | | *종합* | *51.5* | *29.0* | *18.5* | *18.0* | *8.5* | *0.0* |
| | 40대 | 1순위 | 57 | 17 | 12 | 6 | 5 | 1 |
| | | 2순위 | 16 | 28 | 26 | 18 | 5 | 1 |
| | | *종합* | *65.0* | *31.0* | *25.0* | *15.0* | *7.5* | *1.5* |
| | 50대 | 1순위 | 56 | 18 | 19 | 1 | 3 | 0 |
| | | 2순위 | 15 | 29 | 24 | 8 | 13 | 0 |
| | | *종합* | *63.5* | *32.5* | *31.0* | *5.0* | *9.5* | *0.0* |
| | 60대 | 1순위 | 70 | 16 | 7 | 1 | 10 | 0 |
| | | 2순위 | 15 | 28 | 18 | 9 | 18 | 2 |
| | | *종합* | *77.5* | *30.0* | *16.0* | *5.5* | *19.0* | *1.0* |

주. 종합=[(1순위)*2+(2순위)]/2

〈표 4-7〉 1인가구 생활의 장점(1위~3위)

| | 전체 | 성별 | | 연령별 | | | | |
|---|---|---|---|---|---|---|---|---|
| | | 남성 | 여성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1위 | 의사결정 | 의사결정 | 의사결정 | 의사결정 | 의사결정 | 의사결정 | 의사결정 | 의사결정 |
| 2위 | 여가시간 | 여가시간 | 여가시간 | 여가시간 | 여가시간 | 여가시간 | 여가시간 | 여가시간 |
| 3위 | 직장몰입 | 직장몰입 | 직장몰입 | 자유연애 | 직장몰입 | 직장몰입 | 직장몰입 | 부양완화 |

❍ [1인가구 생활의 단점] 현재 1인가구로 생활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외로움'이 18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순위에 경제불안(169.5점)이 올라 있다. 1인가구에서 경제적인 문제 외에 정신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성별로는 남성은 '외로움', 여성은 '경제불안' 단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 연령별로는 2030은 경제불안이 가장 곤란한 점이나, 40대 이후부터는 외로움이 가장 높았다.

〈표 4-8〉 1인가구 생활의 단점(1-2순위)

(단위: 명, 점)

| | | | 경제 불안 | 외로움 | 위급 (아픔) | 주위의 시선/ 편견 | 안전 불안감 | 임종에 대한 불안 | 반려 동물 키우기 | 주택 관리 어려움 |
|---|---|---|---|---|---|---|---|---|---|---|
| 전체 | | 1순위 | 155 | 136 | 91 | 35 | 22 | 3 | 5 | 3 |
| | | 2순위 | 29 | 88 | 124 | 112 | 29 | 16 | 19 | 17 |
| | | *종합* | *169.5* | *180.0* | *153.0* | *91.0* | *36.5* | *11.0* | *14.5* | *11.5* |
| 성별 | 남성 | 1순위 | 54 | 81 | 43 | 19 | 4 | 1 | 2 | 1 |
| | | 2순위 | 16 | 34 | 64 | 51 | 4 | 7 | 7 | 9 |
| | | *종합* | *62.0* | *98.0* | *75.0* | *44.5* | *6.0* | *4.5* | *5.5* | *5.5* |
| | 여성 | 1순위 | 101 | 55 | 48 | 16 | 18 | 2 | 3 | 2 |
| | | 2순위 | 13 | 54 | 60 | 61 | 25 | 9 | 12 | 8 |
| | | *종합* | *107.5* | *82.0* | *78.0* | *46.5* | *30.5* | *6.5* | *9.0* | *6.0* |
| 연령별 | 20대 | 1순위 | 25 | 16 | 7 | 2 | 11 | 0 | 2 | 2 |
| | | 2순위 | 4 | 12 | 16 | 4 | 8 | 0 | 12 | 5 |
| | | *종합* | *27.0* | *22.0* | *15.0* | *4.0* | *15.0* | *0.0* | *8.0* | *4.5* |
| | 30대 | 1순위 | 32 | 22 | 14 | 8 | 6 | 1 | 1 | 1 |
| | | 2순위 | 5 | 12 | 24 | 21 | 12 | 1 | 4 | 3 |
| | | *종합* | *34.5* | *28.0* | *26.0* | *18.5* | *12.0* | *1.5* | *3.0* | *2.5* |
| | 40대 | 1순위 | 37 | 31 | 18 | 7 | 3 | 0 | 2 | 0 |
| | | 2순위 | 3 | 19 | 21 | 38 | 7 | 2 | 2 | 3 |
| | | *종합* | *38.5* | *40.5* | *28.5* | *26.0* | *6.5* | *1.0* | *3.0* | *1.5* |
| | 50대 | 1순위 | 27 | 33 | 24 | 12 | 1 | 0 | 0 | 0 |
| | | 2순위 | 5 | 20 | 31 | 26 | 1 | 7 | 1 | 3 |
| | | *종합* | *29.5* | *43.0* | *39.5* | *25.0* | *1.5* | *3.5* | *0.5* | *1.5* |
| | 60대 | 1순위 | 34 | 34 | 28 | 6 | 1 | 2 | 0 | 0 |
| | | 2순위 | 12 | 25 | 32 | 23 | 1 | 6 | 0 | 3 |
| | | *종합* | *40.0* | *46.5* | *44.0* | *17.5* | *1.5* | *5.0* | *0.0* | *1.5* |

주. 종합=[(1순위)*2+(2순위)]/2

〈표 4-9〉 1인가구 생활의 단점(1위~3위)

| | 전체 | 성별 | | 연령별 | | | | |
|---|---|---|---|---|---|---|---|---|
| | | 남성 | 여성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1위 | 외로움 | 외로움 | 경제불안 | 경제불안 | 경제불안 | 외로움 | 외로움 | 외로움 |
| 2위 | 경제불안 | 위급상황 | 외로움 | 외로움 | 외로움 | 경제불안 | 위급상황 | 위급상황 |
| 3위 | 위급상황 | 경제불안 | 위급상황 | 위급 안전 | 위급상황 | 위급상황 | 경제불안 | 경제불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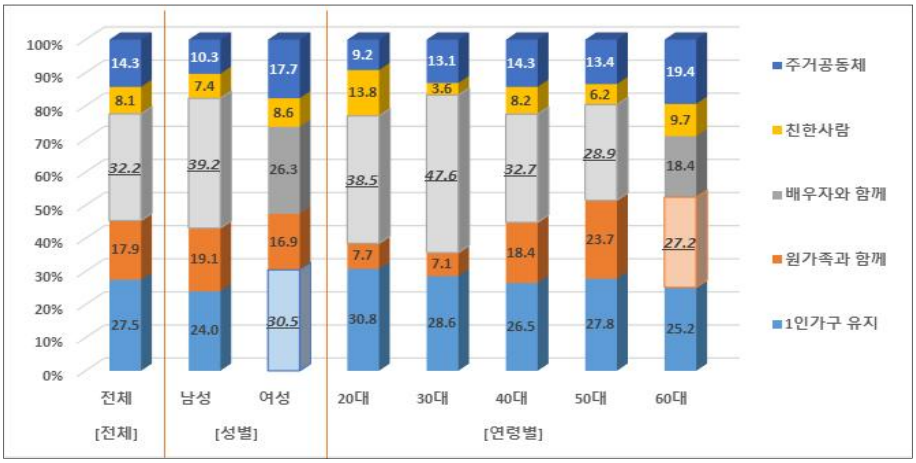
○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향후 조건이 된다면 원하는 가구·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인가구 유지(27.5%), 원가족과 함께(17.9%), 주거공동체(14.3%) 등의 순이었다.

- 성별로는 남성이 '원가족과 함께' 또는 '배우자와 함께' 등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1인가구 유지' 또는 '주거공동체' 등 1인가구와 대안 가족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제도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주는 무게와 의무가 더 많아 여성의 결혼회피율이 높은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 연령별로는 20대~50대는 '배우자와 함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30대: 47.6%), 60대는 사별의 영향으로 '원가족과 함께'를 가장 많이 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4-10〉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단위: %)

| | | N | 지금처럼 계속 혼자 | 원가족과 함께 | 배우자와 함께 | 친구 등 친한사람 | 주거 공동체 |
|---|---|---|---|---|---|---|---|
| 전체 | | 447 | 27.5 | 17.9 | 32.2 | 8.1 | 14.3 |
| 성별 | 남성 | 204 | 24.0 | 19.1 | 39.2 | 7.4 | 10.3 |
| | 여성 | 243 | 30.5 | 16.9 | 26.3 | 8.6 | 17.7 |
| 연령별 | 20대 | 65 | 30.8 | 7.7 | 38.5 | 13.8 | 9.2 |
| | 30대 | 84 | 28.6 | 7.1 | 47.6 | 3.6 | 13.1 |
| | 40대 | 98 | 26.5 | 18.4 | 32.7 | 8.2 | 14.3 |
| | 50대 | 97 | 27.8 | 23.7 | 28.9 | 6.2 | 13.4 |
| | 60대 | 103 | 25.2 | 27.2 | 18.4 | 9.7 | 19.4 |




〈그림 4-4〉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 2) 농촌 1인가구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와 보건환경

### (1)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

○ [자살생각·경험] 지난 6개월간 자살 관련한 생각과 경험을 살펴본 결과, 평균 1.81점으로 나타났다(5점기준).

-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여성이 소폭 높은 편이었고, 연령별로는 60대 그룹에서 자살생각(종합)이 가장 높아 20-40대 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60대 집단이 높은 자살생각은 이 집단의 독거비율이 높은데 따른 정신건강 악화와 관련된다.* 2019년 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전북의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49.5명으로 전국 6위였다. 노인층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살생각의 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떠한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질문의 내용, 질문문항 수, 척도차이, 연구대상자와 연구년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다만 참조를 위해 D시의 65세 이상의 노인들(다인가구 포함)을 대상으로 5문항 4점 척도로 구성한 자살생각 연구(오윤정·김향동, 2018)에서는 평균 1.65점이 나왔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결과는 3문항 5점척도에서 60대 이상 1인가구의 자살생각이 2.0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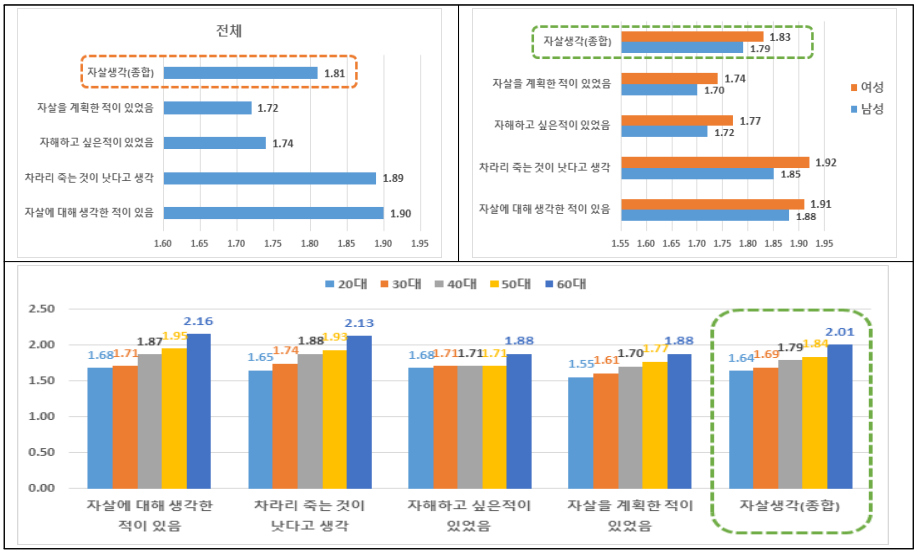
〈표 4-11〉 지난 6개월간 자살생각·경험

(단위: 점/5점기준)

| | | 자살 생각한 적이 있음 |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 | 자해하고 싶은적 있었음 |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었음 | **자살생각 (종합)** |
|---|---|---|---|---|---|---|
| 전체 | | 1.90 | 1.89 | 1.74 | 1.72 | **1.81** |
| 성별 | 남성 | 1.88 | 1.85 | 1.72 | 1.70 | **1.79** |
| | 여성 | 1.91 | 1.92 | 1.77 | 1.74 | **1.83** |
| | *t* | *-.31* | *-.94* | *-.78* | *-.56* | ***-.69*** |
| 연령별 | 20대 | 1.68a | 1.65a | 1.68 | 1.55a | **1.64a** |
| | 30대 | 1.71ab | 1.74ab | 1.71 | 1.61a | **1.69a** |
| | 40대 | 1.87ab | 1.88ab | 1.71 | 1.70ab | **1.79a** |
| | 50대 | 1.95bc | 1.93bc | 1.71 | 1.77ab | **1.84ab** |
| | 60대 | 2.16c | 2.13c | 1.88 | 1.88b | **2.01b** |
| | *F* | *5.79**** | *4.85**** | *1.30* | *3.10** | ***4.30**** |

*p<.05, **p<.01, ***p<.001

.




〈그림 4-5〉 지난 6개월간 자살생각·경험

❍ [심리상태] 지난 1개월간의 심리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피곤감(기력저하)'을 느꼈다는 응답이 2.73점으로 가장 높고, 나로 인해 가족이 불안하다는 느낌이 가장 낮았다. 종합적인 심리상태는 2.55점으로 나타났다(5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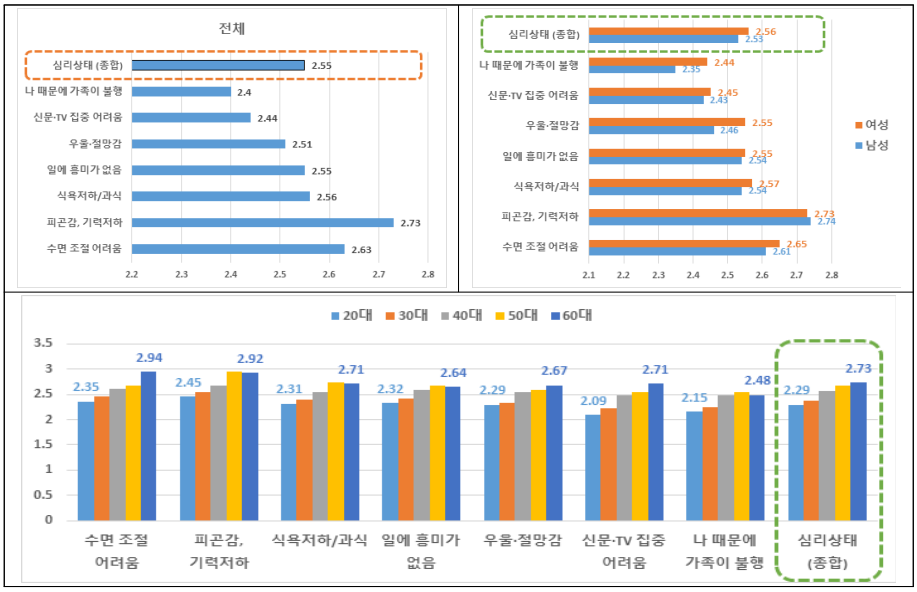
-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20대가 가장 낮았고, 50·60대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종합적인 심리상태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한 심리상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

(단위: 점/5점기준)

| | | 수면조절 실패 | 피곤·기력저하 | 식욕저하/과식 | 흥미 없음 | 우울·절망감 | 집중이 어려움 | 나 때문에 가족 불행 | **심리상태 (종합)** |
|---|---|---|---|---|---|---|---|---|---|
| 전체 | | 2.63 | 2.73 | 2.56 | 2.55 | 2.51 | 2.44 | 2.40 | **2.55** |
| 성별 | 남성 | 2.61 | 2.74 | 2.54 | 2.54 | 2.46 | 2.43 | 2.35 | **2.53** |
| | 여성 | 2.65 | 2.73 | 2.57 | 2.55 | 2.55 | 2.45 | 2.44 | **2.56** |
| | *t* | *-.39* | *.10* | *-.31* | *-.11* | *-1.10* | *-.29* | *-1.03* | ***-.49*** |
| 연령별 | 20대 | 2.35a | 2.45a | 2.31a | 2.32a | 2.29a | 2.09a | 2.15a | **2.29a** |
| | 30대 | 2.46ab | 2.55a | 2.39a | 2.42ab | 2.33ab | 2.22ab | 2.24ab | **2.37ab** |
| | 40대 | 2.60ab | 2.67ab | 2.54ab | 2.58ab | 2.55abc | 2.47bc | 2.47bc | **2.56bc** |
| | 50대 | 2.67b | 2.95c | 2.73b | 2.67b | 2.59bc | 2.55c | 2.55c | **2.68c** |
| | 60대 | 2.94c | 2.92c | 2.71b | 2.64b | 2.67c | 2.71c | 2.48bc | **2.73c** |
| | *F* | *5.33*** | *4.76*** | *3.59*** | *2.37** | *3.04** | *6.99*** | *2.96** | ***5.59*****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한 심리상태를 의미함
*p<.05, **p<.01, ***p<.001




〈그림 4-6〉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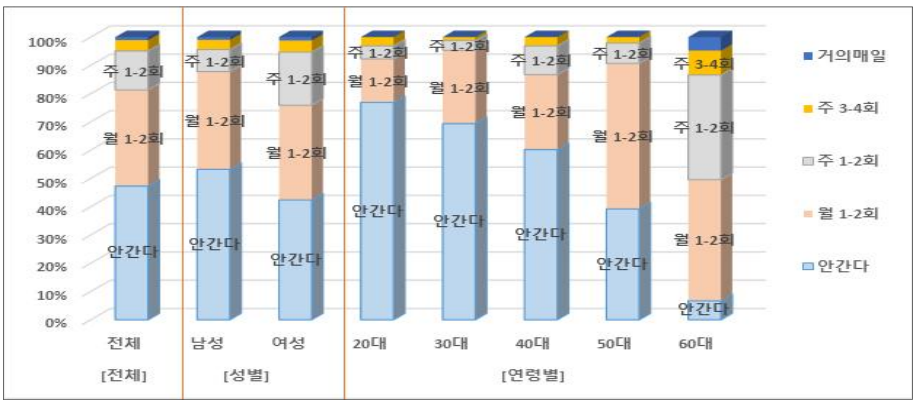
❍ [병원방문 빈도] 질병이나 신체적 이유로 얼마나 병원에 방문했는지 살펴본 결과, 52.7%가 월 1회이상 병원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 1-2회' 방문이 3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1-2회'가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병원진료를 받는다는 응답이 10.8%p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은 '주 1-2회'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병원진료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그룹에서는 병원방문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13〉 병원방문 빈도

(단위: %)

| | | N | 안간다 | 간다 | | | |
|---|---|---|---|---|---|---|---|
| | | | | 월 1-2회 | 주 1-2회 | 주 3-4회 | 거의매일 |
| 전체 | | 450 | *47.3* | 34.0 | 13.8 | 3.8 | 1.1 |
| 성별 | 남성 | 205 | *53.2* | 34.6 | 7.8 | 3.4 | 1.0 |
| | 여성 | 245 | *42.4* | 33.5 | 18.8 | 4.1 | 1.2 |
| 연령별 | 20대 | 65 | *76.9* | 15.4 | 4.6 | 3.1 | 0.0 |
| | 30대 | 85 | *69.4* | 25.9 | 3.5 | 1.2 | 0.0 |
| | 40대 | 98 | *60.2* | 26.5 | 10.2 | 3.1 | 0.0 |
| | 50대 | 97 | *39.2* | 51.5 | 7.2 | 2.1 | 0.0 |
| | 60대 | 105 | *6.7* | 42.9 | 37.1 | 8.6 | 4.8 |




〈그림 4-7〉 병원방문 빈도

### (2) 보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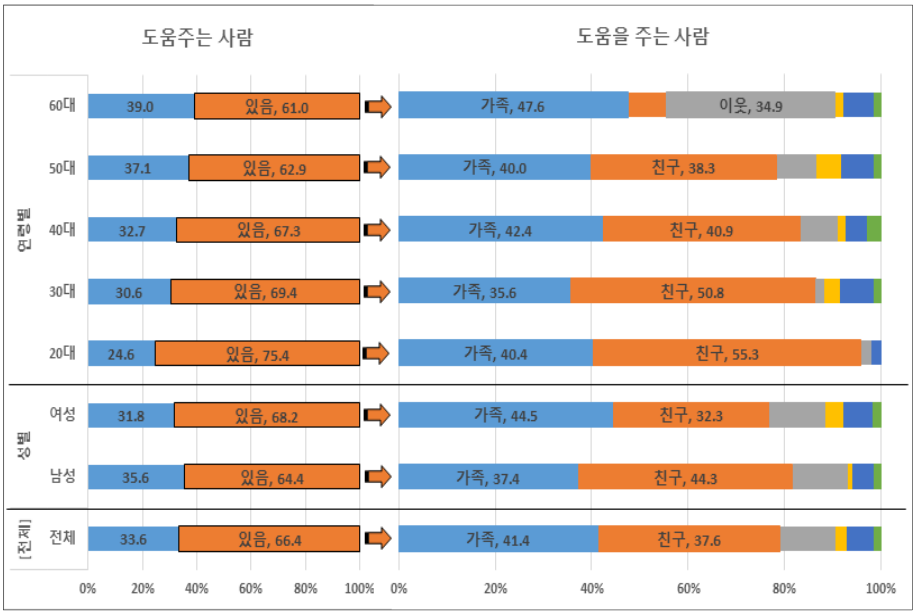
○ [도구적 지지] 혼자 생활하면서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6.4%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평균 2.1명). 그 대상은 가족(41.4%), 친구(37.6%), 이웃(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33.6%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로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응답이 여성이 더 높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남성은 친구, 여성은 가족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성별분업을 통해 가족내 정서적 친밀성을 담당해온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된다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없다'는 응답이 높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60대는 '이웃'이라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 1인가구 지원정책에 특히 커뮤니티기반의 케어 실효성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표 4-14〉 도구적 지지 현황

(단위: %, 명)

| | | N | 없음 | 있음 | ⇨ 있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 | | | | | | |
|---|---|---|---|---|---|---|---|---|---|---|---|
| | | | | | (명) | 가족 | 친구 | 이웃 | 정부지원 도우미 | 종교기관 동호회원 | 기타 |
| 전체 | | 450 | 33.6 | 66.4 | (2.1) | 41.4 | 37.6 | 11.5 | 2.4 | 5.4 | 1.7 |
| 성별 | 남성 | 205 | 35.6 | 64.4 | (2.0) | 37.4 | 44.3 | 11.5 | 0.8 | 4.6 | 1.5 |
| | 여성 | 245 | 31.8 | 68.2 | (2.1) | 44.5 | 32.3 | 11.6 | 3.7 | 6.1 | 1.8 |
| 연령별 | 20대 | 65 | 24.6 | 75.4 | (2.3) | 40.4 | 55.3 | 2.1 | 0.0 | 2.1 | 0.0 |
| | 30대 | 85 | 30.6 | 69.4 | (2.6) | 35.6 | 50.8 | 1.7 | 3.4 | 6.8 | 1.7 |
| | 40대 | 98 | 32.7 | 67.3 | (2.2) | 42.4 | 40.9 | 7.6 | 1.5 | 4.5 | 3.0 |
| | 50대 | 97 | 37.1 | 62.9 | (1.7) | 40.0 | 38.3 | 8.3 | 5.0 | 6.7 | 1.7 |
| | 60대 | 105 | 39.0 | 61.0 | (1.8) | 47.6 | 7.9 | 34.9 | 1.6 | 6.3 | 1.6 |




〈그림 4-8〉 도구적 지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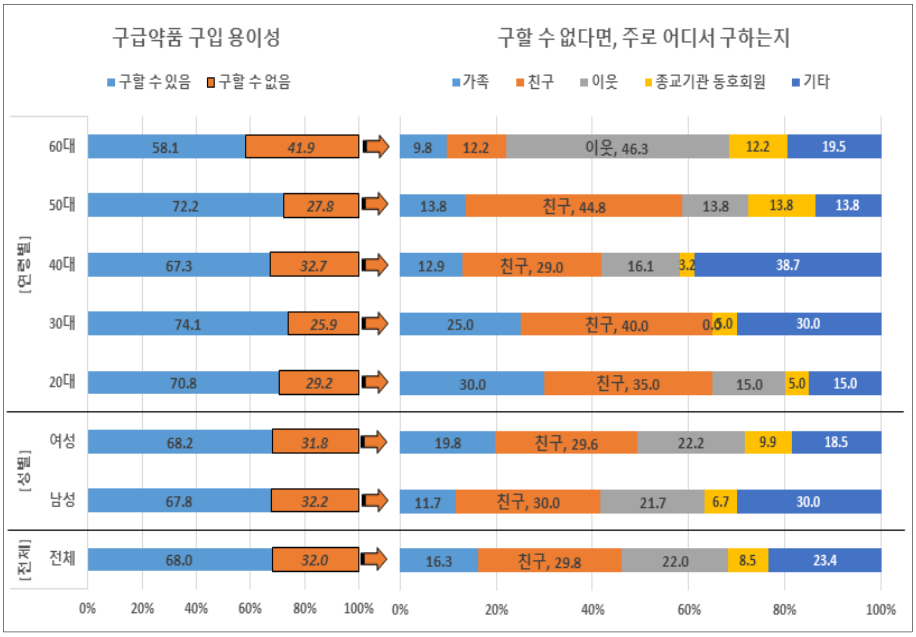
❍ [구급약품 접근성] 야간 응급상황 시, 구급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자의 32.0%가 의약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주로 친구(29.8%)나 이웃(22.0%)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구급약품 접근성은 비슷한 분포였으며, 여성은 주로 가족(19.8%) 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30대는 약 70%가 쉽게 의약품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60대는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응답이 41.9%에 달했고, 대체적으로 '이웃'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급약품 접근성이 70%정도에 불과해 이용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0대는 41.9%가 쉽게 구할 수 없다고 응답하여, 구급약품의 위치파악 등 정보획득 및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5〉 구급약품 접근성

(단위: %)

| | | N | 네 | 아니오 | ⟹ 그렇다면, 주로 어디서 구하는지 | | | | |
|---|---|---|---|---|---|---|---|---|---|
| | | | | | 가족 | 친구 | 이웃 | 종교기관 동호회원 | 기타 |
| 전체 | | 450 | 68.0 | 32.0 | 16.3 | 29.8 | 22.0 | 8.5 | 23.4 |
| 성별 | 남성 | 205 | 67.8 | 32.2 | 11.7 | 30.0 | 21.7 | 6.7 | 30.0 |
| | 여성 | 245 | 68.2 | 31.8 | 19.8 | 29.6 | 22.2 | 9.9 | 18.5 |
| 연령별 | 20대 | 65 | 70.8 | 29.2 | 30.0 | 35.0 | 15.0 | 5.0 | 15.0 |
| | 30대 | 85 | 74.1 | 25.9 | 25.0 | 40.0 | 0.0 | 5.0 | 30.0 |
| | 40대 | 98 | 67.3 | 32.7 | 12.9 | 29.0 | 16.1 | 3.2 | 38.7 |
| | 50대 | 97 | 72.2 | 27.8 | 13.8 | 44.8 | 13.8 | 13.8 | 13.8 |
| | 60대 | 105 | 58.1 | 41.9 | 9.8 | 12.2 | 46.3 | 12.2 | 19.5 |




〈그림 4-9〉 구급약품 접근성

### 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가족주의 및 개인가치] 5점을 기준으로 '가족주의' 2.85점, '개인주의(수평적)' 2.93점, '개인주의(수직적)' 3.13점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 살펴보면,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영역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개인주의는 산업발전에 발맞춰 사회적 경쟁과 함께 진행되었으므로 공적 영역의 담당자인 남성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유의하게 높다고 볼 수 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주의'는 20대가 가장 낮고, 50·60대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모두 60대가 가장 낮아 다른 연령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주의 점수는 개인주의 점수보다 낮고,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가족주의 성향이 점차 축소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게 나온 점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사회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개인주의 성형은 60대가 가장 약하고 50대가 가장 강했다. 50대는 본격적인 경제발전시대에 성장기를 보내고 가족부양의 책임을 담당하는 시기에 IMF를 경험했기에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세대로 보인다. 수직적 개인주의는 타인과의 관계를 경쟁으로 인식하고 타인의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특성을 갖는다(이수인, 2011).

---

* 가족주의(가족중심적 집단주의)와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는 트리언디스와 갤펀드(Triandis & Gelfand, 1998)가 사용한 문항들을 한국적 현실에 맞도록 수정한 박흥식(2002)의 19개 질문들 중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간주되는 10문항을 선별해 사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 많은 한국사회의 가치관 연구에서 이러한 가족주의, 개인주의 척도는 거듭 사용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다(이수인, 2011; 최태진, 2006, 한규석·신수진, 1999). 본 연구의 가족주의는 $\alpha$=.772, 수평적 개인주의는 $\alpha$=.783, 수직적 개인주의는 $\alpha$=.839이다. 가족주의는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고 개인주의는 개인이다. 가족주의는 개인을 가족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개인주의는 자신을 가족과 별개의 실체로 여긴다. 수직적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계질서와 불평등을, 수평적 개인주의는 유사성과 동등성을 중요시한다(이수인, 2011: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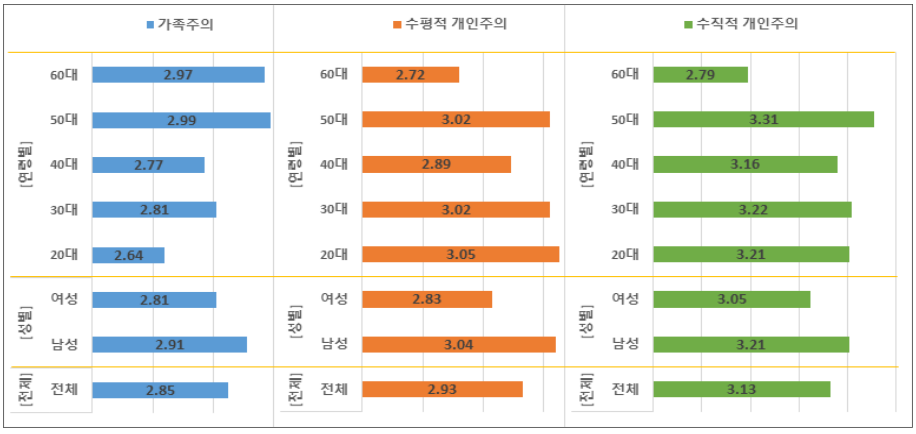
〈표 4-16〉 가족주의 및 개인가치에 대한 견해

(단위: 점/5점기준)

1) 가족은 희생이 요구되어도 단결해야 한다.
2) 부모와 자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3) 나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4) 의사결정 시, 가족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5) 나는 다른 사람과 틀려도 자주 내 방식대로 한다.
6) 나는 타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7) 나는 내 자신에 의존한다.
8) 나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 한다.
9)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다.
10) 타인이 더 좋은 성과를 얻으면, 나는 분발한다.

| | 가족주의(①~④) | | | 수평적 개인주의(⑤~⑦) | | | 수직적 개인주의(⑧~⑩) | | |
|---|---|---|---|---|---|---|---|---|---|
| | N | M | *t/F* | N | M | *t/F* | N | M | *t/F* |
| 전체 | 448 | 2.85 | - | 448 | 2.93 | - | 447 | 3.13 | - |
| 남성 | 203 | 2.91 | *1.38* | 205 | 3.04 | *3.32**** | 203 | 3.21 | *2.30** |
| 여성 | 245 | 2.81 | | 243 | 2.83 | | 244 | 3.05 | |
| 20대 | 64 | 2.64a | *3.14*** | 65 | 3.05b | *3.65*** | 65 | 3.21b | *7.61**** |
| 30대 | 85 | 2.81ab | | 85 | 3.02b | | 84 | 3.22b | |
| 40대 | 98 | 2.77ab | | 98 | 2.89ab | | 97 | 3.16b | |
| 50대 | 96 | 2.99b | | 96 | 3.02b | | 96 | 3.31b | |
| 60대 | 105 | 2.97b | | 104 | 2.72a | | 105 | 2.79a | |

*p〈.05, **p〈.01, ***p〈.001




〈그림 4-10〉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견해

❍ [고민상담] 본인의 문제(걱정거리 등)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 81.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된 고민상담 대상으로는 친구/선·후배(40.0%)가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14.7%), 부모(9.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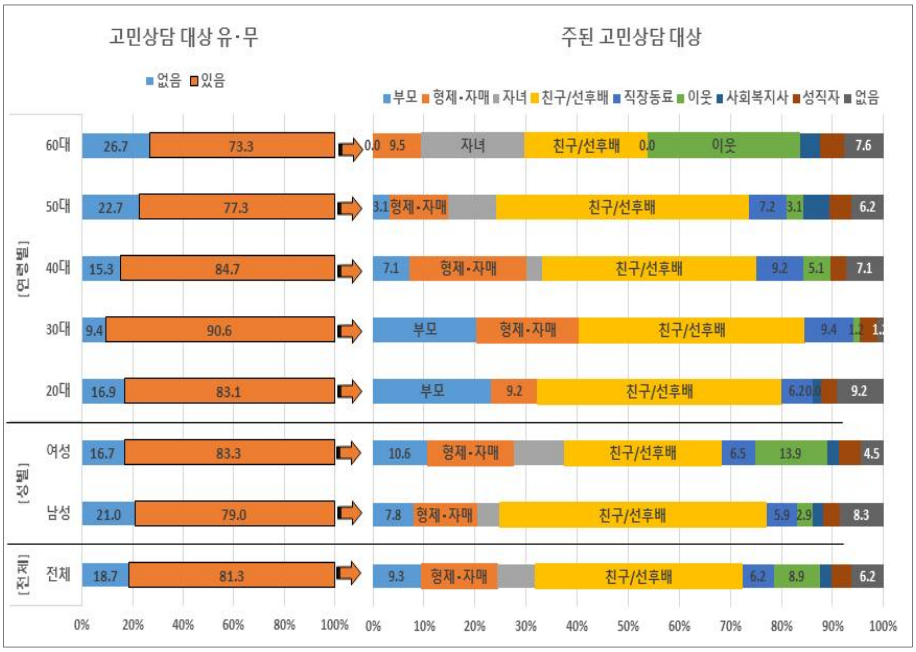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성이 고민 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좀 더 높았고, 상담 대상으로는 남성은 친구/선·후배, 여성은 '이웃' 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50·60대가 고민 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고, 상담 대상으로는 20·30대는 부모, 30·40대는 형제·자매, 60대는 자녀와 이웃 응답이 높았다.
- 정서적 우울감이 50대~60대에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50대~60대가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점은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보인다. 장년층/노년층의 고민상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표 4-17〉 고민상담 대상

(단위: %)

| | N | 고민상담 대상 유무 | | | 주된 고민상담 대상 | | | | | | | | |
|---|---|---|---|---|---|---|---|---|---|---|---|---|---|
| | | 없음 | 있음 | (명) | 부모 | 형제 자매 | 자녀 | 친구/ 선후배 | 직장 동료 | 이웃 | 사회 복지사 | 성직 자 | 없음 |
| 전체 | 450 | 18.7 | 81.3 | 2.1 | 9.3 | 14.7 | 7.3 | 40.0 | 6.2 | 8.9 | 2.2 | 3.8 | 6.2 |
| 남성 | 205 | 21.0 | 79.0 | 2.1 | 7.8 | 12.2 | 4.4 | 51.2 | 5.9 | 2.9 | 2.0 | 3.4 | 8.3 |
| 여성 | 245 | 16.7 | 83.3 | 2.1 | 10.6 | 16.7 | 9.8 | 30.6 | 6.5 | 13.9 | 2.4 | 4.1 | 4.5 |
| 20대 | 65 | 16.9 | 83.1 | 2.4 | 23.1 | 9.2 | 0.0 | 47.7 | 6.2 | 0.0 | 1.5 | 3.1 | 9.2 |
| 30대 | 85 | 9.4 | 90.6 | 2.4 | 20.0 | 20.0 | 0.0 | 43.5 | 9.4 | 1.2 | 0.0 | 3.5 | 1.2 |
| 40대 | 98 | 15.3 | 84.7 | 2.2 | 7.1 | 22.4 | 3.1 | 40.8 | 9.2 | 5.1 | 0.0 | 3.1 | 7.1 |
| 50대 | 97 | 22.7 | 77.3 | 1.8 | 3.1 | 11.3 | 9.3 | 48.5 | 7.2 | 3.1 | 5.2 | 4.1 | 6.2 |
| 60대 | 105 | 26.7 | 73.3 | 1.7 | 0.0 | 9.5 | 20.0 | 23.8 | 0.0 | 29.5 | 3.8 | 4.8 | 7.6 |




〈그림 4-11〉 고민상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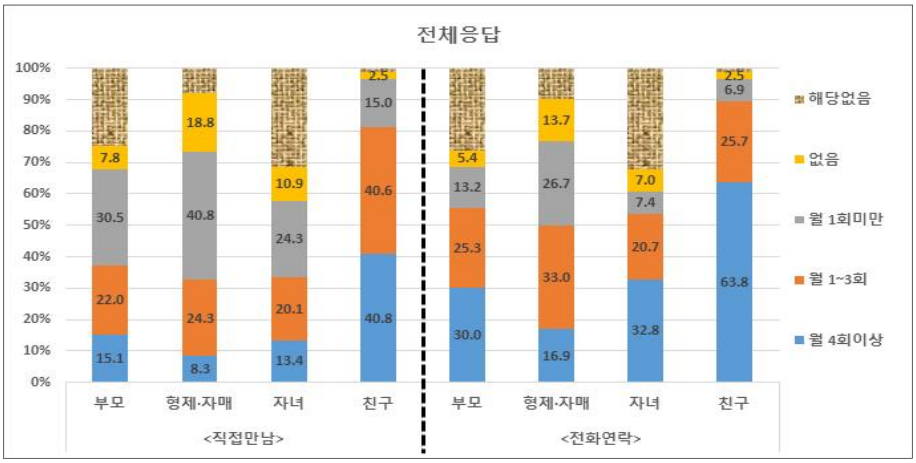
○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 「직접만남」의 경우 '월 4회이상' 자주 만나는 대상은 친구(40.8%), 부모(15.1%) 등의 순이었고, 반대로 '월 1회미만'의 간헐적 만남은 형제·자매(40.8%), 부모(30.5%) 등의 순이었다. 「전화연락」의 경우 '월 4회이상' 자주 연락하는 대상은 친구(63.8%), 자녀(32.8%) 등의 순이었고, 반대로 '월 1회미만'의 최소한의 연락만 하는 비율은 형제·자매(26.7%), 부모(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친구와의 소통 빈도가 높은 편이었고, 여성은 부모/형제/자녀 등과의 소통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김혜경(2013)이 지적한 바 여성의 정서적 가족주의가 높은 것과 관련될 것이다.
- 연령별로는 20·30대는 친구, 40·50대는 자녀와의 소통 빈도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생애주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8〉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

(단위: %)

| 구분 | | | 전체 | 성별 | | 연령별 | | | | |
|---|---|---|---|---|---|---|---|---|---|---|
| | | | | 남성 | 여성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직접만남 | 부모 | 월4회↑ | 15.1 | 14.7 | 15.5 | 12.3 | 31.8 | 17.3 | 11.3 | 4.8 |
| | | 월1회↓ | 30.5 | 32.8 | 28.6 | 40.0 | 37.6 | 33.7 | 36.1 | 10.6 |
| | 형제 | 월4회↑ | 8.3 | 6.4 | 9.8 | 7.7 | 21.2 | 8.2 | 4.2 | 1.9 |
| | | 월1회↓ | 40.8 | 44.3 | 38.0 | 53.8 | 32.9 | 43.3 | 42.7 | 35.2 |
| | 자녀 | 월4회↑ | 13.4 | 9.6 | 16.6 | 5.0 | 15.0 | 16.1 | 19.1 | 9.5 |
| | | 월1회↓ | 24.3 | 20.3 | 27.7 | 5.0 | 2.5 | 22.6 | 23.4 | 54.3 |
| | 친구 | 월4회↑ | 40.8 | 42.6 | 39.3 | 56.3 | 52.4 | 42.9 | 39.2 | 21.9 |
| | | 월1회↓ | 15.0 | 14.2 | 15.7 | 7.8 | 11.0 | 17.3 | 11.3 | 23.8 |
| 전화연락 | 부모 | 월4회↑ | 30.0 | 24.6 | 34.6 | 54.7 | 47.1 | 31.6 | 24.2 | 4.8 |
| | | 월1회↓ | 13.2 | 12.8 | 13.6 | 17.2 | 11.8 | 11.2 | 20.0 | 7.7 |
| | 형제 | 월4회↑ | 16.9 | 11.4 | 21.4 | 27.0 | 36.5 | 13.3 | 10.5 | 3.8 |
| | | 월1회↓ | 26.7 | 27.7 | 25.9 | 25.4 | 27.1 | 27.6 | 30.5 | 23.1 |
| | 자녀 | 월4회↑ | 32.8 | 25.5 | 38.9 | 5.2 | 16.3 | 41.9 | 44.7 | 41.9 |
| | | 월1회↓ | 7.4 | 8.2 | 6.8 | 3.4 | 2.5 | 4.3 | 11.7 | 12.4 |
| | 친구 | 월4회↑ | 63.8 | 62.3 | 65.2 | 82.8 | 82.4 | 61.2 | 56.3 | 46.7 |
| | | 월1회↓ | 6.9 | 8.3 | 5.7 | 4.7 | 2.4 | 9.2 | 7.3 | 9.5 |




〈그림 4-12〉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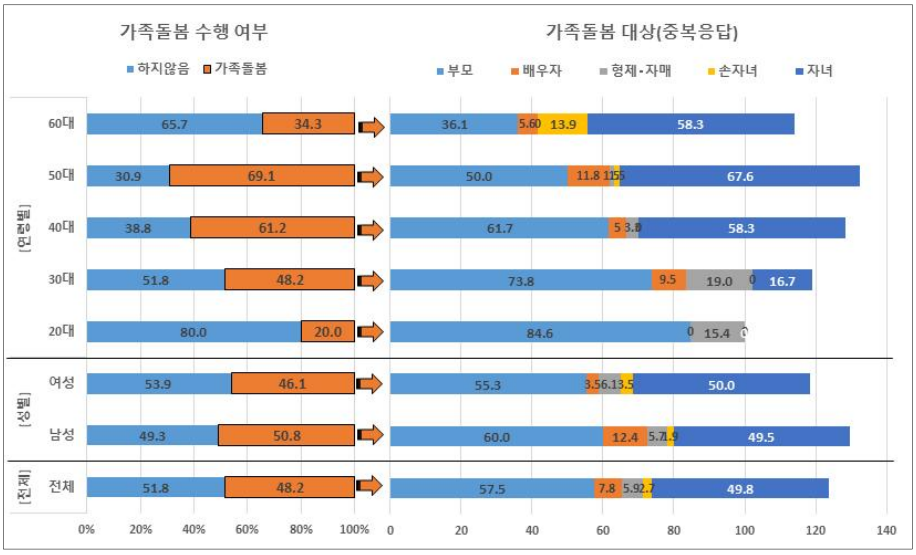
○ [가족돌봄]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돌봄 수행여부를 살펴보면 가족돌봄을 한다는 응답은 48.2%,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8%였다. 가족돌봄을 하는 경우 그 대상은 부모(57.5%) 및 자녀(49.8%)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가족돌봄 비율이 높았고, 돌봄대상에 있어서는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 여성보다 남성의 가족돌봄 비율이 높은 이유로 두 가지 원인을 추론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연령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본집단에서 60대 연령이 많은 편인데, 60대는 돌봄의 주체라기보다는 돌봄 수혜자 되기 쉬운 세대이고 이 집단에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가족돌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가족돌봄의 내용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족부양 책임의식을 더 가지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대상자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제공할 가능성이 여성에 비해 많고, 이는 가족돌봄으로 인식된다. 반면에 여성들의 가족돌봄에는 돌봄노동 제공이나 정서적 지지 등이 주요한 내용이고, 이는 1인가구인 경우 한계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 연령별로는 소위 '샌드위치 세대'라 불리는 40·50대의 가족돌봄이 가장 높았고, 60대는 손자녀 돌봄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인다.

〈표 4-19〉 가족돌봄(양육/간병/가사 등) 수행

(단위: %)

| | | N | 하지 않음 | 가족돌봄 | 가족돌봄을 한다면, 가족돌봄 대상(다중응답) | | | | | |
|---|---|---|---|---|---|---|---|---|---|---|
| | | | | | 부모 | 배우자 | 형제자매 | 손자녀 | 자녀 | 기타 |
| 전체 | | 450 | 51.8 | 48.2 | 57.5 | 7.8 | 5.9 | 2.7 | 49.8 | 1.4 |
| 성별 | 남성 | 205 | 49.3 | 50.8 | 60.0 | 12.4 | 5.7 | 1.9 | 49.5 | 1.9 |
| | 여성 | 245 | 53.9 | 46.1 | 55.3 | 3.5 | 6.1 | 3.5 | 50.0 | 0.9 |
| 연령별 | 20대 | 65 | 80.0 | 20.0 | 84.6 | 0.0 | 15.4 | 0.0 | 0.0 | 7.7 |
| | 30대 | 85 | 51.8 | 48.2 | 73.8 | 9.5 | 19.0 | 0.0 | 16.7 | 0.0 |
| | 40대 | 98 | 38.8 | 61.2 | 61.7 | 5.0 | 3.3 | 0.0 | 58.3 | 0.0 |
| | 50대 | 97 | 30.9 | 69.1 | 50.0 | 11.8 | 1.5 | 1.5 | 67.6 | 2.9 |
| | 60대 | 105 | 65.7 | 34.3 | 36.1 | 5.6 | 0.0 | 13.9 | 58.3 | 0.0 |




〈그림 4-13〉 가족돌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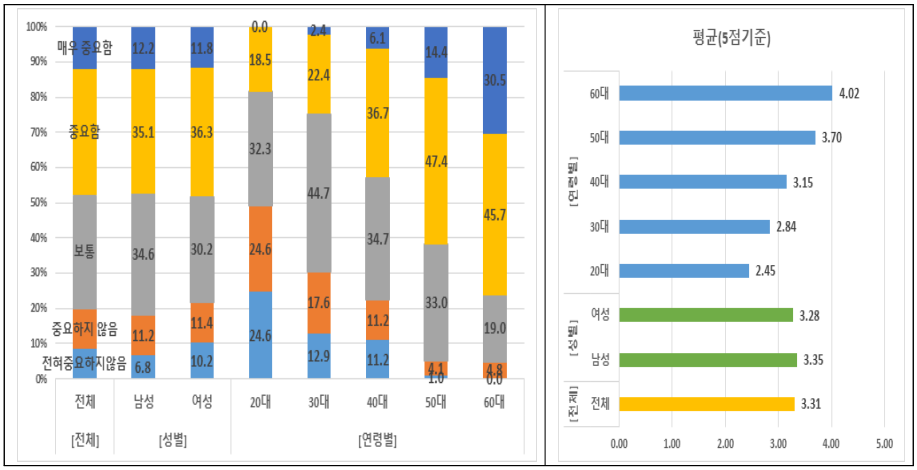
❍ [이웃의 중요도] 이웃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7.8%가 중요하다(중요+매우중요)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31점).

- 성별로는 남성(3.35점)이 여성(3.28점)보다 이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 연령별로는 60대가 4.02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2.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이웃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노인 돌봄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매우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표 4-20〉 이웃의 중요도

(단위: %, 점)

| | | N | 전혀 중요치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평균 (5점기준) |
|---|---|---|---|---|---|---|---|---|
| 전체 | | 450 | 8.7 | 11.3 | 32.2 | 35.8 | 12.0 | 3.31 |
| 성별 | 남성 | 205 | 6.8 | 11.2 | 34.6 | 35.1 | 12.2 | 3.35 |
| | 여성 | 245 | 10.2 | 11.4 | 30.2 | 36.3 | 11.8 | 3.28 |
| 연령별 | 20대 | 65 | 24.6 | 24.6 | 32.3 | 18.5 | 0.0 | 2.45 |
| | 30대 | 85 | 12.9 | 17.6 | 44.7 | 22.4 | 2.4 | 2.84 |
| | 40대 | 98 | 11.2 | 11.2 | 34.7 | 36.7 | 6.1 | 3.15 |
| | 50대 | 97 | 1.0 | 4.1 | 33.0 | 47.4 | 14.4 | 3.70 |
| | 60대 | 105 | 0.0 | 4.8 | 19.0 | 45.7 | 30.5 | 4.02 |




〈그림 4-14〉 이웃의 중요도

❍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이웃과 맺고 싶은 관계 정도를 보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는 항목이 3.31점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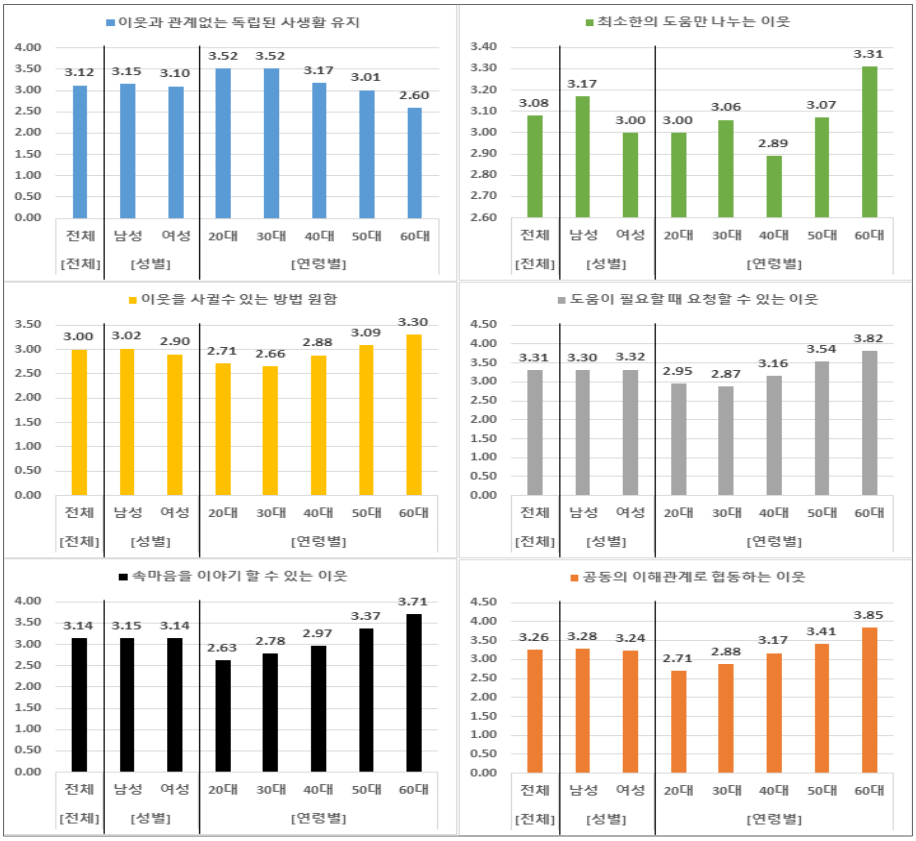
- 성별로는 ‘최소한 도움만 나누는 이웃’을 희망하는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연령별로는 20·30대는 이웃과의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밀한 이웃관계 형성을 원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특히 60대에서 가장 높았음).

〈표 4-21〉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단위: 점)

| | | 관계없이 독립된 사생활 | 최소한의 도움만 나누는 이웃 | 이웃을 사귈수 있는 방법 원함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웃 | 이해관계로 협동하는 이웃 |
|---|---|---|---|---|---|---|---|
| 전체 | | 3.12 | 3.08 | 3.00 | 3.31 | 3.14 | 3.26 |
| 성별 | 남성 | 3.15 | 3.17 | 3.02 | 3.30 | 3.15 | 3.28 |
| | 여성 | 3.10 | 3.00 | 2.90 | 3.32 | 3.14 | 3.24 |
| | *t* | *.49* | *1.99** | *1.36* | *-.25* | *.13* | *.47* |
| 연령별 | 20대 | 3.52c | 3.00a | 2.71a | 2.95ab | 2.63a | 2.71a |
| | 30대 | 3.52c | 3.06ab | 2.66a | 2.87a | 2.78ab | 2.88a |
| | 40대 | 3.17b | 2.89a | 2.88ab | 3.16b | 2.97b | 3.17b |
| | 50대 | 3.01b | 3.07ab | 3.09bc | 3.54c | 3.37c | 3.41b |
| | 60대 | 2.60a | 3.31b | 3.30c | 3.82d | 3.71d | 3.85c |
| | *F* | *14.10**** | *2.88** | *8.24**** | *19.99**** | *21.45**** | *23.47**** |

*p<.05, **p<.01, ***p<.001




〈그림 4-15〉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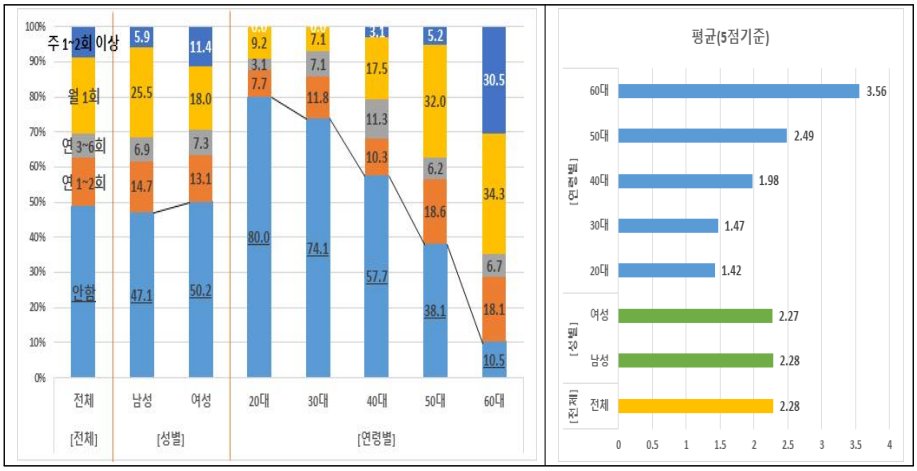
○ [주민참여활동 빈도]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참여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1.2%가 주민참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빈도는 '월 1회(21.4%)'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참여빈도 구간에 따른 평균은 2.28점이었다.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빈도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정도의 참여수준을 보였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빈도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참여수준을 보였다. 이는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이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22〉 주민참여활동 빈도

(단위: %, 점)

| | | N | 참여안함 | 연 1~2회 | 연 3~6회 | 월 1회 | 주 1~2회↑ | *평균 (5점기준)* |
|---|---|---|---|---|---|---|---|---|
| 전체 | | 449 | 48.8 | 13.8 | 7.1 | 21.4 | 8.9 | *2.28* |
| 성별 | 남성 | 204 | 47.1 | 14.7 | 6.9 | 25.5 | 5.9 | *2.28* |
| | 여성 | 245 | 50.2 | 13.1 | 7.3 | 18.0 | 11.4 | *2.27* |
| 연령별 | 20대 | 65 | 80.0 | 7.7 | 3.1 | 9.2 | 0.0 | *1.42* |
| | 30대 | 85 | 74.1 | 11.8 | 7.1 | 7.1 | 0.0 | *1.47* |
| | 40대 | 97 | 57.7 | 10.3 | 11.3 | 17.5 | 3.1 | *1.98* |
| | 50대 | 97 | 38.1 | 18.6 | 6.2 | 32.0 | 5.2 | *2.49* |
| | 60대 | 105 | 10.5 | 18.1 | 6.7 | 34.3 | 30.5 | *3.56* |




〈그림 4-16〉 주민참여활동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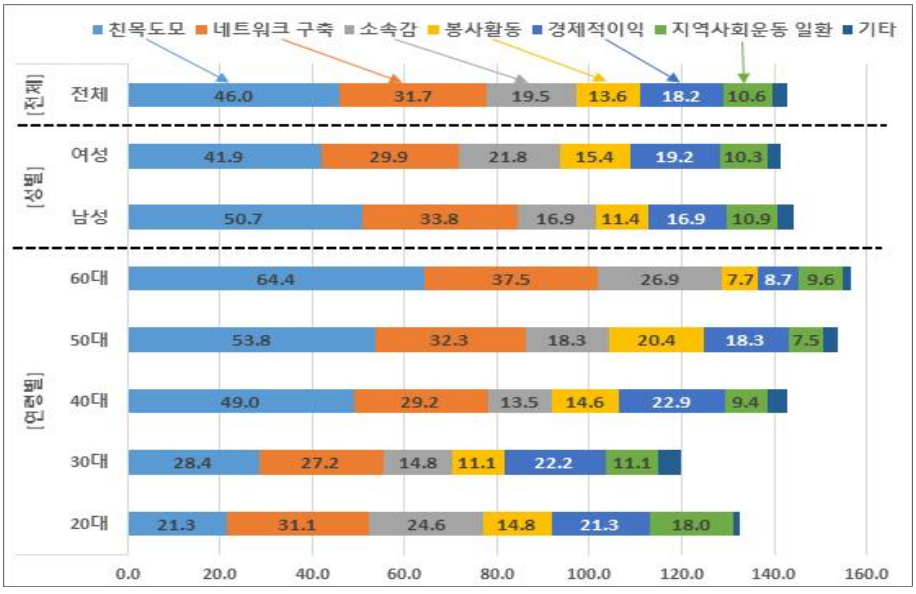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 거주하는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은 '친목도모'가 46.0%로 가장 많았고, 네트워크 구축(31.7%), 지역성원으로서 소속감(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은 '친목도모'와 '네트워크 구축'을 여성은 '지역에 소속감'과 '봉사활동, ''경제적 이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목도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3〉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중복응답)

(단위: %)

| | | N | 친목도모 | 네트워크 구축 | 지역에 소속감 | 봉사활동 | 경제적 이익 | 지역사회 운동 일환 | 기타 |
|---|---|---|---|---|---|---|---|---|---|
| 전체 | | 435 | 46.0 | 31.7 | 19.5 | 13.6 | 18.2 | 10.6 | 3.2 |
| 성별 | 남성 | 201 | 50.7 | 33.8 | 16.9 | 11.4 | 16.9 | 10.9 | 3.5 |
| | 여성 | 234 | 41.9 | 29.9 | 21.8 | 15.4 | 19.2 | 10.3 | 3.0 |
| 연령별 | 20대 | 61 | 21.3 | 31.1 | 24.6 | 14.8 | 21.3 | 18.0 | 1.6 |
| | 30대 | 81 | 28.4 | 27.2 | 14.8 | 11.1 | 22.2 | 11.1 | 4.9 |
| | 40대 | 96 | 49.0 | 29.2 | 13.5 | 14.6 | 22.9 | 9.4 | 4.2 |
| | 50대 | 93 | 53.8 | 32.3 | 18.3 | 20.4 | 18.3 | 7.5 | 3.2 |
| | 60대 | 104 | 64.4 | 37.5 | 26.9 | 7.7 | 8.7 | 9.6 | 1.9 |




〈그림 4-17〉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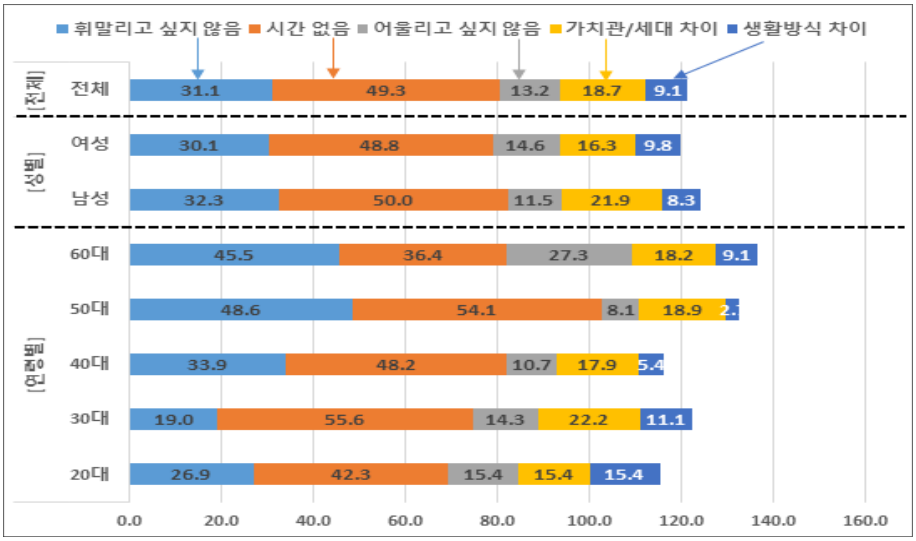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마을공동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19명(48.8%)의 미참여 사유를 살펴보면, '참여할 시간이 없음(49.3%)' 사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31.1%)'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성별로는 남성은 휘말리고 싶지 않음 및 시간 없음, 여성은 타인과 어울리고 싶지 않음 및 가치관/세대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 연령별로는 50·60대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0·30대는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차이를 이유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였다.

〈표 4-24〉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단위: %)

| | | N | 휘말리고 싶지 않음 | 시간 없음 | 어울리고 싶지 않음 | 가치관/세대 차이 | 생활방식 차이 | 기타 |
|---|---|---|---|---|---|---|---|---|
| 전체 | | 219 | 31.1 | 49.3 | 13.2 | 18.7 | 9.1 | 0.9 |
| 성별 | 남성 | 96 | 32.3 | 50.0 | 11.5 | 21.9 | 8.3 | 2.1 |
| | 여성 | 123 | 30.1 | 48.8 | 14.6 | 16.3 | 9.8 | 0.0 |
| 연령별 | 20대 | 52 | 26.9 | 42.3 | 15.4 | 15.4 | 15.4 | 0.0 |
| | 30대 | 63 | 19.0 | 55.6 | 14.3 | 22.2 | 11.1 | 1.6 |
| | 40대 | 56 | 33.9 | 48.2 | 10.7 | 17.9 | 5.4 | 1.8 |
| | 50대 | 37 | 48.6 | 54.1 | 8.1 | 18.9 | 2.7 | 0.0 |
| | 60대 | 11 | 45.5 | 36.4 | 27.3 | 18.2 | 9.1 | 0.0 |




〈그림 4-18〉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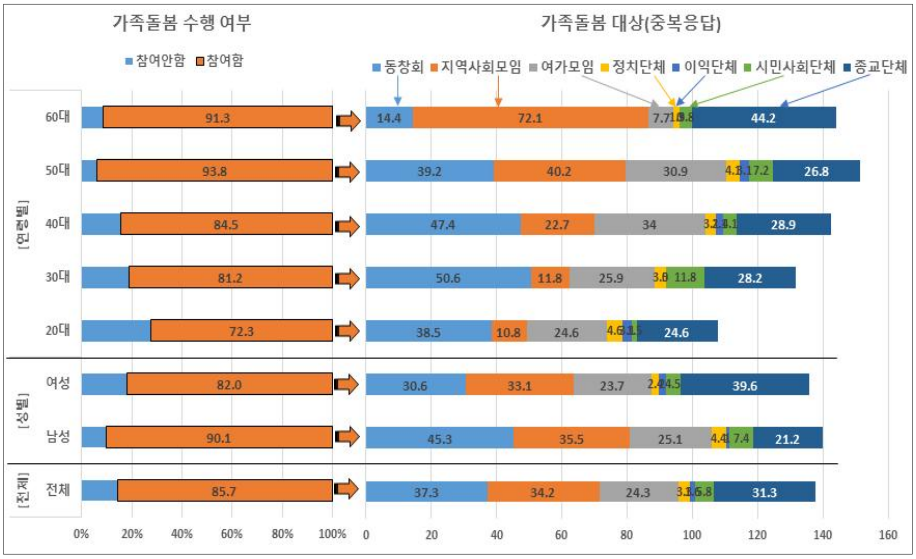
❍ [사회단체 활동 참여] 지난 1년간 활동했던 사회단체나 모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응답자의 85.7%가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단체의 유형은 동창회(37.3%), 지역사회모임(34.2%), 종교단체(31.3%)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단체 활동 참여율이 더 높았고, 참여단체의 유형을 보면, 남성은 동창회, 여성은 종교단체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 연령별로는 5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았다. 참여단체 유형을 보면, 30대는 동창회, 50대는 지역사회모임, 40대는 여가모임 비율이 주로 높았다.

〈표 4-25〉 사회단체 활동 참여(중복응답)

(단위: %)

| | | N | 참여함 | | | | | | | | *참여 안함* |
|---|---|---|---|---|---|---|---|---|---|---|---|
| | | | 동창회 | 지역모임 | 여가모임 | 정치단체 | 이익단체 | 시민단체 | 종교단체 | 기타 | |
| 전체 | | 448 | 37.3 | 34.2 | 24.3 | 3.3 | 1.6 | 5.8 | 31.3 | 0.2 | *14.3* |
| 성별 | 남성 | 203 | 45.3 | 35.5 | 25.1 | 4.4 | 1.0 | 7.4 | 21.2 | 0.5 | *9.9* |
| | 여성 | 245 | 30.6 | 33.1 | 23.7 | 2.4 | 2.0 | 4.5 | 39.6 | 0.0 | *18.0* |
| 연령별 | 20대 | 65 | 38.5 | 10.8 | 24.6 | 4.6 | 3.1 | 1.5 | 24.6 | 0.0 | *27.7* |
| | 30대 | 85 | 50.6 | 11.8 | 25.9 | 3.5 | 0.0 | 11.8 | 28.2 | 0.0 | *18.8* |
| | 40대 | 97 | 47.4 | 22.7 | 34.0 | 3.1 | 2.1 | 4.1 | 28.9 | 0.0 | *15.5* |
| | 50대 | 97 | 39.2 | 40.2 | 30.9 | 4.1 | 3.1 | 7.2 | 26.8 | 1.0 | *6.2* |
| | 60대 | 104 | 14.4 | 72.1 | 7.7 | 1.9 | 0.0 | 3.8 | 44.2 | 0.0 | *8.7* |




〈그림 4-19〉 사회단체 활동 참여(중복응답)54

❍ [노후에 대한 걱정] 자신의 노후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7.3%가 '염려(염려됨+매우염려됨)' 된다고 응답하였다(3.50점/5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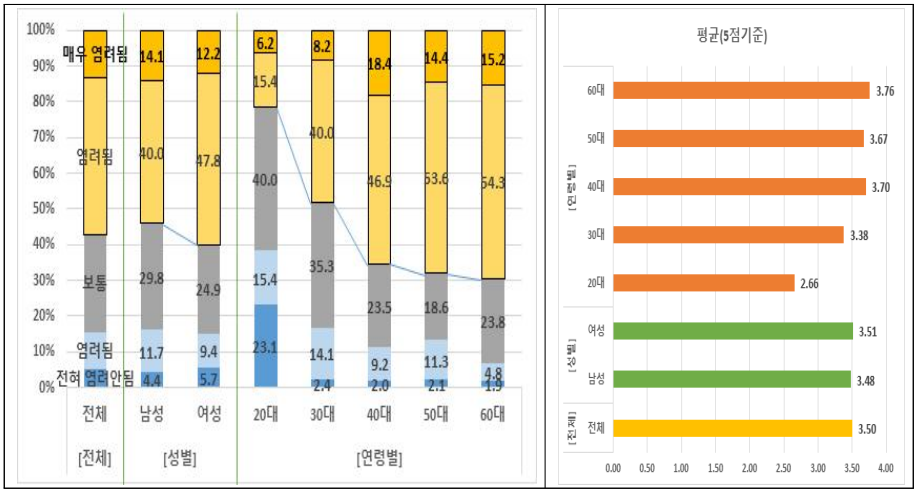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걱정이 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 연령별로는 20대 〈 30대 〈 40·50·60대 순으로 연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염려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

(단위: %, 점)

| | | N | 전혀 염려안됨 | 염려안됨 | 보통 | 염려됨 | 매우 염려됨 | 평균 (5점기준) | *t/F* |
|---|---|---|---|---|---|---|---|---|---|
| 전체 | | 450 | 5.1 | 10.4 | 27.1 | 44.2 | 13.1 | 3.50 | - |
| 성별 | 남성 | 205 | 4.4 | 11.7 | 29.8 | 40.0 | 14.1 | 3.48 | *-.38* |
| | 여성 | 245 | 5.7 | 9.4 | 24.9 | 47.8 | 12.2 | 3.51 | |
| 연령별 | 20대 | 65 | 23.1 | 15.4 | 40.0 | 15.4 | 6.2 | 2.66a | *16.93**** |
| | 30대 | 85 | 2.4 | 14.1 | 35.3 | 40.0 | 8.2 | 3.38b | |
| | 40대 | 98 | 2.0 | 9.2 | 23.5 | 46.9 | 18.4 | 3.70c | |
| | 50대 | 97 | 2.1 | 11.3 | 18.6 | 53.6 | 14.4 | 3.67c | |
| | 60대 | 105 | 1.9 | 4.8 | 23.8 | 54.3 | 15.2 | 3.76c | |

*p〈.05, **p〈.01, ***p〈.001




〈그림 4-20〉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

❍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 향후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193.5점)'이었고, 다음으로 저축(143.0점)과 보험/연금(140.5점) 등의 순이었다.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저축/보험·연금)을 선택하였다.
- 연령별로는 20·30대는 경제성 측면을 우선시 하였고, 40대부터 '건강'이 우선순위로 진입하여 50·60대로 올라갈수록 '건강'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27〉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1-2순위)

(단위: 명, 점)

| | | | 저축 | 보험/연금 | 가족관계 | 친구관계 | 건강 | 안정된 거주 |
|---|---|---|---|---|---|---|---|---|
| 전체 | | 1순위 | 120 | 94 | 34 | 18 | 132 | 47 |
| | | 2순위 | 46 | 93 | 48 | 54 | 123 | 73 |
| | | *종합* | *143.0* | *140.5* | *58.0* | *45.0* | *193.5* | *83.5* |
| 성별 | 남성 | 1순위 | 57 | 46 | 13 | 8 | 55 | 23 |
| | | 2순위 | 16 | 42 | 20 | 26 | 63 | 33 |
| | | *종합* | *65.0* | *67.0* | *23.0* | *21.0* | *86.5* | *39.5* |
| | 여성 | 1순위 | 63 | 48 | 21 | 10 | 77 | 24 |
| | | 2순위 | 30 | 51 | 28 | 28 | 60 | 40 |
| | | *종합* | *78.0* | *73.5* | *35.0* | *24.0* | *107.0* | *44.0* |
| 연령별 | 20대 | 1순위 | 22 | 17 | 6 | 4 | 9 | 6 |
| | | 2순위 | 5 | 17 | 7 | 9 | 16 | 8 |
| | | *종합* | *24.5* | *25.5* | *9.5* | *8.5* | *17.0* | *10.0* |
| | 30대 | 1순위 | 27 | 18 | 13 | 6 | 10 | 9 |
| | | 2순위 | 8 | 17 | 2 | 10 | 22 | 24 |
| | | *종합* | *31.0* | *26.5* | *14.0* | *11.0* | *21.0* | *21.0* |
| | 40대 | 1순위 | 26 | 28 | 4 | 0 | 21 | 18 |
| | | 2순위 | 13 | 23 | 9 | 8 | 25 | 15 |
| | | 종합 | 32.5 | 39.5 | 8.5 | 4.0 | 33.5 | 25.5 |
| | 50대 | 1순위 | 27 | 17 | 6 | 5 | 33 | 9 |
| | | 2순위 | 11 | 22 | 9 | 7 | 32 | 14 |
| | | *종합* | *32.5* | *28.0* | *10.5* | *8.5* | *49.0* | *16.0* |
| | 60대 | 1순위 | 18 | 14 | 5 | 3 | 59 | 5 |
| | | 2순위 | 9 | 14 | 21 | 20 | 28 | 12 |
| | | *종합* | *22.5* | *21.0* | *15.5* | *13.0* | *73.0* | *11.0* |

주. 종합=[(1순위)*2+(2순위)]/2.

〈표 4-28〉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1위~3위)

| | 전체 | 성별 | | 연령별 | | | | |
|---|---|---|---|---|---|---|---|---|
| | | 남성 | 여성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1위 | 건강 | 건강 | 건강 | 보험/연금 | 저축 | 보험/연금 | 건강 | 건강 |
| 2위 | 저축 | 보험/연금 | 저축 | 저축 | 보험/연금 | 건강 | 저축 | 저축 |
| 3위 | 보험/연금 | 저축 | 보험/연금 | 건강 | 건강 | 저축 | 보험/연금 | 보험/연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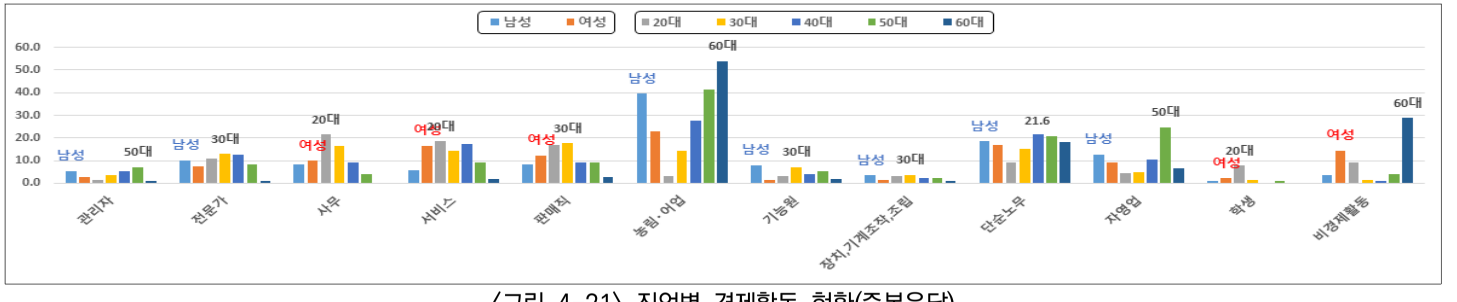
### 4) 경제활동과 소득

○ [직업] 응답자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농림·어업(30.6%), 단순·노무(17.6%), 서비스(11.6%) 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종사자와 단순 노무직이 많은 것은 이 조사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표 4-29〉 직업별 경제활동 현황(중복응답)

(단위: %)

| | | N | 관리자 | 전문가 | 사무 | 서비스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원 | 장치, 기계조작,조립 | 단순·노무 | 자영업 | 학생 | 기타 | *비경제 활동* |
|---|---|---|---|---|---|---|---|---|---|---|---|---|---|---|---|
| 전체 | | 448 | 3.8 | 8.7 | 9.2 | 11.6 | 10.5 | 30.6 | 4.2 | 2.2 | 17.6 | 10.7 | 1.6 | 2.5 | *9.4* |
| 성별 | 남성 | 205 | 5.4 | 10.2 | 8.3 | 5.9 | 8.3 | 39.5 | 7.8 | 3.4 | 18.5 | 12.7 | 1.0 | 1.5 | *3.4* |
| | 여성 | 243 | 2.5 | 7.4 | 9.9 | 16.5 | 12.3 | 23.0 | 1.2 | 1.2 | 16.9 | 9.1 | 2.1 | 3.3 | *14.4* |
| 연령별 | 20대 | 65 | 1.5 | 10.8 | 21.5 | 18.5 | 16.9 | 3.1 | 3.1 | 3.1 | 9.2 | 4.6 | 7.7 | 1.5 | *9.2* |
| | 30대 | 85 | 3.5 | 12.9 | 16.5 | 14.1 | 17.6 | 14.1 | 7.1 | 3.5 | 15.3 | 4.7 | 1.2 | 1.2 | *1.2* |
| | 40대 | 97 | 5.2 | 12.4 | 9.3 | 17.5 | 9.3 | 27.8 | 4.1 | 2.1 | 21.6 | 10.3 | 0.0 | 1.0 | *1.0* |
| | 50대 | 97 | 7.2 | 8.2 | 4.1 | 9.3 | 9.3 | 41.2 | 5.2 | 2.1 | 20.6 | 24.7 | 1.0 | 1.0 | *4.1* |
| | 60대 | 104 | 1.0 | 1.0 | 0.0 | 1.9 | 2.9 | 53.8 | 1.9 | 1.0 | 18.3 | 6.7 | 0.0 | 6.7 | *28.8* |




〈그림 4-21〉 직업별 경제활동 현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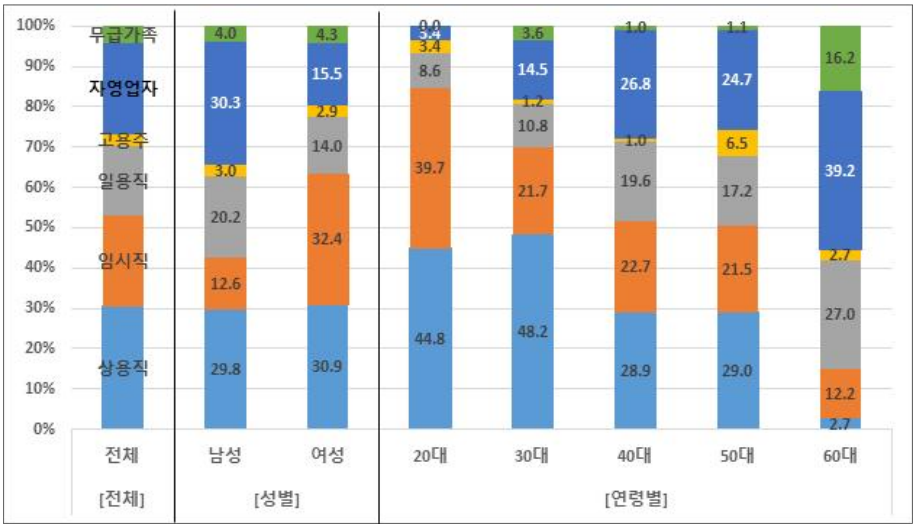
❍ [고용형태] 응답자의 현재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직(30.4%), 임시직 및 자영업 종사자 각 22.7%, 일용직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성은 '임시직', 남성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적고 경제적 지위에서 더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 연령별로는 20·30대는 '상용직', 40대는 '자영업', 50·60대는 '일용직' 및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은 60대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4-30〉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

| | | N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 전체 | | 405 | 30.4 | 22.7 | 17.0 | 3.0 | 22.7 | 4.2 |
| 성별 | 남성 | 198 | 29.8 | 12.6 | 20.2 | 3.0 | 30.3 | 4.0 |
| | 여성 | 207 | 30.9 | 32.4 | 14.0 | 2.9 | 15.5 | 4.3 |
| 연령별 | 20대 | 58 | 44.8 | 39.7 | 8.6 | 3.4 | 3.4 | 0.0 |
| | 30대 | 83 | 48.2 | 21.7 | 10.8 | 1.2 | 14.5 | 3.6 |
| | 40대 | 97 | 28.9 | 22.7 | 19.6 | 1.0 | 26.8 | 1.0 |
| | 50대 | 93 | 29.0 | 21.5 | 17.2 | 6.5 | 24.7 | 1.1 |
| | 60대 | 74 | 2.7 | 12.2 | 27.0 | 2.7 | 39.2 | 16.2 |




〈그림 4-22〉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

○ [비경제활동 사유]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6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이 대부분이 60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41.3%)', '건강문제(21.7%)'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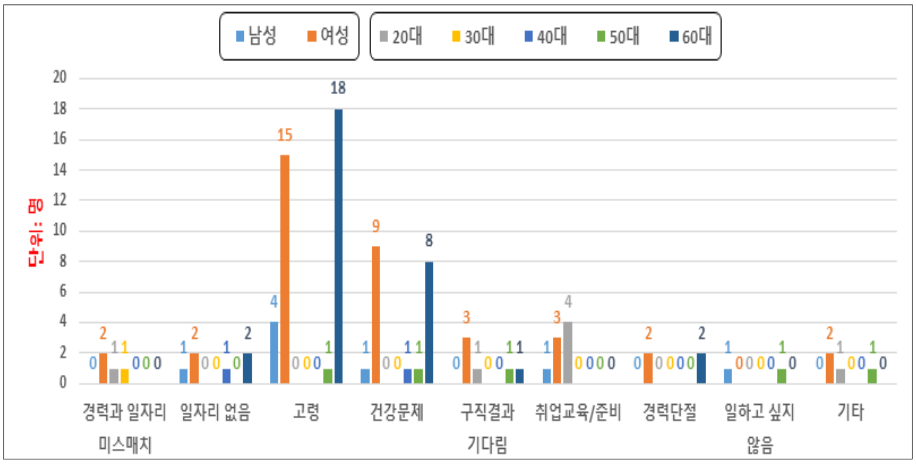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았고, 여성의 비경제활동 사유는 고령과 건강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는 취업준비 중이며, 60대는 고령과 건강 문제로 나타났다.

〈표 4-31〉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 | | N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전체 | | 46 | 4.3 | 0.0 | 6.5 | 41.3 | 21.7 | 6.5 | 8.7 | 4.3 | 2.2 | 4.3 |
| 성별 | 남성 | 8 | 0.0 | 0.0 | 12.5 | 50.0 | 12.5 | 0.0 | 12.5 | 0.0 | 12.5 | 0.0 |
| | 여성 | 38 | 5.3 | 0.0 | 5.3 | 39.5 | 23.7 | 7.9 | 7.9 | 5.3 | 0.0 | 5.3 |
| 연령별 | 20대 | 7 | 14.3 | 0.0 | 0.0 | 0.0 | 0.0 | 14.3 | 57.1 | 0.0 | 0.0 | 14.3 |
| | 30대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40대 | 2 | 0.0 | 0.0 | 5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 | 50대 | 5 | 0.0 | 0.0 | 0.0 | 20.0 | 20.0 | 20.0 | 0.0 | 0.0 | 20.0 | 20.0 |
| | 60대 | 31 | 0.0 | 0.0 | 6.5 | 58.1 | 25.8 | 3.2 | 0.0 | 6.5 | 0.0 | 0.0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음
③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④ 나이가 너무 많아서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⑥ 구직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⑦ 자격증취득, 혹은 취업교육을 받고 있어서
⑧ 경력단절로 인해
⑨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서
⑩ 기타




〈그림 4-23〉 비경제활동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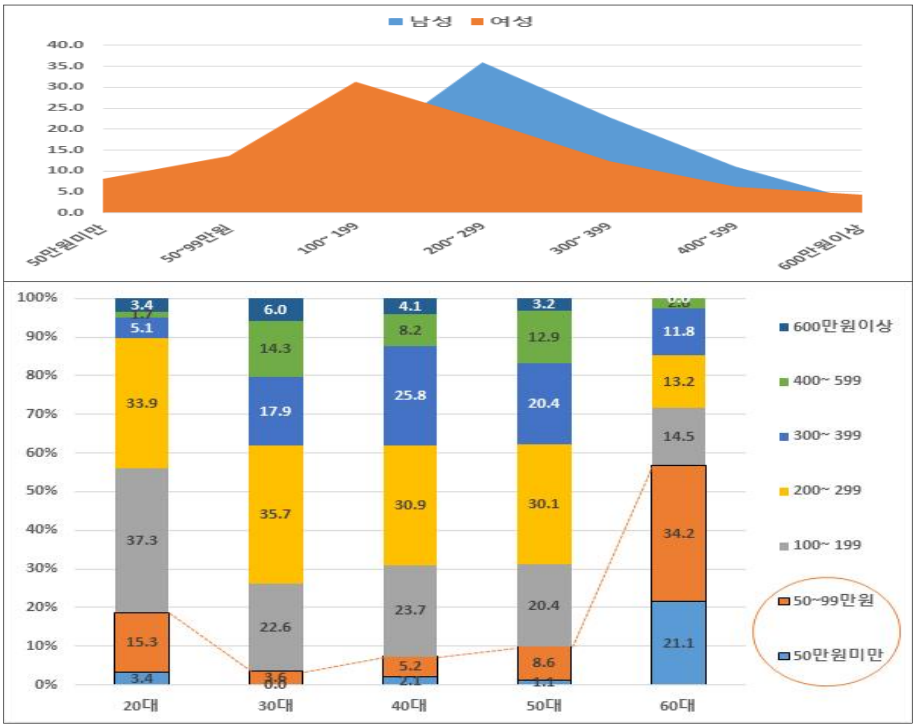
❍ [월평균 소득] 최근 6개월간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200~299만원(28.9%) 수준이 가장 많았고, 100~199만원(23.0%) 등의 순이었다. 한편, 100만원 미만 응답도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오른쪽 꼬리분포'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소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연령별로는 20대의 소득이 낮고 30대부터는 연령이 높을수록 저소득 분포가 확장되어 'U-curve' 분포를 띄며, 특히 60대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30대 3.6%, 40대 7.3%인데 비해 60대는 57.9%에 달해 노년층의 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대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직업적 불안정이나 실업 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보다는 용돈 등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층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0대에 빈곤층이 치우쳐 있고, 60대에서 남성이 43.8%, 여성이 56.2%이며 임금의 성별 분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60대 농촌 노인의 빈곤문제는 주요대상이 남성보다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표 4-32〉 월평균 소득분포

(단위: %)

| | | N | 소득 없음 | 50만원 미만 | 50~99 만원 | 100~ 199 | 200~ 299 | 300~ 399 | 400~ 599 | 600만원 이상 |
|---|---|---|---|---|---|---|---|---|---|---|
| 전체 | | 409 | 1.2 | 5.1 | 12.5 | 23.0 | 28.9 | 17.4 | 8.6 | 3.4 |
| 성별 | 남성 | 198 | 0.5 | 2.0 | 11.1 | 14.1 | 35.9 | 22.7 | 11.1 | 2.5 |
| | 여성 | 211 | 1.9 | 8.1 | 13.7 | 31.3 | 22.3 | 12.3 | 6.2 | 4.3 |
| 연령별 | 20대 | 59 | 0.0 | 3.4 | 15.3 | 37.3 | 33.9 | 5.1 | 1.7 | 3.4 |
| | 30대 | 84 | 0.0 | 0.0 | 3.6 | 22.6 | 35.7 | 17.9 | 14.3 | 6.0 |
| | 40대 | 97 | 0.0 | 2.1 | 5.2 | 23.7 | 30.9 | 25.8 | 8.2 | 4.1 |
| | 50대 | 93 | 3.2 | 1.1 | 8.6 | 20.4 | 30.1 | 20.4 | 12.9 | 3.2 |
| | 60대 | 76 | 2.6 | 21.1 | 34.2 | 14.5 | 13.2 | 11.8 | 2.6 | 0.0 |




〈그림 4-24〉 월평균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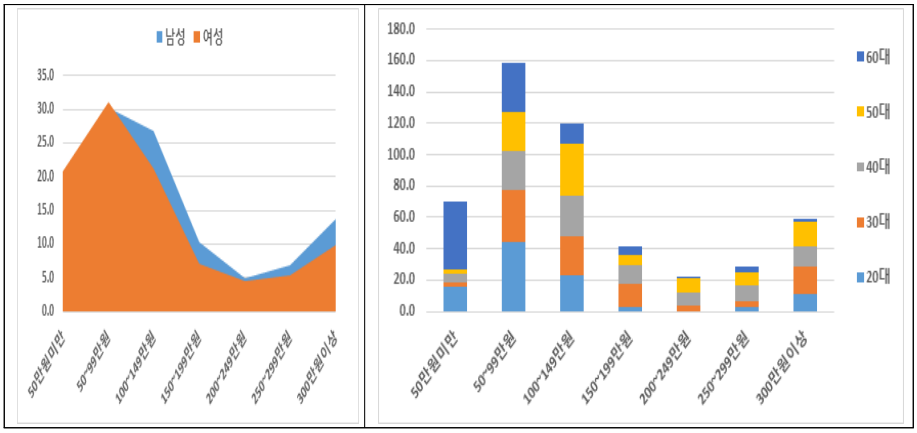
○ [월평균 지출] 최근 6개월간 평균 생활비(주거비 포함) 지출을 살펴보면, 50~99만원(30.7%) 수준이 가장 많았고, 100~149만원(23.8%)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 달에 50만원도 못쓴다는 응답도 14.7%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소득수준이 높은 만큼 지출 분포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 연령별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은 20대와 60대가 지출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월평균 지출액

(단위: %)

| | | N | 50만원 미만 | 50~99 만원 | 100~ 149 | 150~ 199 | 200~ 249 | 250~ 299 | 300만원 이상 |
|---|---|---|---|---|---|---|---|---|---|
| 전체 | | 449 | 14.7 | 30.7 | 23.8 | 8.5 | 4.7 | 6.0 | 11.6 |
| 성별 | 남성 | 205 | 7.3 | 30.2 | 26.8 | 10.2 | 4.9 | 6.8 | 13.7 |
| | 여성 | 244 | 20.9 | 31.1 | 21.3 | 7.0 | 4.5 | 5.3 | 9.8 |
| 연령별 | 20대 | 65 | 15.4 | 44.6 | 23.1 | 3.1 | 0.0 | 3.1 | 10.8 |
| | 30대 | 85 | 3.5 | 32.9 | 24.7 | 14.1 | 3.5 | 3.5 | 17.6 |
| | 40대 | 97 | 5.2 | 24.7 | 25.8 | 12.4 | 8.2 | 10.3 | 13.4 |
| | 50대 | 97 | 3.1 | 24.7 | 33.0 | 6.2 | 9.3 | 8.2 | 15.5 |
| | 60대 | 105 | 42.9 | 31.4 | 13.3 | 5.7 | 1.0 | 3.8 | 1.9 |




〈그림 4-25〉 월평균 지출액

○ [지출항목] 최근 6개월간 평균 생활비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저축(165.0점), 식비(154.5점), 그리고 가족부양비(106.0점)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성별로는 남성은 「저축 〉 식비 〉 사교활동/가족부양」 순으로, 여성은 「식비 〉 저축 〉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는 식비, 30대~50대 저축, 60대는 주거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40·50대는 가족부양비 지출이 2순위로 나타났다.

〈표 4-34〉 생활비 지출항목(1-2순위)

(단위: 명, 점)

| | | | 저축 | 식비 | 여가비 | 자기개발 | 사교활동 | 가족부양 | 주거비 |
|---|---|---|---|---|---|---|---|---|---|
| 전체 | | 1순위 | 145 | 105 | 23 | 15 | 45 | 69 | 48 |
| | | 2순위 | 40 | 99 | 38 | 30 | 88 | 74 | 76 |
| | | *종합* | *165.0* | *154.5* | *42.0* | *30.0* | *89.0* | *106.0* | *86.0* |
| 성별 | 남성 | 1순위 | 69 | 36 | 12 | 5 | 31 | 40 | 12 |
| | | 2순위 | 20 | 45 | 16 | 11 | 50 | 32 | 29 |
| | | *종합* | *79.0* | *58.5* | *20.0* | *10.5* | *56.0* | *56.0* | *26.5* |
| | 여성 | 1순위 | 76 | 69 | 11 | 10 | 14 | 29 | 36 |
| | | 2순위 | 20 | 54 | 22 | 19 | 38 | 42 | 47 |
| | | *종합* | *86.0* | *96.0* | *22.0* | *19.5* | *33.0* | *50.0* | *59.5* |
| 연령별 | 20대 | 1순위 | 27 | 21 | 4 | 5 | 3 | 0 | 5 |
| | | 2순위 | 1 | 17 | 11 | 8 | 14 | 6 | 8 |
| | | *종합* | *27.5* | *29.5* | *9.5* | *9.0* | *10.0* | *3.0* | *9.0* |
| | 30대 | 1순위 | 33 | 27 | 5 | 2 | 5 | 10 | 3 |
| | | 2순위 | 8 | 15 | 12 | 10 | 23 | 8 | 9 |
| | | *종합* | *37.0* | *34.5* | *11.0* | *7.0* | *16.5* | *14.0* | *7.5* |
| | 40대 | 1순위 | 39 | 13 | 3 | 5 | 12 | 22 | 4 |
| | | 2순위 | 15 | 24 | 7 | 8 | 9 | 20 | 15 |
| | | *종합* | *46.5* | *25.0* | *6.5* | *9.0* | *16.5* | *32.0* | *11.5* |
| | 50대 | 1순위 | 36 | 18 | 7 | 2 | 7 | 21 | 6 |
| | | 2순위 | 7 | 24 | 7 | 3 | 21 | 21 | 12 |
| | | *종합* | *39.5* | *30.0* | *10.5* | *3.5* | *17.5* | *31.5* | *12.0* |
| | 60대 | 1순위 | 10 | 26 | 4 | 1 | 18 | 16 | 30 |
| | | 2순위 | 9 | 19 | 1 | 1 | 21 | 19 | 32 |
| | | *종합* | *14.5* | *35.5* | *4.5* | *1.5* | *28.5* | *25.5* | *46.0* |

주. 종합=[(1순위)*2+(2순위)]/2.

〈표 4-35〉 생활비 지출항목(1위~3위)

| | 전체 | 성별 | | 연령별 | | | | |
|---|---|---|---|---|---|---|---|---|
| | | 남성 | 여성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1위 | 저축 | 저축 | 식비 | 식비 | 저축 | 저축 | 저축 | 주거비 |
| 2위 | 식비 | 식비 | 저축 | 저축 | 식비 | 가족부양 | 가족부양 | 식비 |
| 3위 | 가족부양 | 사교 부양 | 주거비 | 사교활동 | 사교활동 | 식비 | 식비 | 사교활동 |

○ [생활비 마련 방법]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는지 살펴보면, 80.6%가 '근로소득'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로부터의 지원(6.0%), 기초생활보장급여(4.2%) 등의 순이었다.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근로소득 비율이 18.5%p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여성은 가족 및 자녀로부터의 지원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낮음을 의미하며, 다음으로는 생계벌이자로 살아온 남성의 성역할 및 가족에 헌신을 매개로 가족구성원과 친밀과 의존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성역할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기초생활급여가 여성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 노인들 가운데서도 여성노인의 빈곤률이 더 높을 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 연령별로는 30·40대가 근로소득 비율이 높았고, 60대가 가장 낮았다. 20대는 가족으로부터 지원 비율이 높았으며, 60대는 자녀의 지원 및 기초생활급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6〉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 | | N | 근로소득 | 가족도움 | 자녀가 지원 | 배우자의 지원 | 저축 | 친구에게 빌림 | 기초생활급여 | 실업급여 | 임대소득 | 기타 |
|---|---|---|---|---|---|---|---|---|---|---|---|---|
| 전체 | | 449 | 80.6 | 3.1 | 6.0 | 0.9 | 3.3 | 0.4 | 4.2 | 0.4 | 0.4 | 0.4 |
| 성별 | 남성 | 204 | 90.7 | 1.0 | 2.0 | 0.0 | 1.5 | 0.5 | 2.9 | 0.5 | 0.5 | 0.5 |
| | 여성 | 245 | 72.2 | 4.9 | 9.4 | 1.6 | 4.9 | 0.4 | 5.3 | 0.4 | 0.4 | 0.4 |
| 연령별 | 20대 | 65 | 83.1 | 15.4 | 0.0 | 0.0 | 0.0 | 0.0 | 1.5 | 0.0 | 0.0 | 0.0 |
| | 30대 | 85 | 92.9 | 3.5 | 0.0 | 2.4 | 0.0 | 1.2 | 0.0 | 0.0 | 0.0 | 0.0 |
| | 40대 | 97 | 94.8 | 1.0 | 0.0 | 0.0 | 2.1 | 0.0 | 1.0 | 0.0 | 1.0 | 0.0 |
| | 50대 | 97 | 86.6 | 0.0 | 4.1 | 2.1 | 1.0 | 1.0 | 2.1 | 2.1 | 0.0 | 1.0 |
| | 60대 | 105 | 50.5 | 0.0 | 21.9 | 0.0 | 11.4 | 0.0 | 14.3 | 0.0 | 1.0 | 1.0 |

○ [주관적 계층의식] 현재 느끼는 계층의식은 2.67점으로 '하층~중하층' 사이로 나타났으며, 유년기(8~15세) 시절 느꼈던 계층 역시 '하층~중하층(2.61점)'로 나타나 과거와 현재 간 계층의식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과거에 느꼈던 계층의식 수준이 현재와 유사하다. 이는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누적적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수인·유지영, 2018)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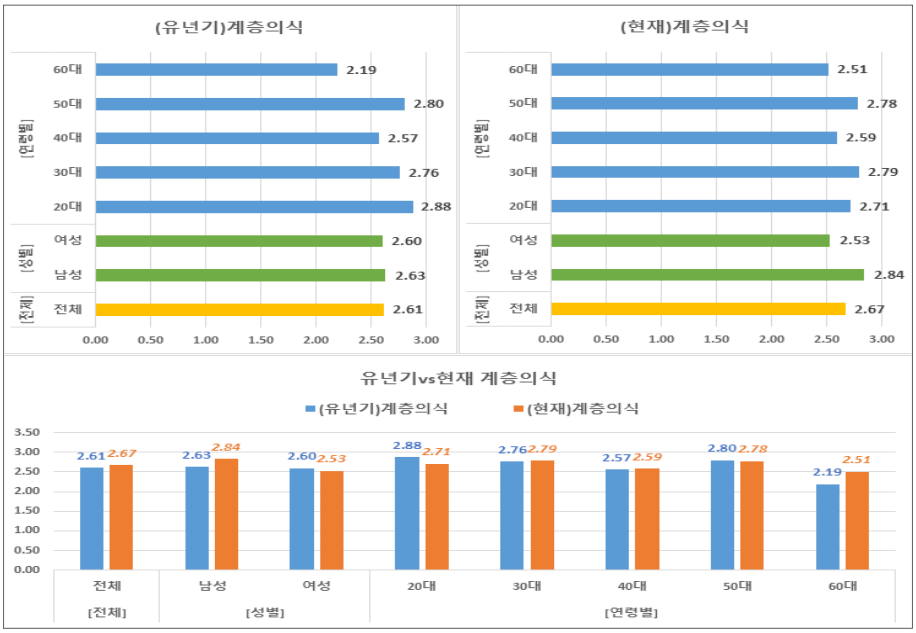
- 성별로는 유년기 계층의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현재 계층의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유년기 계층의식은 60대가 가장 낮았고,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60대를 제외하고는 현재 계층의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유년기 계층의식이 가장 낮은 것은 이 세대가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경제성장에 들어서기 전에 유년기를 보내며 경제적 빈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표 4-37〉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점/5점기준)

| | | 유년기 계층의식(M1) | | | 현재 계층의식(M2) | | | Paired-t (M1-M2) | *r* |
|---|---|---|---|---|---|---|---|---|---|
| | | N | M | *t/F* | N | M | t/F | | |
| 전체 | | 450 | 2.61 | - | 450 | 2.67 | - | -1.35 | *.49*** |
| 성별 | 남성 | 205 | 2.63 | *.35* | 205 | 2.84 | 3.99*** | -3.68*** | *.57*** |
| | 여성 | 245 | 2.60 | | 245 | 2.53 | | 1.28 | *.44*** |
| 연령별 | 20대 | 65 | 2.88c | *9.82**** | 65 | 2.71 | 2.02 | 1.90 | *.45**** |
| | 30대 | 85 | 2.76bc | | 85 | 2.79 | | -.28 | *.54**** |
| | 40대 | 98 | 2.57b | | 98 | 2.59 | | -.25 | *.59**** |
| | 50대 | 97 | 2.80bc | | 97 | 2.78 | | .24 | *.53**** |
| | 60대 | 105 | 2.19a | | 105 | 2.51 | | -3.16** | *.34**** |

주. 계층의식= 극빈층(1) 〈 하층(2) 〈 중하층(3) 〈 중상층(4) 〈 상층(5).
*p〈.05, **p〈.01, ***p〈.001




〈그림 4-26〉 주관적 계층의식

### 5) 여가 및 교육

❍ [함께하는 대상] 주로 누구와 여가를 보내는지 살펴보면, '친구'가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21.2%), 혼자(10.9%), 동호회(9.6%) 등의 순이었다.

- 성별로는 '친구'가 가장 많은 가운데,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 이웃을 상대적으로 더 선택했고,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동료, 혼자, 동호회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사회자본 또한 성별 차이를 가지고 구성된다는 선행 연구들(Lin, 2000; 이수인,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자본의 성별 차이는 남성이 공적 영역의 담당자이고 여성이 자녀양육의 담당자라는 성역할과 관련된다(이수인, 2010).
- 남성들은 여가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적고 혼자 여가생활을 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사업실패, 은퇴, 이혼 등을 계기로 사회자본이 축소될 때 남성들은 여성보다 고립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친구'를 선택한 비중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웃'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60대는 '이웃과 함께'라는 응답이 63.8%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농촌 노인돌봄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말해준다.

〈표 4-38〉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단위: %)

| | | N | 가족 | 친구 | 이웃 | 직장동료 | 혼자 | 동호회 | 기타 |
|---|---|---|---|---|---|---|---|---|---|
| 전체 | | 449 | 6.9 | 44.1 | 21.2 | 6.7 | 10.9 | 9.6 | 0.7 |
| 성별 | 남성 | 204 | 5.4 | 43.6 | 13.7 | 9.8 | 13.2 | 13.7 | 0.5 |
| | 여성 | 245 | 8.2 | 44.5 | 27.3 | 4.1 | 9.0 | 6.1 | 0.8 |
| 연령별 | 20대 | 64 | 3.1 | 76.6 | 1.6 | 7.8 | 6.3 | 4.7 | 0.0 |
| | 30대 | 85 | 9.4 | 57.6 | 2.4 | 7.1 | 8.2 | 14.1 | 1.2 |
| | 40대 | 98 | 7.1 | 43.9 | 13.3 | 8.2 | 16.3 | 11.2 | 0.0 |
| | 50대 | 97 | 12.4 | 43.3 | 12.4 | 9.3 | 10.3 | 11.3 | 1.0 |
| | 60대 | 105 | 1.9 | 14.3 | 63.8 | 1.9 | 11.4 | 5.7 | 1.0 |

* 린(Lin, 2000)은 사회자본이 상이한 사회집단 간에 차별적으로 분배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성별 집단과 인종집단에서의 차이를 강조한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성(여성)이나 인종집단이 갖는 사회자본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그것과 차이가 나고, 이 차이는 그들의 열등한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다(이수인, 2010).

〈그림 4-27〉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 [여가시간 충족]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60.0%로 나타남. 부족한 주된 이유로는 '일이 바빠서(124.5점)', '경제적 부담(116.5점)'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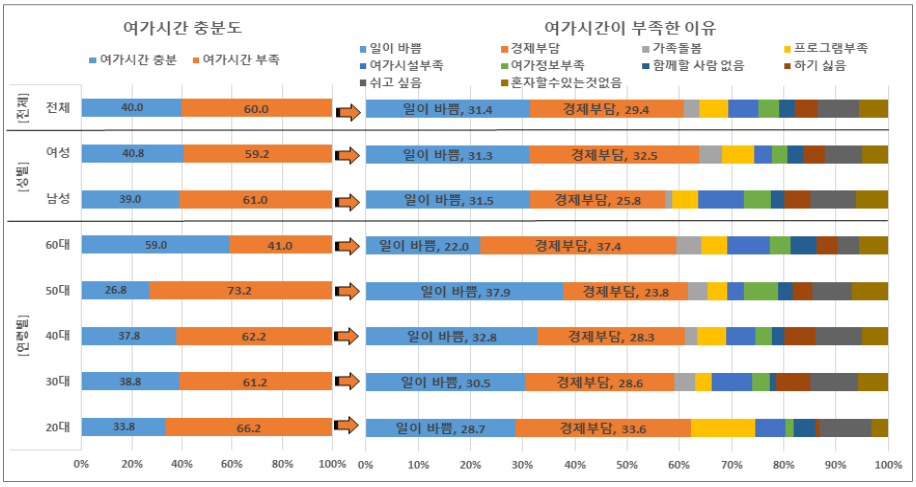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가시간 충분도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부족한 이유는 "일이 바쁘거나, 경제부담, 가족돌봄, 여가프로그램 부족" 등의 사유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여가는 경제적 여유와 시간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남성에 비해 빈곤가능성이 많은 여성들이 경제부담, 일이 바쁨으로 여가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당한 여가 프로그램 부족 또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사유로서 여가의 성평등을 위해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가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여가 시설 및 정보 부족"을 주된 사유로 선택하였다.
- 연령별로는 여가시간 충분성은 60대에서 가장 높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20대와 60대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높고, 30대~50대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가 더 높았다. 이는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표 4-39〉 여가시간 충족도 및 미충족 사유

(단위: %, 점)

| | | 여가 시간 충분1) | 여가 시간 부족2) | --〉 부족한 이유(종합점수3)) | | | | | | | | | |
|---|---|---|---|---|---|---|---|---|---|---|---|---|---|
| | | | | 일이 바쁨 | 경제 부담 | 가족 돌봄 | 프로 그램 부족 | 여가 시설 부족 | 여가 정보 부족 | 함께할 사람 없음 | 하기 싫음 | 쉬고 싶음 | 혼자 할수 있는것 없음 |
| 전체 | | 40.0 | 60.0 | 124.5 | 116.5 | 12.0 | 22.0 | 23.0 | 16.0 | 11.5 | 17.5 | 31.5 | 22.0 |
| 성별 | 남성 | 39.0 | 61.0 | 58.0 | 47.5 | 2.5 | 9.0 | 16.0 | 9.5 | 5.0 | 9.0 | 16.0 | 11.5 |
| | 여성 | 40.8 | 59.2 | 66.5 | 69.0 | 9.5 | 13.0 | 7.0 | 6.5 | 6.5 | 8.5 | 15.5 | 10.5 |
| 연령별 | 20대 | 33.8 | 66.2 | 17.5 | 20.5 | 0.0 | 7.5 | 3.5 | 1.0 | 2.5 | 0.5 | 6.0 | 2.0 |
| | 30대 | 38.8 | 61.2 | 23.5 | 22.0 | 3.0 | 2.5 | 6.0 | 2.5 | 1.0 | 5.0 | 7.0 | 4.5 |
| | 40대 | 37.8 | 62.2 | 29.5 | 25.5 | 2.0 | 5.0 | 5.0 | 3.0 | 2.0 | 5.5 | 8.0 | 4.5 |
| | 50대 | 26.8 | 73.2 | 40.5 | 25.5 | 4.0 | 4.0 | 3.5 | 7.0 | 3.0 | 4.0 | 8.0 | 7.5 |
| | 60대 | 59.0 | 41.0 | 13.5 | 23.0 | 3.0 | 3.0 | 5.0 | 2.5 | 3.0 | 2.5 | 2.5 | 3.5 |

주1) 충분=충분(36.9%)+매우충분(3.1%), 주2) 부족=매우부족(3.8%)+부족(21.8%)+보통(34.4%).
주3. 종합점수=[(1순위)*2+(2순위)]/2.




〈그림 4-28〉 여가시간 충족도 및 미충족 사유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 [희망 교육프로그램]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취미(154.5점)'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다음으로 건강(113.5점) 및 직업훈련(79.0점)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1~2위는 같고, 3위에서 남성은 노후설계, 여성은 직업훈련을 더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남성에 비해 열악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경제활동 참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연령별로는 20대~50대까지는 취미 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한편, 건강 교육은 40대부터 주요 관심사에 포함되기 시작하여 60대에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표 4-40〉 향후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1-2순위)

(단위: 명, 점)

| | | 학위 취득 | 취미 관련 | 인문 교양 | 직업 훈련 | 노후 설계 | 시민 활동 | 한글 교육 | 귀농 교육 | 컴퓨터 | 건강 관련 | 종교 | 가정 관리 |
|---|---|---|---|---|---|---|---|---|---|---|---|---|---|
| 전체 | 1순위 | 55 | 127 | 29 | 57 | 34 | 14 | 8 | 20 | 7 | 70 | 11 | 13 |
| | 2순위 | 11 | 55 | 43 | 44 | 50 | 21 | 4 | 24 | 25 | 87 | 29 | 35 |
| | *종합* | *60.5* | *154.5* | *50.5* | *79.0* | *59.0* | *24.5* | *10.0* | *32.0* | *19.5* | *113.5* | *25.5* | *30.5* |
| 남성 | 1순위 | 14 | 69 | 10 | 22 | 20 | 8 | 2 | 13 | 4 | 30 | 4 | 5 |
| | 2순위 | 3 | 17 | 17 | 16 | 23 | 9 | 1 | 15 | 11 | 52 | 11 | 16 |
| | 종합 | 15.5 | 77.5 | 18.5 | 30.0 | 31.5 | 12.5 | 2.5 | 20.5 | 9.5 | 56.0 | 9.5 | 13.0 |
| 여성 | 1순위 | 41 | 58 | 19 | 35 | 14 | 6 | 6 | 7 | 3 | 40 | 7 | 8 |
| | 2순위 | 8 | 38 | 26 | 28 | 27 | 12 | 3 | 9 | 14 | 35 | 18 | 19 |
| | *종합* | *45.0* | *77.0* | *32.0* | *49.0* | *27.5* | *12.0* | *7.5* | *11.5* | *10.0* | *57.5* | *16.0* | *17.5* |
| 20대 | 1순위 | 23 | 17 | 10 | 8 | 1 | 1 | 0 | 1 | 1 | 1 | 0 | 2 |
| | 2순위 | 0 | 14 | 14 | 14 | 3 | 1 | 0 | 5 | 5 | 3 | 2 | 4 |
| | *종합* | *23.0* | *24.0* | *17.0* | *15.0* | *2.5* | *1.5* | *0.0* | *3.5* | *3.5* | *2.5* | *1.0* | *4.0* |
| 30대 | 1순위 | 10 | 35 | 9 | 19 | 3 | 2 | 0 | 2 | 1 | 1 | 0 | 2 |
| | 2순위 | 3 | 8 | 20 | 13 | 8 | 2 | 1 | 5 | 3 | 13 | 2 | 4 |
| | *종합* | *11.5* | *39.0* | *19.0* | *25.5* | *7.0* | *3.0* | *0.5* | *4.5* | *2.5* | *7.5* | *1.0* | *4.0* |
| 40대 | 1순위 | 12 | 31 | 7 | 17 | 10 | 2 | 0 | 4 | 1 | 7 | 4 | 1 |
| | 2순위 | 3 | 8 | 4 | 9 | 15 | 7 | 1 | 8 | 5 | 22 | 4 | 6 |
| | *종합* | *13.5* | *35.0* | *9.0* | *21.5* | *17.5* | *5.5* | *0.5* | *8.0* | *3.5* | *18.0* | *6.0* | *4.0* |
| 50대 | 1순위 | 6 | 27 | 3 | 9 | 13 | 6 | 1 | 7 | 3 | 15 | 2 | 3 |
| | 2순위 | 3 | 14 | 5 | 3 | 15 | 6 | 0 | 4 | 8 | 25 | 2 | 5 |
| | *종합* | *7.5* | *34.0* | *5.5* | *10.5* | *20.5* | *9.0* | *1.0* | *9.0* | *7.0* | *27.5* | *3.0* | *5.5* |
| 60대 | 1순위 | 4 | 17 | 0 | 4 | 7 | 3 | 7 | 6 | 1 | 46 | 5 | 5 |
| | 2순위 | 2 | 11 | 0 | 5 | 9 | 5 | 2 | 2 | 4 | 24 | 19 | 16 |
| | *종합* | *5.0* | *22.5* | *0.0* | *6.5* | *11.5* | *5.5* | *8.0* | *7.0* | *3.0* | *58.0* | *14.5* | *13.0* |

주. 종합=[(1순위)*2+(2순위)]/2.

〈표 4-41〉 향후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1위~3위)

| | 전체 | 성별 | | 연령별 | | | | |
|---|---|---|---|---|---|---|---|---|
| | | 남성 | 여성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1위 | 취미 | 취미 | 취미 | 취미 | 취미 | 취미 | 취미 | 건강 |
| 2위 | 건강 | 건강 | 건강 | 학위취득 | 직업훈련 | 직업훈련 | 건강 | 취미 |
| 3위 | 직업훈련 | 노후설계 | 직업훈련 | 인문·교양 | 인문·교양 | 건강 | 노후설계 | 종교 |

### 6) 생활 및 주거환경

○ [주택 점유형태] 현재 거주하는 집은 '자가'인 경우가 5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월세(19.4%), 전세(1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자가 및 무상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전세, 월세, 사글세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농촌 여성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점유가 높았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 및 사글세의 점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4-42〉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 | | N | 자가 | 전세 | 월세(보증금有) | 사글세(보증금無) | 무상(관사 등) |
|---|---|---|---|---|---|---|---|
| 전체 | | 449 | 52.3 | 17.4 | 19.4 | 7.3 | 3.6 |
| 성별 | 남성 | 204 | 56.4 | 16.2 | 17.2 | 5.4 | 4.9 |
| | 여성 | 245 | 49.0 | 18.4 | 21.2 | 9.0 | 2.4 |
| 연령별 | 20대 | 65 | 24.6 | 18.5 | 44.6 | 12.3 | 0.0 |
| | 30대 | 85 | 23.5 | 29.4 | 32.9 | 11.8 | 2.4 |
| | 40대 | 98 | 49.0 | 18.4 | 22.4 | 7.1 | 3.1 |
| | 50대 | 96 | 68.8 | 17.7 | 4.2 | 3.1 | 6.3 |
| | 60대 | 105 | 81.0 | 5.7 | 3.8 | 4.8 | 4.8 |

〈그림 4-29〉 주택의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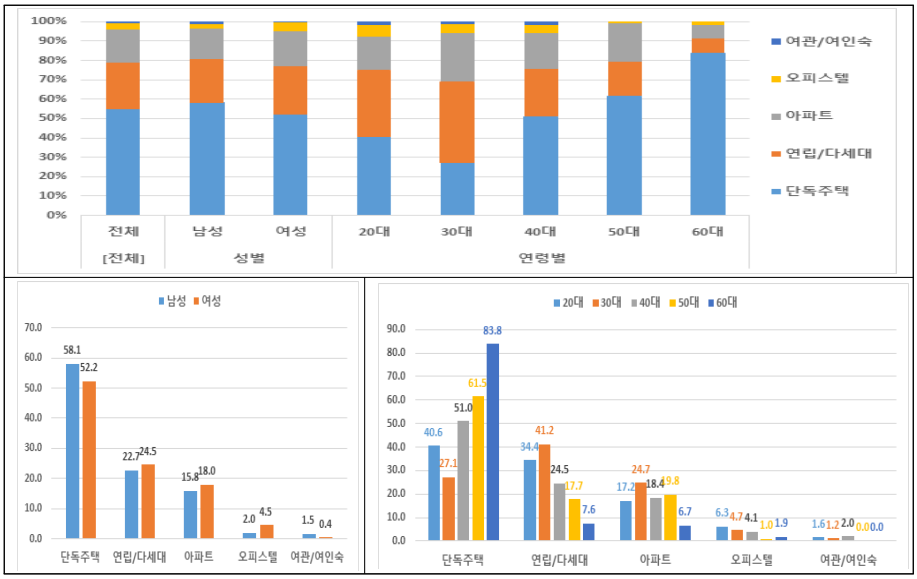
❍ [주택유형] 현재 거주하는 집의 유형은 '단독주택'인 경우가 5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립/다세대(23.9%), 아파트(1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호 주택유형의 성별 차이는 주거선택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여성들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주택 비중이 높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연립과 오피스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노인층의 주택노후화에 따른 관리지원의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43〉 주택의 유형

(단위: %)

| | | N | 단독주택 | 연립/다세대 | 아파트 | 오피스텔 | 여관/여인숙 |
|---|---|---|---|---|---|---|---|
| 전체 | | 448 | 54.9 | 23.9 | 17.0 | 3.3 | 0.9 |
| 성별 | 남성 | 203 | 58.1 | 22.7 | 15.8 | 2.0 | 1.5 |
| | 여성 | 245 | 52.2 | 24.5 | 18.0 | 4.5 | 0.4 |
| 연령별 | 20대 | 65 | 40.6 | 34.4 | 17.2 | 6.3 | 1.6 |
| | 30대 | 85 | 27.1 | 41.2 | 24.7 | 4.7 | 1.2 |
| | 40대 | 98 | 51.0 | 24.5 | 18.4 | 4.1 | 2.0 |
| | 50대 | 96 | 61.5 | 17.7 | 19.8 | 1.0 | 0.0 |
| | 60대 | 105 | 83.8 | 7.6 | 6.7 | 1.9 | 0.0 |




〈그림 4-30〉 주택의 유형

❍ [거주지 선택이유] 현재의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는 '원래 살던 동네'라는 응답이 187.0점, 통근·통학(171.0점), 저렴한 비용(128.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은 통근거리, 여성은 본 거주지 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연령별로는 20~40대 통근·통학거리, 5060대는 본 거주지가 가장 많았다.

〈표 4-44〉 거주지 선택이유(1-2순위)

(단위: 명, 점)

| | | | 통근/통학 거리 | 저렴한 비용 | 원래 살던 동네 | 가족/친구 근거리 | 안전 거주 환경 | 좋은 주거 환경 | 편리한 교통 | 주변 편의 시설 | 의료 접근성 |
|---|---|---|---|---|---|---|---|---|---|---|---|
| 전체 | | 1순위 | 155 | 74 | 160 | 15 | 18 | 13 | 6 | 4 | 2 |
| | | 2순위 | 32 | 109 | 54 | 51 | 17 | 48 | 25 | 9 | 17 |
| | | *종합* | *171.0* | *128.5* | *187.0* | *40.5* | *26.5* | *37.0* | *18.5* | *8.5* | *10.5* |
| 성별 | 남성 | 1순위 | 84 | 25 | 68 | 8 | 3 | 6 | 4 | 3 | 1 |
| | | 2순위 | 12 | 49 | 26 | 21 | 2 | 20 | 12 | 8 | 7 |
| | | *종합* | *90.0* | *49.5* | *81.0* | *18.5* | *4.0* | *16.0* | *10.0* | *7.0* | 4.5 |
| | 여성 | 1순위 | 71 | 49 | 92 | 7 | 15 | 7 | 2 | 1 | 1 |
| | | 2순위 | 20 | 60 | 28 | 30 | 15 | 28 | 13 | 1 | 10 |
| | | *종합* | *81.0* | *79.0* | *106.0* | *22.0* | *22.5* | *21.0* | *8.5* | *1.5* | *6.0* |
| 연령별 | 20대 | 1순위 | 33 | 11 | 11 | 2 | 5 | 3 | 0 | 0 | 0 |
| | | 2순위 | 6 | 18 | 6 | 6 | 4 | 10 | 6 | 3 | 1 |
| | | *종합* | *36.0* | *20.0* | *14.0* | *5.0* | *7.0* | *8.0* | *3.0* | *1.5* | *0.5* |
| | 30대 | 1순위 | 39 | 13 | 15 | 5 | 5 | 5 | 1 | 0 | 1 |
| | | 2순위 | 3 | 25 | 9 | 9 | 2 | 12 | 11 | 3 | 1 |
| | | *종합* | *40.5* | *25.5* | *19.5* | *9.5* | *6.0* | *11.0* | *6.5* | *1.5* | *1.5* |
| | 40대 | 1순위 | 40 | 21 | 26 | 2 | 6 | 1 | 2 | 0 | 0 |
| | | 2순위 | 12 | 23 | 13 | 10 | 6 | 9 | 5 | 3 | 2 |
| | | *종합* | *46.0* | *32.5* | *32.5* | *7.0* | *9.0* | *5.5* | *4.5* | *1.5* | *1.0* |
| | 50대 | 1순위 | 37 | 15 | 33 | 3 | 1 | 4 | 2 | 0 | 1 |
| | | 2순위 | 7 | 25 | 17 | 10 | 2 | 14 | 0 | 0 | 2 |
| | | *종합* | *40.5* | *27.5* | *41.5* | *8.0* | *2.0* | *11.0* | *2.0* | *0.0* | *2.0* |
| | 60대 | 1순위 | 6 | 14 | 75 | 3 | 1 | 0 | 1 | 4 | 0 |
| | | 2순위 | 4 | 18 | 9 | 16 | 3 | 3 | 3 | 0 | 11 |
| | | *종합* | *8.0* | *23.0* | *79.5* | *11.0* | *2.5* | *1.5* | *2.5* | *4.0* | *5.5* |

주. 종합=[(1순위)*2+(2순위)]/2.

〈표 4-45〉 거주지 선택이유(1위~3위)

| | 전체 | 성별 | | 연령별 | | | | |
|---|---|---|---|---|---|---|---|---|
| | | 남성 | 여성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1위 | 본거주지 | 통근·통학 | 본거주지 | 통근·통학 | 통근·통학 | 통근·통학 | 본거주지 | 본거주지 |
| 2위 | 통근·통학 | 본거주지 | 통근·통학 | 가격저렴 | 가격저렴 | 본거주지 | 통근·통학 | 가격저렴 |
| 3위 | 가격저렴 | 가격저렴 | 가격저렴 | 본거주지 | 본거주지 | 가격저렴 | 가격저렴 | 가족거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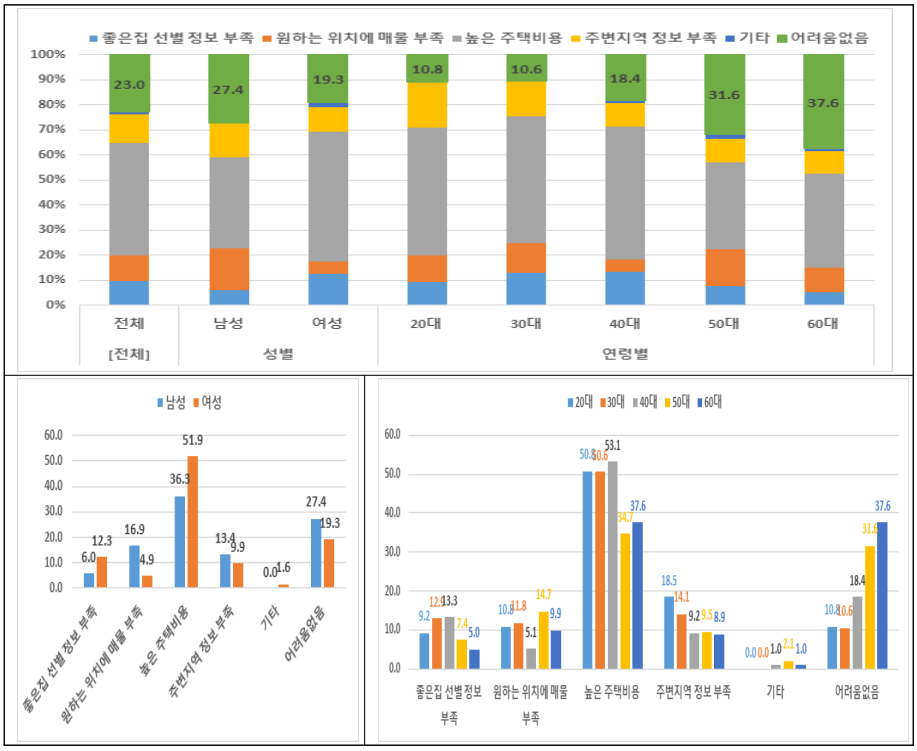
❍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주택을 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주택비용(44.8%)'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압도적 차이로 가장 높았다. 한편,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23.0%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성은 좋은 집 구분하는 것과 주택비용, 남성은 원하는 위치에 매물부족과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부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부족과 선별할 주택에 대한 정보부족의 합산 비율이 모든 계층에서 원하는 위치에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많아, 주변지역 및 주택시장에 나온 각 주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연령별로는 2040대는 높은 주택비용, 5060대는 어려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6〉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단위: %)

| | | N | 어려운 점 | | | | | *어려움 없음* |
|---|---|---|---|---|---|---|---|---|
| | | | 좋은 집 선별 정보의 부족 | 원하는 위치에 매물 부족 | 높은 주택비용 | 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 | 기타 | |
| 전체 | | 444 | 9.5 | 10.4 | 44.8 | 11.5 | 0.9 | *23.0* |
| 성별 | 남성 | 201 | 6.0 | 16.9 | 36.3 | 13.4 | 0.0 | *27.4* |
| | 여성 | 243 | 12.3 | 4.9 | 51.9 | 9.9 | 1.6 | *19.3* |
| 연령별 | 20대 | 65 | 9.2 | 10.8 | 50.8 | 18.5 | 0.0 | *10.8* |
| | 30대 | 85 | 12.9 | 11.8 | 50.6 | 14.1 | 0.0 | *10.6* |
| | 40대 | 98 | 13.3 | 5.1 | 53.1 | 9.2 | 1.0 | *18.4* |
| | 50대 | 95 | 7.4 | 14.7 | 34.7 | 9.5 | 2.1 | *31.6* |
| | 60대 | 101 | 5.0 | 9.9 | 37.6 | 8.9 | 1.0 | *37.6* |




〈그림 4-31〉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 [거주지역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교통접근성과 안전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사생활 침해, 폭력·범죄, 주택보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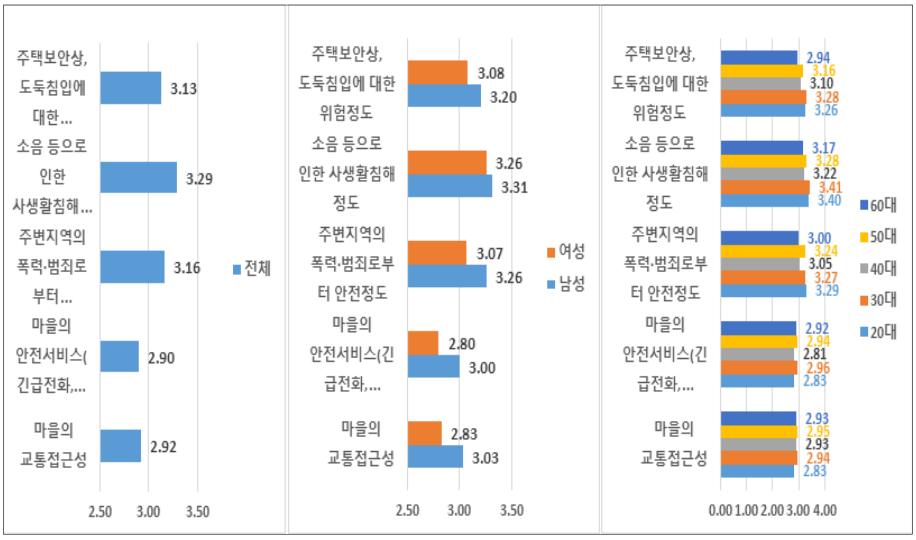
- 성별로는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고, 안전체감도는 폭력·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여성이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안전체감도는 폭력·범죄, 주택보안에 대해 60대가 더 많이 불안해 하고 있었다.
-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이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거주지역 만족도

(단위: 점/5점기준)

| | |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1) | | 거주지역 안전에 대한 체감도2) | | |
|---|---|---|---|---|---|---|
| | | 마을의 교통접근성 | 마을의 안전서비스(긴급 전화, 가로등 등) | 주변지역의 폭력·범죄로부터 안전정도 |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도 | 주택보안상, 도둑침입에 대한 위험정도 |
| 전체 | | 2.92 | 2.90 | 3.16 | 3.29 | 3.13 |
| 성별 | 남성 | 3.03 | 3.00 | 3.26 | 3.31 | 3.20 |
| | 여성 | 2.83 | 2.80 | 3.07 | 3.26 | 3.08 |
| | *t* | *2.43** | *2.54*** | *2.53*** | *.70* | *1.59* |
| 연령별 | 20대 | 2.83 | 2.83 | 3.29b | 3.40 | 3.26b |
| | 30대 | 2.94 | 2.96 | 3.27b | 3.41 | 3.28b |
| | 40대 | 2.93 | 2.81 | 3.05ab | 3.22 | 3.10ab |
| | 50대 | 2.95 | 2.94 | 3.24ab | 3.28 | 3.16ab |
| | 60대 | 2.93 | 2.92 | 3.00a | 3.17 | 2.94a |
| | *F* | *.22* | *.61* | *2.40** | *1.56* | *2.62** |

주1.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 ~ 매우 만족(5점)
주2. 매우 불안(1점) ~ 매우 안전(5점)
*p<.05, **p<.01, ***p<.001




〈그림 4-32〉 거주지역 만족도

❍ [안전한 거주환경을 위해 필요한 점]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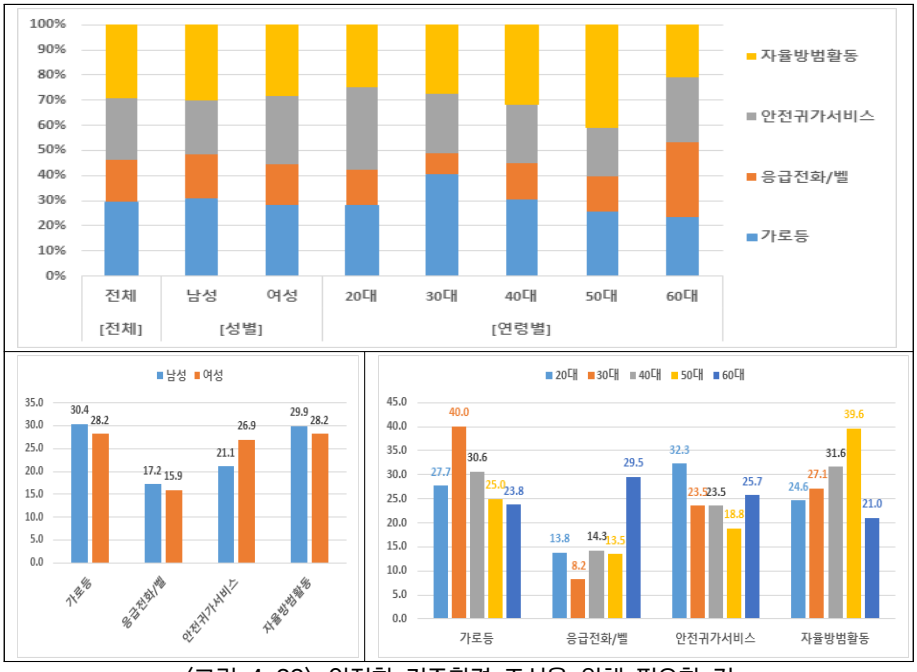
고, 다음으로 자율방범활동 강화(29.0%), 안전귀가서비스(2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가로등 및 응급벨 설치, 방범활동 강화가 높았고, 여성은 안전귀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3040대는 가로등 설치, 20대는 안전귀가서비스, 50대는 방범활동 강화, 60대는 응급벨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48〉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단위: %)

| | | N | 가로등 | 응급전화/벨 | 안전귀가서비스 | 자율방범활동 | 기타 |
|---|---|---|---|---|---|---|---|
| 전체 | | 449 | 29.2 | 16.5 | 24.3 | 29.0 | 1.1 |
| 성별 | 남성 | 204 | 30.4 | 17.2 | 21.1 | 29.9 | 1.5 |
| | 여성 | 245 | 28.2 | 15.9 | 26.9 | 28.2 | 0.8 |
| 연령별 | 20대 | 65 | 27.7 | 13.8 | 32.3 | 24.6 | 1.5 |
| | 30대 | 85 | 40.0 | 8.2 | 23.5 | 27.1 | 1.2 |
| | 40대 | 98 | 30.6 | 14.3 | 23.5 | 31.6 | 0.0 |
| | 50대 | 96 | 25.0 | 13.5 | 18.8 | 39.6 | 3.1 |
| | 60대 | 105 | 23.8 | 29.5 | 25.7 | 21.0 | 0.0 |




〈그림 4-33〉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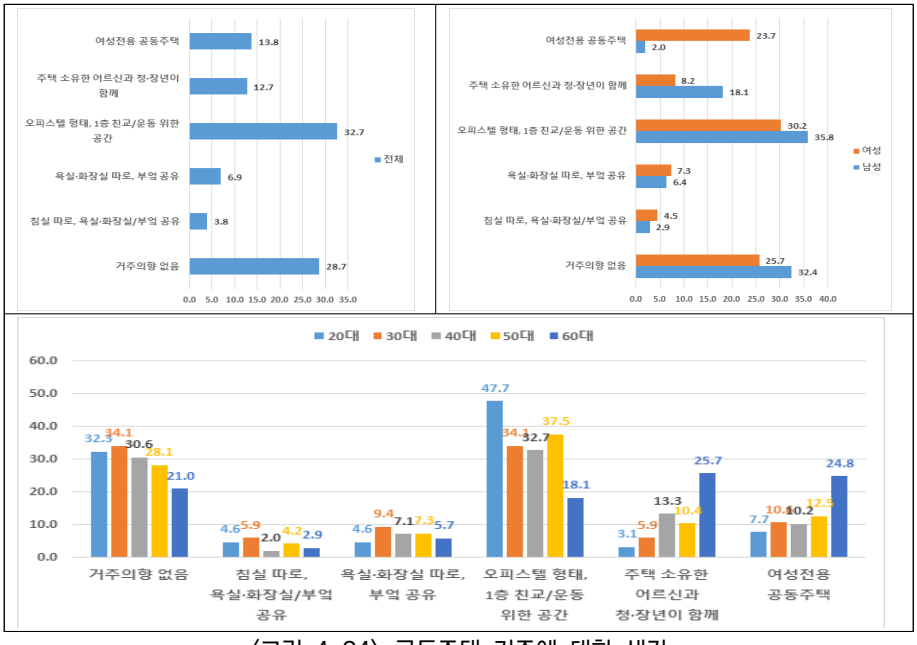
○ [공동주택에 대한 생각] 1인가구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살펴본 결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 친교/운동 위한 공동사용”이 가장 높았다. 한편, 공동주택 거주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28.7%였다.

- 성별로는 남성은 거주의향 없음, 여성은 여성전용공간을 더 많이 희망하였다.
- 연령별로는 20대는 오피스텔 형태를 가장 선호한 반면 60대는 가장 낮았다. 한편, 거주의향 없다는 응답은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49〉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

(단위: %)

| | | N | *거주의향 없음* | 침실 따로, 욕실·화장실/부엌 공유 | 욕실·화장실 따로, 부엌 등 공유 | 오피스텔 형태, 친교/운동 공간 공유 | 주택 소유한 어르신과 청·장년 함께 | 여성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 |
|---|---|---|---|---|---|---|---|---|
| 전체 | | 449 | *28.7* | 3.8 | 6.9 | 32.7 | 12.7 | 13.8 |
| 성별 | 남성 | 204 | *32.4* | 2.9 | 6.4 | 35.8 | 18.1 | 2.0 |
| | 여성 | 245 | *25.7* | 4.5 | 7.3 | 30.2 | 8.2 | 23.7 |
| 연령별 | 20대 | 65 | *32.3* | 4.6 | 4.6 | 47.7 | 3.1 | 7.7 |
| | 30대 | 85 | *34.1* | 5.9 | 9.4 | 34.1 | 5.9 | 10.6 |
| | 40대 | 98 | *30.6* | 2.0 | 7.1 | 32.7 | 13.3 | 10.2 |
| | 50대 | 96 | *28.1* | 4.2 | 7.3 | 37.5 | 10.4 | 12.5 |
| | 60대 | 105 | *21.0* | 2.9 | 5.7 | 18.1 | 25.7 | 24.8 |




〈그림 4-34〉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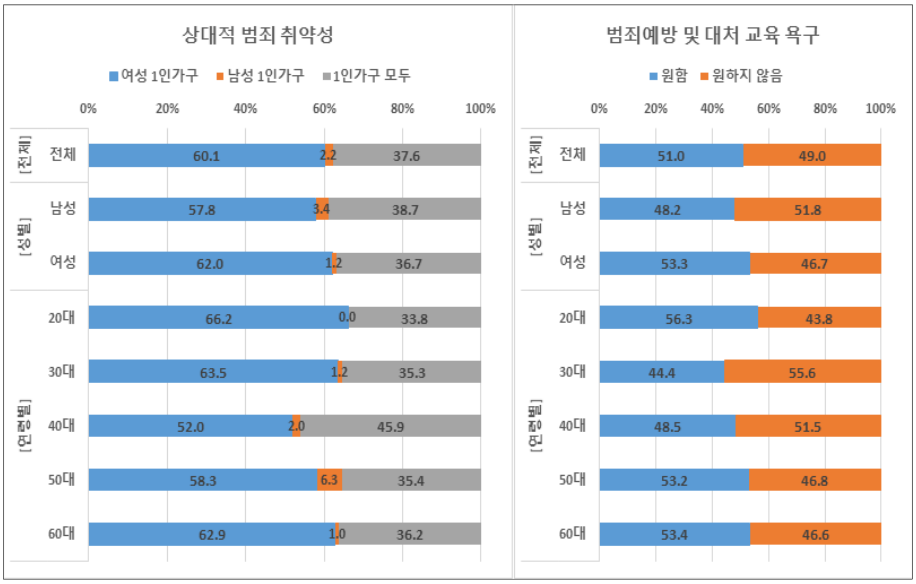
❍ [범죄취약성 및 예방교육] 여성과 남성 1인가구 중 범죄취약성에 대해 여성 1인가구가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범죄예방 교육을 원하는 응답자는 51.0%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성이 더 위험하다는 응답은 여성 그룹에서 높았고, 범죄예방 교육 욕구 역시 여성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 여성이 더 위험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예방 교육 욕구는 3040대의 경우 원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50〉 범죄에 대한 취약성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단위: %)

| | | 상대적 범죄취약성 | | | | 범죄예방 및 대처 교육 욕구 | | |
|---|---|---|---|---|---|---|---|---|
| | | N | 여성위험 | 남성위험 | 모두위험 | N | 원함 | 원하지 않음 |
| 전체 | | 449 | 60.1 | 2.2 | 37.6 | 439 | 51.0 | 49.0 |
| 성별 | 남성 | 204 | 57.8 | 3.4 | 38.7 | 199 | 48.2 | 51.8 |
| | 여성 | 245 | 62.0 | 1.2 | 36.7 | 240 | 53.3 | 46.7 |
| 연령별 | 20대 | 65 | 66.2 | 0.0 | 33.8 | 64 | 56.3 | 43.8 |
| | 30대 | 85 | 63.5 | 1.2 | 35.3 | 81 | 44.4 | 55.6 |
| | 40대 | 98 | 52.0 | 2.0 | 45.9 | 97 | 48.5 | 51.5 |
| | 50대 | 96 | 58.3 | 6.3 | 35.4 | 94 | 53.2 | 46.8 |
| | 60대 | 105 | 62.9 | 1.0 | 36.2 | 103 | 53.4 | 46.6 |




〈그림 4-35〉 범죄에 대한 취약성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 7) 농촌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 (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세부영역 만족도

○ [삶의 만족도 및 세부 내용] 삶의 만족도는 건강, 수입, 거주지,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여가생활, 전반적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3.35점으로 가장 높고, '가계 수입' 만족도가 2.9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반적 만족도는 3.27점이었다. 세부영역들을 종합한 삶의 만족도는 3.20점으로 나타났다(5점만점).

- 질문문항과 조사연도, 조사대상자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 조사결과의 삶의 만족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강은경 외(2016)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 조사(2012년)자료를 사용하여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15세이상이 조사대상자에 포함되는 이 연구에서 1인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1문항)는 3.16이다. 박미현(2016)은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자료(2011년)를 이용하여 50세~64세까지 장년층 1인가구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1문항으로 측정된 장년층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3.10이었다. 이수인·유지영(2018)이 한국복지패널 9차자료(2014년)를 이용해 65세 이상 노인들(모든 가구형태 포함)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3.35였다.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다인가구에 비해 낮다는 점을 참조할 때, 본 연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1문항) 점수가 3.27, 총합적인 삶의 만족도(삶의 만족도)가 3.20으로 나타난 것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각 세부 영역에서의 성별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입' 및 '직업'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계 수입'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직업 및 일자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에서는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건강, 가계수입,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 영역은 20·30대가 가장 높았고, 40·50대, 그리고 6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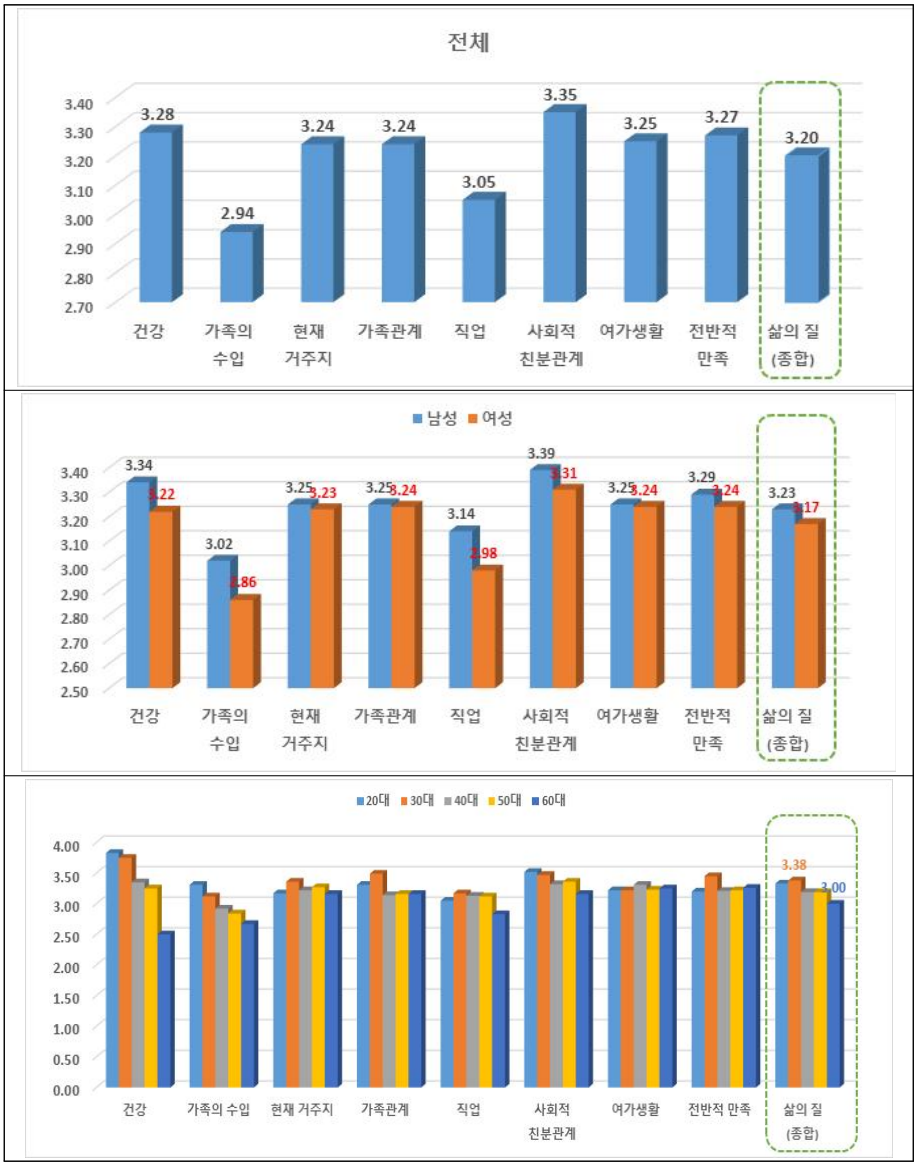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 영역은 20대가 가장 높은 반면, 6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가족관계' 영역은 20대와 30대가 높은 반면, 40대~60대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40~60대가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이 많고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부양부담이 적은 세대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직업' 영역은 30대~50대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60대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20대가 직업영역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뚜렷한 자신의 위치를 구축하지 못한 세대라는 점과 60대가 직업영역에서 은퇴하는 연령대라는 점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 영역은 20·30대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60대의 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은 30대가 가장 높고, 4050대, 60대 순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주요 세부 영역인 건강, 가계수입, 사회적 관계 등에서 20~30대의 만족도가 높고, 그 뒤를 이어 40~50대, 60대의 순서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표 4-51〉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5점기준)

| | | 건강 | 가계 수입 | 현재 거주지 | 가족관계 | 직업 | 사회적 관계 | 여가생활 | 전반적 만족 | **삶의 만족도 (종합)** |
|---|---|---|---|---|---|---|---|---|---|---|
| 전체 | | 3.28 | 2.94 | 3.24 | 3.24 | 3.05 | 3.35 | 3.25 | 3.27 | **3.20** |
| 성별 | 남성 | 3.34 | 3.02 | 3.25 | 3.25 | 3.14 | 3.39 | 3.25 | 3.29 | **3.23** |
| | 여성 | 3.22 | 2.86 | 3.23 | 3.24 | 2.98 | 3.31 | 3.24 | 3.24 | **3.17** |
| | *t* | *1.36* | *2.15** | *.27* | *.10* | *2.12** | *1.12* | *.11* | *.63* | ***1.16*** |
| 연령별 | 20대 | 3.83c | 3.31d | 3.17 | 3.31ab | 3.05ab | 3.52b | 3.22 | 3.20 | **3.33bc** |
| | 30대 | 3.75c | 3.12cd | 3.36 | 3.49b | 3.17b | 3.47b | 3.22 | 3.45 | **3.38c** |
| | 40대 | 3.35b | 2.92bc | 3.22 | 3.14a | 3.13b | 3.32ab | 3.31 | 3.21 | **3.19b** |
| | 50대 | 3.25b | 2.84ab | 3.27 | 3.16a | 3.12b | 3.36ab | 3.23 | 3.22 | **3.17b** |
| | 60대 | 2.50a | 2.67a | 3.16 | 3.16a | 2.83a | 3.16a | 3.25 | 3.26 | **3.00a** |
| | *F* | *38.28 **** | *8.31 **** | *1.00* | *3.23 *** | *2.99 ** | *3.13 ** | *.17* | *1.55* | ***6.37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p<.05, **p<.01, ***p<.001




〈그림 4-36〉 전반적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

### (2)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로서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소득과 경제활동, 여가활동,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등을 들고 있다(김숙경, 2004; 이수인·유지영, 2018).

❍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학력수준, 성별, 연령, 혼인상태를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사용하고, 평균 소득과 고용형태, 주관적 계층의식을 경제관련 변수로, 병원 진료 빈도를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영향 요인으로서는 위급시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상담상대가 있는지 여부, 부모나 형제·자매를 만나는 빈도, 이웃의 중요성을 사용하였다. 여가생활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가시간 충분도를 변수로, 주거환경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 및 주건환경의 안전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설정된 개별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력수준은 초등학교졸업부터 대학원졸업까지의 5점 척도이고, 성별 변수는 남성 0, 여성1의 더미변수,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5점척도로 구성되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을 기준변수로 하여 기혼(현재 배우자 있음), 이혼 및 별거, 사별을 가변수 처리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개인의 평균소득은 소득없음부터 600만원 이상까지의 8점척도로 구성되었고, 고용형태는 상용직, 임시직 및 일용직,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로 구분하여 상용직을 기준변수로 하여 나머지 변수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상층부터 극빈층까지의 5점척도(역코딩)를 사용했고, 위급시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상담대상이 있는지 여부는 0과 1의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모나 형제자매를 만나는 빈도는 역코딩 후, 두 변수를 합해 평균을 낸 1부터 4까지의 7점 척도로, 이웃의 중요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부터 매우 중요함의 5점척도를 사용했다. 여가시간은 매우부족함에서부터 매우충분함의 5점척도로 구성했고, 주거 환경의 안전도는 1부터 5까지의 11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의 효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사용하고, '경제적 요인'은 고용상태와 소득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요인'은 위급시 도움을 줄 사람 여부, 고민상대 유무, 부모형제 만남 빈도, 이웃을 중요시하는 정도, '건강 및 안전' 관련해서는 병원진료 빈도와 거주지의 안전도,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의 충분정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 미혼상태에 비해 이혼 및 별거상태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beta$=-.224), 고민상담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beta$=.215). 다음으로 본인의 계층의식이 높을수록($\beta$=.210), 주거지역 안전도가 높을수록($\beta$=.196) 삶의 만족도가 좋아졌다. 상용직에 비해 자영업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고($\beta$=-.187), 위급시 도울 사람이 없을 때보다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beta$=.151). 병원진료 빈도가 많을수록($\beta$=-.126),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beta$=-.098). 연령이 높을수록($\beta$=.088), 부모형제를 자주 만날수록($\beta$=.086), 여가시간이 충분할수록(($\beta$=.072) 삶의 만족도가 좋아졌다. 이 모형은 삶의 만족도를 51.8%($r^2$=.518) 설명하고 있다 (F=16.568, P=.000).

〈표 4-52〉 농촌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모형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상수) | 1.187 | .291 | | 4.079 | .000 |
| 연령 | .088 | .028 | .187 | 3.103 | .002 |
| 성별 | .019 | .050 | .017 | .375 | .708 |
| 학력 | .038 | .034 | .056 | 1.137 | .257 |
| 이혼/별거 | -.224 | .063 | -.186 | -3.579 | .000 |
| 기혼 | -.150 | .084 | -.092 | -1.798 | .073 |
| 사별 | -.106 | .109 | -.053 | -.977 | .330 |
| 임시·일용직 | -.068 | .062 | -.058 | -1.091 | .276 |
| 자영업 | -.187 | .066 | -.142 | -2.846 | .005 |
| 무급종사직 | .132 | .165 | .036 | .800 | .424 |
| 월평균 소득 | .013 | .020 | .032 | .672 | .502 |
| 병원 방문 빈도 | -.126 | .034 | -.173 | -3.703 | .000 |
| 위급시 도움 | .151 | .060 | .123 | 2.511 | .013 |
| 고민상담 대상 | .215 | .080 | .129 | 2.687 | .008 |
| 가족만남 | .086 | .032 | .122 | 2.711 | .007 |
| 본인의 계층의식 | .210 | .035 | .305 | 6.063 | .000 |
| 이웃의 중요도 | -.098 | .026 | -.187 | -3.754 | .000 |
| 안전 | .196 | .037 | .242 | 5.231 | .000 |
| 여가시간 | .072 | .029 | .114 | 2.478 | .014 |

❍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거나 이혼이고 다음으로 자영업상태였다. 그만큼 가족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농촌지역의 자영업이 매우 영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건강이 나쁠수록,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이웃에 대한 기대가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이다. 현실의 이웃관계가 사람들의 기대치에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정적인 효과를 준 변수는 자신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자신의 계층의식과 주거환경의 안전인식, 위급 시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는 점이었다.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 교류할 상대가 있고, 위급 시 의지할 상

대가 있다는 점이 삶의 만족도에 큰 정적 효과를 미치고,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지와 주거지 및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부모형제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좋아졌다.

❍ 전체적으로 가족안정성(혼인상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 유·무, 위급 시 도움을 줄 사람,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안전에 대한 인식 등이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에 정적 효과를 미치는 데 이것의 해석은 보다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젊은층에 비해 우울이나 자살생각이 높았고, 소득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좋지 않았다. 따라서 연령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 논리적이다. 실제 삶의 만족도에 대해 연령변수만 투입한 회귀분석의 모형에서 연령변수는 부적인 효과($\beta$=-.090, t=-4.635, P=.000)를 나타낸다($R^2$=.047, F=21.484, p=.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연령범주는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변수들을 투입했을 때, 곧 앞의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는 연령변수가 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적 조건이나 혼인상태, 등 다른 여건들이 통제된다면 노년층이 삶에 대해 비판적이기보다 관조적이거나 포용적인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 농촌 노인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나 지역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객관적 조건보다 스스로의 지위나 환경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임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결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회귀모형에서 객관적인 소득보다는 사회적 위치 인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고용상태나 주관적 계층의식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삶의 만족도 인식에서 자신의 지위나 환경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라. 요약 및 시사점

○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촌 1인가구의 1인가구 형성 이유는 이혼 및 사별이 가장 많았고 직장과 학교 문제, 가족과 사는 게 불편함, 편의 및 자유를 위해서의 순서로 나타났고, 1인가구로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 1인가구생활의 장점은 성별, 연령별 구분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여가시간 활용이었다. 1인가구 생활의 단점은 외로움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불안이 나타나 1인가구에 대해 경제적 차원 외에 정신적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외로움을, 여성은 경제불안을 더 많이 선택했다.

○ 향후 가구형태에 대해 남성은 '원가족과 함께' 또는 '배우자와 함께' 등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1인가구 유지' 또는 '주거공동체' 등 1인가구와 사회적 가족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제도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주는 무게와 의무가 더 많아 여성의 결혼회피율이 높은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20대~50대는 '배우자와 함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30대: 47.6%), 60대의 경우 사별의 영향으로 '원가족과 함께'를 가장 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는 60대 그룹에서 자살생각(종합)이 높아 20-40대 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0대집단의 높은 자살생각은 이 집단의 독거비율이 높은데 따른 정신건강 악화와 관련된다. 노인층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우울검사에서는 성별간 유의한 차이는 없고 50대와 60대의 우울감이 커서 다른 연령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드러냈다. 본인의 문제(걱정거리 등)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도 50·60대가 고민 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서적 우울감이 50대~60대에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50대~60대가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점은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상담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아, 50대~60대 남성에 대한 정신적 케어에 관련한 정책마련이 요청된다.

○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60대가 4.02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2.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20·30대는 이웃과의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밀한 이웃관계 형성을 원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특히 60대에서 가장 높았음). 농촌 노인 돌봄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매우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인돌봄의 커뮤니티 케어의 기초는 혼자 생활하면서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0대의 경우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라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았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성은 가족, 남성은 친구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성별분업을 통해 가족내 정서적 친밀성을 담당해온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정신건강 및 이웃의 중요성에서 나타난 결과는 여가에 대한 항목에서도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다. 주로 누구와 여가를 보내는지 살펴보면 결과, '친구'가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21.2%), 혼자(10.9%), 동호회(9.6%) 등의 순이었다. 남녀 모두 '친구'가 가장 많은 가운데,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 이웃을 상대적으로 더 선택했고,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동료, 혼자, 동호회를 더 많이 선택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들은 여가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적고 혼자 여가생활을 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사업실패, 은퇴, 이혼 등을 계기로 사회자본이 축소될 때 남성들은 여성보다 고립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는 연령이 어릴수록 '친구'를 선택한 비중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웃의 비중이 증가한다. 특히, 60대는 이웃과 함께라는 응답이 63.8%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노인돌봄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나타낸다.

○ 가족주의 가치와 개인주의 가치를 성별로 살펴보면,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영역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개인주의는 산업발전에 발맞춰 사회적 경쟁과 함께 진행되었으므로 공적 영역의 담당자인 남성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유의하게 높다고 볼 수 있다.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주의 점수는 개인주의 점수보다 낮고, 20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가족주의 성향이 점차 축소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조하는 우리사회 신자유주의적 사회변동의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응답자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상용직(30.4%), 임시직 및 자영업 종사자 각 22.7%, 일용직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임시직', 남성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적고 경제적 지위에서 더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자원에서 여성의 열세는 소득분야에서 뚜렷해지는데, 최근 6개월간 평균 소득을 성별로 본다면 여성보다 남성이 '오른쪽 꼬리분포'를 보여 여성에 비해 남성의 소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연령별로는 20대의 소득이 낮고 30대부터는 연령이 높을수록 저소득 분포가 확장되어, 특히 60대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직업적 불안정이나 실업 등도 있을 수 있지만,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보다는 용돈 등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0대에 빈곤층이 치우쳐 있고, 그 중 남성이 43.8%, 여성이 56.2%로 여성

이 비율이 높은 데다 임금의 성별 분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60대 농촌노인의 빈곤문제에서 여성노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는지 살펴보면, 80.6%가 '근로소득'을 통해 마련했고, 다음으로 자녀로부터의 지원(6.0%), 기초생활보장급여(4.2%) 등의 순이었다.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근로소득 비율이 18.5%p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여성은 가족 및 자녀로부터의 지원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되고, 다음으로는 생계벌이자로 살아온 남성의 성역할 및 가족에 헌신을 매개로 가족구성원과 친밀과 의존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성역할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기초생활급여가 여성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 노인들 가운데서도 여성노인의 빈곤률이 더 높을 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거주하는 집은 '자가'인 경우가 5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월세(19.4%), 전세(1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자가 및 무상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전세, 월세, 사글세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농촌 여성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점유가 높았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 및 사글세의 점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 현재 거주하는 집의 유형은 '단독주택'인 경우가 5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립/다세대(23.9%), 아파트(1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호 주택유형의 성별 차이는 주거선택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여성들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주택 비중이 높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연립과 오피스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노인층의 주택 노후화에 따른 관리지원의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 주택을 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주택비용(44.8%)'이 높다는 점으로서 모든 연령대에서 압도적 차이로 1순위에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은 좋은 집 구분하는 것과 주택비용, 남성은 원하는 위치에 매물부족과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부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부족과 선별할 주택에 대한 정보부족의 합산 비율이 모든 계층에서 원하는 위치에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많아, 주변지역 및 주택시장에 나온 각 주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교통접근성과 안전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고, 안전체감도는 폭력·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여성이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안전체감도는 폭력·범죄, 주택보안에 대해 60대가 더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이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미래 희망가구 형태에 대한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72.5%라는 다수의 1인가구원들이 현재와 같이 혼자 살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살거나 주거공동체를 희망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1인가구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남녀 모두 "오피스텔 형태로 1층의 친교·운동 위한 공동사용"을 가장 선호했고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이 방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한편, 공동주택 거주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28.7%였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두드러지게 거주의향 없음을 선택했고, 여성들은 여성전용 공간을 더 많이 희망하였다.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과 청장년층이 함께하는 거주방식에 대해 60대 25.7%, 40대~50대 23.7%를 선택해 노인층의

주택을 40~50대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영역 가운데 '가계 수입'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직업 및 일자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는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주요 세부영역인 건강, 가계수입, 사회적 관계 등에서 20~30대의 만족도가 높고, 그 뒤를 이어 40~50대, 60대의 순서로 만족도가 낮아졌다. 50대와 60대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과 통합해보면 농촌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및 정신건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 한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큰 정적인 효과를 준 변수는 혼인상태, 자신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말할 수 있는 상대 유무, 자신의 계층인식과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인식, 위급 시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는 점 등이었다. 말하자면 객관적 소득수준이나 질병보다 혼인상태의 안정성, 마음을 터놓을 상대와 위급 시 도와 줄 사람이 있다는 인간관계의 안전성,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지와 주거환경의 안전성 등 주관적 인식이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2. 농촌 1인가구 심층면접

### 가. 조사개요

❍ 전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대~60대 농촌 1인가구 1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성별 격차, 세대별 격차 등에 주목하며 1인가구 형성 사유, 1인가구로서의 어려움, 가족 및 사회적 관계방식과 태도, 희망하는 노후의 거주방식, 삶에 대한 만족 등 삶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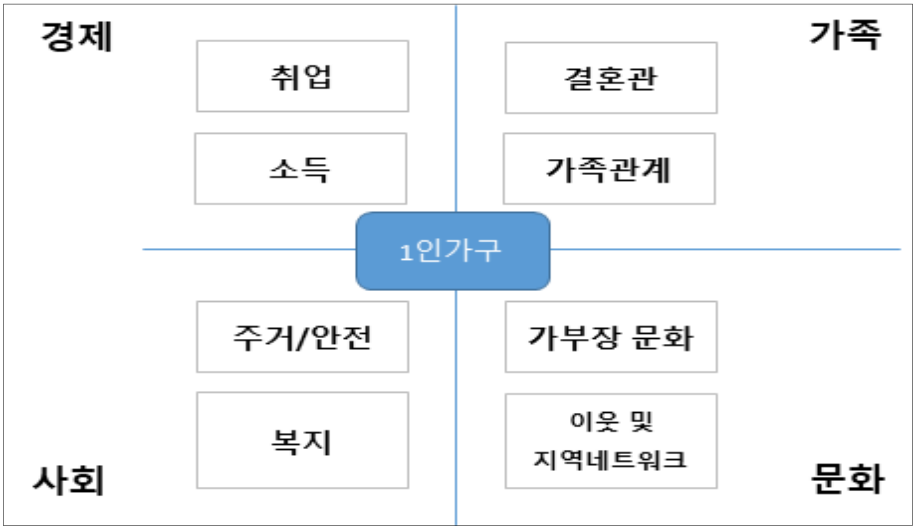
❍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 나. 조사내용

❍ 농촌 1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와 설문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요인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면접의 내용은 크게 1인가구 형성 사유,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농촌 1인가구로서 가지는 어려움,  노후의 희망 거주방식,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1인가구 형성 원인과 1인가구 유지여부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차이의 양상 등을 살펴본다.
- 1인가구원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불안정성이 규범이 되어버린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불안정이 개인의 1인가구 선택 혹은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의 다층적인 맥락을 구체적인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구조적 압력에 따라 가족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가족구성원과의 일체감이나 분리감 정도와 양상, 미래의 돌봄형태와 관련해 이상적인 주거형태,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평가, 미래 삶에의 전망 등을 분석에 포함한다.
- 그 외 실태 및 삶의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더 깊이 있고 세심한 질문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주: 홍승아 외(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참조.

〈그림 4-37〉 농촌 1인가구 정책영역

## 다. 조사대상

〈표 4-53〉 층면접조사에 참여한 1인가구 특성

| | 성별 | 연령 | 현 거주지역 | 전 거주지역 | 직업 | 학력 | 혼인상태 |
|---|---|---|---|---|---|---|---|
| 1 | 여성 | 38세 | 무주(무주읍) | 서울 | 사회활동가 | 대졸 | 미혼 |
| 2 | 남성 | 41세 | 완주(이서면) | 서울 | 자영업자 | 고졸 | 미혼 |
| 3 | 남성 | 56세 | 김제(만경읍) | 김제(만경읍) | 농업 | 고졸 | 미혼 |
| 4 | 여성 | 38세 | 완주(봉동읍) | 완주(봉동읍) | 아르바이트 | 고졸 | 이혼 |
| 5 | 여성 | 58세 | 정읍(신태인읍) | 정읍(신태인읍) | 아르바이트 | 고졸 | 기러기부부 |
| 6 | 여성 | 65세 | 정읍(신태인읍) | 정읍(신태인읍) | 농사 | 고졸 | 사별 |
| 7 | 여성 | 56세 | 정읍(신태인읍) | 김제시 | 농사 | 고졸 | 이혼 |
| 8 | 남성 | 63세 | 정읍(신태인읍) | 정읍(신태인읍) | 일용직 | 고졸 | 이혼 |
| 9 | 여성 | 40세 | 완주(고산면) | 남원 | 프리랜서 | 대학원 | 미혼 |
| 10 | 여성 | 51세 | 순창(순창읍) | 서울 | 사회복지사 | 대학원 | 미혼 |
| 11 | 남성 | 61세 | 남원(운봉읍) | 대구 | 농사 | 대졸 | 이혼 |
| 12 | 남성 | 39세 | 완주(삼례읍) | 서울 | 바리스타 | 대졸 | 미혼 |
| 13 | 여성 | 75세 | 순창(팔등면) | 순창(팔등면) | 농사 | - | 사별 |
| 14 | 여성 | 45세 | 군산(옥구군) | - | 일용직 | 고졸 | 이혼 |
| 15 | 남성 | 43세 | 남원(산내면) | 안양시 | 자영업 | 대졸 | 이혼 |
| 16 | 여성 | 49세 | 남원(산내면) | 서울 | 프리랜서 | 대졸 | 미혼 |
| 17 | 남성 | 87세 | 고창(구장면) | 고창 | 농사 | 초졸 | 사별 |

❍ 17명의 심층면접자들은 설문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에게 설문에 응답한 가구원 가운데 심층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도록 한 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과 나이,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귀촌 1인가구는 눈덩이 표집하였다.

❍ 17명의 심층면접자들을 현재 전라북도 농촌에서 1인가구로 살게 된 이유를 중심으로 보면 서너 개의 특징적 집단으로 분류된다.

- 첫째 어린시절 혹은 20대초반(혹은 대학진학)에 상경했다 중간에 귀향한 사람들(사례 2, 사례 3, 사례 10)이다. 사례 2(40대 초반)는 7살에 전북을 떠났다가, 전북 고향 근처에 사업 전망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귀향을 했다. 사례 3(50대)은 20대에 고향을 떠났다 하는 일들이 잘되지 않자 30대 중반에 귀향한 후 농사와 어업을 병행하며 살아왔다. 사례 10(50대)은 20대 중반에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갔다가 40대 초반에 홀로 된 어머니 곁에 머무르며 공부도 더할 겸 하여 귀향하였다.
- 둘째 집단은 귀촌한 사람들이다. 귀촌한 사람들은 대부분 30~40대로 이들은 대부분 생태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전북 농촌으로 귀촌한 사람들이다. 사례 9, 사례 12, 사례 15, 사례 16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례 15는 이혼했으나 귀촌 이후 결혼과 이혼이 발생하여 둘째 집단에 속한다. 사례 1은 생태적인 삶보다는 원하는 직업(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을 쫓아 전북 농촌에 내려왔고 사례 11은 사업여건이 괜찮고 자연환경이 마음에 들어 전북 농촌으로 귀촌하였다. 사례 9는 현재는 2인가구이지만 오랜 1인가구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심층면접대상자에 포함하였다.
- 세 번째 집단은 이혼이 계기가 되어 1인가구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다. 사례 4, 사례 7, 사례 8, 사례 14가 이 집단에 속한다.
- 넷째는 사별로 인한 1인가구이다. 주로 고령층으로서 사례 6, 사례 13, 사례 17이 여기에 해당된다.
- 사례 5는 남편이 직장문제로 서울로 이동하고 자녀들은 진학과 군대 등으로 집을 떠나 1인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3명, 40대가 5명, 50대가 4명, 60대가 3명, 70대 1명, 80대 1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7명, 여성 10명이 심층면접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 2018년 정부의 귀농어·귀촌인통계(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보도자료, 2019.6.27. 보도)를 보면 전라북도의 귀농가구가 1325가구로서 전국 4위에 해당하고, 귀농가구 중 68.9%는 1인가구이다. 귀농인구에 비해 귀촌가구는 더 많아 14600가구로서, 14개 주요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은 편이다. 귀촌가구 중 1인가구는 71.9%에 해당되고 30대와 40대가 중심이다. 전라북도는 귀농일번지인 고창과 귀촌일번지인 산내가 자리하고 있어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유입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농촌 1인가구에 대한 조사에서 귀농·귀촌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본 조사에서 눈덩이 표집을 한 관계로 모두 귀촌인만 포함되었다.

## 라. 농촌 1인가구의 삶에 대한 분석

### 1) 1인가구 형성 사유

#### ① 낭만적 결혼의 지연, 그리고 놓쳐버린 결혼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요새는 뭐 비혼이란 말을 쓰는 거 같기는 한데 그 용어를 알기 전부터 결혼은 옵션이다.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자기는 결혼 안해 이러지만, 저는 그런 것도 아니고해서 그런 입장이예요....반드시 1인가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예요(사례 12, 남 39세).
*(연구자) 그러면 결혼을 한다면 이렇다면 결혼하겠다? 어떠하면?*
*이 사람하고는 평생 살아볼만 하겠다 싶으면..*(사례 12, 남 39세).

어찌하다보니 늦어지는...비혼은 아닌데... 요즘 들어서는 비혼도 생각해볼까? 그런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마음에 안정을 위하여...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나이까지 혼자 있을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해본적이 없어요. 지금 살면서도 계속 결혼이라는 거는 당연한거고 결혼하면 애낳는 것도 당연한거고 그런 생각이 있는 아이라서, 그런데 그만큼 노력을 안하는거죠.....
저는 되도록이면 둘이고 싶어요. 가족을 꾸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연구자) 그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만나다 어떤 사소한 문제로 인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했는데...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나보다 괜찮은 사람?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 내가 좀 까탈스러워서...(사례 1, 여 38세).

❍ 이들은 살면서 특별히 비혼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사례 12),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상적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비혼으로 남아 있다(사례 1). 사례 12는 명시적으로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인지하고 표명한다. 이에 비해 사례 1과은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맞는, 나의 배우자상에 맞는 사람과 해야 하므로 결혼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이들에게 결혼이란 되도록 해야 하

고, 하고 싶지만 전통적·제도적 결혼이 아닌 낭만적 결혼이다. 낭만적 결혼이 아니라면 결혼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낭만적 상대를 만나지 못해 결혼이 지연되면서 1인가구로 살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꼭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노후까지 만나지 못한다면 사례12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대안 가족을 형성하고 싶다고 했다. 사례1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 비혼주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중이다. 이들에게 1인가구는 자의식적 선택이다.

❍ 사례 3과 사례 10은 앞의 두 사람과 유사하지만 결혼이 지연되었다는 표현보다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사례 10(51세 여성)은 결혼을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마음에 맞는 상대를 찾다 시기를 놓쳤다. 사례 3(56세 남성) 또한 어머니와 형님과 함께 살면서 마을 이장 일로 바쁘게 살다 결혼 시기를 놓쳐 버렸다.

결혼은 별로 집에서 재촉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결혼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거의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해야돼? 막 들여다 보는거예요. …친구들이 다 간거예요. 대학친구들이, 29세를 넘기면 안되겠다. 그게 오니까 결혼을 해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해야만 한다는) 어떤 인식? 딱 그 생각이 드는거예요. 어느 순간에 해야되나? 그게 딱 오는거예요.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러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거 같다 안해야겠다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그 뒤에도 갈 기회가 몇 번 있었고 주변에서 자꾸 소개를,,,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나이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결혼에 대한 마음은 없어진 것 같아요. 과연 이 나이에 결혼해서 뭘 위해 결혼을 할까…(사례 10, 여성, 51세)

전에 내가 이장을 할 때도 그걸(이주여성과의 결혼 신청) 여러 번 신청하라고 했었어요. 그 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동네 문제하고 시끄럽게 얽혀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질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 현재에서 조금 더 일단은 순위별로 이게 1순위, 내가 머 장가를 가야겠다 순위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동네 일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1순위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타이밍을 놓친거

죠…… 선 같은 것도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부탁하기도 하고 다가서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조금 내가 눈높이를 내려 놓고…(사례 3, 56세 남성).

❍ 사례 3과 사례 10은  역할 중심의 결혼보다 마음에 맞는 상대와의 만남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사례 12나 사례 1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은 연령대가 차이나고 그런 만큼 삶의 방식이 사례 12나 사례 1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사례 12와 사례 1이 자아중심성이 뚜렷하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내보이는 반면 이들은 가족지향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사례 3은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다 두 사람이 떠난 후 그리움과 외로움에 힘들어 하고, 사례 10은 20대 후반 서울로 떠났다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귀향 후 엄마와의 이별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에게 1인가구는 선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의 별리로 강제된 것이다.

### ② 경제적 안정이 우선, 결혼은 그 후

*(연구자) 현재 혼자 사는 게 편하세요?*
(연구참여자) 양면성이 있는데요 아직은 편한 거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준비요?*
(연구참여자) 결혼할 수 있는 능력, 결혼도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시기를 놓쳐서 그럴 수도 있고, 마흔하나면 놓칠 수도 있고....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두 번 놓쳤고, 도 머했던 사업도 안되고 좀 다시 일어나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집에는 손벌리기 싫고 제가 자립해서 일으키고 싶고, 그런 어떤 과도기의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 결혼이라는 것이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어던 제가 결혼을 하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책임감이 생기려면 그거에 맞는 어떤 경제력이나 비전... 비전만 갖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어는 정도 경제력이 보탬이 되야 비전 플러스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랄까 오히려 결혼을 지금하지 않고 미루고 있고 현재로써는 여자친구가 없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이에요. 먼가에 더 집중할 수 있고(사례 2, 41 남자)

❍ 사례 2는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다. 그러나 과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깨진 경험이 있어 우선은 경제적 자립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아직은 사람을 소개받는다거나 하는 시도 자체를 스스로 금하면서 하루서너 시간의 수면을 감내하며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③ 이혼으로 인한 홀로서기**

❍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 형성자들이 많았다.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에 걸쳐 있고, 30대 여성 1명, 40대는 남녀 각 1명, 50대는 여성 1명, 60대는 남성 2명이었다.

❍ 이혼으로 인해 1인가구로 지내게 된 30대와 40대 여성은 친정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 이혼 후 1년 2개월째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은 부모님이 사놓고 전세를 놓았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으며 현재 혼자 지내고 있지만 조금만 경제적 능력이 되면 아이들을 데려올 계획이다. 40대 여성은 이혼 후 부모님 집에 들어갔다 나와 혼자 살게 된 지  3~4년 되었다. 그 동안에도 일과 양육으로 인해 합가와 분가를 반복해 온 40대 여성은 현재 부모님 집 근처에 살고 있으며 자녀를 부모님이 맡아 주고 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았죠. 그 때(이혼했을 때) 아이들 둘을 제가 키우다보니... 같이 살고 있다가 한 아이는 커서 이제 조금 그냥, 애들이 독립을 했고,
*(연구자) 아이가 독립이요?*
작은 아이는 아직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세요.
*(연구자) 그럼 언제부터 따로 혼자 나와 계신거예요? 혼자 나오시게 된 계기는?*
(사례 14, 여성 45세)

❍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다는 사례7은 50대 중반의 나이로서 이혼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했고 가끔 아이들을 만나오다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 서울에서 독립해 지내고 있는 상태이다. 생계를 위해 동어중인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끔씩 요양보호사 일도 겸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이혼으로 인해 혼자 살고 있는 남성들은 60대 2명(사례 8과 사례 11)이었다. 사례 8은 2002년 이혼 이후 혼자서 살고 있는데 아들의 양육책임을 담당했으나 데리고 키우지는 못하고 국악을 하는 인간문화재 분에게 아들을 사사하면서 혼자 살아왔다. 계속 혼자로 지낸 주된 원인은 아들과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사례 11은 외국에서 살다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서 혼자 국내로 들어와 지내며 실질적인 이혼상태가 지속되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다.

**④ 사별로 인한 독거**

❍ 65세 이상 고령인구에서 1인가구 사유는 사별이었다. 65세 여성인 사례 6은 2012년 남편이 병으로 사망한 후 8년째 혼자 살고 있다. 남편과 같이 하던 나무 농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주에 사는 큰 아들이 나무 농사도 도울 겸 사례 6을 자주 방문하고 서울 사는 아들 역시 자주 내려오는 편이다. 차 타고 5~7분 거리에 친정 어머니가 홀로 살고 계셔 거의 매일 친정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전주에 사는 큰 동생이 어머니 사는 쪽에서 소를 키우며 자주 어머니께 왕래하고 있다.

❍ 70대 여성인 사례 13은 남편과 사별 후 14년째 홀로 지내고 있다. 2남2녀의 자녀들은 모두 전북 바깥에 살고 있어 두달 석달에 한 번씩 정도 내려오고 자녀들과 전화는 매일매일 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홀로 되신 7명의 노인들은 모두 여성분들이고 이들은 낮 시간에는 마을회관에 모여 같이 밥 해먹고 놀다가 저녁 때는 각자의 집에 돌아가 각자 밥을 해 먹고 홀로 지내고 있다.

## 2) 가족과의 관계

❍ 1인가구로 살고 있는 30대와 40대에서는 자신의 삶의 지향을 존중하며 이것을 위해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한 이들이 나타난다. 이 유형은 주로 자신의 생태주의 가치나 마모되는 직업생활이 싫어 귀촌을 선택한 30대와 40대들에게서 나타났다.

### ① 자아중심의 자유주의적 개인, 개인의 독립과 개성이 중요

*(연구자) 인제 여기 혼자 내려와서 산다고 할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회사 그만둔다고 할 때 인제 대학도 반대가 심했었거든요 뭐할거냐 대책좀... 이렇게 저희 집안에서 대책없는 행동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서 재 또 저래? 이런거죠.
*(연구자) 혹시 막내세요?*
예 막내입니다. 위에 누나 둘 있는데 되게 열심히 살아요.
*(연구자) 소위 우리나라 기준으로?*
바른생활 모범적인 그래서 아무튼 회사 그만둘 때는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다 제가 그 다음에 홍대 쪽에서 주점 동업을 했거든요. 동업한다고 할 때에는 회사 그만두고 동업하는게 더 큰 일인 것 같은데 그 때는 저항이 반으로 줄었어요. 가족들 저항이 반으로 줄고 그리고 동업이 망하고 나서 여행간다고 할 때는 그 땐 반대가 없었어요.
*(연구자) 포기하셨구나, 하하하*
예 점점 그렇게 되더라구요. 오히려 재밌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제 서울생활 청산하고 여기로 내려온다고 할 때에는 재밌다는 반응이었어요.

⋮

*(연구자) 부모님 하고는 연락 자주 하세요?*
네! 부모님도 내려오셨어요. 저 오고 2년뒤에
*(연구자) 여기 사세요? 그러면? 어디예요?*
고산면에 사세요.....
*(연구자) 부모님 내려온다고 하셨을 때 합가에 대한 생각은 혹시 있으셨는지...*
저는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려면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구자) 아 그러면 합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들어와 살기를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제가 버텼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산으로 가도 한 집에 살지는 않을거고요 옆 동네나 옆옆 동네는 괜찮을 거 같아요(사례 12 남성 30대).

❍ 앞에서 인용한 사례 12는 귀촌한 30대 미혼 남성이다. 누나 둘에 막내인 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선택했고, 별 대책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가족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에 반대하던 가족들도 점차 사례 12의 결정을 수용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부모님 역시 귀촌했고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자주 왕래도 하지만 합가는 원하지 않고 있다.

먼가 부모님께 상의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하면 그냥 그걸 했어야했고 그래서 일단.....(결정하고 통보) 20대까지는 계속 부딪쳤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되냐? 너는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아 돼? 이런 엄마의 바람이 그랬었는데....다른 것보다는 그 시골에서 산다는 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믿으셨던 것 같아요. 재는 어떻게든 잘 살 애야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것정은 안하시고 이제 여자 혼자 시골에서 산다는 걱정이 크셨어요. 아빠는 머 그냥 거의 저를 포기하신 상태고....

❍ 무언가 가치 있는 좋은 삶을 살고 싶어 귀촌한 사례 9(30대 여성)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부모님께 통보하는 삶을 살았다. 20대까지 부모님과 이 문제로 계속 부딪쳤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살아왔다. 20대 중반에 섬에서 살아보고 싶어 반대하는 부모와 타협 끝에 제주도에 가서 2년을 살아 본 경험이 있다. 30대 되면서 삶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귀촌을 실행했다. 30대 들어와 지리산이 좋아 귀농학교를 다니고 남원쪽에 귀촌하여 혼자 살아 왔다. 최근에 완주로 이사했고 완주에서 자신과 같이 귀촌 한 또래의 여성을 만나 심층면접 몇 달 전부터는 2인가구로 살고

있다(사례 9, 40세). 사례 9 외에 7남매의 다섯째로서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의 통제를 덜 받으며 성장했고 자신의 선택에 의한 삶을 살았고 고백하는 사례 1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 사례 1은 20대에 몽골로 코이카 봉사를 다녀왔고 틀에 박힌 직장생활을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무언가 사회연대를 지향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전북으로 귀촌하였다. 누나 셋에 막내인 사례 15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지는 않고 자연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귀촌을 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지만 귀촌을 결행했고 부모님과 통화는 자주 하지만 만남은 1년에 4번 정도 가진다.

❍ 사례 1, 사례 12, 사례 9, 사례 15와 같이 개인 삶의 독립과 주류와 다른 독자적인 삶의 가치추구에서 주체적인 30대, 40대 귀촌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중산층 가정의 막내 혹은 형제 많은 중산층 가정의 중간 자녀라는 점이다.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부모가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가졌거나 통제가 느슨한 가족환경이 이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② 강제된 개인화, 그리고 가족지향성

❍ 여기에서 강제된 개인화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의 진행, 외환위기 등으로 가족이 더 이상 개인의 보호막이 될 수 없고 개인에 부가된 위험이 가족해체의 동력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고자 개인이 가족에게서 분리되는 상황이 나타남을 지칭한다. 즉 개인의 개성이나 독립성, 자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속에 개인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혹은 분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혹은 가족이 더 이상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유형이다. 이 유형의 첫째 형태는 심영희(2013)가 지적하는 가족중심적 생존지향형 개인화

를 들 수 있다. 가족중심적 사고방식과 어느 정도 전통적 가족의식도 남아 있으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해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독거하며 개인의 독립을 수용하는 사례이다.

❍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혼과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이다. 사례 14(40대 여성)의 경우 이혼 후 부모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여러 번 반복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부모님 집 근처에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혼자 지내다 부모 집 근처 일자리가 생기면 다시 합가하는 패턴을 여러 번 반복했다. 몸이 홀로 일하며 양육을 담당하는 이들에 여전히 아이 돌봄의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사례 14의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데도 아이를 맡겨야해서 죄송해하는 부분에서는 미취학아동 뿐만 아니라 취학아동이나 청소년의 조손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혼 후 농사와 요양사 일을 겸하며 10년 넘게 혼자 살며 가끔씩 아이들(남편이 양육)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낙인 사례 7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

*(연구자) 가족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애들이죠~부모가 되면 애들밖에 없잖아요.
⋮
*(연구자) 이제 자식은 있으면 최대한 잘해주고 싶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장가보내서 집도 해줘야 되고 ..자식이 뭘까요?*
근데 제가 살면서 가끔 힘들 때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절에 들어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랬겠죠…아~내가 내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구나 알겠더라구요. …아 내가 이들을 낳았으면 내 인생은 없구나 생각하자 이 생각을 많이 하죠…(사례 7, 여성56세)

❍ 2002년, 이혼 이후 계속 혼자 지낸다는 사례 8(남성 60대) 역시 사례 7과 유사하다. 사업이 잘못되면서 이혼을 하고 양육책임을 맡았지만 경제적 이유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워 인간문화재에 아들을 사사시키며

홀로 지내왔다. 이제 성장해 대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은 여전히 사례 4가 세상의 어려움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가 되지만 친밀한 부자관계는 되지 못한다.

*(연구자) 그러면 아드님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아유 그렇게 살기도 힘들고 살 수도 없고, 애기가 인제 그 쪽 국악쪽으로 ..어차피 그것도 예술이라고 하니까 사실 여기서 초등학교3학년 때부터 문화재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키우고 가르치고 컸는데 대학교 갈 때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보기는 수시로.. 행사하고 공연하고 하니까 보기는 자주 보는데 몰라요. 군대 있으며서 집에 와도 한 이틀 자면 다 자고 자는 얼굴 밖에 못 봅니다. 그럴 정도로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그래도 유일한 저기는 아들이죠. 아들을 제쳐놓고는 아무것도 얘기 안되죠(사례8, 63세 남성).

❍ 앞의 사례들과 유사하게 환경적 변화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 어려워 혼자 사는 삶을 수용하는 것은 사별 노인에게서도 나타난다. 사례 13은 사별 후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다. 현재는 거동에 불편함이 없지만 거동에 불편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질문에 쉽사리 답변을 못하다 이제부터라도 돈을 모아 요양원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는 답을 내놓는다. 자녀들이 손주들의 학교문제 직장문제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다.

애기 아빠가 아파 가지고 19년 만에 죽었어요. 지금 산 지가 14년 됐어요. 혼자 산 지가.... 애들한테 전화도 하고 긍게 애들이 저녁되면 전화도 많이 오잖아요.....(전화는) 매일매일 해
*(연구자) 그럼 직접 오는 건? 두세달에 한번씩?*
…직장 다니는디 사람이 이 먼디서 못와요 잘
*(연구자) 그쵸 부산에 있고 수원에 있고 그러면*

지들이 그냥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죠.
*(연구자) 근데 할머니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하실거 같으세요?*
저요? 어쩔까 큰일났네
*(연구자) 그 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 그럴 때는 몰라 인제 오늘 일도 모르는디 그걸 어찌 알아?
⋮
*(연구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어찌 할지를 몰라 그냥 나는 가야해 저리(요양병원) 가는 수밖에 없지 나혼자 여기서 (사례 13, 75세 여성)

### ③ 강제된, 생존지향의 자아중심적 개인화

❍ 사회경제적인 환경 여건으로 인해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와 살고 있고 스스로도 자신의 독립과 개인성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생존을 위해 가족과 분리되고, 자신의 삶은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뚜렷한 개인적 독립성과 개성에 대한 자의식이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자아중심의 자유주의적 개인의 유형과 다른 지점을 보이는데 가족에게서 자발적인 분리가 발생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 주류의 삶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기보다는 가족과의 분리가 강제되고 주류적 삶에의 안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사례를 가족중심적인 생존지향적 개인화 사례와 대비하여 독립된 생존지향적인 개인화라 지칭하기로 한다.

❍ 이제 40대에 갓 진입한 사례 2는 한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처음 사업할 때는 집에서 돈을 보태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실패 후 더 이상은 손을 내밀기 어려워 집에 기대지 않았다. 7살 때 서울로 이사 간 후 친척들이 조금 남아 있는 완주에 다시 내려온 것은 사업 실패 후 머리를 식힐 겸 친척 집에 왔다가 이곳이 사업전망이 있어 보여서였다.

그 땐(첫 사업할 때) (손) 벌렸죠. 그 땐 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했었죠. 그게 안되고 실패하고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 내려와서 자립하는데는 집에 손하나도 안벌렸어요. 물론 보증금도 적고 이것저것 옵션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도 솔직히 손댈 곳이 많거든요. 물론 손대면 지금보다 손님이 많을거예요. 왜? 어 예쁘고 편안하고 좌석도 마찬가지구요. 진짜로 손님들이 이 좌석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인테리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근데 집에 손을 벌려서 이것 먼저 할께요 갚을게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여기 인테리어 같은 것도 그렇고 제 힘으로 하고 싶은거예요.

❍ 사례 2는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면 어머니가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하기에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많은 부담을 지울까봐 걱정스럽다. 어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 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하고 누님과 자주 연락하고 지낸다. 남동생과는 일이 있을 때 가끔 연락하며 지낸다.

❍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리기 싫어 자주 연락도 못한다는 사례 2는 가족지향성이 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만큼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경제적 독립, 사업의 성공을 인생의 제1 목표로 분투, 노력 중이다.

### ④ 전통적, 제도적 가족관과 자유로운 삶 넘나들기

❍ 사례 5는 아이들은 자라서 외지로 나가고 주말 부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을 만나고 있다. 논과 밭이 있고 친척들도 여기(신태인) 있으며 남편 또한 퇴직 후 내려올 생각이라서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다.

*(연구자) 남편분이 내려와서 같이 산다고 하면 왜 내려오냐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했죠, 많이 처음만 조금 그렇지, 엄청 좋아요. 허전한 것 같은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편하고 좋더라구요. 일이 많잖아요. 빨래부터해서 음식부터 해서요.

⋮

머 특별한 걸 말한 건 아니고 편하니까 더 편하게 살라고 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반찬도해서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하죠,.... 근데 사실 남편도 그럴 거예요. 제가 잔소리도 안하고 알아서 딱~집에서 식사는 거의 안하잖아요 요새는.

⋮

원래는 (요가) 세 번인데 저는 두 번만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곗돈 모아 기지고 해외여행 다녀요.

⋮

근래에는 베트남 다녀 왔어요.

*(연구자) 부부동반 모임으로 다녀오신거예요?*

전혀요.~전혀 아니요, 가봤는데 전혀 재미없어요. 여자들끼리 친구들끼리 가야 재미있죠…남편과는 재미가 없더라구요. 다들 여행다니시는분들 보면 재미없다고 그래요. 여자들끼리 가야 재미있다고. 그리고 올해 제주도 3번.

⋮

(애들하고 떨어져 있는 건)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지금 다크니까 괜찮아요. 걱정되고 그랬는데 다들 대학가고 군대가고 하니까 직장잡고 하니까 본인들이 너무 전화 자주 해줘요.…달하고는 매일 한번씩하고요 안되면 메시지하고, 아들들하고는 그냥 가족카톡정도로만 돌려요. …(남편은) 전화는 자주 안하는데 자주 와요 하하...매일은 아니어도 자주오고 생일이나 머같은거 있으면,,별로 그런걸(기념일 챙기기) 싫어해요(사례 5, 58세. 여성)

○ 사례 5는 남편이 직장으로 서울로 옮겨간 뒤, 주말 부부로 있으며 농사도 짓고, 가끔씩 사회조사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례5는 1년이면 한 두 번의 해외여행 2~3번의 국내 여행을 다닌다. 남편과 처음 떨어져 지낼 때는 허전했지만 곧 익숙해지고 지금은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 또 사례 5는 정서적으로 딸과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아들은 결혼비용은 물론 집을 장만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말년에 자신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남편이 퇴직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면 같이 지낼 것이라는 사례 5는 친구들과 여행하고 일주일에 두 번 요가를 하며 자신만의 자유를

즐긴다.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더이상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또 실제로 딸과 정서적으로 더 친밀하면서도 아들에게만은 집 장만을 해줘야 하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전통적 가족관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다. 시대적 변화 속에 전통적 사고방식과 새로운 가치관이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3) 이웃 관계 및 사회적 관계

#### ① 친하지도 서먹하지도 않은 관계

네.. 음 .. 제 상황이 시골마을에 들어간 일반적인 경우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 마을 사업이 걸려있었거든요 마을 사업관련해서 분쟁이 났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특수한 상황인데 그니까 저는 초반에는 마을 사업쪽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분들과 교류가 없었고 그냥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지 않는 사람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1년반 카페를 운영하다가 마을사업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제가 이쪽에서 대판 싸우고 나왔어요(사례 12, 39세 남성)

*(연구자) 그러니까 마을 사업에서요?*

네 나오고 난다음에 당연히 000 법인쪽에 제가 왕래를 안하죠. 이쪽에도 왕래를 안하고 다른 마을분들 하고 적극적으로 왕래를 안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인사하고 마을회관 가서 인사하고 가끔 이렇게 쌀 갖다 드리고. 그런정도? 그것도 그러니까 인제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혼자 지내는? 그래서 딱히 누구랑 친하지도 않고 서먹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사례 12, 39세 남성)

선주민들끼리 사이가 좋다고 물론 제가 사이가 나쁠 이유는 없죠. 그런데 관계를 안맺으니까 … 달집 짓기도 하고 제가 하고싶은 것 만 하는거죠 해야 하길 원하는 건 안하고 마을 회의 꼬박꼬박 나가고 내라는거 꼬박꼬박 내고 납세의 의무를.

*(연구자) 안하고 계시는거죠?*

네 안하죠 국가보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

*(연구자)그럼 다른분들 같은 경우는 선주민들 하고도 꽤 어울리는?*

다른 귀농인들은 마을 회의는 꼬박꼬박 가세요, 안가는 분도 있지만 가는 분들도 있고, 많은 귀농인들이...회의는가요 저도 청소는 가요(사례 15, 43세 남성)

❍ 사례 12와 15는 귀촌인들이다. 이들은 선주민들과 나쁘지도 서먹하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나친 간섭이 두려워 밀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지만 적응에 필요한 정도의 관계맺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30~40대 1인가구로 사는 귀촌 남성의 특성이기도 하다.

### ② 의식적인 노력으로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기

❍ 사례 12나 사례 15와는 달리 귀촌 여성인 사례 16은 선주민인 이웃 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70대 전후의 노부부인 이웃은 먼저 먹을 것을 나눠 주고 챙겨주셔서 사례 16 역시 자연적으로 우러나와 옆집 분이 수술하는 날짜에 가서 도와드리고 김장날짜 맞춰 도와 드리고 서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돕는 관계, 좀 의지가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귀촌인과 선주민의 관계는 서로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서로 노력해갈 때 공동체성을 인정받고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촌하여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 1의 이야기는 선주민과 귀촌인 간의 이런 관계를 잘 드러낸다.

… 근데 마을이라는데에서도 그 소속이라는것을 소속이라는 것을 그러니깐 마을에서도 그 소속감은 함부로 주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 들어왔으니깐 당연히 우리 마을 사람이야,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연구자) 그럼 멀로 확인해봐요? 마을 소속감 같은것은?*

그 기금을 받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계속 투자를 해야해요. 들어간 사람들은 마을 일 도와주면서 그런 투자를…마을 일을 도와주면서…

*(연구자) 어떤 투자에요? 마을 일을 도와줘요?*

네 마을 일을 한다든지 뭐 참여한다든지 그러니깐 원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마을기금 내기 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것을 안하면 전혀 뭐 어울릴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 저 처음에 들어왔을때 사업단 계신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조시대때 들어온 사람도 들어온 사람이라고…이조시대 때 들어온 사람들도 계속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그냥 이 지역내에서는 시집와서 들어오거나 뭐 기존에 제일 적응 잘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는거 그거는 뭐 친구들이잖아요. 그 동네사람들이 친구들이다보니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냥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옆집에서 뭔가 힘든 그런걸 할때 도와줘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옆사람부터 포섭해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시골 사람들도 대놓고

이야기하는게 와가지고 덜컥 집만 짓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집만 짓고 마는거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려면 그 지인들이랑 같이 어울리거나 이래야 하는데…그런게 없으니깐 실패한다고 하겠죠(사례 1, 38세 여성)

❍ 사례 12나 사례 15와 달리 같은 귀촌인이지만 상호교류 속에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의지하는 관계성을 만들어낸 사례 16의 이웃과의 관계는 타인과 정서적 관계맺기에 능숙한 여성이라는 성별특성에 기인한 차이로도 보인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주민과 정서적 관계맺기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속감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사례 1은 정작 자신의 이웃과는 인사 정도만 하고 별 교류 없이 지내고 있다. 이유는 사례 1이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으로 집은 퇴근 후 쉬는 곳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하고 교류의 계기가 없기 때문이다. 표명되지 않았으나 추론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아직 이곳에 정착할지 다시 서울로 갈지 결정하지 못한 사례 1에게 이곳은 정착지, 내가 계속 살 곳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인 관계맺기에 나서고 있지 않은 탓도 있어 보인다. 사례 1과 대조적으로 사례 2는 남성이지만 정착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이웃주민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간 경우이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니까 여기도 조그만 동네잖아요~그래서 친해질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라구요~이쪽에서 나신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이방인이죠~ 물론 제가 태어난곳은 이곳 완주군이지만~ 물론 이쪽 동네도 아니에요 다른 데에요~ 근데 그런 친구가 또 자랑이 아니라 스펙도 쌈박한 애가 와 가지고 젊은애가 와가지고 여기서 조그맣지만 장사를 하니~ 다른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또 동종 업종이 옆에 있고 그 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여기서 나오고 다 여기 분들 여기가 고향이신 분이 00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동네분들은 선후배 다 그쪽으로 가시는거에요… 그런것 때문에 처음에 친해지기 엄청 힘들었어요. 이방인 느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음식 맛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가연합모임 이쪽 동네 상가번영회, 그 모임에도 나가고 그러면 동네어르신들도 만나고 점점점 친해지고 그러다보니 동네분들도 조금씩 오시고~오실 때 잘해드리니까 계속 오시고… 또 언젠가는 작년에 작년이었나 올봄이었나. 여기가 지방인재개발원이잖아요? 여기가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교육생들을 이쪽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 교육을 해버린다고 행안부에 신청을 한거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자체교육을하고 여기로 안보내겠다고 하니 저희가 다 일어선거죠… 여기 상가분들 같이 가서 세종시에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더라구요 어떤 그런 계기가되서요. 어떤 축제가 있을때 같이 참석하고 향어축제 했을때 참석해서 인사하고~…처음에는 서먹했죠, 나중에 3개월 이상 5개월이상 나가다보니까 제가 막 깍듯이 하고 술도 나르고 일도 다 알아서하고. … 끝나면 청소도 제가 도와주고 하다보니까 이제 저를 막둥이 처럼 생각하셔서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사례 2, 41세 남성).

### ③ 이웃과 교류 없는 고립형 1인 가구

*(연구자) 지금 혼자 살고 계신 그 집은 인제 이웃분들하고 왕래는 별로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불편하니까요

*(연구자) 어~ 어떤 점에서 불편하세요?*

낯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혼자 있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고, 알기는 하겠죠. 주위사람들 눈 인사정도 하고 거의 아는 척 안하고…알리고 싶지 않아서…

*(연구자) 그러면 그냥 그 말을 분들 하고 그냥 어울려야겠다거나 이런 거는 처음부터 생각을 아예 안하신거죠?*

네

*(연구자)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경제적으로 형편도 괜찮고 뭐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어디가서 누구랑 어떻게 살고 싶으신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하하….아무도 모르는 그냥 새로운 지역? … 주위에 안알리고 싶어요. 위험할 수도 있고 괜히 원래 사고는 가까운데서 나잖아요. 그래서 저 주변 사람들하고는 거의 아는척 안하고(사례 14, 45세 여성)

❍ 이혼 후 부모님과 같이 살다 사정이 생겨 혼자 나와 살고 있는 사례 14는 의식적으로 이웃과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웃들이 자신

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으로 혼자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사례 14와 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는 유형으로 사례 11(사례 11, 61세 남성)을 들 수 있다. 사례 11은 60대초반의 남성으로 오랫동안 외국생활을 하다가 귀국 후 남원지역에 들어 왔다. 귀국하면서 아내와는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들어 갔다고 한다. 자녀들은 아내와 함께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 남원지역을 택한 이유는 자연이 좋고 지역이 도시로의 근접성도 좋았기 때문이다. 귀촌 초기에는 제법 큰 규모의 사업을 했는데 현재는 부도로 사업을 접고 홀로 지내고 있다. 녹음을 거부한 사례 11은 마을주민들과는 별 교류가 없이 드룹농사와 논농사를 하며 홀로 지내고 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인해 아랫집과는 갈등관계에 있으나 인근에 거주하는 집이 거의 없어서 큰 갈등은 없는 상황이다. 가끔 서울에 계신 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주시고 서울의 지인들이 가끔 찾아오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배타적이고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외지사람들에게 트집을 잡는 것이 있어서 주변 이웃들과는 별 교류없이 지내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자원이자 삶의 끈이 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자) 그럼 계모임은 몇 분이세요?*
8~10명이요
*(연구자)하나 하시는거에요?*
두 개정도… 제 또래도 있고요 한모임은 하나는 제 윗사람과 어린사람
…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요
⋮
*(연구자) 그러면 먼가 필요하거나 이럴때는 이 계모임이 가장 큰 든든한 조력자 이런게 되시는 건가요?*
네 그러기도 하죠
*(연구자) 혼자계실때 밤에 갑자기 아프시고 그러면 누구 부르실것 같으세요?*

아프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웃이겠죠
*(연구자) 이웃분하고는 안면을 트고 사시는건가요?*
네~언니들하고는 트고 살아요.
근데 워낙 인맥이 좋으셔서 이동네에~이장님도 다하시고 머~
조사를 여기서 오래하다 보니까 저~ 끝마을에서 이곳까지는 다 알아요. 요즘에 말대로 손가락이 몇 개인지 다안다고 해야하나.
*(연구자) 그래서 어떤 그런 누굴만나는 어려움 같은건 없으실것 같아요?*
있죠~ 무슨 행사같은게 있으면 안갈수도 없죠. 그런게 많이있죠~
*(연구자) 참여를 안할 수가 없으시구나*
참여를 안할 수가 없죠~그레서 그게 많은 부담이 되요. 다음날 얼굴보기 그렇잖아요(사례 5, 58세 여성).

❍ 결혼 해 000에서 쭉 살며 주말부부로 지내는 사례 5는 두터운 사회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남편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이제 막내인 딸아이가 대학에 진학하여 자유롭게 여러 모임을 하며 여행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로 사회조사도 하고 이장일을 맡아보고 있다. 사회조사와 이장일을 담당하는데 이 네트워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례 5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은 주로 이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 000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이혼 후에도 쭉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인 사례 8, 20대에 서울로 올라갔다가 30대에 다시 귀향한 후 계속 고향에서 살고 있는 사례 3, 이들 모두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특히 000의 경우 계나 동창 모임, 봉사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이 작동하고 있어 이 연결망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 연결망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삶의 큰 자원 구실을 하지만 연결망의 유지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연구자) 그러면 또 외롭다고 느끼실 때는 주로 뭐를 하세요?*
술을 마신다던지 동창들을 만난다던지, 술도 가끔 먹고 교우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노인이 좀 많이.... 모임들도 있고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마을주민자치 근데 뭐 그냥 심심하지는 않는데. … 그냥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연구자) 회사모임 뭐 이런 거 다있으신거죠?*
봉사단체 모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 *(연구자) 그럼 한 대 여섯개는 되시는 거네요?*
좀 일반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도 사모임까지 하면 많이 있죠.…많이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때도 정말 힘들 때도 그냥 뭐 인간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그냥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어려울 때도 봉직을 했는데 정말 어려울 때는 주위에서 대신 내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빚도 지고…한참 혼자 외로워서 힘들 때는 뭐 벨벨 다들고 불러도 아무 때나 살고 지금도 외롭고 죽는 생각 그런 생각해봤고, 그런시절 겪었고 그런 어려운 고통 한창 힘들 때는 주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랬어요(사례 8, 63세 남성).

저는 봉사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로타리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니까. 시간이 날 틈이 없어요.
*(연구자) 좀 쉬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왜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것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안하면 다른 잡념 같은 것들로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눈을 뜨면 일을 해야한다는 거 … 많이 관심을 가져줘요. 제가 좀 인맥이 좀 있다 보니까 주위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혹시라도 먹을거리… 혹시라도 안보이면 어디 병났나?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으로써는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사례 3, 50대 남성)

❍ 사례 8의 경우는 이혼과 사업 실패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자살을 생각하기도 할만큼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회비를 내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회비를 내주어 그런 여러 모임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한 그런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이 사례 6을 살게 하는 힘,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의 끈으로 사례 6을 버티게 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3은 김제에서 태어나 20대에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갔다가 30대 중반에

귀향하였다.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선 사례 3은 어머니 형님과 같이 지내며 마을 일을 돌보다 결혼시기를 놓쳤다. 이제 어머니와 형님이 먼 길을 떠나고 홀로 외로움과 슬픔 속에 사는 사례 3의 경우도 여러 개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고 이 네트워크와 주변의 관심이 있어 그나마 외로움을 견디고 살아 갈 힘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전북의 농촌지역이 고향이고 고향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 네트워크들이 작동함으로써 내부의 사람이 살아가는 자원이자 활력소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1인가구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생활의 자원 이상의 삶의 연결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할아버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없지 인자 할아버지 있는 사람들은 아프고 어찌고 집에서...
*(연구자) 할머니들만 인제 여기와서 밥 같이 해먹고?*
네~같이 먹어요 시에서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연구자) 여기서 보통은 한끼만 드세요? 저녁은 각자 집에서 드시고?*
예 혼자 자야죠 니네 집에서 자야지 텔레비전에서 보면 회관에서 자드만 안자요. 우리들은… 애들한테 전화도 하고 긍게 애들이 저녁되면 전화 많이 오잖아요. 핸드폰하는 때 집에서 인자 가만히 애들한테 할 얘기 있고 안할 얘기 있고 그러잖아요.
*(연구자) 여기 할머님들이 계시니까 많이 심심하지는...*
안 심심혀 내가 제일 어려 …인제 말로하지 몬햐, 이제 날 궂으면 보일러 틀어놓고 저녁 밥 해먹고 가고 그러고 살아요(사례 13, 75세 여성).

근데 우리 마을 이장님이 제가 아침 10시까지 회관에 안 나가면 전화가 와요. 어디가 계시냐고. 나 이만저만해서 아들네 집 왔네 그래요? 10시가 되도 안나오시길래 전화해 봤다고.…(사례 17, 87세 남성)

이게 시골에서 마을 단위로 해결되는게 많은 것 같더라구요. 여기 할머니들도 자식들이 도시 나가 있잖아요, 전주에 많이 있을텐데, 그냥 자연히 위급상황이 생기면 과연 자식들한테 연락을 할까? 멀리 있는데 그보다는 옆집 사람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응급상황이 생겼어요 밤에. 근데 저한테 연락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주신 분이 결국 이웃집 할머니였어요.

*(연구자) 119는 왜 안부르시고?*

119가 더 늦으니까요 119는 왔다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 보니까 뭐가 좀 필요했던거에요, 집에.... 그 물건이 집에 있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되고 저는 연락이 되도 한 20분 걸리고 근데 그래서 이웃할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분이 저희집에 들어와서 그 물건을 찾아가지고 드렸죠… 아 그게 아버지가 거부반응이 약 리스트(사례 12, 39세 남성)

❍ 사례 13의 마을은 순창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다. 이곳에는 혼자된 할머니들 일곱 분이 낮에는 마을회관에 모여 밥도 해먹고 TV도 보며 시간을 보낸다. 사례 13은 추운 겨울에 회관에서 보일러도 맘껏 틀고 할머니들끼리 모여 즐겁다고 말한다. 사례 17의 마을은 마을회관에 주로 할아버지들만 모인다. 혼자 된 할아버지는 사례 17과 어느 한 분이 있다. 할아버지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밥도 먹고 TV도 보며 노시는데 남자분들이라 마을회관에 밥도 지어주고 청소도 해주시는 도우미가 오셔서 3시간씩 일을 돌봐 주고 있다. 또 사례 17의 경우 늦게 일어나면 마을 이장이 독거하는 사례 17이 무사한지 확인전화를 하고 또 수시로 노인들을 차로 모셔 면에 가 목욕을 하실 수 있게 돕고 있다. 두 마을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홀로 되신 할며니들만 사용하였고 다른 마을에서는 할아버지들(독거하는 분 포함)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성별을 구분하는 농촌의 노인세대의 특성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시집 와서 줄곧 순창의 00 마을에 살고 있는 사례 13이나 태어나서 줄곧 고창의 00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례 17은 단단한 지역 네트워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그 네트워크 속에 유사공동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사례 13과 17의 생활은 농촌 지역사회에 작동하는 사회 네트워크가 효과적인 노인 케어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례 12는 귀촌한 30대 남성으로 사례 12의 귀촌 후 근처 마을로 부모님 또한 귀촌하였다. 사례 12는 부모님이 한밤중의 위급상황에서 마을 분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골에서 마을단위로 해결되는 일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마을 구성원에 대해 알고 왕래를 통해 만들어지는 농촌마을의 지역네트워크는 커뮤니티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자원기반이라 할 수 있다.

### 4)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

딸은 결혼해야되요…왜냐하면 주위에서 혼자사는 여자보면 나이 젊어서는 괜찮아요. 근데 나이먹어서 혼자사는거 보니까 너무 안좋더라구요.
*(연구자) 어떤게 안좋아요?*
아파도 혼자있어야 되고…전혀 그런것도 없고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구요. 그 하소연 하시는거 보니까… 남자는 그래도 복지관 근무하시면서 어울리기도 하시고 그래도 남자는 더 당당하시고.
*(연구자) 여자분 혼자계실 경우에는?*
함부로 못나서요. 항상 외롭게 지내시고 내가 머 혼자되서 그런가 주위 의식도 많이 하시고.
*(연구자) 그럼 사별하신 분들도 똑 같으신거에요?*
사별은 또 틀리고요. 이혼 사별은 요즘은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너무 당당해~
*(연구자) 근데 결혼을 못한거는 먼가 문제가 있다?*
네~ 주위에서 이런 시선을 본인이 느끼나봐요~안갈수도 있는데 그래서 도시로 가는가봐요. 도시는 모르잖아요. … 이혼도요 요즘 시골도 세집걸러 두집걸러 이웃에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여기 상상외로 많아요. 조사를 하다보면~ 당당해요~ 내가 이혼을 왜했고 이런 말들을 당당하게 해요. 한 10년전만해도 이혼을 하면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그래요. 이혼이 요새는 부끄러운게 아닌것 같아요 (사례 5, 58세 여성).

❍ 사례 5는 50대의 중년 여성으로 남편이 직장으로 인해 서울로 가고 작년에 딸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주말부부로 1인가구로 지내고 있다. 사례 5는 자신이 경험한 비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전달했다. 남성들은 상관없지만 여성들은 결혼못한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혼이나 사별은 당당할 수 있어도 오히려 결혼 못한 1인가구의 여성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할머니들이 농촌의 결혼 못 한 남자는 이해를 하지만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남편이 직장으로 서울로 가 있는 자신의 경우도 굉장히 말이 많아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의 결혼하지 않은 비혼여성에 대한 편견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귀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례 9와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지 못해 홀로 고향에서 비혼 1인가구로 살고 있는 사례 10의 경험 속에서도 드러난다.

그때 어~ 그때는 제주도에 그렇게 귀촌붐이 없을때이기도 했고, 20대 중반의 도시여자가 와서 사는게 드물었어요.
직장이 있어도 직장내에서는 사람들하고도 잘지내고 직원이 한 50명정도 됐나. 잘지내고 또래친구도 있고 잘 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시선은 되게 좀 이상하다. 친한 여자직원은 괜찮은데 남자직원분들 나이가 있고 한 분들은 거리감이 있기도 했고 직장 밖을 나가면 보호막이 없어진 상태여서 그렇기도 했고 막 괜히 막 이렇게 집적거리는 것도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귀찮게 스토킹을 당하기도 했고 자원봉사를 와서 저를 알게 되고 누나누나 친해져서 했다가 제가 퇴근하고 가면 저희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런 경우들도 몇 번 있었고 좀 번거롭더라구요 귀찮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일년정도 지나고 2년 정도 되니까 몸이 섬이 너무 습하니까 몸이 계속 늘어지고 아프기도 하고 공부가 더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핑계대고 나왔죠(사례 9, 40세 여성).

우리나라는 뭐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당 주고 어르신들은 노인우대 주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주고 다문화는  다문화지원 주고, 정말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복지는 정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선이 더 안좋잖아요? 혼자 사니까 더 안좋게 생각하고 더 도리어 그냥 편견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더 이상하게 그런 편견도 그렇고 모든 혼자 남은 여성들은 정말 다...(사례 10, 51세 여성)

❍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소도시나 농촌마을의 경우 나이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강고히 남아 있음을 알려준다. 이혼이 흔해져 그 사실을 당당히 말할 정도로 사회변화가 수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힘을 잃지 않은 가부장적 성고정관념이 비혼 여성들을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대상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정상의 범주로서 소외시키고 있다. 결국 1인가구에 대한 삐딱한 시선은 여성 1인가구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의 문제, 여성의 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5) 1인가구의 심리적 어려움과 건강관련 문제

○ 연구참여자들은 몇 가지 혼자 사는 어려움 혹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가장 많은 사람이 1인가구의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외로움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어려움 혹은 불편함은 농촌살이, 시골살이의 어려움, 귀촌의 어려움이 1인가구로 살면서 가중되어 더 큰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 ① 외로움

(이혼으로 다시 1인가구가 되어서) 좋은 점은 많은데 불편한 점은 뭐 하나밖에 안 돼요. 생활비가 저 혼자내야 하니까 금전적으로? 현재는 뭐 몸이 튼튼하니까 좋은 점이야 많죠. …아~힘든 시간이 끝나서 그런 거 같아요. 1년 동안 힘들었어요. 외롭고 슬프고...(사례 15, 43세 남성)

*(연구자) 어떤게 가장 불편하실까요?*
예를 들면 조금 너무 일만한다는 그런 쓸쓸함. 더군다가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고 완전 혼자있다보니까 좀 이렇게 좀 머랄까 형제분들 가족분들 누님 매형 서울에 있을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짝 친구들. 허물이 없잖아요 새벽 2시건 3시건 나 이런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 이러면 어떤 전화로 하는거 하고 만나서 소주한잔 먹는거랑 틀리거든요. 이게 머랄까 그런것들이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부분에서 좀 쓸쓸함 외로움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것에 대한 힘든 점. 감성적인 부분이죠~ 그런것 빼고는 먹는거 머 청소 빨래 그런것들은 어차피 지금 세대에서는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크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연구자) 아까 혼자지낼때 심리적으로 쓸쓸한게 문제다 그러셨는데 그럼 쓸쓸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음~ 술먹죠. … 그러면 한 12시반 한 시 딱 올라가면 티비를 틀겠죠. 씻고 머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대화할사람이 없잖아요. 하루는 너무 피곤했어 하루 15시간 있었고 그러면 쓸쓸함을 멀로달래냐 티비켜놓고 가볍게 청하한잔 먹고 자는거죠. 멀 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한데 영화도 안보여요. … 근데 일끝나고서 쓸쓸함을 술 한잔 먹으면 피곤이 쫙와여~그럼 자죠~그게 반복이에요 일주일에 한 5일정도

는 그렇게(사례 2, 41세 남성).
*(연구자) 지금 혼자계셔서 조금 외로우시겠어요?*
많이요~.
*(연구자) 외로우실때는 어떻게 달래세요?*
글쎄요, 이제 등산을 간다던가 일에 전념을 해요 주로~ 잊기 위해서 일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투잡을 하고 그런 이유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이상한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일에 몰두를 해야되요, 그러면 조금 나아요(사례 3, 56세 남성)

*(연구자)계속 혼자 계셨으면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글쎄요. 어떤 게 어렵다라, 아무래도 인제 혼자 오래 지내다보니 조금 외롭고 그런 쪽으로 좀
*(연구자) 그러면 또 외롭다고 느끼실 때는 주로 뭐를 하세요?*
술을 마신다던지 동창들을 만난다던지(사례 8, 63세 남성)

❍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혼자 사는 어려움의 첫 번째 요소로 외로움을 꼽았다. 일하고 나서 쉬고자할 때도 대화할 사람도 없어 혼자 술을 마시거나 외로움을 잊기 위해 일에 더 몰두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로울 때 친한 친구나 자매와 전화를 한다거나 해서 외로움을 푸는 여성들과는 달리 남성들은 외로움을 술이나 일을 통해 풀고 있다. 홀로 사는 중년 남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여성들보다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술로 외로움을 달랜다는 부분에서는 홀로 사는 남성들의 알코올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② 보건 환경의 취약과 위급 시 조력자 없음

*(연구자) 사고났을 때 그냥 치료는 00의료원에서 했어요?*
으음.. 아니요 나갔어요. 대전이라던지 전주로 나갔어요. 전주로 나가서 나는 아파죽겠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이상없어요. 그냥 염좌예요. 교통사고 당해 가지고 허리 아파 가지고 저는 갔는데 염좌,... 염증.... 순간적인 그런거라고 하면서 보듬더라구요. 아파죽겠는데…CT 찍었는데도 그렇다고, (대전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세요야...허~응급실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냥 가세요.....

*(연구자) 금이 갔었어요?*

네네... 요추1번, 척추12번 압박골절…, 저는 거의 병원 대전으로 가요.…의료시설이 거의 안좋은 것 같긴 해요. 병원갈려고 해도 쉽게 찾기 힘들고, 특히 저 머리 할 때 계속 서울가서 했지 무주에서 못하겠더라구요. 그 병원문제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병원…어쨌든 마을단위로는 약국이나 마트 이런 거는 전혀 없는거고 면단위나 이런데 나가야지만 그런 거 있는 거고 00은 아예 병원자체가 없으니깐 그게 없을걸요. 안성은 그래도 좀 있지만...그런 것 같아요. 제일 불편한 건 살면서 여기 제일 불편한거 어쨌든 병원가기가 쉽지 않다는거랑 미용실 이런 게 좀,,,(사례 1 30대 귀촌 여성 무주)

그런데 아파본 일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것이 젤로 문제인데 혼자 자다가 갑자기 그냥 아파 버리면 어떻게 그래서 저는 잘 때마다 침대 위에다가 핸드폰을 머리 위에다가 놔요. 손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고 자면은 가질러 못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침대 뒤에...(사례 17, 80대 남성).

❍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가까운 곳에 병원과 약국이 없어 불편하다는 말과 병원이 있을 경우에도 시설이나 전문의가 부족해 안심하고 자신의 건강을 맡기기가 미덥지 않다고 한다. 이와 같은 우려에는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겪는 병원 및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 밑바탕에 있고, 이를 넘어서 사례 17과 같이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자신을 큰 병원(지역에 따라서 전주, 광주 혹은 대전)까지 동행해 줄 누군가가 없다는 불안감 또한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 농촌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 이혼하고 1인가구로 사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혼이 가정경제를 양분하는 데다 홀로 아이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그러면 혼자 지내시면서 가장 불편하신 거는 어떤거세요?*
일단 뭐 경제적으로 불안하죠. 혼자되고 저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도 손에 잘 안잡혔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양육비를 처음에는 안줬었어요. 혼자서 제가 그냥 막노동일 나가서 하고 했더니 몸 상태는 좀 안좋아졌었죠. 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는 친정에 들어가고 있다가,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는데 … 부모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교통도 너무 불편하고 엄마는 어느 정도 일을 했었어요, 일하셨었는데 몸이 인제 안좋아져서 아예 일을 못하시게 되서, 제가 애들 부탁하고 제가 전적으로 생활비는 벌어서 살아야 하니까(사례 14, 45세 여성).

❍ 사례 14는 원래 간호조무사로 일했었지만 조무사 월급이 너무 적어 그것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식당에서 서빙이나 주방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식당 은 일이 많고 보수가 좀 되지만 일이 고되다. 요즘에는 6일 일하고 하루 쉬지만 예전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못했고 주휴수당도 없었다. 요즘에는 복지도 많이 좋아지고 예전보다 주인이나 손님 모두 일하는 종업원을 하대하는 풍조가 많이 사라져 일하기가 한결 나아졌다. 사례 4는 이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어디 회사를 마땅히 들어 갈 수가 없어 힘들었다. 전에 하던 일은 이미 젊은 사람들이 채우고 있어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웠다. 사례 4는 여성인력센터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예전에 일하던 일자리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새로운 곳을 들어갈 수도 없으니 교육과정을 늘려주어 무언가 전문적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혼은 인제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혼하고 좀 찾아왔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옛날에 그 시절에 저희들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제일로 모순이 지금 보증제도 아닙니까…
좀 돈도 번 적 있고 살 만큼 산 시절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런거 저런거 결국은 가정파탄도 그런데서 많이 오는거죠. 경제적인 압박 계속 압박 들어오니까…
보증서면 피해나갈 방법이 없잖습니까 무조건 아파트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부싸움도 하고 압박도 받고, 그러면서 인제 헤어지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정신적인 부분까지 무너지니까(사례 8, 63세 남성)

❍ 사례 8은 설계사무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 일이 흥미가 없어 식당을 차렸다가 실패한 후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서 이혼을 했다. 현재 건설계통의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아들이 근처에 살며 농사) 방아 찧어서 인제 아예 80킬로 한 가마 가져오면 1년 먹는데 그러게 인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택도 없어요. 왜그런거는 친구들 동창이나 만나고 이러면은 적어도 10만원 이상 쓰잖아요. 긍게 이렇게 살면서 친구들도 모른체 하고 살아요(사례 17, 87세 남성)

❍ 사별로 1인가구가 된 노인들(사례 13, 사례 17)의 경우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그들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돈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자식들이 주는 돈을 좀 보태 쓰거나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에 농사로 지은 먹거리 도움에 힘입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한계 내에서 아껴 쓰며 살아간다. 사례 13인 75세의 할머니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주요수입으로 자신의 씀씀이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요양병원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는 이 할머니의 사회 네트워크가 주로 가족과 마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87세의 고령 남성 노인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주요 수입으로 이 돈으로는 친구들과 교제하며 살기는 어려워 친구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예 그렇죠. 혼자 사니까 애가 있으면 이 동네에서 빵집 못하죠. 남원이나 함양으로 출퇴근해야죠. 빵집을 차려야 여기는 경쟁상대가 없어요. 그 소리는 결국 여기는 빵집이 들어설 수 없는 구조, 여기서 아마 돈이 많이 번다는 소문이 나면 빵집이 하나 더 생긴거예요. 생기지 않은 건 7년 동안 생길 수 없는 구조라....(사례 15, 43세 남성)

*(연구자) 주택을 지을 돈은 어디서 나신거예요?*
빌리기도 많이 했고 제가 또 몇 천정도 서울 전세금을 가지고 몇천이면 시골에선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게 아니었고 그니까 월세 생활도 여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수입이 너무 작아진거에 비해서 여기도 유입인구들이 꽤 있으니까 30 막 이렇게 월세를 살만한 집을 살려면 월세가 30 이렇게돼서 여기와서 집을 사거나 이러고 싶지는 그런 생각자체는 안했는데 너무 그 월세 부방이 쎈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막 월세 10만원짜리 들어가면 너무 열악하고 너무 고생스럽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짓기로하고 지었어요(사례 16, 49세 여성).

100만원 쓰고 그러는게 물론 서울에서 되게 큰돈이지만 이거를 막 되게 몇달씩 고민해서 만약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야된다고 했을때 열심히 골라서 모델 머를 사야된다고 했을때 딱 결정하고 결제하고 하잖아요. 시골에서는 100만원이 돈의 가치가 두 배쯤 더 커지는것 같아요. 되게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멀 살때 이게 과연 나한테 꼭 필요할까 이것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에요. 저는 이제 지금 미니멀라이프를 꿈꾸면서 살고 있는데 몇 년 됐나요. 완주로 이사오면서부터 살림을 되게 많이 줄이기 시작해서...(사례 9, 40세, 여성)

❍ 사례 9, 사례 15, 사례 16은 귀촌인들이다. 이들의 경우, 충분한 생활비를 벌을 수 있을 만한 일감을 찾기가 어려워 혼자 살기에 빠듯한 정도의 돈벌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도시의 경쟁과 틀에 맞춰진 직장생활을 떠나 자신들의 자의지로 시골 농촌살이를 선택했고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마음에서 경제적 곤란을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불편함으로 이해하면서 씀씀이를 줄이고 대안을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 7) 농촌 1인가구의 안전문제

### ① 규범의 차이, 전통적 가부장적 문화가 안전의 위협으로

트러블이 몇 번 있었어요. 이 집에 관련된 분들 가족 친척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텃세부리고, 저는 이분하고 그 계약을 했는데 임대계약을 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는 이집에서 뭐 뭐라뭐라 하는거죠 내쫓겠다.
막 이런.. 그분은 와가지고 이 창고를 쓸려고 하셨어요 어떤 예고도 없이 본인이 어릴때 지냈던 집인가봐요. 자기가 어릴때 지낸 집이니까 이 집은 내집이다. 내공간이다. 내 터다. 그게 별로 이상하지가 않은거에요 그분들 한테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창고에다 자기 예초기, 농기계 이런 것 두고 왔다갔다 하면서 쓰겠다 그런거죠. 황당하죠 저는 그래서 옥신각신 했죠. 그러더니 화 벌컥 내면서 집 때려부수겠다 하고 근데 그 이후로는 안나타나고 몇달전만해도.. 뭐 이제는 안나타나 나시는데 몇 번 있었어요…이런 경계문제가 (남자인) 저한테는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성에게는 다르죠(사례 12, 30대 남성 귀촌자)

겨울나기 전에는 마을 청소 마을 회의 꼬박꼬박 갔어요. 근데 오히려 결혼하게 돼서는 안가게 된게 이 친구가 페미니스트다 보니까 그 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크더라구요. 저는 남자니깐 이렇게 좀 대접받지만 여자는 이 시골은 특히나 가부장적이어서 거기에 거부감이 오히려 더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도 안가고..(사례 15, 40대 귀촌 남성)

*(연구자) 선생님 지금 사시는데는?*
저기 여기 00아파트,
*(연구자) 거기 사신 지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됐어요. 저희 시어머님 돌아가시고…혼자 있기 머하고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은) 크기도 하고 주택이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머하고…시골이다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연구자) 어떤 점이 위험하세요?*
위험해요. 시골은 머 이렇게 도둑도 많고, 그런 게 있어요.
……
*(연구자) 이렇게 여쭈어보면 안되지만 거기가 사실은 다 아는 사람들인거잖아요?*
그건 또 모르는거예요.…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면 예민해져서 주위의 시선도 있죠. 도시하고는 틀려요(사례 5, 50대 여성 주말부부).

솔직히 지금까지 살던 집 다 안전했거든요. 특별히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제 마음이 그런거 있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또 도시에서 살다보니깐은 이게 음… 도시에는 많은 정신 놓으신 분들이 많다보니깐은 그런 걱정때문에 시골 내려왔는데도 처음 살던 곳이 외딴곳이기도 하고 외딴곳은 아닌데 좀 음습한데라고 해야하나 골목안으로 들어가야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두번째도 살때도 펑 터져있긴 하지만 왠지 불안한 그런 곳이어서 오히려 제가 더 요구했던거 같아요. 뭐 막아달라 방충망해달라 그런 걸 요구했던것 같아요.
지금 무주읍에 사는 데는 주인집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런데 좀 심적으로 불안하니깐 문을 잠그고 자긴 해요. 현관문을 잠그고 방문을 또 잠그는 거에요…(사례 1, 30대 귀촌 여성)

❍ 귀촌자인 사례 12는 경계를 지키지 않고 울타리와 마당을 침범하는 선주민들의 행동과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단지 자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의 창고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선주민에게서 위협감을 느꼈다. 남자인 자신은 이런 경계넘기가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여성들에게는 충분한 안전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농촌에서 살아온 선주민에게는 일상적인 행동규범이 귀촌인에게는 위협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귀촌 여성들이 농촌살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안전문제를 거론한다. 주택의 방범이나 도로의 전동 시설 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인 1차적 이유는 주택의 방범시설 미약이나 동네의 안전 인프라 취약이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1인가구에 대한 편견, 여성을 남성보다 등한시하는 문화 등 아직도 여성에게 작용하는 가부장적 시선 등을 고려한다면 여성이 홀로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물리적 불편함 이외에 시골의 문화적 규범이 배경 속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사례 15의 이혼한 전 아내는 여성을 대접하지 않는 가부장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마을회의를 나가지 못했고, 00이 고향이고 여기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지내다 직장과 학업으로 남편과 아이들이 도시로 이동한 후 혼자 남아 주말부부가 된 사례 5 역시 여성 혼

자는 위험하다고 판단해 아파트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안전 위험 외에 홀로 있는 여성에 대한 시선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 내재해 있다. 몽골지역에 코이카를 다녀와 몽골에서도 혼자 산 경험이 있는 사례 1이 느끼는 막연감 불안감에는 물리적인 위험 외에 가부장적 문화 속에 여성이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해 있다고 판단된다.

**② 안전점검, 택배 등 생활서비스 관련 불편과 안전문제**

그니까 안무섭다는거는 옛날처럼 엄마가 있을 때는 그런 안정감이나 그런거는 없지만 이런거는 무섭죠 사실, 택배나 갑자기 뭐 도시가스 점검 나오거나 그런거면 가끔 막내오빠 와있을때 가끔 택배오면 오빠한테 나가라고 하죠. 제가 혼자 안있다는 거를 약간 좀 보여줄려고 나가서 물건 받아오라고 점검 같은거 나오면 문 열어놔요. 거실문이나 현관문 이런거 다열어놔요. 그래서 약간 저만큼 있으면 떨어져 있어요 좀 무섭잖아요.

⋮

*(연구자)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떠한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 있으세요?*
백화점을 갔을 때 입구에다 이렇게 사물함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그리고 터미널을 갔을 때 사물함,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지 안잖아요?
*(연구자) 근데 이제 계속 택배가 무거워서 집 앞까지 시켜야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애로점이 있을 수는, 너무 떨어지면 왜 내가 이걸 택배를 시켜야하는가, 근데도요 만약에 그런 안전하면 혼자 살면 그거 감수할 수 있어요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힘든거 드는게 낫지 차라리 좀 무거워도 누군가를 데려가서 같이 갈 수 있잖아요……(사례 10, 51세 여성).

❍ 전기나 상수도 점검원이 남성이어서 홀로 있을 때 불안요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주로 여성 1인가구원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택배를 다중시설이 있는 곳에 지정해주면 받아갈 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말에서 여성 1인가구원들이 느끼는 안전요구의 절실함이 묻어난다.

### 8) 교통, 가로등, 도시가스 등 생활기반 시설의 부족

…시골이다보니까 버스가 시간이 또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운행을 하는데 그 때는 뭐 30분에 한 대 정도? 그 정도 였으니까. 힘들었어요. 시내버스 타고 가는 거리도 멀었어요. 그 쪽은 도시가스 이런 거 잘 안들어와요.…
가로등도 어쩔 때는 안들어올 때도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시골 엄마집도 마찬가지고 저희 너무 깜깜해요 밤에 들어갈 때(사례 14, 40대 여성, 군산 이혼).

저는 시골살 때는 나무 때는 집에서도 살고 남원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든거예요 나무를 또 사야 하고 또 쪼개야 되고 그걸 누가해요. 이제 근처 귀농학교가 절에서 귀농학교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작을 가져다 써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해동안 3~4개월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름을 땠죠. 그 집이 기름도 할 수 있거든요. 기름때고 여기와서 이사와서 읍내쪽에서 빌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도시가스 쓰는데 너무 좋은거에요.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마움을 몰랐을까~아 도시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거구나" 너무 편해요 보일러가 그 서울살때 몰랐던 그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죠. 너무 근데 시골의 삶의 만족도가 너무 도시보다 좋아야 하는데 도시의 편리함은 여전히 그리워요(사례 9, 40대 귀촌 여성).

❍ 시에서 살다가 이혼 후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부모집 근처에서 살았던 사례 14는 교통이 가장 불편했고 가전제품이나 전기고장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때 받을 수 없는 점이 가장 불편하다고 했다. 또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가 시골이다보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사례 1, 사례 9, 사례 10, 사례 14).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안전과 관련해 하는 이야기의 하나는 가로등이 부족해 깜깜한 밤길이 무섭다는 이야기였다(사례 1, 사례 4, 사례 7, 사례 10, 사례 14)

### 9) 집 구하기의 어려움: 농촌 공공주택의 필요성

*(연구자) 집 구하는거는 왜요? 빈집이나 살만한 집이 없는거예요?*
네 살만한 집이 없는거죠. 아직까지 소심해가지고 그냥 시골에 빈집 그런데 우선 빈집도 많이 안나와요. 빈집도 별로 없고...좀 깨끗하고 윤택한 그런 집을 희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집...처음에 있던 집이 저는 그래도 소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저희집을 왔던 사람들이 너 여기 사니? 이런 분위기? 약간 허름한 집이었거든요. 약간 사글세 그런... 빈 집은 있는데 빈 집을 안내와요. 그래서 들어갈 집이 없어서....(사례 1, 38세 여성)

수입이 너무 작아진 거에 비해서 여기도 유입인구들이 꽤 있으니까 30 막 이렇게 월세를, 살만한 집에 살려면 월세가 30 이렇게 돼서 여기 와서 집을 사거나 이러고 싶지는 그런 생각자체는 안했는데 너무 그 월세 부담이 쎈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막 월세 10만원짜리 들어가면 너무 열악하고 너무 고생스럽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짓기로 하고 지었어요(사례 16, 49세 여성)

부모님이 해놓은 집에 이렇게…거기에 전세를 내줬던 건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당분간 지금 살고 있죠.… 부모님도 월세를 받고 사셔야 하는데…지금 그 부분이 제일 힘들죠. 나와서 일단 살아야 하는데 전주에 계속 살았고 해서 살고는 싶은데 집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드니까(사례 4, 38세 여성)

❍ 귀촌하거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아야 하는 농촌의 여성들은 편리하면서도 적당한 가격의 집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쓸만한 집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렇지 않은 집은 난방이나 안전, 편의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시골살이로 줄어 든 수입에 비해 주택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애를 먹는 것은 성별이나 1인가구형성 이유의 상이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30대 40대가 입을 모아 전하는 이야기이다. 농촌지역에 1인가구들이 살만한 소형의 안전한 공공주택 보급 요청이 높았다.

## 10) 기타 일상생활의 어려움

### ① 1인이기에 겪는 소소한 일상유지의 어려움

제가 혼자서도 잘 사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요리가 되가지고 그런 것 같고 이 동네 그 사람 말이 생각나네, 그 1인가구가 있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헤어져가지고 형이 있는데 40세, 49세? 근데 은행강도를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가고 싶다고.. 밥해먹기 귀찮다고(사례 15 50대 남성 귀촌자)

아들이 며느리가 나 오라고 그러지, 내가 또 반찬 해다 주는거는 싫어해요. 그 며느리가 해다 주면은 한끼먹을 놈만 안해오고 좀 며칠 먹을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시엄니가 아무리 맛있는 것도 세끼를 안먹어요. 세끼는 안먹어 한 두끼는 맛있게 먹는데 세끼는 안먹어 그러니까 나머지 2끼 먹고 나면 버려야 하나 아깝잖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뭐 잡수고 싶으신거 있냐고 그러면 내가 입맛이 없어 뭣이 이렇게 먹고 싶다 이러면 나오라고 그래요. 즈그들이 알아서 데려가 내가 인제 장어 같은 것도 사서 먹고 해다주지는 안해요.
그러고 인제 찌개같은것은 조금씩 해놓으면 한 서너끼 먹으면 갖다 버려요. 안먹으니까 그것이 조금 애로가 있더라고(사례 17, 남성 80대).

❍ 아내와 사별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사례 17은 혼자 사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 반찬 장만하기를 들었다. 초기에는 근처에 사는 며느리가 해다 주었지만, 입이 짧은 탓에 계속 두고 먹게 되지가 않아, 스스로 해 먹거나 매식을 하는데 썩 입에 맞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사례 15의 경우 자신은 음식하고 집안 일 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지만, 자신과 처지가 유사한(이혼으로 홀로 됨) 또 다른 남성 귀촌인의 경우 집안 일을 해나가는 것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그런 건 별로 없는데, 그런건 있죠 여자혼자 살 경우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가, 저는 구들방을 떼니까, 나무하는거, 나무 그냥 인제 아 그런건 그냥 기본적으로 쪼개진걸 사야겠다. 정리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뭘 하날 봐도 제가 할 수 없는 엄두가 안나는 일들은 예전에 인제 많이 선생님들이 와서 쪼개주거나, 막

예초 마당 예초 같은거 제가 풀 못베고 그런 거들 있을 때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게 기본적 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시골 살이에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집을 유지하고 시골 살림살이 자체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들이 많아서 아주 많다기 보다는 좀 있는거죠 그런 것 들이 그런걸 정리하는 중이에요. 장작은 다 쪼개진거 난 떼기만 하면 되는거 이거를 산다(사례 16, 40대 귀촌 여성).

❍ 여성인 귀촌자 사례 16은 남성의 노동력이 필요한 순간을 1인가구로 사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손을 보태거나 서로를 도와줄 사람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데는 스스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집안일을 해나가는 능력과 더불어 힘쓰는 일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모든 일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처리하도록 돕는 조력자가 필요해 보였다.

**② 쉽지 않은 주택관리**

집 관리하는거나 이런거? 제가 주택살면서 불편한 것은 뭐 인제 관리하는거 설비도 그렇고…아~풀은 누가 깎아주었으면 좋겠어요. 한 1년에 2번 이렇게 마을 전체적으로 덤불정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하(사례 12, 30대 남성)

나는 제일로 뭣이 무섭냐 정말 도배를 할라는디 못뜨는게 아니여 인제
*(연구자) 뭐를 도배?*
응 윗년 할때했고 못드니까 다 내놔야하잖아 못드는게 아니여
*(연구자) 그런거 만약에 누가와서 도와주시면 좋긴 하겠네요. 도배 같은거*
아이고 위험해서…우리 방 가볼라면 가봐 어쩌게 생겼는가 딱 이렇게 생겼어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대벽을 했더니 인제 또 안에
쓰네 해야것다 했는데 여기가 심란하다(사례 13, 70대 여성)

❍ 귀촌한 30대 남성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와 풀 깎는 것이 힘들어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하였다. 70대의 여성 노인은 계속 불편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주택의 벽지를 갈아야 하는 시기가 오래 지났는데도 엄두가 안나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 11) 1인가구이자 어려운 농촌가구로서 바라는 정책적 지원

저는 자영업자 잖아요, 자영업자랑 농민이랑 비교가 바로 되잖아요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게 번하니까 정부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불평이 아니고 편의적인 거지만 합리적인거 보다는 아무튼 저는 자체적으로 농민의 입장에 서는 입장으로써는 농민지원이 너무 턱없어요. 자영업자는 그래도 근로장려금이라고 그래서 1년에 130 받거든요? 근데 농민은 올해는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내년에 인제 농민수당 60만원, 근데 자영업자는 일단 130만원 주거든요 주면은 농민한테 더 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도 물론 줘야하지만……저는 상관없어요. 1인가구니까 아무튼 농민을 더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니까 이해는 가죠……

*(연구자) 요즘에는 OO이 제일 센 단체 아니에요?*

근데 OO이 제가 알기로는 대농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농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아요. 특히 축사 그다음에 인제, 시설농들 주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지 우리같이 유기농 소농, 귀농인 이건 아니죠 주로 그 사람들도 대기업 노동자들처럼 권력이 있고 지원을 충분히 현재도 받고 있는데 더 지원을 해주는 구조라고 보고 있고…

…유기농을 지으면 직불금을 더 줄께 하면 그나마 유기농을 더 할텐데 이동네만 해도 유기농 하시다가 전환하신 분들이 많아요. 유기농이 한 때 가격이 좋아서 했다가 가격이 인제 멈춘 상태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호주머니에 돈 꽂아주는 게 제일 좋지,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농장 시스템이 어떤 관료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거나 … 유럽의 선진 농업 시스템은 소비자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유기농을 사먹으면 이 쿠폰을 줄게, 이 쿠폰을 유기농을 사서 먹는 자만 쓸 수 있어 아니면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먹는자만 쓸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저희 같은 농산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많이 사먹을거 잖아요, 유기농업 농사들 지금 점점 줄어들잖아요(사례 15, 43세 남성)

굉장히 좀 쉽게 쉽게 얘기하는데 막상 혜택을 받을라고 하면은 참 진짜 서류상으로 까다롭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쭉 한부모가정으로 해가지고 큰 지장 없고 저기 없으니까 한 부모 가정으로 해가지고 애기 인제 등록금 그거 하나 혜택 구비해서 그동안 쭉 한부모가정을 해가지고 조금 작게 지원을 받아왔는데 ……

근데 어느 날 군대 갈 때 쯤해서 적금 많이 넣고 보험 많이 넣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적금이라도 들어놓고, 적금은 뭐 별로 많이 든 것도 없지만 보험을 좀 많이 들었죠. 애기 뭐 보험 내보험 가진 건 없고 현찰은 없고, 막말로 이런 사람이 몸다치면 그것 같이 갑갑한 것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무리하다시피 보험이런거를 여러개 제 앞 애 앞으로 들어놓고 그나마 그걸로 위안삼고 언제든 닥쳤을 때 저기해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참 행정 우스운게요 보험금이 금액은 계속 올라가지만 막말로 서명서 이런거 돈만 납입했지 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돈인데 근데도 그 들어간 돈 액수로만 해가지고 그거를 제 재산으로 간주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이상 늘어나서… 지원 못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보험 몇 개 해약하고 군대 갔다 오고 오면은 다시 해주면 알더만 막상 제대하고 가서 얘기 했더니 그냥 뭔 영세민 아파트좀 사는 게 보증금 2천만원도 재산이니까 뭐 차 있으니까 안되고 그냥 별 트집 다잡고 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직도 우리나라는 힘들다 멀었다.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애기 학비 조금 그냥 그것도 지원받는가 국가장학금 받는거 그걸 가지고 무슨 백만원도 안 되는 트럭이 영업용 생계용도 아니고 자가용으로 되있어서 안되네 아파트 보증금 있어서 안되네 회사에 소득 조금 있으니 안되네. 결국은 그래 가지고 못했는데 좀 그런거 보면은 화도 나고 ……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 게 참 많아요. 제 예를 들었지만 진짜 현재는 좀 그런 부분이(사례 8, 63세 남성)

좀 위기가 많은데~인건비가 이게 농촌이 최고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때가 되서 소득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 안에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농가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1년내내 농가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수확 때 되서 목돈이 되서 돌아오는 것은 맞아요. 근데 대부분 몫돈이 들오면 그놈을 잘 정리를 했다가 내년 예산… 내년에도 농가비 얼마 떼어서 해야 하는데 시골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외로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빵빵 터질때는 우선 급하니까 그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비에 써야 될 돈을 먼저 써버렸으니까 이때가 제일 어려운것 같아요.
… 아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집수리도 그렇고 머라고해야 하나…… 예상치 못한돈들이 많이 생겨요 시골에서는.
*(연구자) 그러면 만약에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같은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정책 같은게 생기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우선 자기 주거환경 개선비로 머 좀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러면 살아가는 훨씬

좀 낳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비 같은걸 쓸 때 이자 같은 것들을 많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연구자) 그 이자는 농협에서 받는 건데 그 이자가 얼마에요? 몇 %에요?*
농협은 나름이에요. 마이너스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고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3%짜리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사실 그거를 받기가 문턱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꼭 조건상으로 그걸 딱 맞춰서 거기에 들어가려 하다보면 다른게 또 커트라인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지원책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문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지원을 한 번 받은 사람들은 계속 지원을 받는거야~ 왜?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근데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조건이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못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부에 대한 불신임 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많이 생기고…
*(연구자) 그럼 그게 1인가구랑 관련이 있나요? 말하자면 가구수 인원수가 얼마인가 이런거?*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은 좀 있다고 봐야죠~
*(연구자) 어떤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소득. 소득계산할때……그러다보니까(가구원이 많으면 가구 전체 소득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도 간접적인 저기를 많이 받지 않냐~그런 생각이 들죠 (사례 3, 56세).

❍ 농민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현재 농민 지원 정책이 대농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유기농이나 소농, 귀촌인들은 농가대출이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민 대출이나 정부지원이 대농중심이고, 농가단위여서 가구소득이 낮은 1인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지원방식보다 농민들에게 직접 직불금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말년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보험이라도 들어야한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100만원도 안되는 생계용 트럭을 자가용으로 간주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빈곤층 지원의 조건이 좀 더 세분화되고 현실적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 12) 희망하는 노후의 삶과 거주 형태

❍ 연구참여자들에게 좋은 삶에 대한 생각과 희망하는 노후의 가구형태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연구참여자들의 가족관계 유형과 연결되는 답변들이 나왔다.

#### ① 막연한 노후, 우선은 아이들과 함께

*(연구자) 그러면 혹시 좋은 삶이란 이런게 좋은 삶인 것 같다. 어떤게 좋은 삶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게 좋은 삶이다. 어떤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빚 없고, 빚이 없고, 안 아프고 경제 활동을 스스로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나 뭐 해서 경제적으로는 불편하지 않고 주변 환경도 좀 좋아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불편하지만 않으면...(사례 14, 40대 여성 이혼, 군산)

❍ 이혼하고 두 명의 아이를 막노동을 하며 카워 온 사례 14는 빚 없고 안 아프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좋은 삶으로 꼽았다. 아직 아이들의 교육 뒷바라지가 끝나지 않아 아이들 독립 이후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할 여유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었다. 사례 14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례 4도 어서 돈을 벌어 남편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앞으로 삶에서 바라는 희망 사항 1번이다. 자녀가 어리거나 교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여유를 갖고 편의시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미래의 원하는 삶이다. 사례 4나 사례 14는 이혼하고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점에서는 독립적이나 아이양육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 가까이에서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지낸다는 점에서 가족지향적이다. 이들은 자녀양육이 끝나지 않아 자녀양육이 일차적인 과제이고 아직은 자녀와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가족주의적이나 생존지향적 개인주의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생존지향적인 독자적 해결

정말~ 나이먹어서 아프면 요양원에 가던가 머 그때 되면 더 나라에서 더 그런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아프면 머 요양병원에 가던지 해야하지 않을까 해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돌보는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구요.
*(연구자) 왜요?*
분란이 많잖아요. 제가 요양보호사를 하다보니 그냥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가련다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게 아니고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겠더라구요. 어디를 가야 할지. …불효라고 하니까 힘들어 하는거죠(사례 7, 56세 여성).

*(연구자) 근데 할머니 나중에 거동 불편하시면 어떻게 하실거 같으세요?*
저요 어쩔까 큰일났네……
어찌할지를 몰라 그냥 나는 가야해 저리 가는 수 없지 나 혼자 여기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먹으면 가야지 …이참에도 앞으로 한 3년만 있으면 다 둬라 애들 보고 용돈 더 둬두라고 80살 되면…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던지 해야지.
*…(연구자) 모아서 돈을 모아서 어디로 가실려고요?*
어찌 요양원으로 가야지
*(연구자) 자녀분들에게는 그럼 말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 말도 안해요.
*(연구자)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음…(사례 13, 70대 여성).
*(연구자) 이제 막 86세 이쯤 됐을 때 그 때도 혼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모르죠. 그건…
*(연구자) 만약에 86세 정도 되셔셔 막 아프고 그러면 그때는 누구랑 어떻게 살고 있을 거 같으세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젤로 우선시 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아파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왠만하면 저기가 되니까 간병인 보험 뇌출혈 보험, 저 그런 거에 초점 맞춰서 보험 들어 놓고 큰 재산은 없어도 그나마 인제 이렇게라도 답변하고 할 수 있는가도 어떻게 보면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

*(연구자) 그러면 아들하고는 그렇게 인제 연세드시고 하면 아들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하고싶으신거에요?*

… 아들놈은 아들 인생인데 지금은 인제 애들 뭐 어떻게 앞에 어떻게 가라 해도 듣는거 아니고 지가 알아서 스스로 가는 것이고 … 같이 살라고 해도 못살고 또 저희 염치도 그거를 원치 않고…(사례 8, 63세 남성)

❍ 이혼 후 전북에서 농사일을 하며 틈틈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사례 7은 더 나이들고 아프면 요양원에 가든지 막연히 국가에서 무언가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부모 스스로가 요양원 입원을 결정하지 못할 때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아 왔다. 이혼으로 남편이 양육을 담당해 가끔 아이들을 만나 온 사례 7은 아이들이 삶의 이유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노후를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요양보호사 경험에 기반해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며 미리미리 괜찮은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70대 여성노인인 사례 13은 시집온 이후 쭉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 자식들은 외지에 있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살고 있다. 거동이 더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하다 돈을 모아 3년 뒤쯤에 요양병원에 가겠다는 답변을 내놓는다. 요양병원에 가야겠다는 사례 13의 말에 자녀들은 별 언질을 주지 않고 있다. 이들 모두는 앞에서 살펴본 가족관계 유형 상 가족지향적인 생존지향형 개인화에 속해 있었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 정서적 유대는 돈독하지만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직장문제, 손주들 학업문제 등이 여의치 않으므로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고 독립의 길에 서도록 강제된 사례들이다.

❍ 빚보증과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사례 8 역시 가족지향적이지만 생존현실이 개인화를 체득하게 했다.

아들은 사례 8이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지만 같이 살 염치도 없고 아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다. 노년을 대비해 보험을 열심히 들고 있는 것이 노후 대책이고 그나마 대비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③ 우선은 배우자와 함께 노후를, 차선은.....**

❍ 이혼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비혼상태가 되어 1인가구를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 우선은 배우자를 만나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의 대안에서는 엇갈린 해법들이 나왔다.

❍ 낭만적 결혼관을 가지면서 여러 여건상 결혼을 놓쳐 버려 1인가구가 된 사례 3(50대 남성)은 모친과 형을 잃은 후 마음이 힘들어져 대화하고 함께 할 동반자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고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관계 등에서 무난해 보이는 사례 3은 자기가 노력하고 눈높이를 낮추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참 근데 내가 이런 말씀 저기한데 얼마 전에 하도 말년이 궁금해서 사주 한번 봤습니다. 전주가서 봤는데 … 66세 이후는 여자 생겨서 85세까지는 저기 할거라고 하는데 믿어 볼랍니다(사례 8, 63세 남성).

❍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사례 8 역시 노후에 등이라도 기대면서 살아갈 사람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사례 8은 역술인의 말에 한 가닥 소망을 가지면서도 혼자 보내게 될 말년을 대비하여 몇 가지 보험을 들면서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다.

❍ 귀촌을 한 후 역시 같은 귀촌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가 이혼한 사례 15(40대 남성) 역시 기회만 닿는다면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역시 귀촌한 사례 12(30대 남성)도 이 사람이면 같이 살아볼 만하다는 느낌이 드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대안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노후에 배우자를 만나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삶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선택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사회적 가족의 모색**

…… 그 뒤에도 갈 기회가 몇 번 있었고, 주변에서 자꾸 소개를, 수녀님도 서울에서 얼마 전에 엄마 가신 뒤에 누구 만나 보라고…좀 그래요. 나이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결혼에 대한 마음은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과연 이 나이에 결혼해서 뭘 위해 결혼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보면 아이도 소중한데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 친구는 지금 결혼하면 큰일 나 혹시 남자가 아프면… (사례 10, 51세 여성)

❍ 사례 10은 사례 3과 유사하게 경제적 여건이 좋은 편이고 기타의 다른 조건들역시 결혼하기에 별 무리가 없는 듯이 보였다. 대신 사례 10은 자신과 같이 홀로 살고 있는 두 명의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다. 유사하지만 결혼에 대해 다른 전망을 가지는 사례 3과 사례 10의 이야기는 남성과 여성이 가진 결혼에 대한 다른 기대와 제도적 결혼이 남성과 여성에 가지는 의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네 …이 친구들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치원때부터
친구예요. 그래 가지고 정말 친하게 된 건 단짝이 된 건 고등학교 때부터 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들끼리도 되게 친하셨어요.

*(연구자) 셋이 부모님 다?*

네 다 더 친한 친구들 더 많은데 지금 완전 정말 단짝 친구는 3명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시험 볼때는 우리집에 와서 공부하고 엄마가 간식도 주고 …… 서울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에요. 우리 아파트 살자 같이 그니까 방은 개인공간은 있어야 하니까 절대 방은 같이 쓰면 안되니까 방은 3개를 얻어야 한다 근데 꼭 병원 근처에 있어야 한다. … … 나중에는 어쨌든 그 셋이 항상 그런 생각은 했어요. 셋이 같이 살자 그리고 그렇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서로 저희는 그래요. 먼저 간다고, 남겨지는거 너무 싫어서…(사례 10, 50대 여성).

❍ 낭만적 결혼을 기대하다 시기를 놓쳐 홀로 살고 있는 사례 10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사례 10에게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역시 비혼으로 남아 있는 친구들은 정신적 외로움과 삶의 허무함을 달래주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다. 이제 결혼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노후의 삶을 희망하는 사례 10은 사회적 가족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귀촌한 30대, 40대가 소망하는 노후의 삶의 유형과 닮아있다. 생태적인 삶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 등을 추구하며 귀촌한 홀로 사는 30~40대는 대부분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족을 구성하는 사회적 가족을 소망했다.

*(연구자) 만약에 노년에도 혼자면 어떻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좀 이렇게 큰 범위에서 얘기를 하자면, 가족체계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농업시대에 대가족사회에서 그게 분열됐죠, 도시화 되면서 핵가족화가 됐죠,… 핵가족의 한계가 생기고 또, 요새 비혼이 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대가족때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체가 사라지니까, 다시 공동체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찾는 공동체가 혈연이 아니라 자기랑 취미가 맞는 사람이라던지, 결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 같고 그게 좀 더 구체화 되지 않을까, 이게 분열된 채로 계속 가는게 아니라 다시 모

일텐데, 다시 모이는 것은 가족들이 아닐 것이다.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분들하고 모아서 같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저는 어디 골짜기 들어가서, 자연에 가까운 삶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상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걸 해보고 싶어요(사례 12, 39세).

제가 만약에 지금 2년 동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친구와) 별 문제없이 살았는데 특별히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거나 제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사는 동안은 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동반자법에 그거는 등록이 되었다가도 따로 살려고 하면 또 다시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는 크게..그래서 입양을 하거나 나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혼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나 누구를, 안 그러면 혈연이면 조카나 머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할 때는 되게 관계가 멀어서 남하고 똑같데요. 그래서 아예 어차피 조카가 친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면 입양을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나이들어서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아요……저는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맘에 맞는 친한 친구들이 있고, 또 같이 잘 맞는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노후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사례 9, 여성 40세).

❍ 귀촌 사례 12는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사회적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다. 사례 9는 오랜 1인가구 경험을 해오다 현재 귀촌하여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과 비슷한 친구를 만나 2인가구로 살고 있다. 사례 9는 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노후의 삶이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변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자신과 삶의 지향이 맞는 친구를 만나 함께 하는 현재의 삶이 노후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했다.

### 13)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여부와 좋은 삶에 대한 기대

#### ① 힘들지만 현실을 긍정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삶

저는 제가 이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깨달음이라는거 진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답게 살다가 먼가 사회에 봉사…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놈 참 따뜻한 놈이었다라는 소리… 제가 인맥이 좀 있다보니까 주위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혹시라도 먹을거리, 안보이면 어디 병났나?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으로써는 뭐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어요(사례 3, 56세 남성).

욕심가져 본 적 없어요. 그냥 지금 조금이라도 전에 보다 나아졌으니까 그거에 만족하고요. 저 막 크게 욕심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게 제일 좋다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사는 거(사례 14, 45세 여성)

*(연구자) 사회관계, 경제관계 머 거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측면 다 종합해 봤을 때 삶의 만족도가 10점만점에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6점.
*(연구자) 6점?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6점이면 높은 거 아니예요? 제 생각에는 높은거예요.
*(연구자) 나머지 4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냥 일에 쫓기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나 머 이렇게 정서생활을 할 그런 것도 있구요. 당연히 금전적인 것도 있구요. 있죠. 어느 날은 막 힘든 거 같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아유~그냥 나 정도면 편안하다고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죠~그래도 6점이면… 전 그래요(사례 7, 56세 여성).

❍ 사례 3이, 사례 14, 사례 7 모두 현재의 삶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삶을 포용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사례 3은 홀로 지냄을 걱정해주는 주위분들의 관심에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잘 살았구나라고 자평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혼 후 막노동으로 아이 둘을 키워온 사례 14는 과거보다 나아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경제적으로 불

편하지 않아 삶의 환경이 좀 좋아지기를 희망한다. 사례 7은 정서생활을 할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보다 어려움 사람을 바라보며 나 정도면 편안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프지 않고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바란다. 객관적인 조건보다 자신들의 삶을 긍정하고 현재보다 못했던 과거 혹은 나보다 어려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것으로 간주하며 살아간다.

### ② 아쉽고 후회되는 삶

사실은 후회돼요. 결혼은 해야하지 않았나?…그러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약간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에 정착을 못한 거 같은 생각도 드는거예요 …… 네 그게 오빠가 사업을 하면서 오빠가 올라오라고 해서 간거여서 엄마가 나중에 오빠한테 그 말을 했어요. 왜 너희가 동생을 데려가서 동생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했냐, 그대로 뒀으면 엄마아빠 평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평범하게 살았을걸, 그런 말을 좀 해요. 지금은 조금 많이는 말고 어쨌든 결혼을 그니까 결혼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나이먹어서 뭔가를 한다는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사례 10, 51세 여성).

인제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인생 살다보면 제가 원하는 삶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원했던 삶을 살았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인생이 좀 많이 이렇게 원치 않던 길로 가고 그렇게 살다보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고 그런 것들 많고 그랬는데 다음 혹시라도 다음 생이 있다면 제가 원했던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사례 8, 63세 남성)

❍ 사례 10은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맘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20대 후반에 오빠의 일을 돕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갔던 것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40대 초반에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

와 함께 살면서 결혼 기회를 놓쳤다. 고향에서 00000에 다니다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놓친 것을 사례 10은 못내 아쉬워했다. 사례 10은 결혼보다는 안정적 직장을 갖지 못한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하면서도 결혼을 했다면 자신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나이 들어 결혼을 접고 친구들과 함께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지만 전문직인 친구들과 달리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자신의 위치가 못내 불만족스럽고 불안하다. 직업불안정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현재 생활의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느끼면서 결혼을 했으면 이런 조건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현재의 상황에 아쉬움을 표한다. 사례 8은 사업실패로 이혼하고 아이양육을 담당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간문화재에 사사시키며 자신이 직접 아이를 키우지는 못했다. 외로움에 자살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례 8은 지금이니 이런 말을 담담하게 한다고 자신의 힘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례 8은 자신의 어렵고 눈물나는 현재가 원하지 않던 인생을 살았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원하지 않던 직업을 갖게 되어 식당을 개업하고 그로 인해 사업실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③ 가치 있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

돈은 그만큼(돈에 시달리지 않을 만큼) 좀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막연한 바램이고, 그걸 기반으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그 때는 뭐 벌어야 돼 이런게 아니라 제가 주변에 인제 편한 이웃들과 이웃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뭐 지금처럼 뭐 어디 걷기 하지, 이런 것처럼 그 나이에 맞는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서 늙어가고 싶죠… (내 삶에 대해)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저 한테는 맞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 중에 지금 여기 있는거 아닐까? 그냥 자연스럽다(사례 16, 49세 여성).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되면서부터 삶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물욕은 적어지는데 그 외에 생활적인 욕심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뭐지?... 삶을 잘 마감하고 싶은 욕심 같은 거? 이게 두 가지 감정

이예요. 한편으로는 대충 되는대로 살자 이러다가 가는 하다가도 그래도 좀 더 가치있는 삶을 살고 있다 머 이런 것……(사례 9, 40세 여성)

❍ 귀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자연적인 삶, 생태적인 삶을 찾아 농촌으로 이주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웃관계에서의 소소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노후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족을 꿈꾸거나 주변의 마음에 맞는 이웃들과 함께 지낼 것을 기대한다. 이들은 사례 16처럼 스스로의 삶을 좋은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자평으로 요약하는 특징을 보였다.

❍ 전체적으로 보아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드리고 생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혼자라는 외로움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조건도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와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혼으로 어머니를 떠난 보낸 슬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 3(남성)과 사례 10(51세 여성)은 결혼을 놓쳐버린 경우이다. 그러나 사례 3은 자신이 눈높이를 낮춘다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챙겨주는 주변 이웃들을 보며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하는 위안을 얻는다. 반면에 사례 10은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단념하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지낼 생각을 하면서도 친구들과 달리 직업이 불안정한 현실이 힘들게 여겨진다. 양자는 중산층의 생활기반에 낭만적 결혼의 지연으로 결혼을 놓쳐 버린 점이나 상경했다 귀향한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삶의 전환사건에서 사례 3이 자의지적인 선택을 했다면 사례 10은 상황에 의한 선택이었다. 일을 봐달라는 오빠의 청탁에 상경했고 홀로 된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귀향했다. 현재 사례 10은 결혼을 접고 친구들과 함께할 계획이지만 사례 10의 구술에는 후회되는 삶, 아쉬운 삶이 가득했다. 반면에 사례 3은 외롭지만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잘 살고 있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 자신들이 선택한 이혼 후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 온 사례 7과 사례 14는 자신이 노동을 통해 이만큼 버티고 살아온 점을 스스로 대견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아프지 않고 일하며 아이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현재의 삶에 이 정도면 되었다 위안을 삼는다. 반면에 사업실패로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사례 8은 첫 직업(건축설계사무소)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적응을 잘하지 못해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식당을 차렸다가 실패했다. 이혼 후,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혼자 지내왔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에 말년을 위해 무리해서 보험을 넣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혼자 보내는 외로움을 토로하는 사례 8의 현재는 아쉬움이 남는 삶,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온 삶으로 표현된다. 반면에 귀촌인들은 모두 농촌에 있어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이 경제적 어려움을 미니멀 라이프나 자조모임 등을 통해 극복하고 사회적 가족을 희망하며 현재를 만족하며 좋은 삶을 찾아가는 중, 만족하는 삶으로 자평하고 있다. 현재 삶의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자의적 선택 여부와 그와 연결된 현재에의 인식 차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차이에 따라 현재의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 마. 요약 및 시사점

❍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에 설문지 조사결과로 알기 어려운 1인가구의 어려움이나 1인가구의 욕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모두 17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주요 주제들, 곧 1인가구 형성사유와 가족관계, 경제적 문제, 심리적 어려움, 이웃 및 사회적 관계, 문화·규범 차이와 기타 어려움, 노후의 삶과 주거형태, 현재 삶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 1인가구 형성사유에 따라 ① 낭만적 결혼의 지연, 그리고 놓쳐버린 결혼 ② 경제적 안정 먼저, 결혼은 그 후 ③ 이혼으로 인한 홀로서기 ④ 사별로 인한 독거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의 가족관계 특징과 이상적인 가족상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낭만적 결혼의 지연에는 사례 1과 사례 12가 속한다. 이들의 주요 특징은 자발적으로 귀촌한 30대로서 이상적인 배우자 만나기를 희망하지만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지 못할 경우 사례 1은 사회적 가족을 희망하지만, 사례 12는 비혼으로 남는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다. 가족관계에서 사례 1은 자아중심적이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뚜렷하지만 엄마와 여자형제에 대한 깊은 정서적 유대를 표명했다. 반면에 사례 12는 자아중심적이고 자유주의성향이 뚜렷하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적 거리와 자기공간을 확보를 중요시한다.

❍ 낭만적 결혼의 지연이 길어지면서 결혼을 놓쳐버린 유형에는 사례 3과 사례 10이 해당된다. 이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삶의 몇 가지 여건이 겹쳐지면서 결혼시기를 놓쳐버렸다. 이들은 20대 초반(사례 3), 20대 후반(사례 10)에 직장을 찾아 상경한 후 30대 중반(사례 3), 40대 초반(사례 10)에 귀향했다. 사례 3은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사례 10은 어머니와 함께 살다 어

머니가 떠난 후 외로움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혼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족지향적인 특성이 강한데 개인화로 떠밀려 온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가족만들기의 전망은 상이한데 사례 3은 배우자를 만나고자 노력 중이고 사례 10은 결혼을 단념하고 친구들과 사회적 가족을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사례 3은 개인화로 떠밀렸으나 제도적 결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족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어머니 사후보다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깊어진 사례 10은 친구들과 사회적 가족을 꿈꾼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의 자유주의적 개인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② 경제적 안정 먼저, 결혼은 그 후를 생각하는 것은 사례 2이다. 과거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사례 2는 사업의 성공이 우선적인 삶의 목표라서 스스로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사람도 소개받고 싶어한다.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사업을 성공해 보고자 사력을 다해 사업에 몰두한다는 점에서 강제된 생존지향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 자신의 독자성에 대한 긍지 등은 자아중심성과 개성화가 뚜렷이 드러난다. 반면에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리기 싫어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가족중심적 생존지향형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이혼으로 인한 홀로서기에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해당되었다. 사례 4, 사례 7, 사례 8, 사례 11, 사례 14, 사례 15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의 연령대 역시 30대 1명, 40대 2명, 50대 1명, 60대 1명으로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다. 통계조사에서 비혼상태의 1인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가 이혼 및 별거였는데 그만큼 농촌사회에도 이혼이 흔하고 널리 퍼져 있다. 이 사례들은 대부분 가족지향의 생존지향적 개인화에 해당된다. 이 사례의 30~40대들은 자녀들이 삶의 이유이기는 하지만 자녀

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자녀들과 떨어져 1인가구 생활을 한다. 자녀는 부모님이 돌본다. 재학 중인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조손돌봄에 대한 지원대책이 요청된다.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와 친밀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자녀들과 빈번한 소통을 하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사례 11(남성)은 가족에서 떨어져 나옴과 함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웃이나 지역네트워크에서도 고립된 유형이다. 귀촌자인 사례 15는 이혼했지만 인연이 된다면 또다른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적 가족의 가능성 역시 생각하고 있다. 사례 4와 사례 14에게 바람직한 미래는 돈을 많이 벌어 아이들과 함께 살고 물리적으로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이다. 노후의 거주형태 고민은 이들에게 너무 막연하고 먼 미래이다. 사례 7 여성은 이혼으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왔고 아이들은 사례 7의 삶의 이유이다. 그러나 사례 7은 노후에 요양원에 가는 것이 아이들과 자신을 위해 좋은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사례 8은 가능하면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보험을 많이 들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④ 사별로 인한 독거에는 노령층인 사례 6(65세), 사례 13(75세), 사례 17(87세)이 해당된다. 이들은 사별로 인해 홀로 되고 자신의 경제활동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또 자녀들의 형편상 독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자녀들의 지원은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또한 가족중심적인 생존지향형 개인화 모습에 가깝다 할 수 있겠다.

❍ 남성들은 이혼이든(사례 15, 사례 8) 결혼을 놓쳐버린 경우(사례 3)든 가능하면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 반면에 이혼한 여성들은 현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결혼을 희망하지는 않는다. 결혼을 놓쳐버린 여성인 사례 10은 결혼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사회적 가족을 희망한다. 이러한 성별 특징은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적 결혼의 특징으로 청년층

여성들이 결혼에 들어서기를 주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 이혼여성들은 1인가구로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 구체적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거나(사례 4), 일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사례 14)을 꼽았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도 남성들은 일자리 구하기나 일자리에서의 차별적 경험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어려움의 결이 조금 다른 것이다.

○ 귀촌인들 또한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1인가구이기에 우선 어려움을 버틸 수 있고, 자신들의 이상을 찾아 농촌으로 이주했으므로 씀씀이를 줄이고 상부상조를 통해 필요를 메꾸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있다. 심층면접에서 자영업에 비해 농민지원이 미약하다는 점, 농민 대출이나 정부지원이 대농중심이고, 농가단위여서 1인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 복지 서비스 지원 기준의 세분화와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1인가구의 우선적인 어려움은 외로움이었는데(사례 2, 사례 3, 사례 8, 사례 10, 사례 5),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서 좀 더 두드러졌다. 여성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외로움을 달래는 데 비해 남성들은 일에 더 몰두하거나 알코올에 의지하였다. 이는 여성들에 비해 정서적 교류에 능숙하지 못한 남성들의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1인가구, 특히 남성 1인가구들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된다.

○ 이웃관계에서 귀촌한 30대나 40대 남성은 친하지도 서먹하지도 않은 관계를 추구한 반면 귀촌 여성은 사례 16은 의식적 노력으로 이웃과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었다. 사례 2는 사업의 필요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자의식적으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사례 3이나 사례 8에게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생활의 자원

을 넘어 삶의 끈이 되는 중요한 기반이고, 마을회관에 모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70대와 80대인 사례 13과 사례 17의 경우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노년의 삶을 보호받고 있다.

❍ 여성 1인가구(사례 5, 사례 9, 사례 10)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이 존재함을 확인했고, 전통적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 1인가구로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 위협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주택관리나 반찬 만들고 장작패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돕는 손이 없어 겪는 불편함과 교통, 가로등, 도시가스, 병원 등 생활기반 시설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과 농촌지역에 살기에 적당한 주택 구하기의 어려움, 등이 이야기 되었다. 특히 여성들은 가로등 부족으로 밤길의 무서움과 남성 점검원이나, 택배원이 남성일 경우 느끼게 되는 안전위협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연구참여자들이 바라는 노후의 삶, 노후의 거주방식은 다양했다. 사례 12나 사례 9, 사례 16 등 귀촌한 30데~40대들은 대부분은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 사회적 가족을 꾸리고 싶어했다. 이들은 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혼으로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30대와 40대의 여성들은 돈을 벌어 아이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편하게, 안락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다. 이들에게 노후의 삶은 막연하고 먼 미래이다. 50대와 70대의 여성은 요양원을, 60대의 남성은 배우자를 꿈꾸나 여건상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여러 가지 보험을 노후의 대책으로 내놓았다.

❍ 전체적으로 보아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드리고 생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혼자라는 외로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조건도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여부와 현재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 미래 전망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결혼을 놓쳐버린 사례 10과 사례 3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경과 귀향,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에서 사례 10이 좀 더 자의지적 선택에 따른 결정들이었다면 사례 3은 상황에 의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사례 3에게는 외롭지만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는 삶으로, 사례 10에게는 그 길을 안갔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한 삶, 후회되는 삶의 수사로 표현되었다.

○ 사업실패로 이혼 후 혼자 살아 온 사례 8 역시 첫 직업(건축설계사무소)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적응을 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식당을 차렸다가 실패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혼자 보내는 외로움을 토로하며 노후의 독자적 돌봄을 위해 여러 개의 보험을 들고 있는 사례 8의 현재는 아쉬움이 남는 삶,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온 삶으로 표현된다. 반면에 귀촌인들은 모두 농촌에 있어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니멀 라이프나 자조 모임 등을 통해 어려움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며, 현재를 가치를 쫓아 사는, 좋은 삶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자평한다. 이들은 대부분 미래에 사회적 가족을 희망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삶의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자의적 선택에 의한 삶, 그에 따른 현재의 긍정과 추구할만한 미래에 대한 인식이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5 장

# 논의 및 정책방향



1. 연구내용 요약 및 논의
2. 농촌 1인가구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 V. 논의 및 정책 방향

## 1. 연구내용 요약 및 논의

❍ 전라북도의 전체가구에서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고, 그 구성비율이 전국 수준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요청되었다. 1인가구는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관계망, 안전 등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성이 높아 주의를 요한다. 특히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의 1인가구 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시 지역보다 낮아(18.9%), 1인가구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농촌 1인가구의 실태와 삶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농촌 1인가구 정책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농촌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염두에 두고 1인가구의 실태(가족관계, 이웃 및 사회적 관계, 경제적 문제, 안전 등)와 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을 포함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촌 1인가구의 1인가구 형성 이유는 이혼 및 사별이 가장 많았고 직장과 학교 문제, 가족과 사는 게 불편함, 편의 및 자유를 위해서의 순서로 나타났고, 1인가구로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 본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나 이웃 및 사회적 관계, 경제적 문제, 안전, 정신건강, 보건환경 등 1인가구 실태 부분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외로움이고 다음이 경제불안이었다. 성별로 남성은 외로움을, 여성은 경제적 불안을 더 많이 느꼈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정신건강에 문제를 느끼고 고민 상담 대상이 없었다. 심리적 건강상태에서 60대의 높은 자살생각, 50대와 60대의 높은 우울감, 50대 60대 남성의 고민상대 없음의 두드러

짐을 통해, 50대와 60대의 정신건강이 취약함을 발견했고, 특히 남성 중·고령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주의를 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젊은 층은 이웃과 적정한 거리가 있기를 희망하는 반면 60대는 이웃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아프거나 위급시 도움을 줄 사람으로 이웃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여가활동 역시 이웃과 함께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 농촌 1인가구의 노인돌봄의 형태로서 커뮤니티 케어가 바람직하고 또 그러한 기반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 가족주의 가치가 모든 연령대에서 낮게 나타나고 이혼 및 별거의 비율도 많이 나타나, 농촌지역에서도 가족관계의 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개인주의 가치가 높게 나타나 농촌사회에서도 가족주의 경향이 축소되고 개인주의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나이 많은 고령층 노인들이 생의 종말기에 요청되는 돌봄을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 경제적 차원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고, 연령별로는 60대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에서 여성노인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60대 이상 농촌노인의 빈곤문제에서 여성노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거문제에서도 여성은 자가나 무상형태가 적고 전세 월세 사글세가 많아 여성빈곤의 심각함 알 수 있다. 거주환경에서는 교통접근성과 안전감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고, 특히 안전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60대가 높은 불안감을 보여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교통접근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미래의 희망 가구형태에 대한 질문에서 72.5%라는 다수의 1인가구원들이 혼자 살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하거나 주거공동체를 선호했다. 이와 관련해 의미있게 볼 점은 1인가구들끼리 모여 각자의 독립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친교나 운동 등을 위한 공용공간을 두는 공동주택과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과 중·장년층이 함께 거주하는 방식, 여성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꽤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용공간을 갖춘 소규모의 공용주택, 중장년층과의 거주를 위한 노인주택자들의 리모델링 지원 등에 대한 정책요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1인가구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심층면접 결과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는 1인가구를 형성한 사유와 그와 연결된 노후 전망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띠는 양상을 보인다. 30대40대의 경우 자발적 귀촌 1인가구인지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인지 여부에 따라 이들의 가족관계나 이웃관계,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달라지고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차원이 달라진다. 귀촌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이었으므로 이를 타개하는 방식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비용을 줄여 적응하는 삶의 방식을 택한다. 반면에 이혼으로 아이들이 있는 30대와 40대는 돈을 벌어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이 가장 바라는 미래이다. 같은 이혼 1인가구라도 50대와 60대의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문제나 노후의 불안함과 좀 더 연결되어 이야기되었다.

❍ 가족관계에서는 30~40대나 70~80대 농촌 1인가구의 삶의 모습에서 가족을 매개로 한 집단적 복지는 사라졌으나 마을에 남아 있는 중고령층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는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홀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도록 떠밀린 이혼 가구나 사별 노인들은 스스로 생애 말기를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자연적 삶을 찾아온 귀촌인들은 마음에 맞는 지인들끼리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에 대한 희망에 무게를 두고, 사별 노인들은 자녀가 아닌 지역 네트워크와 자

조 모임에 더욱 의지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를 발판으로 하는 동창회, 로타리클럽, 싱글들의 모임, 직장 동료들 모임, 각종 봉사단체 등과 같은 개인의 의식적 선택에 의해 유지되는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과거의 전통적 네트워크와는 다르다. 또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돌봄은 참여하는 개인들의 의지와 협조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조모임 성격에 정부지원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여기에 적절한 정책지원이 더해진다면 촘촘한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혼 1인가구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여성들이 일자리 구하기의 어려움, 무시당한 노동현장 체험 등을 말했다면 남성들은 일자리 구하기나 일자체의 노동경험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돈벌이가 적은 데서 오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중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특히 이혼여성들의 아이 양육이나 자식을 대신하여 아이들(청소년 포함)을 돌보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농촌 1인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특색을 보였다. 이는 다인가구 경우 한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이를 벌충해 줄 사람이 있다면 1인가구의 경우 고스란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의 어려움은 농촌거주민이면서도 1인가구이기 때문에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심층면접 가운데 자영업에 비해 농민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점과 농민 대출이나 정부지원이 대농중심이고, 농가단위여서 1인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 이혼이든 결혼을 놓쳐 비혼으로 머무른 경우이든 남성들은 배우자를 만나 함께하는 노후를 먼저 희망한다면 여성들은 결혼을 접거나 혹은 시설을 이용해 혼자 감당하고자 하거나 사회적 가족을 희망했다. 현재의 제도적 결혼이 여성에게 불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자연적 삶을 희망하는 귀촌인들과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과 여성들 가운데 사회적 가족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개인들의 독립공간을 보장하면서 거주자들이 공동 공간을 마련해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존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 1인가구를 위한 공용주택과 사회적 가족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농촌지역 공공주택정책이 마련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구성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접한 농촌 1인가구의 상당수가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로서 이혼이 더 이상 큰 허물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홀로 사는 여성에게 던져지는 편견이 존재했다. 이런 시선들이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안전감을 위협하는 문화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농촌 대상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중교육이 요청된다.

❍ 이혼한 남성 1인가구나 결혼을 놓쳐 버린 비혼의 남성 1인 가구는 같은 유형의 여성 1인가구에 비해 더욱 외로움을 호소했다. 가족영역에서 정서적 역할을 담당해온 여성들이 자녀들이나 원가족 성원들,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하며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데 비해 남성들은 그러한 관계 형성에 애로점을 느낀다. 외로움을 친밀한 정서적 교감으로 풀어내기보다 일이나 술로 해소하는 남성 1인가구들이 자살 생각과 같은 정신적 문제나 알코올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 돕는 손이 없는 1인가구원들은 주택관리나 장작을 패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교통, 가로등, 도시가스, 병원 등 생활기반 시설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가로등 부족이나 남성 검침원, 남성 택배기사 등이 여성들에게 주는 안전 위협감 등은 안전문제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대체로 농촌 1인가구들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었다. 현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았는

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나온 삶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살아갈 만한 미래전망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형성의 마중물이 되는 지원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2. 농촌 1인가구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구조 변화와 그와 맞물린 가치변화 속에서 진행되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정상범주를 벗어난집단,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인가구로 이행을 독려해야 하는 집단, 취약한 집단 등의 문제집단으로 보지 않고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큰 변화추세로 인정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를 차지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1인가구의 위기는 사회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인가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 전라북도는 농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고,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재정이 열악하므로 1인가구의 취약성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전라북도 농촌은 노년층, 특히 여성 노인이 많고 귀농·귀촌인도 꾸준히 증가하여, 세대별·성별 이질성이 큰 상황이므로 이러한 다양성을인정하며 포용사회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1인가구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행정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체계적인 정책설계를 위해 1인가구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부서 배정이 필요하다. 또한, 1인가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다른 지역의 1인가구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요청된다.

○ 정책마련에는 정책 수용자의 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양한 1인가구의 정책수요를 듣기 위한 지역별, 집단별 1인가구 대상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는 세대별, 성별 이질성이 큰 상황으로서, 1인 가구의 여성들은 안전문제, 노인들은 돌봄문제, 50~60대 남성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우선적인 정책욕구로 나타났다.

❍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에 대한 정책수립은 각각의 정책대상에 따라 분절적인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인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되 생애주기와 성별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세대간 연결가능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 농촌지역 1인가구의 안전문제나 생활의 불편은 1인가구이므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나타날 뿐 지역민들이 겪는 불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 관련 인프라나, 도시가스 등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농촌지역의 노년층과 중장년층 경우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이 존재하는데, 커뮤니티 조성을 용이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주택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문제는 돌봄형태와 관련해 노후의 선호 주거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주택정책은 1인가구는 물론 지역민들의 미래 전망, 인구 유입 등에도 중요한 전략지점이 될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이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공간이 보장되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개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촌의 삶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삶을 가치적 관점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 증대를 위한 주민 교육,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강은택·강정구·마강래(2016). 1인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미혼 1인 가구와 기혼 1인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3-23.

권주안·이유진·최혜경(2007). 1인가구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산업 연구원.

권혜선(2018).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경기도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환경교육, 31(2), 100-111.

김기태·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 지역복지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53-168.

김민성·박다솔·유지형·염유식(2018). 한국 농촌 독거고령자의 사회관계와 신체건강 사이의 연관성 연구: 닫힌 삼자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2(2), 1-35.

김민지(2018). 대구지역 여성1인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김보현·안영선(2008).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15(1), 141-160.

김수정(2019). 개인화 시대의 개인주의에 대한 개념적 탐색. 한국언론정보학보, 7-33.

김윤영(2017).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김정섭·김종인(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24권 1호, 33-48.

김정섭·이정해(2017).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51호, 1-20.

김정훈(2015). 개인화의 양면성과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동향과 전망. 94, 9-44.

김행신·이영호(199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8), 59-67.

김혜경(2013). 부계가족주의의 실패? IMF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 한국사회학, 47(2), 101-141.

남기민·정은경(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325-348.

노경혜 외(2018).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데일리 팝(2017, 4, 27). 수치로 보는 뉴스] OECD 국가들 중 급증하는 '한국의 1인가구. URL: http://www.dailypop.kr

문승태·김소라(2012). 귀농인의 삶의 질 인식수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1), 1-21.

박미선(2017).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국토정책 Brief 627호, 1-8.

박미현(2016). 장년층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6권 2호, 5-26.

박은미(2018).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 및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박중신·박헌춘·김승근(2014).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박흥식(2013). 내부고발에 대한 유교 윤리 및 집단주의 태도의 영향. 행정논총, 41(3), 105-126.

변미리(2011).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도시문제, 5, 34-39.

서경현·김영숙(2003).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115-137.

석재은(2007).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월간복지동향, 102, 37-40.

성지미·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9(2), 111-130.

송영신(2015).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7(2), 33-72.

송유진(2007).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 1인가구의 특성-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147-160.

신상영(2010). 1인 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4), 81-95.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심영희(2011). '21 세기형 공동체 가족'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 2차 근대성과 개인화 이론의 관점에서. 아시아여성연구, 50(2), 7-44.
심영희(2013). 개인화의 두 유형에 관한 연구: "가족 중심 생존 지향형" 과 "황혼 및 가정 내 이혼형"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77-312.
양수진 외(2018). 인천시 1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여윤경(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2.
오영은·이정화(2012). 사회적 관계망 크기와 지역사회공동체의식이 단독가구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독거노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555-589.
오윤정·김향동(2018). 노인의 자살생각 예측요인.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8(2), 1-9.
왕로·홍창기(2018).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서비스 디자인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63, 186-195.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이명진·최유정·이상수(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이민홍·전용호·김영선·강은나(201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대응 전략. 보건복지부·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수인(2011). 정서적 가족주의와 문화적 가치가 일반신뢰와 특수신뢰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사회, 169-204.
이수인·유지영(2018).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7, 109-138.
이윤정·김순미(2004). 남녀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지출의 향요인 분석. 대 한가정학회지, 42(12), 93-106.

이준우·장민선(2014). 1인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 변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중섭(2012).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정책방향연구. 전북발전연구원.
이지숙(2009). 지방도시 독거노인의 거주환경에 대한 개조요구. 디자인지식저널, 11, 70-77.
이지순·이현애·박지현·윤정숙(2002). 신수요 계층의 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계획 방안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4), 53-60.
이진숙(2010). 가족대안으로서의 농촌 독거노인 생활공동체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2(1), 95-119.
이현송(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주우심으로. 한국사회학 31집 여름호, 269-301.
이희연·노승철·최은(2011).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 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46(4), 481-501.
임유진·박미현(2018). 1인가구 중년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4(1), 187-206.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장경섭(2017). 가족주의, 개인화, 압축근성. 이정덕 외 (편), 한국의 압축근대 생활세계 76-88. 서울: 지식과 교양.
장민선(2015).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7(2), 1-32.
정순희·임은정(2014).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1-19.
정혜정·김태현·이동숙(2000).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49-70.
조에스더·안세윤(2018).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8(5), 265-266.
조주현·김주원(2010). 1인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부 동산학연구, 16(4), 33-52.
주혜진(2017).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현안. 대전세종연구원.
지역농업연구원(2008). 귀농, 귀촌자 실태조사를 통해 본 귀농, 귀촌 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 진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농업연구원 2008 지역과 농업 3호.
차경욱(2006). 남성 일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69.
채철호 외(2018).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지지 및 만성 의학적 질환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24(3), 184-193.
최명규(2001). 농촌지역내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3(2), 39-48.
최영(2008). 독거노인의 경제수준,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103-123.
최태진(200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관계와 그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1), 117-15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159420142(2019.08.12.).
하민정·이혁구(2019).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1(2), 143-174.
한규석·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한준(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2), 67-94.
호정화(2014). 비혼과 1인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35-59.
홍승아 외(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ennett, J., &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pp. 1-47).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Chandler, J., Williams, M., Maconachie, M., Collet, T. and Dodgeon, B. (2004). "Living alone: its place in household formation and change."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9(3), 1-13.

Fengler, A. P., & Jensen, L. (1981). Perceived and objective conditions as predictor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urban and non urban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6), 750-752.

Glasgow, N., & Beale, C. L. (1985). Rural elderly in demographic perspective. Rural Development Perspectives, 2(1), 22-26.

Gram-Hanssen, K., Scherg, R. H., & Christensen, R. S. (2009). One-person households–a growing challenge for sustainability and housing policy. In ENHR, European Housing Research Network Conference'09.

Hall, R. and Ogden, P. (2003). "The Rise of Living Alone in Inner London Trends among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5(5): 871-888.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sychological and Cognitive Science, 107(38), 347-367.

Koesoebjono, S. (1984). "Trends of one-person households in Netherlands, 1960-1981: a demographic analysis." Population and Family in the Low Countries, IV. Voorburg, Netherlands: 101-133.

Meeberg, G. A. (1993). Quality of lif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1), 32-38.

Ogden, P. and Hall, R., (2000). "Households, reurbanization and the rise of living alone in the principal French cities, 1975-90." Urban Studies 37(2), 367-390.

Routasalo, P. E., Savikko, N., Tilvis, R. S., Strandberg, T. E., & Pitkälä, K. H. (2006). Social contacts and their relationship to loneliness among aged people-a population-based study. Gerontology, 52(3), 181-187.

Triandis, H. C. and M. J. Gelfand.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18-128.

Veenhoven, Ruut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33-45.

Witte, J. and Lahmann, (1988),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one-person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3(1), 31-42.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 WHOQOL Study Protocol. WHO(MAN/PSF93.9). WHO, Geneva.

Wulff, M. (2001). "Growth and change in one person households: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Urban Policy and Research 19(4), 467-489.

Yamashita, K., Iijima, K., & Kobayashi, S. (1999). Relationship amo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apath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a rural town. Gerontology, 45(5), 279-282.

Yeung, W. J. J., & Cheung, A. K. L. (2015). Living alone: One-person households in Asia. Demographic research, 32, 1099-1112.

# 부표

# 부표_ 범주형 응답 교차분석표

## 1) 응답자 특성별 교차표

(단위: 명, %)

성별 * 학력 교차표

| | | | 학력 | | | 전체 |
|---|---|---|---|---|---|---|
| | |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이상 | |
| 성별 | 남성 | 빈도 | 45 | 85 | 68 | 198 |
| | | % | *22.7%* | *42.9%* | *34.3%* | *100.0%* |
| | 여성 | 빈도 | 71 | 85 | 81 | 237 |
| | | % | *29.9* | *35.9%* | *34.2%* | *100.0%* |

(단위: 명, %)

성별 * 혼인상태 교차표

| | | | 혼인 | | | | 전체 |
|---|---|---|---|---|---|---|---|
| | | | 기혼 | 미혼 | 이혼/별거 | 사별 | |
| 성별 | 남성 | 빈도 | 32 | 82 | 62 | 26 | 202 |
| | | % | *15.8%* | *40.6%* | *30.7%* | *12.9%* | *100.0%* |
| | 여성 | 빈도 | 24 | 79 | 69 | 65 | 237 |
| | | % | *10.1%* | *33.3%* | *29.1%* | *27.4%* | *100.0%* |

(단위: 명, %)

연령범주 * 혼인상태 교차표

| | | 혼인상태 | | | | 전체 |
|---|---|---|---|---|---|---|
| | | 기혼 | 미혼 | 이혼/별거 | 사별 | |
| 2030대 | 빈도 | 7 | 118 | 25 | 0 | 150 |
| | % | *4.7%* | *78.7%* | *16.7%* | *.0%* | *100.0%* |
| 4050대 | 빈도 | 39 | 42 | 86 | 22 | 189 |
| | % | *20.6%* | *22.2%* | *45.5%* | *11.6%* | *100.0%* |
| 60대 | 빈도 | 10 | 1 | 20 | 69 | 100 |
| | % | *10.0%* | *1.0%* | *20.0%* | *69.0%* | *100.0%* |

## 2) 1인가구의 형성

### ❍ [1인가구 형성이유]

(단위: %)

| | | N | 직장/학교 | 이혼/사별 | 부모/형제 사망 | 가족과 사는게 불편 | 기러기 가족, 독립 | 편의/자유를 위해서 | 결혼 안해서 | 기타 |
|---|---|---|---|---|---|---|---|---|---|---|
| 전체 | | 449 | 18.9 | 44.8 | 4.0 | 11.4 | 6.5 | 8.9 | 5.1 | 0.4 |
| 성별 | 남성 | 205 | 21.0 | 36.6 | 5.4 | 12.2 | 7.3 | 10.7 | 6.3 | 0.5 |
| | 여성 | 244 | 17.2 | 51.6 | 2.9 | 10.7 | 5.7 | 7.4 | 4.1 | 0.4 |
| | *X2= 11.385* | | | | | | | | | |
| 연령별 | 2030 | 149 | 35.6 | 12.8 | 3.4 | 22.1 | 3.4 | 15.4 | 6.7 | 0.7 |
| | 4050 | 195 | 14.4 | 49.7 | 6.2 | 6.2 | 9.2 | 7.7 | 6.2 | 0.5 |
| | 60 | 105 | 3.8 | 81.0 | 1.0 | 5.7 | 5.7 | 1.9 | 1.0 | 0.0 |
| | *X2= 153.468**** | | | | | | | | | |

성별: 2셀(12.5%)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4셀(16.7%)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단위: %)

| | | N | 지금처럼 계속 혼자 | 원가족과 함께 | 배우자와 함께 | 친구 등 친한사람 | 주거 공동체 |
|---|---|---|---|---|---|---|---|
| 전체 | | 447 | 27.5 | 17.9 | 32.2 | 8.1 | 14.3 |
| 성별 | 남성 | 204 | 24.0 | 19.1 | 39.2 | 7.4 | 10.3 |
| | 여성 | 243 | 30.5 | 16.9 | 26.3 | 8.6 | 17.7 |
| | *X2= 12.161*** | | | | | | |
| 연령별 | 2030 | 149 | 29.5 | 7.4 | 43.6 | 8.1 | 11.4 |
| | 4050 | 195 | 27.2 | 21.0 | 30.8 | 7.2 | 13.8 |
| | 60 | 103 | 25.2 | 27.2 | 18.4 | 9.7 | 19.4 |
| | *X2= 31.181**** | | | | | | |

성별: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3)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

#### ❍ [병원방문 빈도]

(단위: %)

| | | N | 안간다 | 간다 | | |
|---|---|---|---|---|---|---|
| | | | | 월 1-2회 | 주 1-2회 | 주 3-4회이상 |
| 전체 | | 450 | 47.3 | 34.0 | 13.8 | 4.9 |
| 성별 | 남성 | 205 | 53.2 | 34.6 | 7.8 | 4.4 |
| | 여성 | 245 | 42.4 | 33.5 | 18.8 | 5.3 |
| | | *X2= 12.696*** | | | | |
| 연령별 | 2030 | 150 | 72.7 | 21.3 | 4.0 | 2.0 |
| | 4050 | 195 | 49.7 | 39.0 | 8.7 | 2.6 |
| | 60 | 105 | 6.7 | 42.9 | 37.1 | 13.3 |
| | | *X2= 143.852**** | | | | |

성별: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 [도구적 지지]

(단위: %, 명)

| | | N | 없음 | 있음 | ⇨ 있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 | | | | | |
|---|---|---|---|---|---|---|---|---|---|---|
| | | | | | 가족 | 친구 | 이웃 | 정부지원 도우미 | 종교기관 동호회원 | 기타 |
| 전체 | | 450 | 33.6 | 66.4 | 41.4 | 37.6 | 11.5 | 2.4 | 5.4 | 1.7 |
| 성별 | 남성 | 205 | 35.6 | 64.4 | 37.4 | 44.3 | 11.5 | 0.8 | 4.6 | 1.5 |
| | 여성 | 245 | 31.8 | 68.2 | 44.5 | 32.3 | 11.6 | 3.7 | 6.1 | 1.8 |
| | X2 | | *X2= .713a* | | *X2= 6.579b* | | | | | |
| 연령별 | 2030 | 150 | 28.0 | 72.0 | 37.7 | 52.8 | 1.9 | 1.9 | 4.7 | 0.9 |
| | 4050 | 195 | 34.9 | 65.1 | 41.3 | 39.7 | 7.9 | 3.2 | 5.6 | 2.4 |
| | 60 | 105 | 39.0 | 61.0 | 47.6 | 7.9 | 34.9 | 1.6 | 6.3 | 1.6 |
| | X2 | | *X2= 3.648* | | *X2= 63.736**** | | | | | |

성별a: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성별b: 4셀(33.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a: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b: 7셀(38.9%)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구급약품 접근성]

(단위: %)

| | | 구급약 구입용이성 | | | ⟾ 쉽게 구할수 없다면, 주로 어디서 구하는지 | | | | | |
|---|---|---|---|---|---|---|---|---|---|---|
| | | N | 쉽게 구함 | 어려움 | N | 가족 | 친구 | 이웃 | 종교기관 동호회원 | 기타 |
| 전체 | | 450 | 68.0 | 32.0 | 450 | 16.3 | 29.8 | 22.0 | 8.5 | 23.4 |
| 성별 | 남성 | 205 | 67.8 | 32.2 | 60 | 11.7 | 30.0 | 21.7 | 6.7 | 30.0 |
| | 여성 | 245 | 68.2 | 31.8 | 81 | 19.8 | 29.6 | 22.2 | 9.9 | 18.5 |
| | X2 | | *X2= .007a* | | | *X2= 3.747b* | | | | |
| 연령별 | 2030 | 150 | 72.7 | 27.3 | 40 | 27.5 | 37.5 | 7.5 | 5.0 | 22.5 |
| | 4050 | 195 | 69.7 | 30.3 | 60 | 13.3 | 36.7 | 15.0 | 8.3 | 26.7 |
| | 60 | 105 | 58.1 | 41.9 | 41 | 9.8 | 12.2 | 46.3 | 12.2 | 19.5 |
| | X2 | | *X2= 6.508a** | | | *X2= 28.487b**** | | | | |

성별a: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성별b: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a: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b: 2셀(13.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4)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 [고민상담]

(단위: %)

| | N | 고민상담 대상 유·무 | | 주된 고민상담 대상 | | | | | | | | |
|---|---|---|---|---|---|---|---|---|---|---|---|---|
| | | 없음 | 있음 | 부모 | 형제·자매 | 자녀 | 친구/선후배 | 직장 동료 | 이웃 | 사회복지사 | 성직자 | 없음 |
| 전체 | 450 | 18.7 | 81.3 | 9.3 | 14.7 | 7.3 | 40.0 | 6.2 | 8.9 | 2.2 | 3.8 | 6.2 |
| 남성 | 205 | 21.0 | 79.0 | 7.8 | 12.2 | 4.4 | 51.2 | 5.9 | 2.9 | 2.0 | 3.4 | 8.3 |
| 여성 | 245 | 16.7 | 83.3 | 10.6 | 16.7 | 9.8 | 30.6 | 6.5 | 13.9 | 2.4 | 4.1 | 4.5 |
| | | *X2= 1.322a* | | *X2= 37.875b**** | | | | | | | | |
| 2030 | 150 | 12.7 | 87.3 | 21.3 | 15.3 | 0.0 | 45.3 | 8.0 | 0.7 | 0.7 | 3.3 | 4.7 |
| 4050 | 195 | 19.0 | 81.0 | 5.1 | 16.9 | 6.2 | 44.6 | 8.2 | 4.1 | 2.6 | 3.6 | 6.7 |
| 60 | 105 | 26.7 | 73.3 | 0.0 | 9.5 | 20.0 | 23.8 | 0.0 | 29.5 | 3.8 | 4.8 | 7.6 |
| | | *X2= 7.995a** | | *X2= 163.476b**** | | | | | | | | |

성별a: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성별b: 3셀(15.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a: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b: 7셀(23.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 [가족돌봄]

(단위: %)

| | | N | 하지 않음 | 가끔 | 거의매일 |
|---|---|---|---|---|---|
| 전체 | | 450 | 51.8 | 43.8 | 4.4 |
| 성별 | 남성 | 205 | 49.3 | 45.9 | 4.9 |
| | 여성 | 245 | 53.9 | 42.0 | 4.1 |
| | | *X2= .988* | | | |
| 연령별 | 2030 | 150 | 64.0 | 32.0 | 4.0 |
| | 4050 | 195 | 34.9 | 60.5 | 4.6 |
| | 60 | 105 | 65.7 | 29.5 | 4.8 |
| | | *X2= 41.234**** | | | |

성별: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1셀(11.1%)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고용형태]

(단위: %)

| | | N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 전체 | | 405 | 30.4 | 22.7 | 17.0 | 3.0 | 22.7 | 4.2 |
| 성별 | 남성 | 198 | 29.8 | 12.6 | 20.2 | 3.0 | 30.3 | 4.0 |
| | 여성 | 207 | 30.9 | 32.4 | 14.0 | 2.9 | 15.5 | 4.3 |
| | | *X2= 29.526**** | | | | | | |
| 연령별 | 2030 | 141 | 46.8 | 29.1 | 9.9 | 2.1 | 9.9 | 2.1 |
| | 4050 | 190 | 28.9 | 22.1 | 18.4 | 3.7 | 25.8 | 1.1 |
| | 60 | 74 | 2.7 | 12.2 | 27.0 | 2.7 | 39.2 | 16.2 |
| | | *X2= 98.069**** | | | | | | |

성별: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3셀(16.7%)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음
③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④ 나이가 너무 많아서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⑥ 구직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⑦ 자격증취득, 혹은 취업교육을 받고 있어서 ⑧ 경력단절로 인해
⑨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서 ⑩ 기타

| | | N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전체 | | 46 | 4.3 | 0.0 | 6.5 | 41.3 | 21.7 | 6.5 | 8.7 | 4.3 | 2.2 | 4.3 |
| 성별 | 남성 | 8 | 0.0 | 0.0 | 12.5 | 50.0 | 12.5 | 0.0 | 12.5 | 0.0 | 12.5 | 0.0 |
| | 여성 | 38 | 5.3 | 0.0 | 5.3 | 39.5 | 23.7 | 7.9 | 7.9 | 5.3 | 0.0 | 5.3 |
| | | *X2= 7.894* | | | | | | | | | | |
| 연령별 | 2030 | 8 | 25.0 | 0.0 | 0.0 | 0.0 | 0.0 | 12.5 | 50.0 | 0.0 | 0.0 | 12.5 |
| | 4050 | 7 | 0.0 | 0.0 | 14.3 | 14.3 | 28.6 | 14.3 | 0.0 | 0.0 | 14.3 | 14.3 |
| | 60 | 31 | 0.0 | 0.0 | 6.5 | 58.1 | 25.8 | 3.2 | 0.0 | 6.5 | 0.0 | 0.0 |
| | | *X2= 50.746**** | | | | | | | | | | |

성별: 16셀(88.9%)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25셀(92.6%)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월평균 소득]**

(단위: %)

| | | N | 50만원 미만 | 50~99 만원 | 100~199 만원 | 200~29 9만원 | 300~399 만원 | 400만원 이상 |
|---|---|---|---|---|---|---|---|---|
| 전체 | | 409 | 6.4 | 12.5 | 23.0 | 28.9 | 17.4 | 12.0 |
| 성별 | 남성 | 198 | 2.5 | 11.1 | 14.1 | 35.9 | 22.7 | 13.6 |
| | 여성 | 211 | 10.0 | 13.7 | 31.3 | 22.3 | 12.3 | 10.4 |
| | *X2= 36.268**** | | | | | | | |
| 연령별 | 2030 | 143 | 1.4 | 8.4 | 28.7 | 35.0 | 12.6 | 14.0 |
| | 4050 | 190 | 3.2 | 6.8 | 22.1 | 30.5 | 23.2 | 14.2 |
| | 60 | 76 | 23.7 | 34.2 | 14.5 | 13.2 | 11.8 | 2.6 |
| | *X2= 106.723**** | | | | | | | |

성별: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1셀(5.6%)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월평균 지출]**

(단위: %)

| | | N | 50만원 미만 | 50~99 만원 | 100~ 149 | 150~ 199 | 200~ 249 | 250~ 299 | 300만원 이상 |
|---|---|---|---|---|---|---|---|---|---|
| 전체 | | 449 | 14.7 | 30.7 | 23.8 | 8.5 | 4.7 | 6.0 | 11.6 |
| 성별 | 남성 | 205 | 7.3 | 30.2 | 26.8 | 10.2 | 4.9 | 6.8 | 13.7 |
| | 여성 | 244 | 20.9 | 31.1 | 21.3 | 7.0 | 4.5 | 5.3 | 9.8 |
| | *X2= 18.708*** | | | | | | | | |
| 연령별 | 2030 | 150 | 8.7 | 38.0 | 24.0 | 9.3 | 2.0 | 3.3 | 14.7 |
| | 4050 | 194 | 4.1 | 24.7 | 29.4 | 9.3 | 8.8 | 9.3 | 14.4 |
| | 60 | 105 | 42.9 | 31.4 | 13.3 | 5.7 | 1.0 | 3.8 | 1.9 |
| | *X2= 118.060**** | | | | | | | | |

성별: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1셀(4.8%)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 | | N | 근로소득 | 가족지원 (자녀, 배우자 등) | 저축 | 친구에게 빌림 | 정부지원 (기초생활/ 실업급여 등) | 기타 |
|---|---|---|---|---|---|---|---|---|
| 전체 | | 449 | 80.6 | 10.0 | 3.3 | 0.4 | 4.7 | 0.9 |
| 성별 | 남성 | 204 | 90.7 | 2.9 | 1.5 | 0.5 | 3.4 | 1.0 |
| | 여성 | 245 | 72.2 | 15.9 | 4.9 | 0.4 | 5.7 | 0.8 |
| | *X2= 28.605**** | | | | | | | |
| 연령별 | 2030 | 150 | 88.7 | 10.0 | 0.0 | 0.7 | 0.7 | 0.0 |
| | 4050 | 194 | 90.7 | 3.6 | 1.5 | 0.5 | 2.6 | 1.0 |
| | 60 | 105 | 50.5 | 21.9 | 11.4 | 0.0 | 14.3 | 1.9 |
| | *X2= 96.648**** | | | | | | | |

성별: 4셀(33.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8셀(44.4%)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5) 여가활동

### ❍ [여가를 함께하는 대상]

(단위: %)

| | | N | 가족 | 친구 | 이웃 | 직장동료 | 혼자 | 동호회 | 기타 |
|---|---|---|---|---|---|---|---|---|---|
| 전체 | | 449 | 6.9 | 44.1 | 21.2 | 6.7 | 10.9 | 9.6 | 0.7 |
| 성별 | 남성 | 204 | 5.4 | 43.6 | 13.7 | 9.8 | 13.2 | 13.7 | 0.5 |
| | 여성 | 245 | 8.2 | 44.5 | 27.3 | 4.1 | 9.0 | 6.1 | 0.8 |
| | *X2= 25.217**** | | | | | | | | |
| 연령별 | 2030 | 149 | 6.7 | 65.8 | 2.0 | 7.4 | 7.4 | 10.1 | 0.7 |
| | 4050 | 195 | 9.7 | 43.6 | 12.8 | 8.7 | 13.3 | 11.3 | 0.5 |
| | 60 | 105 | 1.9 | 14.3 | 63.8 | 1.9 | 11.4 | 5.7 | 1.0 |
| | *X2= 175.770**** | | | | | | | | |

성별: 2셀(14.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3셀(14.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6) 생활 및 주거환경

### ❍ [주택 점유형태]

(단위: %)

| | | N | 자가 | 전세 | 월세 (보증금有) | 사글세 (보증금無) | 무상(관사, 친척집 등) |
|---|---|---|---|---|---|---|---|
| 전체 | | 449 | 52.3 | 17.4 | 19.4 | 7.3 | 3.6 |
| 성별 | 남성 | 204 | 56.4 | 16.2 | 17.2 | 5.4 | 4.9 |
| | 여성 | 245 | 49.0 | 18.4 | 21.2 | 9.0 | 2.4 |
| | *X2= 6.249* | | | | | | |
| 연령별 | 2030 | 150 | 24.0 | 24.7 | 38.0 | 12.0 | 1.3 |
| | 4050 | 194 | 58.8 | 18.0 | 13.4 | 5.2 | 4.6 |
| | 60 | 105 | 81.0 | 5.7 | 3.8 | 4.8 | 4.8 |
| | *X2= 107.174**** | | | | | | |

성별: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1셀(6.7%)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 [주택유형]

(단위: %)

| | | N | 단독주택 | 연립/다세대 | 아파트 | 오피스텔 | 여관/여인숙 |
|---|---|---|---|---|---|---|---|
| 전체 | | 448 | 54.9 | 23.9 | 17.0 | 3.3 | 0.9 |
| 성별 | 남성 | 203 | 58.1 | 22.7 | 15.8 | 2.0 | 1.5 |
| | 여성 | 245 | 52.2 | 24.5 | 18.0 | 4.5 | 0.4 |
| | *X2= 5.528* | | | | | | |
| 연령별 | 2030 | 149 | 32.9 | 38.3 | 21.5 | 5.4 | 1.3 |
| | 4050 | 194 | 56.2 | 21.1 | 19.1 | 2.6 | 1.0 |
| | 60 | 105 | 83.8 | 7.6 | 6.7 | 1.9 | 0.0 |
| | *X2= 69.544**** | | | | | | |

성별: 4셀(33.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8셀(44.4%)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단위: %)

| | | N | 어려운 점 | | | | | 어려움 없음 |
|---|---|---|---|---|---|---|---|---|
| | | | 좋은 집 선별하는 정보 부족 | 원하는 위치에 매물 부족 | 높은 주택비용 |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 | 기타 | |
| 전체 | | 444 | 9.5 | 10.4 | 44.8 | 11.5 | 0.9 | 23.0 |
| 성별 | 남성 | 201 | 6.0 | 16.9 | 36.3 | 13.4 | 0.0 | 27.4 |
| | 여성 | 243 | 12.3 | 4.9 | 51.9 | 9.9 | 1.6 | 19.3 |
| | *X2= 33.482**** | | | | | | | |
| 연령별 | 2030 | 150 | 11.3 | 11.3 | 50.7 | 16.0 | 0.0 | 10.7 |
| | 4050 | 193 | 10.4 | 9.8 | 44.0 | 9.3 | 1.6 | 24.9 |
| | 60 | 101 | 5.0 | 9.9 | 37.6 | 8.9 | 1.0 | 37.6 |
| | *X2= 31.369**** | | | | | | | |

성별: 3셀(16.7%)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5셀(16.7%)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 [안전한 거주환경을 위해 필요한 점]

(단위: %)

| | | N | 가로등 | 응급전화/벨 | 안전귀가서비스 | 자율방범활동 | 기타 |
|---|---|---|---|---|---|---|---|
| 전체 | | 449 | 29.2 | 16.5 | 24.3 | 29.0 | 1.1 |
| 성별 | 남성 | 204 | 30.4 | 17.2 | 21.1 | 29.9 | 1.5 |
| | 여성 | 245 | 28.2 | 15.9 | 26.9 | 28.2 | 0.8 |
| | *X2= 2.412* | | | | | | |
| 연령별 | 2030 | 150 | 34.7 | 10.7 | 27.3 | 26.0 | 1.3 |
| | 4050 | 194 | 27.8 | 13.9 | 21.1 | 35.6 | 1.5 |
| | 60 | 105 | 23.8 | 29.5 | 25.7 | 21.0 | 0.0 |
| | *X2= 26.115**** | | | | | | |

성별: 2셀(2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3셀(2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 [공동주택에 대한 생각]

(단위: %)

| | | N | 거주 의향 없음 | 침실 따로, 욕실·화장실/부엌 등 공유 | 욕실·화장실 따로, 부엌/거실 등 공유 | 오피스텔 형태로 1층 친교/운동을 위한 공간 | 주택 소유한 어르신과 청·장년이 함께 | 여성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 |
|---|---|---|---|---|---|---|---|---|
| 전체 | | 449 | 28.7 | 3.8 | 6.9 | 32.7 | 12.7 | 13.8 |
| 성별 | 남성 | 204 | 32.4 | 2.9 | 6.4 | 35.8 | 18.1 | 2.0 |
| | 여성 | 245 | 25.7 | 4.5 | 7.3 | 30.2 | 8.2 | 23.7 |
| | | *X2= 53.828* | | | | | | |
| 연령별 | 2030 | 150 | 33.3 | 5.3 | 7.3 | 40.0 | 4.7 | 9.3 |
| | 4050 | 194 | 29.4 | 3.1 | 7.2 | 35.1 | 11.9 | 11.3 |
| | 60 | 105 | 21.0 | 2.9 | 5.7 | 18.1 | 25.7 | 24.8 |
| | | *X2= 51.593**** | | | | | | |

성별: 2셀(14.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 4셀(19.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 [범죄취약성 및 예방교육]

(단위: %)

| | | 상대적 범죄취약성 | | | | 범죄예방 및 대처 교육 욕구 | | |
|---|---|---|---|---|---|---|---|---|
| | | N | 여성 1인가구 | 남성 1인가구 | 1인가구 모두 | N | 원함 | 원하지 않음 |
| 전체 | | 449 | 60.1 | 2.2 | 37.6 | 439 | 51.0 | 49.0 |
| 성별 | 남성 | 204 | 57.8 | 3.4 | 38.7 | 199 | 48.2 | 51.8 |
| | 여성 | 245 | 62.0 | 1.2 | 36.7 | 240 | 53.3 | 46.7 |
| | | *X2= 2.878a* | | | | *X2= 1.129b* | | |
| 연령별 | 2030 | 150 | 64.7 | 0.7 | 34.7 | 145 | 49.7 | 50.3 |
| | 4050 | 194 | 55.2 | 4.1 | 40.7 | 191 | 50.8 | 49.2 |
| | 60 | 105 | 62.9 | 1.0 | 36.2 | 103 | 53.4 | 46.6 |
| | | *X2= 7.882a* | | | | *X2= .345b* | | |

성별a: 1셀(16.7%)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성별b: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a: 3셀(33.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연령별b: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부록

# 부록_ 설문지

| jthink 전북연구원 | 전라북도 농촌 청장년 1인가구 실태와 삶의 질 연구 |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북도 농촌 청장년 1인가구 실태와 삶의 질 연구**」를 하고 있는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은 향후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2019년 9월

**<연구 및 조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이수인 ☎ 063-280-7190

공동연구자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최지훈 ☎ 063-280-7159

==========

**※ 해당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 | | |
|---|---|---|---|
| **출생년도** | (  )년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 **성별** | 1) 남성 2) 여성 |
| **최종학력** | 1) 초졸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이상 6) 기타(  ) | | |
| **혼인** | 1)기혼 (현재 배우자 있음) 2)미혼 3)이혼/별거 4)사별 | | |

## Part 1. 1인 가구의 형성원인

**1. 귀하는 혼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개월**

**2. 혼자 생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②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④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⑤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기러기 가족 포함),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⑥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⑦ 결혼을 하지 않아서
⑧ 기타(  )

**3. 귀하는 현재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4. 현재 귀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_**

① 취업, 창업 ② 직장생활 ③ 학업/진학 ④ 건강
⑤ 가족·친구 등 인간관계 ⑥ 연애 ⑦ 여가생활 ⑧ 결혼
⑨ 재테크 ⑩ 내 집 마련 ⑪ 기타(  )

**5. 귀하께서 혼자 생활하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

① 자유로운 의사결정 ② 여가시간 활용 ③ 일 또는 직장에 몰입
④ 자유로운 연애관계 ⑤ 가족(부모/배우자/자녀)에 대한 부양부담 완화 ⑥ 기타(  )

**6. 귀하께서 혼자 생활하시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경제적 불안감 ② 외로움
③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④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⑥ 임종에 대한 불안감
⑦ 반려동물 키우기의 어려움 ⑧ 주택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⑨ 기타(  )

**7. 만약 조건이 된다면, 귀하가 앞으로 이루시기 원하는 가구·거주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지금처럼 계속 혼자 ② 원래의 가족과 함께
③ 배우자와 함께 ④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⑤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는 주거공동체 등) ⑥ 기타(  )

## Part 2.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

**8.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항목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그저 그렇다 | 만족 | 매우 만족 |
|---|---|---|---|---|---|
| 1) 건강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가족의 수입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현재의 거주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가족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직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사회적 친분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여가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9. 귀하는 <u>지난 6개월간</u> 자살 관련한 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항목 | 전혀 경험 없음 | 경험 없음 | 가끔 경험 | 자주 경험 | 매우 자주 경험 |
|---|---|---|---|---|---|
| 1)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죽었으면 하고 바라거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자해하고 싶은적이 있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귀하는 <u>지난 1개월간</u> 다음 사항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 항목 | 전혀 경험없음 | 경험없음 | 가끔경험 | 자주경험 | 매우 자주경험 |
|---|---|---|---|---|---|
| 1) 잠들기 어렵거나, 너무 많이 잠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피곤감, 기력저하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식욕저하/과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일에 흥미없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가라앉은 느낌/우울감/절망감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신문, TV 집중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실패자라는 느낌, 나 때문에 가족이 불행하다는 느낌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귀하는 질병이나 신체적 이유로 얼마나 자주 병원에 방문하십니까?**

① 안한다 ② 월 1-2회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기의 매일

**12. 귀하는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분이 계십니까? ① 없음 ② 있음( 명)**

**12-1.** (문12에서 ②번 선택시)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가족 ② 친구 ③ 이웃 ④ 정부지원 도우미 ⑤ 종교기관/동호회 등 회원 ⑥ 기타( )

**13. 야간 응급상황 시, 구급약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13-1.** (문13에서 ②번 선택시) **구급약품을 주로 어디서 구하십니까?**

① 가족 ② 친구 ③ 이웃 ④ 종교기관 등 단체 ⑤ 기타( )

## Part 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14. 귀하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질문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가족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부모와 자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의 의사결정에서 내 가족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다른 사람과 틀려도 자주 내 방식대로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자신에 의존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타인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는 분발하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본인의 문제,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명)**

**16. 귀하는 평소 고민이 있으면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1개 선택*)**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자녀
④ 친구와 선후배 ⑤ 직장동료 ⑥ 이웃
⑦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⑧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⑨ 기타 ( )
⑩ 없음

**17. 귀하께서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 및 빈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항목 | | 월 4회이상 | 월 1회이상 | 월 1회미만 | 없음 | 해당없음 |
|---|---|---|---|---|---|---|
| 직접 만남 | 부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형제·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친구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화 (문자) 연락 | 부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형제·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친구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귀하는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을 돌보는 역할(양육, 간병, 가사 등)을 하십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가끔 한다 ③ 거의 매일 한다

**18-1. (문18에서 ②,③ 선택 시) 귀하가 돌보는 가족은 누구인지 모두 고르세요.**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손자녀 ⑤ 자녀 ⑥ 기타 ( )

**19. 귀하에게 이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20. 귀하는 거주지의 마을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연 1~2회 ③ 연 3~6회 ④ 월 1회 가량 ⑤ 주 1~2회 이상

**21. 귀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바라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친목도모 ② 위급시 도움받을 네트워크 구축 ③ 지역 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증대
④ 봉사활동 ⑤ 경제적 이익 ⑥ 지역 사회운동의 일환
⑦ 기타 ( )

**22. 귀하가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음 ② 참여할 시간이 없음 ③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음
④ 사람들과의 가치관이나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때문 ⑤ 생활방식의 차이 때문
⑥ 기타 ( ) ⑦ 현재 참여하고 있음

**23. 귀하의 이웃에 대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질문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이웃과 관계없는 독립된 사생활을 유지하면 좋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택배수령과 같은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받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이웃을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잦은 왕래를 갖고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귀하께서 지난 1년간 활동하셨던 사회단체나 모임은 어떤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동창회(동창모임)
② 지역사회모임(반상회/부녀회/청년회/계모임 등)
③ 여가모임(취미 및 스포츠 등)
④ 정치단체
⑤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⑥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⑦ 종교단체
⑧ 기타(　　)
⑨ 활동하는 모임이 없음

**25. 귀하는 자신의 노후를 염려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염려되지 않음　② 염려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염려됨　⑤ 매우 염려됨

**26. 귀하는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저축
② 보험/연금
③ 가족관계
④ 친구관계
⑤ 신체적 건강
⑥ 안정된 거주
⑦ 기타(　　)

## Part 4. 경제활동

**27.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직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
⑩ 자영업
⑪ 학생
⑫ 기타(　　)
⑬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문29 로 이동*

**28. 귀하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사업체)에서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상용직(1년 이상 계약, 정규직)
② 임시직(1개월~1년 미만 계약)
③ 일용직(일당 받음)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 종사자(가족사업 종사)

**29. 귀하가 현재 <u>일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u>는 무엇입니까?**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어서
③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④ 나이가 너무 많아서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⑥ 구직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⑦ 학업이나 자격증취득, 혹은 취업교육을 받느라고
⑧ 경력단절로 인해
⑨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서
⑩ 기타(　　)

**30. 귀하의 <u>최근 6개월간</u>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소득없음
② 50만원 미만
③ 50~100만원
④ 100~200만원
⑤ 200~300만원
⑥ 300~400만원
⑦ 400~600만원
⑧ 600만원 이상

**31. 귀하의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생활비(주거비 비포함)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③ 100~150만원 ④ 150~200만원
⑤ 200~250만원 ⑥ 250~300만원 ⑦ 300만원 이상

**32. 귀하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 | |
|---|---|
| ① 월평균 저축액(예금, 보험 등)<br>③ 여가생활비(공연/영화, 여행/레저, 취미활동비)<br>⑤ 교제 및 사교비(친구모임, 술값, 경조사비 등)<br>⑦ 주거비 (전기, 수도, 가스 요금 포함) | ② 식비 (외식, 간식, 음료 등)<br>④ 자기개발비(운동,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br>⑥ 가족 부양비(생활비, 용돈,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
|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2개 선택** | **1순위:_____, 2순위:_____** |
| **가장 적게 지출하는 항목 2개 선택** | **1순위:_____, 2순위:_____** |

**33. 귀하는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1개 응답*)**

① 본인의 근로소득 ② 부모 형제의 도움 ③ 자녀로부터의 지원 ④ 저축(예금 포함)
⑤ 친구로부터 빌림 ⑥ 기초생활보장급여 ⑦ 실업급여 ⑧ 배우자의 지원
⑨ 애인의 지원 ⑩ 은행이나 카드 대출 ⑪ 부동산 임대소득(월세 등) ⑫ 기타( )

**34. 귀하는 스스로가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하층 ④ 하층 ⑤ 극빈층

**35. 귀하의 어린시절(초중시기, 8-15세 사이) 부모님의 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하층 ④ 하층 ⑤ 극빈층

## Part 5. 여가활동

**36.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내십니까?**

① 가족 ② 친구 ③ 이웃 ④ 직장동료 ⑤ 혼자 ⑥ 동호회 등 단체회원 ⑦ 기타( )

**37. 귀하께서는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가생활은 소득을 목적으로 한 근로와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한 개인시간을 말합니다(수면 제외).

① 매우 부족함 ② 부족함 ③ 보통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37-1. (문37 ① ② ③ 선택 시) 여가활동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일이 너무 바빠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가족(자녀, 손자녀 등)을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④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어서 ⑤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⑥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 ⑦ 함께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⑧ 하기 싫어서/귀찮아서 ⑨ 쉬고 싶어서
⑩ 혼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⑪ 기타( )

**38. 귀하가 앞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학력인정기관/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특수대학원포함)
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취미관련 교육 ③ 외국어, 인문교양 관련 교육
④ 직업 훈련 ⑤ 노후설계 교육(노후설계, 직업설계 등)
⑥ 시민활동 교육(자원봉사교육 포함) ⑦ 한글 교육
⑧ 귀농·귀어·귀촌, 농업 관련 교육 ⑨ 컴퓨터 사용 교육
⑩ 건강/보건 관련 교육 ⑪ 종교 관련 교육
⑫ 가정관리 및 음식 관련 교육 ⑬ 기타 ( )

## Part 6. 생활 및 주거환경

**39.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사글세(보증금 없는 월세) ⑤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⑥ 기타( )

**40. 현재 귀하가 살고계신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연립/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오피스텔 ⑤ 여관/여인숙 ⑥ 기타( )

**41. 현재의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 비용이 저렴해서
③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 부모.자녀.친지·친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⑤ 거주지역 환경이(CCTV, 방범창, 파출소와의 거리 등)이 안전해서
⑥ 주거환경(주거면적, 냉/난방, 방음, 거주 층 수 등)이 좋아서
⑦ 교통이 편리해서 ⑧ 여가·교육·문화 등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⑨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⑩ 기타 ( )

**42. 귀하가 주택을 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개 응답*)**

① 좋은 집(냉.난방, 방음 등)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 부족 ②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③ 너무 높은 주택비용 ④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⑤ 기타 ( ) ⑥ 어려움 없음

**43. 귀하는 마을의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44. 귀하는 마을의 안전 서비스(응급전화,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45. 귀하는 안전한 거주환경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로등 ② 응급전화/응급벨 ③ 안전귀가 서비스 ④ 자율방범활동강화 ⑤ 기타 ( )

**46.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변 환경은 어느 정도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 매우 불안 | 불안 | 보통 | 안전 | 매우 안전 |
|---|---|---|---|---|---|
| 1) 주변지역의 폭력·범죄(성폭력/강도/상해 등)로부터 안전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주거공간의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주택보안상, 도둑침입에 대한 위험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47. 1인가구들이 모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어떤 유형의 공동주택을 선호하십니까?**

① 1인가구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살 의향이 없음
② 침실은 따로 사용하지만 화장실, 욕실,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주택
③ 방에는 욕실·화장실이 따로 있지만, 부엌/거실 등은 공유하는 주택
④ 원룸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는 친교 및 운동, 여가를 위한 공동공간이 있는 주택
⑤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청·장년이 함께 사는 주택
⑥ 여성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
⑦ 기타 (  )

**48. 여성 1인가구와 남성 1인가구 중 어느 쪽이 범죄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성 1인가구　② 남성 1인가구　③ 둘 다 위험함

**49. 귀하는 범죄예방 및 대처 등의 교육을 받기 원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오랜 시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조사원이 직접 기록합니다.**

| | | | |
|---|---|---|---|
| **조사원** | | **조사 지역** | (  )시/군 (  )읍/면 (  )리 |
| **조사표 완료 소요시간** | 총  분 | **총방문횟수** | 총  회 |
| **1차방문** |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 | |
| **2차방문** |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 | |

기본연구 2020-01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3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82-0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비매품/무료
93330
ISBN 978-89-6612-282-0